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실태조사

2020년 11월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실태조사

책임연구원 송 미 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우 복 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혜 영 (충청남도 인권센터장)

위촉연구원 윤 이 나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석사수료)

조사협조기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충남하나센터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 양 순

목 차

CONTENTS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실태조사

제1장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실태조사 개요	1
제1절 실태조사의 배경 및 목적	3
1. 추진근거 및 배경	3
2. 실태조사의 목적	6
제2절 과업의 내용 및 추진 체계	6
1. 과업의 내용	6
2. 실태조사의 방법	7
3. 실태조사의 추진 체계	18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주요 정책 분석	21
제1절 연구의 기본적인 관점	23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23
2. 인권에 대한 관점	24
3.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이론적 틀	29
제2절 인구 추이 및 주요정책 분석	34
1.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구 추이 및 전망	34
2. 주요정책 분석	40
3. 시사점	52
제3장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분야별 실태조사 분석	53
제1절 분석 자료의 특성	55
1. 응답자의 남한거주 특성	55
2. 응답자의 북한거주·입국이전 특성	63
제2절 인권분야별 실태조사 결과	73
1. 모성권	73
2. 육아권	76
3. 자녀의 교육권	80

목 차

CONTENTS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실태조사

4.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85
5.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	104
6.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108
7. 노동권	120
8.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상담)	127
9. 건강권	145
10. 성평등 및 인권의식	156
11. 사회인식(사회적 거리감·인권존중도·사회적 관계망)	164
12. 자립지원 정책	170
제4장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분야별 사례조사	173
제1절 연구참여자의 특성	175
제2절 인권분야별 사례조사 결과	176
1. 모성권	176
2. 육아권	176
3. 교육권	177
4.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178
5.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	180
6.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182
7. 노동권	185
8.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86
9. 건강권	187
10. 사회인식 및 차별	188
11. 남한사회 적응 및 결혼	189
12. 정책지원	194
제5장 결 론	197
제1절 조사결과의 인권영역별 함의 및 세부사업 선정 근거	199
1. 조사결과의 인권영역별 함의 및 정책지원 방향	199
2. 세부사업 선정 근거 및 우선 추진 영역	211

제2절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 도출	217
1. 모성권	217
2. 육아권	220
3. 자녀의 교육권	223
4.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228
5.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	231
6.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232
7. 노동권	235
8.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상담)	240
9. 건강권	243
10. 성평등 및 인권의식	248
11. 사회인식(사회적 거리감·인권존중도·사회적 관계망)	252
12. 자립지원 정책	254

◆ 참고문헌

◆ 부록 1 양적 질문지

◆ 부록 2. 질적 질문지

◆ 부록 3. 인터뷰 매트릭스

◆ 부록 4. 주요 회의록

목 차

CONTENTS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실태조사

Ⅰ 표 차례 Ⅰ

【표 1-2-1】 충남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의 체계	7
【표 1-2-2】 양적 조사 및 질적조사 표본 할당 표	8
【표 1-2-3】 인권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9
【표 1-2-4】 충남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 자문단 리스트	12
【표 1-2-5】 착수보고회 의견 반영 결과	13
【표 1-2-6】 1차 중간보고회 의견 반영 결과	14
【표 1-2-7】 2차 중간보고회 의견 반영 결과	15
【표 1-2-8】 최종보고회 의견 반영 결과	17
【표 1-2-9】 실태조사의 추진과정	18
【표 2-1-1】 인권의 범주	26
【표 2-1-2】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내용	27
【표 2-2-1】 연도별 충남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여성 비율 추이	34
【표 2-2-2】 향후 4년간 충남 북한이탈여성 인구 추이	35
【표 2-2-3】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35
【표 2-2-4】 전국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	36
【표 2-2-5】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	38
【표 2-2-6】 충남 성별, 연령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39
【표 2-2-7】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41
【표 2-2-8】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현황	42
【표 2-2-9】 자립관점의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분석	46
【표 2-2-10】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가 및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52
【표 3-1-1】 조사지역과 자료수집방법	55
【표 3-1-2】 응답자의 연령·거주지역·행정구역	56
【표 3-1-3】 응답자의 남한 최종학력	57
【표 3-1-4】 응답자의 직업·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종교	58
【표 3-1-5】 응답자의 혼인상태·남편의 출신국가·가구 소득활동 형태	59
【표 3-1-6】 응답자의 결혼 경험(다중응답)	59
【표 3-1-7】 현재 생활만족도	60
【표 3-1-8】 월평균 가구소득	60
【표 3-1-9】 현재 동거 가족(다중응답)	61
【표 3-1-10】 자녀 수	61
【표 3-1-11】 남한 거주 기간	62
【표 3-1-12】 충남과 시·군 사업의 도움 정도	62

【표 3-1-13】 응답자의 북한에서의 최종학력	63
【표 3-1-14】 북한에서의 직업(다중응답)	64
【표 3-1-15】 북한 출신지역	64
【표 3-1-16】 북한에서 쓰고 있는 도·시·군(2009년)	66
【표 3-1-17】 남한 입국시 동반가족(다중응답)	67
【표 3-1-18】 북한 이탈경로	68
【표 3-1-19】 북한이탈시 경유국가(다중응답)	68
【표 3-1-20】 직행시 경유한 국가의 체류기간	68
【표 3-1-21】 북한이탈시 가장 오래 체류한 국가	69
【표 3-1-22】 북한이탈시 가장 오래 체류한 국가에서의 체류기간	69
【표 3-1-23】 남한에서 원치 않은 결혼 경험 여부	69
【표 3-1-24】 남한 정착 과정에서 사기당한 경험 여부	70
【표 3-1-25】 남한정착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사기 당했는지 여부	70
【표 3-1-26】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	71
【표 3-1-27】 남한 입국을 후회하는 이유(다중응답)	71
【표 3-1-28】 남한 입국시 사용한 브로커 비용	72
【표 3-2-1】 충남도 정착시 태아정기검진 여부와 받지 않은 이유	73
【표 3-2-2】 출산 후 자녀의 필수 예방접종 여부와 받지 못한 이유	74
【표 3-2-3】 선택 예방접종 여부와 하지 않은 이유	75
【표 3-2-4】 분유 구입비용 부담정도	75
【표 3-2-5】 북한이탈경로별 모성권_분유구입비용 부담 정도	76
【표 3-2-6】 시기별 영유아 건강검진 여부와 받지 못한 이유	76
【표 3-2-7】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적응도와 적응 못하는 이유	77
【표 3-2-8】 보육시설 이용 경험 여부와 보육시설 이용시간 후 주 돌봄자	78
【표 3-2-9】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자녀 돌봄자	79
【표 3-2-10】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다중응답분석)	79
【표 3-2-11】 읍면·동별 육아권_초등입학 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 경험 여부	80
【표 3-2-12】 자녀의 재학 여부와 다니지 않는 이유	81
【표 3-2-13】 비재학시 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	81
【표 3-2-14】 자녀의 고민 상담자	82
【표 3-2-15】 학교에서 자녀의 차별, 배제, 따돌림, 소외 경험 여부	83
【표 3-2-16】 자녀가 있는 경우 살고 싶은 지역	83
【표 3-2-17】 자녀가 학교 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	84
【표 3-2-18】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84
【표 3-2-19】 문화생활(영화감상, 등산, 운동 등) 참여수준	85
【표 3-2-20】 주거 형태	86
【표 3-2-21】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주거만족도	86

목 차

CONTENTS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실태조사

【표 3-2-22】 남한 생활의 힘든 점(다중응답분석)	87
【표 3-2-23】 사생활 노출이나 악용된 경험 여부와 대처 방법	88
【표 3-2-24】 보편적인 정보, 정책, 서비스 접근성	89
【표 3-2-25】 사회적 배제 형태별 사회적 배제 수준	90
【표 3-2-26】 읍면·동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문화생활참여도, 주거 만족도, 보편적 정보 접근성 차이	92
【표 3-2-27】 읍면·동별 사회적 배제의 차이	93
【표 3-2-28】 연령대별 사회적 배제의 차이	94
【표 3-2-29】 남한 거주기간별 사회적 배제 차이	95
【표 3-2-30】 가구소득활동 형태별 사회적 배제 차이	96
【표 3-2-31】 남한 최종학력별 사회적 배제 차이	97
【표 3-2-32】 현재 혼인상태별 사회적 배제 차이	99
【표 3-2-33】 북한 최종학력별 문화생활참여도, 주거 만족도, 보편적 정보 접근정도 차이	100
【표 3-2-34】 남편의 출신국가별 문화생활참여도, 주거 만족도, 보편적 정보 접근성 차이	101
【표 3-2-35】 남편의 출신국가별 사회적 배제 차이	102
【표 3-2-36】 북한이탈경로별 문화생활 참여도, 주거 만족도, 보편적 정보 접근성 차이	103
【표 3-2-37】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	104
【표 3-2-38】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간섭받고 있다고 생각	105
【표 3-2-39】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참여 경험 여부	105
【표 3-2-40】 충청남도에서 실질적 의사결정(대표성)에 참여하는 수준	106
【표 3-2-4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표현의 자유 및 정치참여 수준의 차이	106
【표 3-2-42】 가구소득형태별·소득수준별 표현의 자유 및 정치참여 수준의 차이	107
【표 3-2-43】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	108
【표 3-2-44】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	109
【표 3-2-45】 차별을 주장했을 때 직장의 반응	110
【표 3-2-46】 남한출신보다 적은 임금을 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	110
【표 3-2-47】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을 경우 대처(다중응답분석)	111
【표 3-2-48】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112
【표 3-2-49】 남한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다중응답분석)	113
【표 3-2-50】 남한에서 행복하게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114
【표 3-2-51】 남한최종학력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의 평균 차이	115
【표 3-2-52】 북한 최종학력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의 평균 차이	117
【표 3-2-53】 남편 출신국가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의 평균 차이	119
【표 3-2-54】 현재 소득활동 여부	120
【표 3-2-55】 현재 일(직장) 만족도	120
【표 3-2-56】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중응답분석)	121
【표 3-2-5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현재 소득활동 여부	122
【표 3-2-58】 가구소득형태별 현재 소득활동 여부	122

【표 3-2-59】 월평균 소득별, 남한 최종학력별 현재 소득활동 여부	123
【표 3-2-60】 현재 혼인상태별 현재 소득활동 여부	124
【표 3-2-61】 읍면·동별 일자리만족도(직장 내 인간관계) 차이	124
【표 3-2-62】 남한거주기간별, 남한 최종학력별 일자리만족도(교육훈련기회, 일전체) 차이	125
【표 3-2-63】 북한 최종학력별 현재 소득활동 여부	126
【표 3-2-64】 북한 최종학력별 일자리만족도(하는 일, 근로시간, 일 전체) 차이	126
【표 3-2-65】 북한이탈경로별 일자리만족도(복리후생) 차이	127
【표 3-2-66】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학교, 직장, 사회 등의 폭력피해 경험 여부	128
【표 3-2-67】 직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가했던 대상자	128
【표 3-2-68】 가정 내 폭력유형별 폭력 비율	129
【표 3-2-69】 가정폭력의 가장 큰 이유(다중응답분석)	130
【표 3-2-70】 가정폭력 발생시 대응방법	131
【표 3-2-71】 가정폭력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 여부	132
【표 3-2-72】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	132
【표 3-2-73】 현재 혼인상태별 언어적 폭력피해 경험 여부	133
【표 3-2-74】 읍면·동별 가정폭력 발생 횟수 차이	134
【표 3-2-75】 가구소득활동 형태별 가정폭력(성적 폭력) 횟수 차이	134
【표 3-2-76】 남한 최종학력별 가정폭력 횟수 차이	135
【표 3-2-77】 북한이탈경로별 가정폭력 횟수 차이	136
【표 3-2-78】 성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137
【표 3-2-79】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다중응답분석)	138
【표 3-2-80】 읍면·동별 성폭력_음란 전화, 문자, 메일 경험 여부	139
【표 3-2-81】 남한 최종학력별 성폭력_음란 전화, 문자, 메일 경험 여부	139
【표 3-2-82】 노래방 도우미를 하거나 성매매 권유받거나 성매매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139
【표 3-2-83】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지원	140
【표 3-2-84】 가구소득형태별 성매매_아는 탈북여성 중 성매매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141
【표 3-2-85】 월평균 소득별 성매매_아는 탈북여성 중 노래방 도우미나 술집접대부 경험	142
【표 3-2-86】 월평균 소득별 성매매_아는 탈북여성 중 성매매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142
【표 3-2-87】 북한이탈경로별 성매매_아는 탈북여성 중 성매매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143
【표 3-2-88】 폭력피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 인한 상담받은 경험 및 그 도움 정도	143
【표 3-2-89】 폭력과 관련하여 향후 받고 싶은 상담 유형	144
【표 3-2-90】 북한이탈경로별 폭력피해 상담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145
【표 3-2-91】 행복감 · 신체적 건강 · 정신적 건강 상태	145
【표 3-2-92】 지난 1년간 아플 때 주로 이용한 곳	146
【표 3-2-93】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147
【표 3-2-94】 평소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다중응답분석)	148
【표 3-2-9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건강권의 차이	149

목 차

CONTENTS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실태조사

【표 3-2-96】 연령대별 신체적 건강의 차이	149
【표 3-2-97】 남한거주기간별 건강권의 차이	150
【표 3-2-98】 가구소득활동 형태별 건강권의 차이	151
【표 3-2-99】 가구 소득 수준별 건강권의 차이	152
【표 3-2-100】 현재 혼인상태별 건강권의 차이	153
【표 3-2-101】 북한 최종학력별 건강권의 차이	154
【표 3-2-102】 남편의 출신국가별 건강권의 차이	155
【표 3-2-103】 성평등 · 인권의식에 대한 인식도	156
【표 3-2-104】 충남 정착한 후 교육의 필요성	158
【표 3-2-105】 읍면·동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 차이	159
【표 3-2-106】 남한거주기간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 차이	160
【표 3-2-107】 가구 소득 수준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 차이	160
【표 3-2-108】 남한 최종학력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의 차이	161
【표 3-2-109】 읍면·동별 필요한 교육 필요성의 차이	161
【표 3-2-1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필요한 교육의 차이	162
【표 3-2-111】 북한 최종학력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의 차이	163
【표 3-2-112】 남편의 출신국가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의 차이	163
【표 3-2-113】 사회적 거리감_남한 사람들에게 대해 느끼는 거리감의 정도	164
【표 3-2-114】 인권존중도_거주 지역에서 존중되고 있는 정도	165
【표 3-2-115】 사회적 관계망_위험한 상황 발생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166
【표 3-2-116】 남한 주민이 포함된 사모임 참여 경험 여부	167
【표 3-2-117】 남한주민들과의 사모임 참여시 먼저 다가가는 편인지 여부	167
【표 3-2-118】 읍면·동별 사회인식	168
【표 3-2-11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사회인식	168
【표 3-2-120】 가구소득활동 형태별 사회적 거리감	169
【표 3-2-121】 가구소득수준별 사회적 거리감	169
【표 3-2-122】 남한 최종학력별 인권존중도	170
【표 3-2-123】 자조모임 참여 여부	170
【표 3-2-124】 자조모임 활성화 필요성	171
【표 3-2-125】 북한이탈여성의 자립을 위해 충남도가 해야 할 일	171
【표 4-1-1】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일반적 특성	175
【표 5-1-1】 세부사업 총괄표	212
【표 5-1-2】 세부사업 선정 근거	213

Ⅱ 그림 차례 Ⅱ

【그림 1-2-1】 실태조사의 추진과정	19
【그림 2-1-1】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영역별 분석틀	33
【그림 2-2-1】 충남 북한이탈주민 추이	34
【그림 2-2-2】 향후 4년간 북한이탈주민 인구 예측	35
【그림 2-2-3】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추이	36
【그림 2-2-4】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 비율	37
【그림 2-2-5】 전국과 충남의 북한이탈주민 거주 비율 비교	37
【그림 2-2-6】 충남 15개 시·군의 북한이탈여성 거주 비율	38
【그림 2-2-7】 충남 북한이탈주민 성별, 연령별 비율	40
【그림 3-1-1】 응답자의 연령, 거주지역, 행정구역	56
【그림 3-1-2】 응답자의 남한 최종학력	57
【그림 3-1-3】 응답자의 현재의 혼인상태	59
【그림 3-1-4】 현재 생활만족도	60
【그림 3-1-5】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61
【그림 3-1-6】 응답자의 남한 거주기간	62
【그림 3-1-7】 충남·시군 사업의 도움 정도	63
【그림 3-1-8】 응답자의 북한 최종학력	63
【그림 3-1-9】 북한지도(행정구역)	65
【그림 3-1-10】 응답자의 북한 출신지역	67
【그림 3-1-11】 직행시 경유한 국가의 체류 기간	68
【그림 3-1-12】 사기당한 경험 및 누구로부터 사기 당했는지 여부	70
【그림 3-1-13】 남한 입국을 후회하는 이유(다중응답)	71
【그림 3-1-14】 남한 입국시 사용한 브로커 비용	72
【그림 3-2-1】 태아정기검진 여부와 받지 않은 이유	74
【그림 3-2-2】 분유 구입비용 부담정도	75
【그림 3-2-3】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이유	77
【그림 3-2-4】 보육시설 이용 후 주 돌봄자	78
【그림 3-2-5】 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다중응답)	80
【그림 3-2-6】 자녀의 재학 여부와 다니지 않는 이유	81
【그림 3-2-7】 비재학 자녀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	82
【그림 3-2-8】 자녀의 고민 상담자	82
【그림 3-2-9】 자녀가 있는 경우 살고 싶은 지역	83
【그림 3-2-10】 학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84

목 차

CONTENTS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실태조사

【그림 3-2-11】 자녀의 학교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85
【그림 3-2-12】 문화생활 참여수준	85
【그림 3-2-13】 주거 형태	85
【그림 3-2-14】 주거 만족도	86
【그림 3-2-15】 남한 생활의 힘든 점(다중응답분석)	88
【그림 3-2-16】 사생활 침해시 대처방법	89
【그림 3-2-17】 보편적 정보, 정책, 서비스 접근성	89
【그림 3-2-18】 사회적 배제 형태별 사회적 배제 수준	91
【그림 3-2-19】 읍면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주거만족도 차이	92
【그림 3-2-20】 읍면동별 사회적 배제 차이	93
【그림 3-2-21】 연령대별 사회적 배제 차이	95
【그림 3-2-22】 남한 거주기간별 사회적 배제 차이	96
【그림 3-2-23】 가구소득형태별 사회적 배제 차이	97
【그림 3-2-24】 남한 최종학력별 사회적 배제 차이	98
【그림 3-2-25】 현재 혼인상태별 사회적 배제 차이	99
【그림 3-2-26】 북한 최종학력별 문화생활 참여도 차이	100
【그림 3-2-27】 남편의 출신국가별 문화생활 참여도 차이	101
【그림 3-2-28】 남편의 출신국가별 사회적 배제	103
【그림 3-2-29】 북한이탈경로별 주거만족도 차이	103
【그림 3-2-30】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	104
【그림 3-2-31】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간섭받고 있다고 생각	105
【그림 3-2-32】 충청남도에서 실질적 의사결정(대표성) 참여하는 수준	106
【그림 3-2-3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수준의 차이	107
【그림 3-2-34】 가구소득형태별·소득수준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 차이	108
【그림 3-2-35】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	109
【그림 3-2-36】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	109
【그림 3-2-37】 차별을 주장했을 때 직장의 반응	110
【그림 3-2-38】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을 경우 대처(다중응답분석)	111
【그림 3-2-39】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112
【그림 3-2-40】 남한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다중응답분석)	113
【그림 3-2-41】 남한에서 행복하게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114
【그림 3-2-42】 남한 최종학력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의 평균 차이	116
【그림 3-2-43】 북한 최종학력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의 평균 차이	118
【그림 3-2-44】 남편의 출신국가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의 평균차이	119
【그림 3-2-45】 현재 직장 만족도	121
【그림 3-2-46】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다중응답분석)	122
【그림 3-2-47】 남한거주기간별 교육훈련기회에 대한 만족도 차이	125

【그림 3-2-48】 북한 최종학력별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 차이	127
【그림 3-2-49】 직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한 대상	128
【그림 3-2-50】 가정내 폭력유형별 ‘있음’ 비율	130
【그림 3-2-51】 가정폭력의 가장 큰 이유(다중응답분석)	130
【그림 3-2-52】 가정폭력 발생시 대응방법	131
【그림 3-2-53】 가정폭력감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	133
【그림 3-2-54】 읍면·동별 가정폭력 발생횟수 차이	134
【그림 3-2-55】 남한 최종학력별 성적 폭력 횟수 차이	135
【그림 3-2-56】 북한이탈경로별 경제적 폭력 횟수 차이	136
【그림 3-2-57】 성폭력 유형별 피해경험 ‘있음’ 비율	137
【그림 3-2-58】 성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다중응답분석)	138
【그림 3-2-59】 노래방 도우미를 하거나 성매매 권유받거나 성매매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140
【그림 3-2-60】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지원	141
【그림 3-2-61】 폭력피해로 인한 상담 경험 및 그 도움 정도	144
【그림 3-2-62】 폭력과 관련하여 향후 받고 싶은 상담 유형	144
【그림 3-2-63】 행복감·신체적 건강·정신적 건강 상태	145
【그림 3-2-64】 지난 1년간 아플 때 주로 이용한 곳	146
【그림 3-2-65】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147
【그림 3-2-66】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다중응답분석)	148
【그림 3-2-6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건강상태 차이	149
【그림 3-2-68】 연령대별 신체적 건강의 차이	150
【그림 3-2-69】 남한 거주기간별 신체적 건강의 차이	151
【그림 3-2-70】 가구소득형태별 건강권의 차이	152
【그림 3-2-71】 가구소득수준별 건강권의 차이	153
【그림 3-2-72】 현재 혼인상태별 건강상태의 차이	154
【그림 3-2-73】 북한 최종학력별 신체적 건강의 차이	155
【그림 3-2-74】 남편의 출신국가별 행복감의 차이	156
【그림 3-2-75】 성평등 및 인권의식에 대한 동의 정도	157
【그림 3-2-76】 읍면·동별 필요한 교육의 차이	162
【그림 3-2-77】 남편의 출신국가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의 차이	164
【그림 3-2-78】 사회적 거리감_남한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의 정도	165
【그림 3-2-79】 인권존중도_거주 지역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 정도	165
【그림 3-2-80】 사회적 관계망_위험한 상황 발생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166
【그림 3-2-81】 사모임 참여시 먼저 다가가는 편인지 여부	167
【그림 3-2-82】 읍면·동별 인권존중도	168
【그림 3-2-8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사회적 거리감	169
【그림 3-2-84】 가구소득수준별 사회적 거리감	170

목 차

CONTENTS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실태조사

【그림 3-2-85】 자조모임 참여 활성화 필요성	171
【그림 5-1-1】 추진과제 사업 구분	212
【그림 5-1-2】 인권영역별 추진과제	212

제 1 장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실태조사 개요

제1절 실태조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실태조사의 목적

제1절 실태조사의 배경 및 목적

1 추진근거 및 배경

❖ 도내 북한이탈여성 인권 관련 현황파악과 실태분석을 토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발굴 등 인권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함

• • • 1-1. 추진 근거

- ☐ 「충청남도 인권 기본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인권정책 수립과 이행, 도민인권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 실시
- ☐ 「충청남도 도민 인권선언」 제21조제2항은 인권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 및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 추진을 명시함.
- ☐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조사 및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9-2-2)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인권 실태조사 추진현황 》

- ▶ (2015) 충남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35,000천원, 충남산업경제연구소)
- ▶ (2016)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27,000천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 (2017) 충남 노인 인권 실태조사 (32,000천원,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 (2018) 조례 폐지로 미 실시
- ▶ (2019) 충남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40,000천원, 충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 ● 1-2. 추진 배경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문화적 차이 외에도 남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사회정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응답자의 45.5%가 ‘출신’에 대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정상우 외, 2016: 101).
- 충남 거주 북한이탈여성은 사투리 사용에 의한 스트레스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직장생활의 어려움, 외모적 열등감, 관계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겪고 있음. 그러나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파악됨(권금상·송미영, 2013).

□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지속적 증가

- 2000년 이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증가와 더불어 두드러진 변화는 북한이탈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임.
 - 2000년 이전에는 12%, 2002년부터 55%로 증가, 2011년엔 입국자 중 70%이상이 여성으로 탈북의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짐(김성천 외, 2013).
- 2019년 12월 기준 충남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은 79%(1,229명)을 차지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충남 거주 특성 중 하나로 여성의 높은 비중을 들 수 있음.

□ 북한이탈여성의 여성인권 측면의 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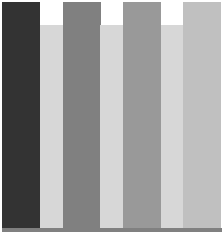
- 북한이탈여성은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어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음(정해숙, 2012).
- 북한이탈여성은 정착과정에서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 취업 등으로 인하여 가족 생활에서의 부부갈등 및 해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함(홍승아, 2012).
-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여성은 성폭력, 가정 폭력 등 인권침해를 겪을 가능성이 커 남성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됨.

□ 북한이탈여성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지원 정책 마련 필요

-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실태가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사회의 문제임.
-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경험과 인권 보장의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인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에서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충남의 인권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실태조사의 목적

- ☐ 충남 북한이탈여성 인권보장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 성인지적 북한이탈여성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제2절 과업의 내용 및 추진 체계

1 과업의 내용

- ☐ 용 역 명 : 충청남도 북한이탈여성 인권 실태조사
- ☐ 과업기간 : 2020년 5월 1일 ~ 2020년 11월 26일 (210일)
- ☐ 사 업 비 : 금40,909,000원(금사천구십만구천원)
- ☐ 과업범위
 - (시간) 기준연도 : 2020년도
 - (공간) 충청남도 전역
 - (내용) 충청남도 북한이탈여성 인권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보장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표 1-2-1】충남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의 체계

방 법	내 용
문헌연구	· 중앙정부 정책 및 충남도의 실태조사 관련 기존 자료를 검토
분야별 통계자료 재구성	· 「충남 내부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등 관련 통계를 재구성 · 도 및 시·군의 주요정책을 분석함
실태조사 분석	· 충남하나센터의 조사협조로 수집된 양적 실태조사결과를 분석 · 충남하나센터의 조사협조로 수집된 질적 조사 결과를 분석
1차 중간보고회	· 자문단 의견수렴을 위해 중간보고회를 개최
2차 중간보고회	·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권증진 과제를 도출
정책실효성 검토	· 충청남도 공무원 의견을 수렴 · 각 부문별 담당 및 실무담당자의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최종보고회 개최	· 자문단 의견 수렴 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성과품 제출

2 실태조사의 방법

••• 2-1. 문헌연구

-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계, 문헌, 관점, 주요 정책 등을 검토하여 인구추이 및 전망, 주요정책을 분석함.

● ● ● 2-2. 양적연구

1) 표본추출방법

- 양적 조사 모집단은 충남의 북한이탈여성 1,256명(2020년 4월 기준)임. 이 중에서 약 200명(모단의 약 15.9%)이며 분석단위는 개인임.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인 유의 표집이 활용됨.
- 충남하나센터와 연구진과의 회의를 통하여 지역별 표본을 할당함. 우선, 양적조사 할당은 30명 이상 북한이탈여성이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로 공주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을 선정함. 이 중에서 5개 지역(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를 선정하여 인구비례하여 200명을 할당함. 또한 질적 조사할당은 5개 지역을 선정함. 북한이탈여성이 많은 천안시, 아산시를 포함하고, 30명 이상 지역 중 양적조사를 하지 않은 지역인 3개 시·군(공주시, 청양군, 홍성군)에서 각각 2명씩, 전체 10명을 인터뷰함.
- 참고로 충남하나센터 협력기관은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당진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서산 석림사회복지관, 보령 명천종합사회복지관임.

【표 1-2-2】 양적 조사 및 질적조사 표본 할당 표

(단위: 명, %)

구 분	여 성	남 성	합 계	여성 비율	양적조사 할당	질적조사 할당
계룡시	2	-	2	0.2	-	-
공주시	55	19	74	4.4	-	2
금산군	11	1	12	0.9	-	-
논산시	10	-	10	0.8	-	-
당진시	83	24	107	6.6	20	-
보령시	68	16	84	5.4	20	-
부여군	35	13	48	2.8	-	-
서산시	131	58	189	10.4	40	-
서천군	11	-	11	0.9	-	-
아산시	347	96	443	27.6	60	2
예산군	27	8	35	2.1	-	-
천안시	402	82	484	32.0	60	2
청양군	27	3	30	2.1	-	2
태안군	7	4	11	0.6	-	-
홍성군	40	12	52	3.2	-	2
합 계	1,256	336	1,592	100.0	200	10

* 자료: 충남도 내부자료. 2020.04기준(사망자, 거주지불명자, 이민자, 말소자 등 제외)

2) 주요문항

① 측정도구

- 다음과 같이 조사항목을 구성하였음(안태운·황해동, 2012; 최성일·이윤희, 2012; 안태운·정요한, 2016; 안태운·신정아, 2017; 여성가족부, 2017). 충남하나센터의 실무의견(기획회의 결과), 착수보고회, 전문가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정함.

【표 1-2-3】 인권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분 야	조 사 항 목
일반적 특성	- 연령, 종교, 혼인상태, 직업, 충남 거주지역, 기초수급생활 수급 여부, 결혼여부, 배우자의 출신, 결혼 경험, 소득활동 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현재 동거가족, 자녀수, 남한 거주기간, 남한에서의 최종학력 - 북한에서의 최종학력, 출신지역, 직업, 이탈 경로, 제3국 경유여부, 경유기간, 경유국가, 입국시 가족동반여부 - 강제결혼 경험여부, 사기경험 여부, 남한정착 후회하는지 여부, 그 이유 - 생활만족도, 지자체 사업의 도움 정도, 브로커 비용
모성권 (임신, 출산)	- 충남에서 임신시 태아 정기검진 여부, 받지 않은 이유 - 출산 후 필수 예방접종 여부, 하지 않은 이유 - 선택 예방접종 여부, 하지 않은 이유 - 분유 구입비용 부담 정도
육아권	- 영유아 건강검진 여부, 받지 못한 이유 - 자녀의 적응 정도, 부적응의 이유, 보육시설 이용 경험여부, 보육시설 이용 후 주 돌봄자, 하루 중 가장 오래 자녀를 돌보는 자, 자녀 양육의 어려움
교육권 (학교생활과 교육)	자녀의 재학여부, 비재학이유, 비재학 중 시간 활용, 자녀의 고민상담자, 자녀의 배제, 따돌림, 소외 경험 여부, 주거시설 배정시 선호지역, 학교생활의 어려움, 학교생활에 가장 필요한 지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문화생활 참여 정도, 주거형태, 주거 만족도, 남한 생활의 힘든 점, 개인 사생활 침해 경험, 침해시 대처, 정보 접근성 - 사회적 배제의 형태
표현의 자유 및 정치참여	남한에서 표현의 자유, 간섭받는 느낌, 선거 참여 경험여부, 정치참여 수준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 출신에 따른 직장, 이웃, 친구, 남한주민, 다른 외국인,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 여부 -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당대우시 대처 - 남한사람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 때 느낌, 불이익이나 부당대우시 대처 - 부당대우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남한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노동권	- 현재 경제활동 여부 -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

분 야	조 사 항 목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학교, 직장, 사회에서의 폭력 경험 여부, 성적괴롭힘 피해 여부, 성적괴롭힘을 한 사람 · (가정폭력) 동거인의 폭력적 행동 횟수, 폭력적 행동의 이유, 폭력 피해 대응, 폭력 피해 발생시 이용가능한 서비스, 가정폭력감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성폭력) 성관련 피해경험 여부, 성폭력 피해 대응 · (성매매) 주변의 성매매 경험자 존재 여부, 주변에서 성매매 권유받은 경험, 성매매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폭력피해상담 및 치유 경험) 폭력피해로 상담받은 경험, 상담의 도움 정도, 받고싶은 상담의 방식
건강권	· 행복감 정도, 전반적 건강상태 · 아플 때 이용한 곳, 의료기관 이용시 어려웠던 점, 평소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인권의식	· (성평등 및 인권의식 및 관련 교육) 성평등 교육 경험 여부, 성평등 인식, 충남 정착 후 필요한 교육 · (사회인식) 남한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거주지역에서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인권존중도,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정책욕구	· 자조모임 참여 여부, 자조모임 활성화 필요성, 충남도의 자립 지원정책 · 남한사람이 포함된 사모임 참여 경험 여부, 그 모임에서 먼저 다가가는 지 여부

3) 자료수집방법

- 본 연구를 위하여 충남하나센터의 조사 협조로 자료 수집을 하였음. 충남하나센터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시·군의 상담실장을 대상으로 조사원교육(2020년 6월 25일)을 실시함. 양적 조사방법과 인권영역별 조사문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함.
-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실태를 파악함. 일대일 면접조사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함.
 - 본 연구조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및 자료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함.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불가와 개인에 관한 비밀보장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음
 -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6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우편, 직접 수집하는 방법을 활용함. 조사 참여 대상자 및 조사원에게는 소정의 답례금을 지급하였음.

4) 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작업(Coding)과 오류검토 작업을 거친 후 SPSS/Win Ver.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함.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 티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등을 실시함.
- 빈도분석은 인권분야별로 분석함. 그리고 차이분석은 남한거주특성과 북한거주·입국 이전 특성으로 구분하여 인권분야별로 살펴봄. 남한거주 특성은 8개 변수(연령대, 읍면·동, 수급자 여부, 남한거주기간, 소득활동형태(맞벌이, 외벌이, 직업 없음), 월평균 소득수준, 남한 최종학력, 혼인상태)임. 북한거주·입국이전 특성은 북한 최종학력, 북한이탈경로, 남편출신국가임. 통계적 유의미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 ● 2-3. 질적연구

- 북한이탈여성 10명을 인터뷰함. 조사지역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개 지역(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부여군, 홍성군)임. 한 지역에 2명씩 조사하였음.
- 질적 조사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이며, 인터뷰 대상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 10명임. 인터뷰 대상은 충남하나센터와 시·군 기관에서 추천(이름, 연락처)받아서 진행하였음.
- 질적 조사는 질문지를 통하여 연구동의를 한 대상자에 한하여 진행하였음.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금을 지급하였음.
- 질적 조사는 연구진이 연락하여 북한이탈여성이 인터뷰가 가능한 시간을 알아보고, 약속을 하여 진행하였음. 인터뷰는 1명 혹은 2명씩 진행함. 각 인터뷰는 평균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음. 인터뷰 내용은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하여 녹취함. 질문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정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담화에 담긴 명시적 의미와 암시적 의미를 통합하여 주요 주제들을 요약함.
- 북한이탈여성 대상 질문
 - 사회인식 및 차별(1문항)
 - 표현의 자유 및 정치참여(1문항)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3문항)
 -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3문항)
 - 노동권(2문항)
 - 건강권(1문항)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1문항)
 - 정책지원 (4문항)
 - 남한사회 적응 및 결혼(2문항)
 - 모성권(1문항), 육아권(1문항), 교육권(1문항)

●●● 2-4.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관련부서 및 전문가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보고서의 전문성, 실효성 향상

※ 자문위원(12명) : 도청(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여성가족정책관실 권익보호팀), 민간(북한이탈여성 당사자,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 여성폭력 상담기관, 북한이탈여성 또는 인권 관련 연구자, 인권위원, 도의원 등)

【표 1-2-4】충남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 자문단 리스트

성명	성별	소속	직위(분야)
이진숙	여성	충남 인권위원회	위원장(인권위원)
박영란	여성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팀장(관련부서)
김인기	여성	여성가족정책관실 권익보호팀	팀장(관련부서)
여운영	남성	충남도의회	도의원 (문화복지 위원회)
이윤기	남성	쌍용종합사회복지관 & 부설 충남하나센터	관장 & 센터장(인권위원)
김윤태	남성	아산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	센터장(사업지원)
김○○	여성	○○시 거주	당사자
이○○	여성	○○시 거주	당사자
노정자	여성	가족성장상담소남성의소리	상담소장(가정폭력, 북한이탈여성상담)
안태운 박사	여성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구자) * 연구경력 : 북한이탈여성 정착지원, 탈북청소년 등
김희겸	여성	천안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장 (인권위원)
이수철 박사	남성	WLB연구소 (전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연구자) * 연구경력 : 도민인권실태조사, 인권증진위원회 등

● ● ● 2-4-1. 전문가 자문단_착수보고회 의견 반영 결과

○ 착수보고회에서 조사과정, 조사문항, 기타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반영함.

【표 1-2-5】착수보고회 의견 반영 결과

구 분	의견 수렴	반영 결과
조사 과정	• 조사원들에 대한 인권감수성 교육, 조사원의 책임성 필요	☞ 조사문항 확정 후 조사원 교육 실시
	• 조사대상자 오염의 문제 보정되어야 함	☞ 양적조사는 표본추출방법 (조사회의를 통해 대표성을 갖는 표본조사), 조사원(상담실장) 교육 등을 함
	• 표본 추출시 지역별 거주비율, 연령, 정착기간을 고려	☞ 지역별 거주비율 고려하여 할당
조사 문항	• 사회적 배제 관점 반영한 조사문항, 정책도출관점의 문항구성	☞ 인간다운생활의 보장 p.3 #7
	• 실생활에서의 차별 인터뷰 후 조사문항 구성	☞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p.8 #1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대처방법 문항	☞ 가정폭력 p.8 #2, 성폭력 p.9 #2
	• 설문항목 중 ‘사회권’을 ‘고용·노동권’으로 변경 건의	☞ p.5 ‘노동권’으로 변경
	• 생애주기별 욕구 파악	☞ 일반적 특성 p.16 #1
	• 일반적 특성에 입국당시 가족동반 여부, 강제결혼, 결혼경험횟수 추가 의견	☞ p.16 #7, p.17 #21, p.18 #23
	• 북한에서의 학력, 남한에서의 학력에 대한 설문 추가	☞ 일반적 특성 p.17 #18
	• 정착과정에서 결혼사기, 취업사기, 다단계사기 경험 여부	☞ 일반적 특성 p.18 #24
	• 제3국 경유국, 기간, 직행기간	☞ 일반적 특성 p.18 #22-1, 22-2
	• 거주지역이 농촌, 도시인지 여부	☞ 일반적 특성 p.16 #4
	• 자립 등 필요한 지원 정책 관련 문항	☞ 자립지원정책욕구 p.13 #3
	• 가족의 유형, 가족내 갈등, 갈등해소대책	☞ 일반적 특성 p.17 #4, 질적질문지 p.4 #14
	• 유흥업소에의 유입 이유	☞ 성매매 p.10 #4
	• 인권의식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 성평등 및 인권의식 p.11 #1
	• 정착지원에 대해 주관식 문항 추가	☞ 자립지원정책욕구 p.13 #3
	• 지자체지원제도 정보제공 여부(제도적 배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p.3 #6
	• 자조모임의 필요성, 중요성	☞ 자립지원정책욕구 p.12 #2
	• 남한 적응을 잘한 사례, 북한의 삶 경험이 남한사회 적응에 끼치는 영향	☞ 질적질문지 p.4 #15-1
	• 한국에서 전문교육(학력) 질문	☞ 일반적 특성 p.16 #2
기타	• 조사결과 분석시 지역, 연령별, 가족유형별, 거주기간별, 북한 거주지역, 제3국 경유기간 등에 대한 차이분석	☞ 남한거주특성과 북한거주 특성별 분석하여 제시함
	• 15개 시·군 연령표 삽입(착수보고자료에 포함)을 통한 충남특성에 맞는 정책제언	☞ 연령표 포함함, 연령별 차이 분석함
	• 15개 시·군의 정책이 자립지향성 여부 검토	☞ 자립적 관점에서 정책 검토함
	• 북한이탈주민 문헌자료 검토하여 보충	☞ 보충함, 기존 북한이탈여성 혹은 주민 조사결과와 비교

● ● ● 2-4-2. 전문가 자문단_1차 중간보고회 의견 반영 결과

○ 1차 중간보고회에서 양적, 질적조사 결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반영함.

【표 1-2-6】 1차 중간보고회 의견 반영 결과

구 분	의견 수렴	반영 결과
조사결과	• 설문 및 면접조사결과를 반영한 도 정책과제 제안	☞ 사업과제별 정책제안 근거 제시 ☞ 부서별 사업과제 협의 및 제안요청
	• 여성, 인권 중심의 사업 발굴	☞ 여성, 인권을 포괄하는 사업선정
정책발굴	• 북한이탈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리더 양성	☞ 세부사업 3-2, 12-1
	• 자녀 돌봄(양육) 지원	☞ 세부사업 2-1, 2-2, 7-2
	• 차별예방 인식개선 교육	☞ 세부사업 4-1, 6-1, 6-2, 7-5
	• 가정폭력, 성폭력 지역 활동가 양성사업	☞ 세부사업 3-3, 8-3
	• 동료상담원(진로진학 상담사) 양성 및 파견	☞ 세부사업 3-2
	• 자조모임활성화	☞ 세부사업 12-1
	•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	☞ 세부사업 7-1, 7-3, 7-4
	•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 학습·언어 지원	☞ 세부사업 3-1, 3-2
	• 신체적, 심리적 건강지원	☞ 세부사업 9-2, 9-4
	•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세부사업 1-2
	• 농촌지역 사회적 배제(차별) 해소 지원	☞ 세부사업 11-1
	• 남·북한 주민 소통을 통한 편견해소사업	☞ 세부사업 6-1, 11-1
기타	• 정책분야별(일자리, 건강 등) 우선순위 결정	☞ 최종보고서에서 반영예정 * 인권분야별로 우선순위 제시
	• 기존정책 검토하여 확대방안 제시	☞ 기존사업 및 신규 사업 구분하여 제시
	• 질적 연구에서 모성권 사례 구체적 기술	☞ 구체적으로 기술함
	• 질적 사례조사에서 초등 돌봄 공백의 함의는 생계를 위한 장시간 노동과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설명을 추가함

● ● ● 2-4-3. 전문가 자문단_2차 중간보고회 의견 반영 결과

○ 2차 중간보고회에서 사업 과제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반영함.

【표 1-2-7】 2차 중간보고회 의견 반영 결과

의견 수렴	반영 결과
• <교육권> 북한이탈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프로그램 지원 추진부서 수정	☞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팀’ 수정
• ‘공립 각종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 은 학생모집이 어려워므로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이 효과적임	☞ 3-2.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지역별 프로그램으로 추진. 사업제안은 유지
•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과 연결할 사업 검토 필요성	☞ 인권정책기본계획 중 9-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 지원(하나센터 연계 지원 및 지역협의회 구성(1), 인식조사 및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마련(2),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3),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4)이 있음 => (2) : 사회적 거리감, 직장내 편견 등 인식조사(2020), 4-1.인권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 및 배포 (3): 9-4. 정신적 트라우마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9-5. 건강보장(비급여 병원비) 지원, 9-1. 건강 및 의료기관 정보 접근성 강화 (4) 육아권: 2-3, 아동 또래관계 및 가족 친교관계 형성지원 교육권: 3-2, 3-3, 3-4 등 반영
• ‘8-2. 부모역량 강화 및 자녀문제 해결지원’ 에서 가정폭력발생이유로 성격문제가 36.4%이므로 사업과제에 반영 필요	☞ 8-1.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사업내용에 가정폭력 원인 등이 포함되도록 부부상담, 부부이해 교육 추가함

계속 【표 1-2-7】 2차 중간보고회 의견 반영 결과

의견 수렴	반영 결과
• 동료상담원 양성 및 파견 사업 중요함	☞ 3-3. 동료상담원 양성 및 파견
• 유사과제(6-1 & 11-1) 통합 필요	☞ 사업명(6-1)에 11-1 사업 통합함
• 11-3. 공식,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망 확대 지원 사업 추진시 ‘민간, 공공서비스 기관리스트’ 제작하여 인권매뉴얼 제작·배포시 함께 배포	☞ 4-1. 인권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사업내용에 부록으로 ‘민간, 공공서비스 기관리스트’ 첨부
• 의사결정 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구체적 개정안 추가	☞ 5-1 ‘북한이탈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에서 사업내용 구체화(제6조 협의회 구성에서 ‘북한이탈여성’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 등 추가
• ‘10-1.’ 북한이탈여성 여성인권 감수성 향상교육’에서 여성 ‘인권감수성을 “젠더인권감수성”으로 변경 요청	☞ 북한이탈여성 인권이므로 선명하게 여성인권감수성으로 사용함.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사용함. 연구의 목적도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이므로 실효성, 전략적 판단에서 사업명을 여성인권감수성으로 유지함 • ※ 젠더인권의 의미는 젠더(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와 섹슈얼리티(sexuality)는 관련한 인권 침해시 사용하면 더 적절한 용어이고 더 많은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판단됨
• ‘통합지도사’ 용어보다는 사례관리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함. 동료 도우미 의견도 있음. • 통합지도사 사업은 충남도 고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보완하여 제안한 사업이므로 용어 강조할 필요 있음 • 방문상담의 ‘방문’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이 있어 통합지도사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충남에서 타 지체보다 먼저 시작한 사업임.	☞ 3-2 사업명을 ‘통합지도사 (동료상담원) 양성 및 파견’ 남북교류팀, 공동연구진과 협의함. 각각의 사업특성은 있으나 ‘동료상담원 양성 및 파견’이 적절하다하는 의견을 모음
• 인권분야별 중점영역 제시	☞ 인권분야의 세부사업 우선 추진 영역 제시
• 사회적응기간 보장을 위한 사업 필요	☞ 자립지원정책 분야에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사업’ 추가

● ● ● 2-4-4. 전문가 자문단_최종보고회 의견 반영 결과

○ 최종보고회에서 사업 과제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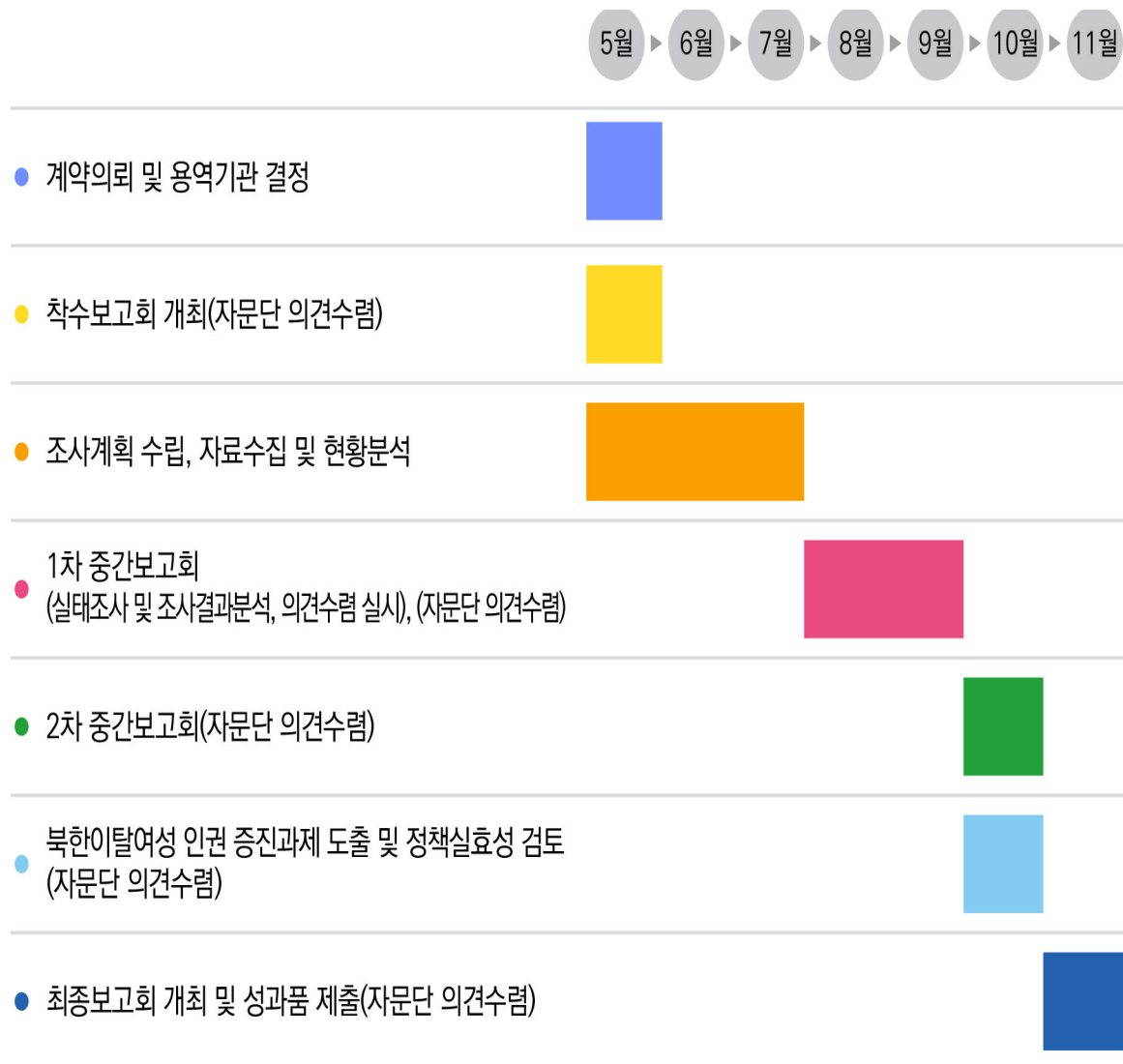
【표 1-2-8】최종보고회 의견 반영 결과

의견 수렴	반영 결과
• 인권분야의 세부사업 우선 추진영역 수정 필요	☞ 우선추진 영역과 설명 추가함
• 가족통합서비스(통합지도사) 추가 의견	☞ 통합지도사 파견 사업 추가함
• 우선 추진영역에 육아권, 교육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추가 의견	☞ 육아권 2-1, 2-2, 2-3, 3-2, 8-1, 8-2 6개 사업 추가함
• <교육권> ‘3-3 동료상담원 양성 및 파견’ 사업 구분 변경 의견	☞ 동료상담원 양성 및 파견 사업 구분을 신규에서 기존보완으로 변경함
• <사회인식> ‘11-1 농어촌지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해소사업 실시’ 사업추진방식 추가 의견	☞ 사업 추진 내용에 추가함
• 세부과제 인권영역별 재배치 의견	☞ 설문문항 중심으로 세부과제 도출하여 인권영역별로 배치하였음

3 실태조사의 추진 체계

【표 1-2-9】 실태조사의 추진과정

시기		주체	주요 활동	활동 내용
년	월			
2020	5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충청남도 인권센터	착수보고회 개최	- 자문단 의견 수렴 - 조사과정, 조사문항, 기타 의견 수렴
	5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충청남도 인권센터	2,3차 연구진 회의	- 착수보고회 결과 공유 - 조사범주 및 조사문항 - 향후 일정 및 역할분담
	6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충청남도 인권센터	당사자 자문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조사문항 수정
			현장전문가 자문	- 표본할당, 지역분배 논의 -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및 조사문항 수정
			연구전문가 자문	양적, 질적 문항에 대해 자문 받음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충청남도 인권센터	양적, 질적조사 문항 확정	양적, 질적 조사문항 확정 후 인쇄
			조사원 교육	지역별 조사원 교육 실시
	7, 8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충청남도 인권센터	양적조사 실시	지역별 조사원이 양적조사 실시
			질적 조사 실시	5개 지역에서 인터뷰 실시
	9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충청남도 인권센터	1차 중간보고회	양적 및 질적 분석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1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충청남도 인권센터	2차 중간보고회	인권영역별 과제 도출에 대한 의견수렴
	11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충청남도 인권센터	관련부서와 추진과제 협의 및 구체화	정책실효성 검토 및 정책의 구체화
	11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충청남도 인권센터	최종보고회	인권실태조사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영역 의견수렴



【그림 1-2-1】 실태조사의 추진과정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주요 정책 분석

제1절 연구의 기본적인 관점

제2절 인구추이 및 주요정책 분석

제1절 연구의 기본적인 관점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 • • 1-1. 연구대상

- ☐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1), 3조) 중 대한민국에서 하나원 수료 후 정착한 여성

• • • 1-2. 연구범위

- ☐ 한국에서 북한이탈여성의 기본적인 인권보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임.
- 인권의 범주 :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의 범위와 동일하게 정의함.
 -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제2조 1항)

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인권에 대한 관점

• • • 2-1. 법률에 보장된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보장

1) 국민의 기본권 보장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부터 제22조)²⁾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시하고 있음(국가법령정보센터).

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 국가의 모성보호와 육아권 보장의무

○ 헌법 제36조³⁾와 제34조⁴⁾에서 여성의 모성보호와 육아권 보장

- 북한이탈여성은 모성권의 보호의 대상(제36조 제2항) :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출산, 수유의 생리적 기능을 보호하는 것임.
- 북한이탈여성의 육아권 보장함. 헌법 제36조 제1항의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가족의 보호와 헌법 제31조 제2항의 자녀교육권을 근거로 모와 부, 사회적 모 모두에게 육아권 보장. 따라서 국가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에 대한 육아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자녀에 대한 육아권 또한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부 또는 모 모두에게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임.
-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헌법 34조)
- 여성에 대한 복지는 임신한 여성과 육아중인 여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통한 여성보호는 국가의 모성보호 및 육아권 보호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더불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인권보장으로 해석할 수 있음.

3)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의 조사대상

○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또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과 2항)(국가법령정보센터)

4)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함(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⁵⁾. 즉,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사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

3)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헌법 :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로 규정함(안태운·황해동, 2012: 38).

●●● 2-2. 국제적으로 비준한 인권조약에 의한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보장

- ☐ 우리 국가가 비준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일명 사회권 규약 혹은 A규약, 1966)],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일명 자유권규약 혹은 B규약, 1966)]은 개인이 누려야 하는 인권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인권의 정의와 범주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서 변화 하는 개념임(안태운·황해동, 2012). 세계인권선언의 범주를 정리하여 소개함.

【표 2-1-1】 인권의 범주

세계 인권선언	인권의 범주
자유권 (시민적·정치적 권리)	신체의 자유, 노예상태 및 강제노동의 금지, 자의적 체포 및 구금금지, 거주이전 및 주거선택의 자유, 법 앞의 평등, 형법의 소급적용 금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상·양심·종교·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생명권, 참정권 등
사회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근로권, 노조결성 및 가입의 권리,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 영위권리 등

* 자료 : 안태운·황해동(2011: 32), 원출처: 서보혁(2011: 39-40)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의 권리장전이라고 불리며 유엔이 주도한 인권협약 체계 중 하나**임. 유엔 회원국에서 국내법과 같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 협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저해하거나 침해하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제한을 없앴으로써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목적임.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다른 인권협약과는 달리 오로지 성평등에만 국한되어 성평등과 관련된 인권의 특수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엔 인권협약과 구분됨(이수연, 2019: 55). 협약은 전체 6부와 30조로 이루어짐.

【표 2-1-2】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내용

구 분		내 용
1부 (1~6조)	비차별, 성별스테레오타이프와 성매매	제1조 차별의 정의 제2조 협약국의 의무 제3조 제2조 실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 제4조 모성보호는 성차별이 아님 제5조 남녀 역할 스테레오타이프에 근거한 편견이나 관습 제거를 위한 조치, 자녀양육에 있어 남녀 공동의무 제6조 여성의 인신매매나 성매매 착취를 봉쇄할 모든 적절한 조치
2부 (7~9조)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권리	제7조 투표, 국가의 공직, 정치적 생활 참여에 있어서 평등 보장 제8조 여성이 정부를 대표하고 국제조직의 업무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 보장 제9조 여성 자신의 국적과 자녀의 국적에 관해 남성과 동등한 권리
3부 (10~14조)	교육, 고용, 건강 등 경제권과 사회권, 농촌여성 보호 관련 특별 조항 포함	제10조 여학생에게 교육에 있어 동등한 권리, 남녀공학 권장 제11조 노동권 인정,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사회수당, 연공서열의 손실없는 모성휴가 제공 제12조 가족계획을 포함한 건강서비스에의 여성의 접근권 보장 제13조 경제,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평등 보장 제14조 농촌 여성이 적절한 생활조건을 누릴 수 있게 함
4부 (15, 16조)	결혼과 가정에서의 여성의 권리, 법앞의 평등권	제15조 법 앞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도록 보장 제16조 결혼과 가족관계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5부 (17~22조)	협약의 위원회 설치, 회원국가의 보고절차	
6부 (23~30조)	협약의 효과	

* 자료 : 이수연(2019: 56)

□ 비엔나선언

- 1993년 세계인권회의, 비엔나선언(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Declaration)에서 문화적 편견과 국제인신매매로 야기되는 것을 포함한 여성폭력과 성희롱과 착취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철폐되어야 하며 정부, 기구, 정부 간 기구와 민간 기구에 대해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장복희, 2005: 74).

□ 여성폭력철폐선언

- 1970년대는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차별금지와 개발과정에서의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의 필요성이 가장 팔목할만한 문제였음. 1980년대까지는 폭력의 문제는 국제적 차원의 주목을 받지 못함(장복희, 2005).
- 여성에 대한 폭력은 1990년대에야 국제적 의제가 되었음. 1993년 12월12일 제48차 UN 총회는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채택함. 여성폭력철폐선언은 여성폭력분야에서 모든 국제적 행동을 위한 일반적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장복희, 2005).
- 보편적 인권으로서 여성폭력철폐선언은 여성이 생명권, 최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국제인권조약이 인간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재차 규정하고 있음(장복희, 2005: 77).
- 이 선언은 국가가 폭력을 당한 여성의 권리침해를 조사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도모하며 그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상, 민법상, 노동법상 및 행정법상 제도를 발전시킬 것,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해 조사, 처벌하고 법을 집행할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음(장복희, 2005: 78).

● ● ● 2-3.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보장

□ 충청남도 도민(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 범위는 헌법 및 법률, 국제법 및 국제관습법을 포괄적으로 정의됨. 이에 따라 인권약자도 소외되기 쉬운 사람, 차별, 인권침해 당한 사람으로 폭넓게 정의됨.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⁶⁾도 인권보장의 대상이 됨. 따라서 본 연구의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의 범주는 조례의 범위와 동일하게 정의함.

-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제2조 1항)(자치법규정보시스템,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

6)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제2조 1항)(자치법규정보시스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도민 : “충청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제2조 2항)(자치법규정보시스템,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
- 인권약자 :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제2조 3항)(자치법규정보시스템,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
- 모성의 국가보호의무 및 육아권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 등은 이러한 인권의 중요한 대표적인 내용에 해당함.
 - 북한이탈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성의 건강과 자기선택을 보장되어야 함. 또한 자녀를 양육중인 북한이탈여성은 가족형태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육아의 권리와 자녀교육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함.
- 더불어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제적으로 비준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폭력철폐선언에 담겨있는 문화적 편견으로부터 인권, 여성폭력으로부터 인권, 건강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함.

3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이론적 틀

• • • 3-1. 젠더관점 · 성인지적 관점

- 젠더(Gender)는 여성과 남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을 의미함. 생물학적인 성과 다르게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기질임. 사회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로 인하여 남녀(성별)의 차이를 설명할 때 젠더 관점을 사용함.
- 비슷한 용어인 성인지적 관점을 정책, 현상 등 검토에 사용하기도 함. 즉, 남성과 여성이 처한 현실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여성과 남성의 삶을 비교하고, 특정개념이 특정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각종 제도나 정책 등을 검토하는 관점임(송미영, 2019: 27).

- ☐ 북한이탈여성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정착과정에서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의하여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 취업,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인권이 매우 취약함. 그러므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음.

● ● ● 3-2. 사회적 배제

- ☐ 사회적 배제와 포용적 관점

- 사회적 배제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경제적 복지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 등과 같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사회적 배제(소외)라는 개념임(강신욱 외, 2005).
- 사회적 포용 :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배제가 발생하는 조건의 개념이므로 사회로 포용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됨(강신욱 외, 2005: 46). 사회구조적으로 생긴 격차(불균형)는 사회의 책임으로 포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 사회적 배제 개념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 프랑스의 공화주의 전통에서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 1974년 프랑스 시라크 정부의 사회부 장관이었던 르네 르느와르는 그의 저작 *Les Exclus, un Français Dix*에서 정신적, 육체적 장애인, 학대받는 아동, 약물중독자, 문제가정 등 사회보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les exclus*)’라고 범주화하면서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강신욱 외, 2005: 11).

- ☐ 사회적 배제의 관점(강신욱 외, 2005)

- 차별받는 집단 : 빈곤층이 아니면서 배제를 경험하는 집단의 존재 즉, 젠더, 인종, 지역적 차별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면 빈곤과 사회적 배제 구분 가능
- 대상 영역의 확대 : 경제적 결핍을 의미하는 빈곤과는 달리, 주거, 교육, 건강 등의 영역과 더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서의 사회적 참여를 제약당하는 상태
- 규범적 측면 : 사회적 참여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이를 보호해야 할 사회의 임무

□ 사회적 배제 방법론 적용한 연구 검토

○ 사회적 배제의 측정(서병수, 2005)

- 사회적 배제의 조작화 또는 측정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측정조사는 구체적 상황조사⁷⁾와 영역별 지표측정조사⁸⁾로 나누어지고 있음(BGP, 2003).
- 지표개발의 기준을 보면 3가지가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배제되었는지 보는 배제유형 기준**(예: EUROSTAT의 5가지 영역 - 사회적 연결, 경제적, 제도적, 영토적, 상징적), 무엇이 배제되고 있는지 결과로서 있는 상태를 보는 **배제결과기준**(예: Bradshaw 외(2000)의 적절한 수입으로부터 배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 공공서비스로부터의 배제,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 그리고 EU의 1, 2 지표), **배제원인기준**(예: 영국의 사회적 배제 담당부서(SEU)의 물질적 부분과 비물질적인 복지부분으로 구분. 여기에 미래에 결핍을 겪게 할 위험의 증가요인을 각 연령별(아동, 중년, 노년)로 나누어 지표를 구성하고 있음).
- 한국의 사회적 배제 측정 : 청년층 실업, 지방과 도시간의 격차,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고**, 시민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배제가 가장 두드러진 인구계층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기존 이민자인 재한 대만인들이 있음.

○ 사회적 배제 영역 구분

- 사회적 배제의 형태를 다차원적으로 논의한 Kronauer(1998)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labor market exclusion), 경제적 배제(economic exclusion), 문화적 배제(cultural exclusion),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social isolation), 공간적 배제(spatial exclusion), 및 제도적 배제(institutional exclusion)라는 6가지 유형의 상호작용으로 야기될 수 있음(류지웅, 2005).

○ 대상을 선정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배제 측정

-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차상위 실태조사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를 활용하여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 7가지 차원의 사회적 배제(송미영, 한국노년학, 2008)
- 충남 여성노인의 빈곤과 사회적 통합 방안 : 충남 노인실태조사(2010) 원자료를 활용하여 충남 여성노인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사회적 통합방. 8영역(경제, 실업, 근로, 주거, 교육, 건강,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 첫째, 성별에 따른 8영역별 사회적 배제의 정도는. 둘째, 8영역별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송미영, 2011).

7) 노숙자와 심대임신, 지역간 격차, 장기실업자, 사회보장자격탈락자, 이민자 등 구체적인 사회적 배제 사례를 실증 분석하는 접근

8) 전반적인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남한사회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힘의 열세에 놓여 다수자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새로운 소수자 집단으로 봄. 연구자는 사회적 배제 관점을 적용하여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형태를 살펴봄. 즉,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 경제적 배제,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공간적 배제, 제도적 배제 형태를 적용함.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는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있으면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음. 대다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남한사회의 빈곤계층으로 존재함. 빈곤계층으로서 생계를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경제적 배제의 현실을 보여줌. 또한 남한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기제 속에서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를 경험함. 거주공간에서도 제도적으로 임대아파트 우선공급제도를 통해 다른 소수집단과 구별되는 혜택을 받고 있으나 지역사회 내의 빈곤계층 거주지에 속해 있으면서 주거지 격리를 통한 공간적 배제를 경험함. 북한이탈아동과 청소년은 제도적 교육공간에서 학력과 나이차이로 또래집단과 어울리지 못하고, 중도 이탈, 진입포기, 사회이탈 집단이 되는 경향을 보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의 형태들은 각각의 배제의 형태를 강화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류지웅, 2005: 6에서 재인용).

□ 북한이탈여성의 사회적 배제 적용 유용성

-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취약집단에 대해 주목하는데 유용함.
-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로 지칭되었던 집단은 주변화된 계층: 장애인, 노숙자, 약물 중독자, 이민자 등 물질적 결핍여부와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내로 편입(insertion) 또는 ‘통합(inclusion)’ 시켜야 하는 것이 사회적 배제 접근이 지향하는 것임(강신욱 외, 2005).
- 북한이탈여성을 사회적 배제집단으로 보고,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의 개방성과 사회의 책임성을 가져야 함.

●●● 3-3. 젠더관점·성인지적 관점의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영역 분석틀

양적 조사	질적 조사
남한거주특성(연령대, 읍면·동, 수급자 여부, 남한거주기간, 소득활동형태(맞벌이, 외벌이, 직업 없음), 월평균소득수준, 남한 최종학력, 혼인상태)	1. 모성권 2. 육아권 3. 자녀의 교육권 4.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5. 표현의 자유 및 정치참여 6.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7. 노동권
북한거주·입국이전 특성(북한 최종학력, 북한이탈경로, 남편 출신국가)	8.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상당) 9. 건강권 10. 성평등 및 인권의식 11. 사회인식(사회적 거리감·인권 존중도·사회적 관계망) 12. 자립지원 정책
	1. 모성권 2. 육아권 3. 교육권 4.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5. 표현의 자유 및 정치참여 6.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7. 노동권 8.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9. 건강권 10. 사회인식 및 차별 11. 남한사회 적응 및 결혼 12. 정책지원



【그림 2-1-1】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영역별 분석틀

제2절 인구 추이 및 주요정책 분석

1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구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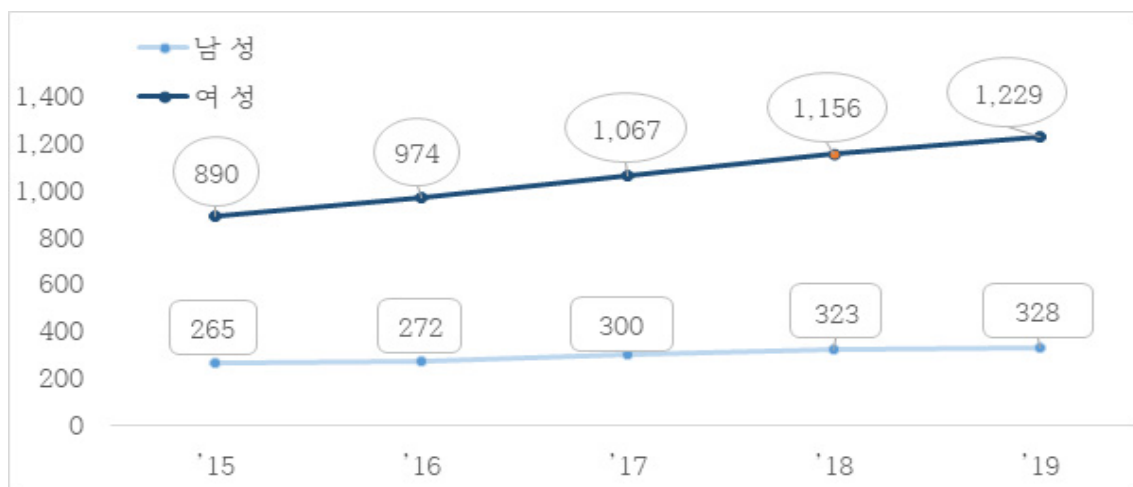
- 충남의 북한이탈주민의 인구는 2015년 1,155명에서 2019년 1,557명으로 꾸준히 증가함. 북한이탈남성과 북한이탈여성이 인구학적으로 증가함. 특히, 전체 인구 중 북한이탈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890명(77.1%), 2017년 1,067명(78.1%), 2019년 1,229명(78.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남.

【표 2-2-1】 연도별 충남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여성 비율 추이

(단위:명, %)

구 분	' 15	' 16	' 17	' 18	' 19
남 성	265	272	300	323	328
여 성	890	974	1,067	1,156	1,229
합 계	1,155	1,246	1,367	1,479	1,557
여성 비율	77.1	78.2	78.1	78.2	78.9

* 자료: 충남도 내부자료.



【그림 2-2-1】 충남 북한이탈주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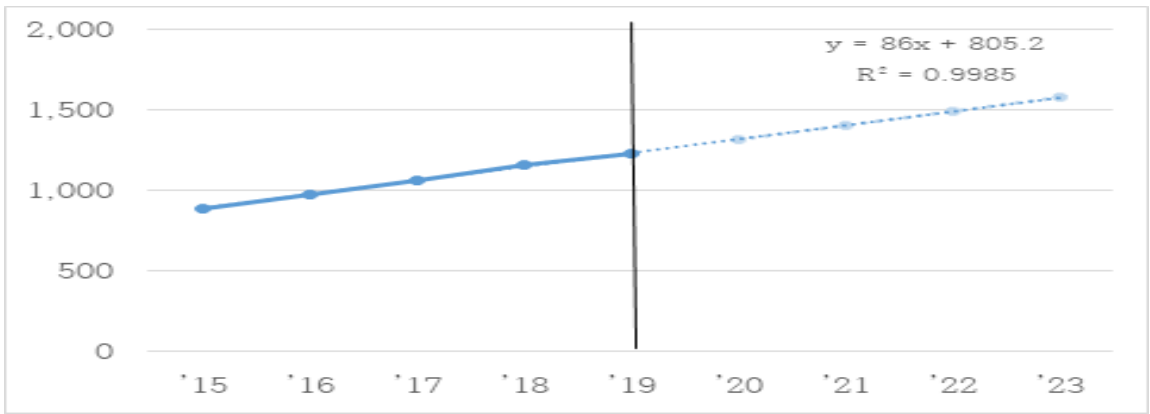
□ 충남의 북한이탈여성 인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남. 이러한 4년 동안의 변화추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이탈여성의 인구를 예측해봄. 그 결과, 충남의 북한이탈여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로 나타나며, 2023년 약 1,579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표 2-2-2】 향후 4년간 충남 북한이탈여성 인구 추이

(단위:명, %)

구 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여 성	890	974	1,067	1,156	1,229	1,321	1,407	1,493	1,579

* 수식 : $y=86x+805.2$



【그림 2-2-2】 향후 4년간 북한이탈주민 인구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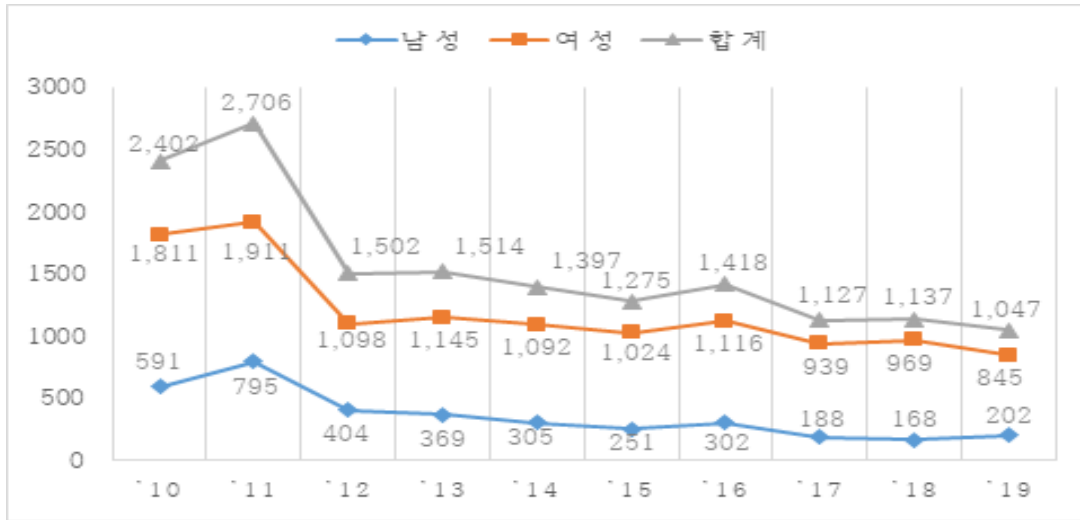
□ 연도별로 남한에 신규 입국하는 북한이탈여성은 2016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음. 반면 신규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2016년부터 3개년 간 증가추세를 보임.

【표 2-2-3】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단위:명, %)

구 분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합 계
남 성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3,575
여 성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1,950
합 계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15,525
여성 비율	75.4	70.6	73.1	75.6	78.2	80.3	78.7	83.3	85.2	80.7	77.0

* 자료: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 . 북한 이탈주민 입국현황. 2019.12.31. 기준



【그림 2-2-3】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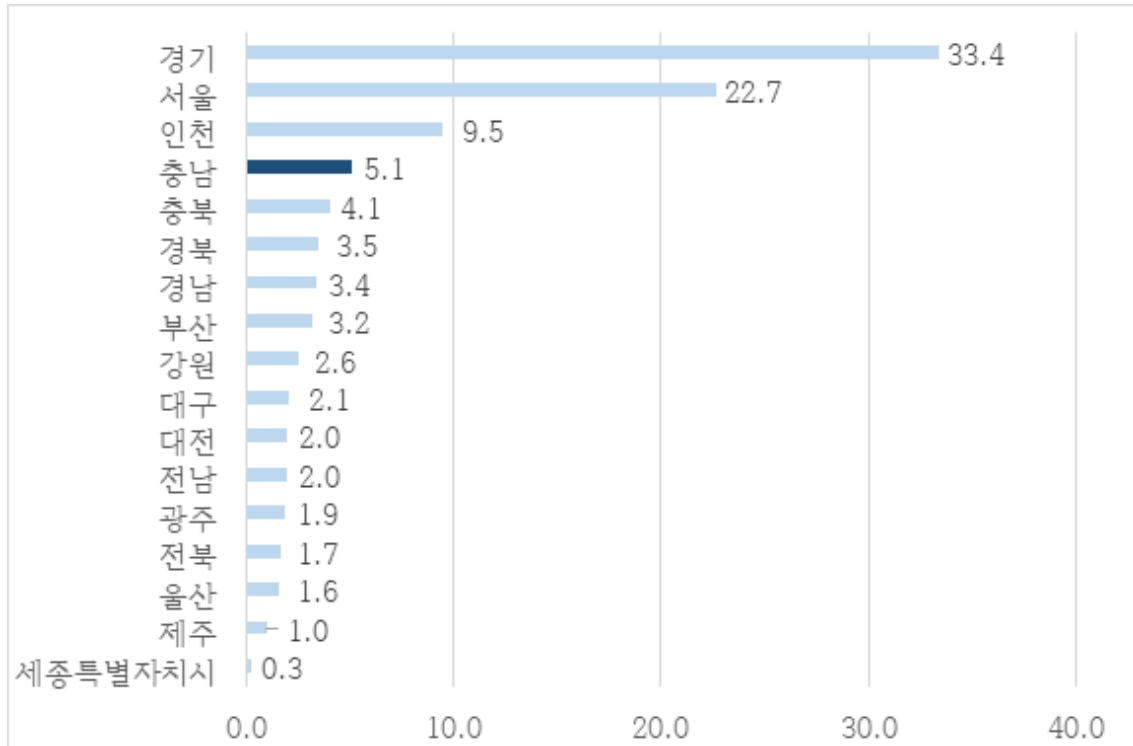
□ 전국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현황을 살펴봄. 경기 33.4%, 서울 22.7%, 인천 9.5% 등 수도권에 65.6%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1,592명(5.1%)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

【표 2-2-4】 전국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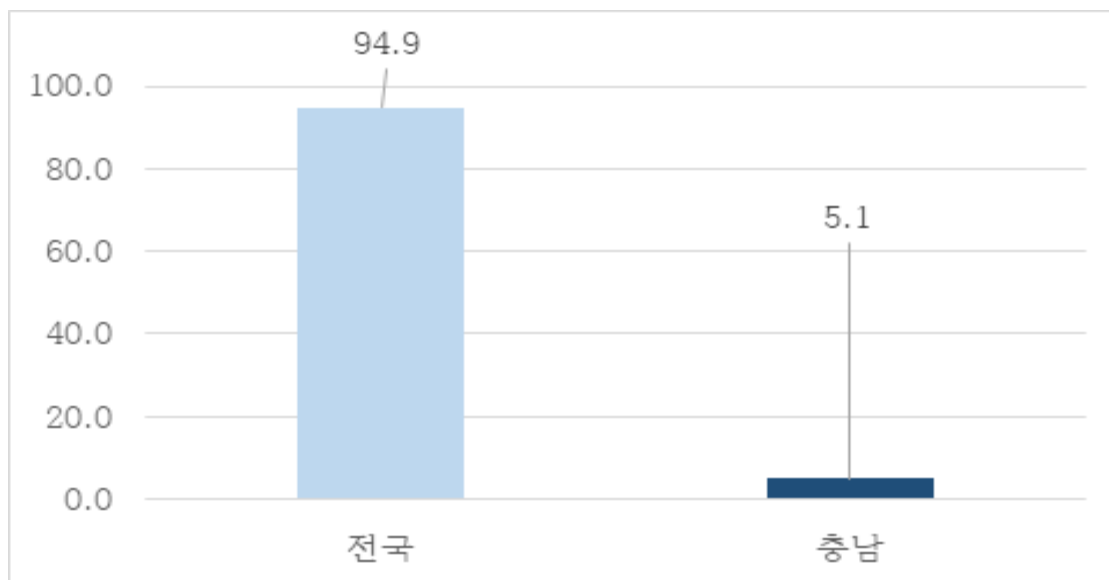
구 분	여 성	남 성	합 계	비 율
경 기	7,836	2,613	10,449	33.4
서 울	4,855	2,244	7,099	22.7
인 천	2,191	772	2,963	9.5
충 남	1,256	336	1,592	5.1
충 북	1,035	245	1,280	4.1
경 북	867	219	1,086	3.5
경 남	827	248	1,075	3.4
부 산	753	256	1,009	3.2
강 원	616	205	821	2.6
대 구	528	141	669	2.1
대 전	493	131	624	2.0
전 남	465	149	614	2.0
광 주	460	132	592	1.9
전 북	412	125	537	1.7
울 산	369	129	498	1.6
제 주	248	70	318	1.0
세종특별자치시	78	11	89	0.3
합 계	23,289	8,026	31,315	100.0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2020.04 기준(사망자,거주지불명자,이민자, 말소자 등 제외)



【그림 2-2-4】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 비율

- ☐ 충남을 제외한 지역에 94.9%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나머지 5.1%의 북한이탈주민이 충남에 거주하고 있음.



【그림 2-2-5】 전국과 충남의 북한이탈주민 거주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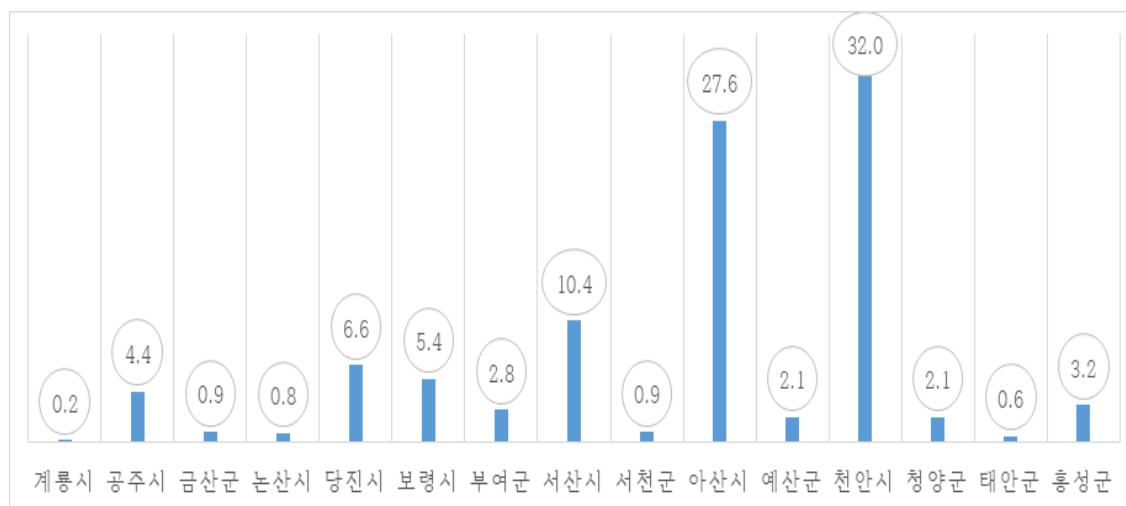
- 충청남도 15개 시·군별 북한이탈여성의 거주현황을 살펴본 결과, 15개 시·군에 모두 북한이탈여성이 거주하고 있었음. 천안시에 402명(32.0%)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 그 다음은 아산시에 27.6%(347명)이 거주함. 반면에 계룡시에 2명(0.2%)로 가장 적은 수의 북한이탈여성이 거주하고 있음.

【표 2-2-5】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

(단위: 명, %)

구 분	여 성	남 성	합 계	지역별 비율	여성 비율
계룡시	2	-	2	0.1	0.2
공주시	55	19	74	4.6	4.4
금산군	11	1	12	0.8	0.9
논산시	10	-	10	0.6	0.8
당진시	83	24	107	6.7	6.6
보령시	68	16	84	5.3	5.4
부여군	35	13	48	3.0	2.8
서산시	131	58	189	11.9	10.4
서천군	11	-	11	0.7	0.9
아산시	347	96	443	27.8	27.6
예산군	27	8	35	2.2	2.1
천안시	402	82	484	30.4	32.0
청양군	27	3	30	1.9	2.1
태안군	7	4	11	0.7	0.6
홍성군	40	12	52	3.3	3.2
합 계	1,256	336	1,592	100.0	100.0

*자료: 충남도 내부자료. 2020.04 기준(사망자, 거주지불명자, 이민자, 말소자 등 제외)



【그림 2-2-6】 충남 15개 시·군의 북한이탈여성 거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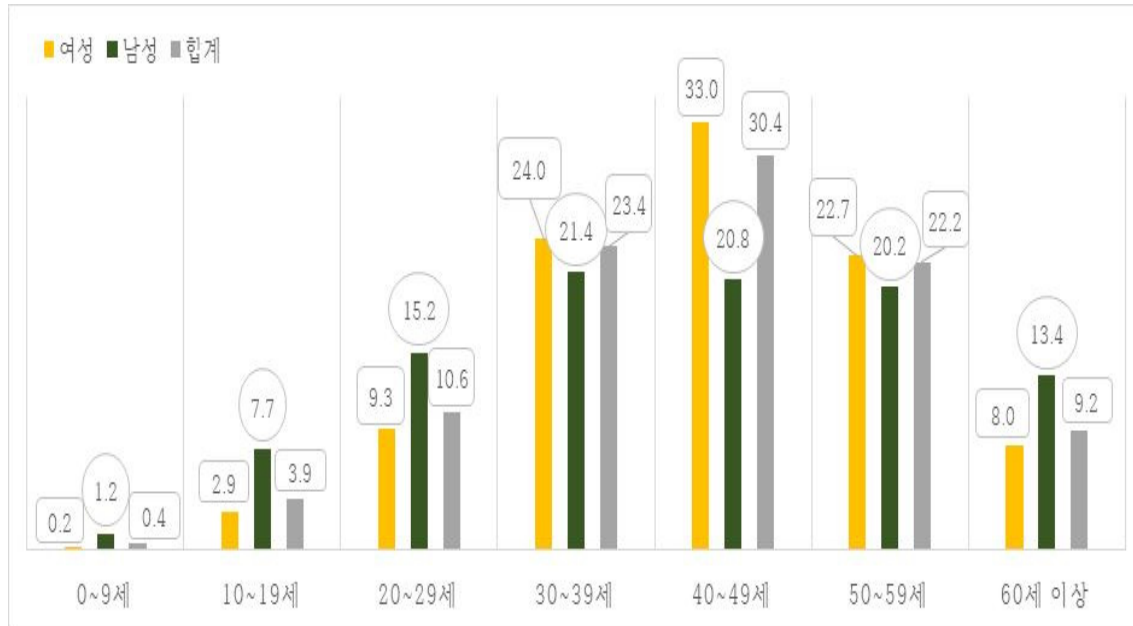
- 15개 시·군별로 성별, 연령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30.4%)가 가장 많음. 그 다음은 30대(23.4%), 50대(30.4%)의 순임.
- 성별로 살펴보면, 북한이탈여성은 40대(33%)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30대(24.0%), 50대(22.7%)의 순임. 반면 북한이탈남성은 30대가 21.4%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음.

【표 2-2-6】충남 성별, 연령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단위:명, %)

구 분		연령대(세)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	
계룡시	여성	-	-	-	-	1	1	-	2
	남성	-	-	-	-	-	-	-	
공주시	여성	-	-	2	9	24	15	5	74
	남성	-	2	3	3	4	4	3	
금산군	여성	-	-	-	3	3	3	2	12
	남성	-	-	-	-	-	-	1	
논산시	여성	-	-	1	4	3	1	1	10
	남성	-	-	-	-	-	-	-	
당진시	여성	-	1	8	28	30	12	4	107
	남성	-	1	4	7	7	4	1	
보령시	여성	-	2	4	7	29	19	7	84
	남성	-	3	3	-	2	5	3	
부여군	여성	-	1	2	4	13	11	4	48
	남성	1	1	1	-	4	4	2	
서산시	여성	-	2	9	36	35	33	16	189
	남성	-	3	8	13	7	13	14	
서천군	여성	-	-	1	1	5	2	2	11
	남성	-	-	-	-	-	-	-	
아산시	여성	1	13	22	82	118	81	30	443
	남성	1	6	11	21	26	19	12	
예산군	여성	-	-	2	6	11	5	3	35
	남성	-	1	-	2	2	3	-	
천안시	여성	1	17	61	95	120	84	24	484
	남성	2	6	19	23	13	14	5	
청양군	여성	-	-	3	11	10	2	1	30
	남성	-	-	1	1	1	-	-	
태안군	여성	-	-	-	2	2	3	-	11
	남성	-	-	-	-	1	1	2	
홍성군	여성	-	-	2	13	10	13	2	52
	남성	-	3	1	2	3	1	2	
합 계	여성	2	36	117	301	414	285	101	1,256
	(비율)	(0.2)	(2.9)	(9.3)	(24.0)	(33.0)	(22.7)	(8.0)	(100.0)
	남성	4	26	51	72	70	68	45	336
	(비율)	(1.2)	(7.7)	(15.2)	(21.4)	(20.8)	(20.2)	(13.4)	(100.0)
	합계	6	62	168	373	484	353	146	1,592
	(비율)	(0.4)	(3.9)	(10.6)	(23.4)	(30.4)	(22.2)	(9.2)	(100.0)

*자료: 충남도 내부자료. 2020.04기준(사망자, 거주지불명자, 이민자, 말소자 등 제외)



【그림 2-2-7】충남 북한이탈주민 성별, 연령별 비율

2 주요정책 분석

• • • 2-1. 중앙부처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18~’20)」에서 명시한 7대 분야 22개 정책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2020년도 추진과제 선정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총 23개 중앙부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20년도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총 53개 세부과제를 선정
 - 기본계획의 목표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임.
 - 가장 많은 세부과제는 “취약 탈북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이며 17개 과제임. 그 다음은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11개),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10개)임.

【표 2-2-7】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목 표	정책과제(분야)	세부과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	①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11
	②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10
	③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3
	④ 탈북민정책 협업체계 정비	3
	⑤ 하나센터 기반 강화 및 지원인력 역량 강화	4
	⑥ 취약 탈북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	17
	⑦ 탈북민을 포용하는 우리사회 환경 조성	5
	합 계	53

* 자료: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 • • 2-2. 충청남도

- 정부지원제도 분석으로 충남만의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북한이탈주민 중 가족단위 전입자 증가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모색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탈북민 자녀 가정학습지도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가족통합서비스, 탈북민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적응센터 운영, 정착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 천안시는 전입자 환영, 동아리지원, 주말 사랑방 등을 위한 초기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원을 위한 드림학교 지원, 전통문화, 올바른 국가관 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아산시 is 정착지원 센터 지원, 멘토링사업, 취업교육, 문화체험, 찾아가는 상담사업, 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인식개선 및 지역적응사업, 긴급구호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시·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예컨대, 아산시 46,496(천원), 천안시 31,000(천원), 서산시, 당진시 각 20,000(천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표 2-2-8】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지역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예산	2019결산 (집행잔액)	비고
충남도 (1,592명)	계속	가족통합서비스	3월~12월	탈북민 자녀 가정학습지도 및 가족기능강화 사업	100,000	-	합계:166,000 도100%
	계속	정신건강관리사업	3월~12월	탈북민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27,000	-	
	계속	정착지원	3월~12월	탈북민 30인 이상 거주 시·군 정착지원 (친안·아산·서산·공주·당진·보령·홍성·부여)	39,000	-	
천안시 (484명)	계속	초기정착지원	5월~12월	전임자 환영, 동아리지원, 주말 사랑방등	13,000	-	합계:31,000 도25.8%/ 시74.2%
	계속	드림학교 지원	5월~12월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원	13,000	-	
	계속	교육지원 사업	5월~12월	전통문화, 올바른 국가관 교육	5,000	-	
아산시 (443명)	계속	정착지원 센터 지원	연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운영비	34,932	-	합계:46,496 도25.8%/ 시74.2%
	계속	멘토링사업	연중	임주청소, 신규가족 지역안내 (병원, 대형마트 등)	2,960	-	
	계속	취업교육	3월~10월	취업연계, 및 취업의식 고취교육	520	-	
	계속	문화체험	4월	안보지역 탐방과 문화체험	1,473	-	
	계속	찾아가는 상담사업	연중	4개월(여(거점)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	200	-	

지 역	구 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예산	2019결산 (집행잔액)	비 고
	계속	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연중	문화 예술 체육 동아리 육성지원	450	-	
	계속	인식개선 및 지역적응사업	3월, 9월	북한이탈주민지원 실무자 간담회 및 교육	720	-	
	계속	긴급구조사업	연중	긴급 상황 발생시 긴급구조비 지원	241	-	
	계속	행사운영비	1월, 9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명절행사	5,000	-	
	계속	정착지원 사업1	3월~12월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 및 직업훈련비 지원	10,000	1,709,600	합계:16,500 도18.2%/시81.2%
	계속	정착지원 사업2	3월~12월	북한이탈주민 봉사단체 및 의료비 지원	6,500	-	
	계속	긴급지원	연중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1,500	-	
	계속	예방접종	10월	예방접종 지원	800	-	
보령시 (84명)	계속	자조모임	10월12월	문화체험, 송년회 지원	3,900	-	
	계속	취업지원	연중	수강료, 응시료 등 지원	2,500	-	합계:16,000 도25%/시80%
	계속	인식개선사업	연중	북한 언어·복 음식 체험	700	-	
	계속	신규전입자 지원	필요 시	멘토링, 초기정착금 지원	600	-	
	계속	문화체험 및 견학	10월	남한문화 체험 여행 등	6,000	-	

지 역	구 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예산	2019결산 (집행잔액)	비 고
서 산 시 (189명)	계속	멘토링사업	4월~12월	하나센터 정착도우미 워크숍 참석 등	700	-	합계:20,000 도30%/시70%
	계속	취업지원	4월~12월	일자리 박람회 참가, 직업훈련 프로그램비용 지원	4,000	-	
	계속	긴급구호	4월~12월	긴급구호비 지원	2,000	-	
	계속	지역사회연계	4월~12월	하나센터 연계 체육행사 참여 등	1,500	-	
	계속	인식개선사업	4월~12월	통일교육실시, 북한음식나누기 등	1,000	-	
	계속	명랑운동회	4월~12월	명랑운동회 실시	8,000	-	
	계속	행복봉사단 지원	4월~12월	행복봉사단 운영	1,200	-	
	계속	범죄예방 교육	4월~12월	범죄예방교실 운영	400	-	
	계속	여성탈북민 쉼터	4월~12월	쉼터운영	1,200	-	
	계속	자조모임	5월~12월	멘토링, 가정방문, 재봉틀, 영화관람 등	5,000	-	
	계속	문화탐방	하반기	문화탐방	2,000	-	
	계속	명절행사	10월	합동차려상 치르기	1,000	-	
당 진 시 (107명)	계속	남북음식 만들기	상 하반기	김치, 북한음식 등	5,000	-	합계:20,000 도17.6% 시82.4%
	계속	취업지원	5월~12월	운전면허시험 등	1,000	-	

지 역	구 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예산	2019결산 (집행잔액)	비 고
	계속	한마음공연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행사	3,000	-	
	계속	예방접종지원	상반기	A, B형 간염 등	2,000	-	
	계속	입학 지원	하반기	학용품 등 지원	1,000	-	
부여군 (48명)	계속	정착지원사업	3월~12월	의료지원(국민건강검진비 일부지원)	5,000	-	합계:5,000 도30%균70%
홍성군 (52명)	계속	정착 지원사업	1월~12월	명절맞이 간담회 및 위문행사개최	10,000	-	합계:10,000 도15%균85%
서천군 (11명)	신규	정착지원 사업	5월	북한이탈주민 문화충전, 행복플러스	2,000	-	합계:2,600 균100%
	신규	정착지원 사업	분기별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	600	-	

※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해당사항 없음

*자료: 충남도 내부자료. 2020.04 기준(사망자, 거주지불명자, 이민자, 말소자 등 제외)

• • • 2-3. 자립관점의 충청남도 및 시·군 사업 분석

- 부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자립(일자리) 뿐만 아니라 정서적 자립, 사회적 자립, 자립생활(일상생활 관련) 등도 중요함. 그래서 자립유형을 4가지로 분류함. 즉, 경제적 자립, 정서적 자립, 사회적 자립, 자립생활지원임. 사업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 전달자(정착도우미, 실무자 등)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립지향적인 사업과 매우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2-2-9】 자립관점의 충남 부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분석

지역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자립유형
충남하나센터	부한이탈주민 정신건강관리사업	가족건강프로그램	정서적(건강지원)
		통합사례회의 및 전문가 슈퍼비전	-
		부한이탈주민 정신건강캠프	정서적(건강지원)
		부한이탈주민 어르신 방문지지 프로그램	정서적(건강지원)
공주시	행복한 동행 멘토링 운영 취업 등 지원	부한이탈주민 심리상담 지원	정서적(건강지원)
		멘토와 함께하는 우리 문화체험 4회	정서적, 사회적
당진시	입학지원(학용품) 남북음식만들기 멘토링사업 가족개선프로그램 합동차폐제 화합체육대회	자격증 취득 지원 6~10명	경제적(취업지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입학생 지원	경제적(양육지원)
		지역민과 함께 음식을 만들기	사회적
		입주 전 청소, 지역 및 교육프로그램 안내 등	자립생활지원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워크숍	정서적
		부한이탈주민이 모여 합동차폐(추석)	정서적
		탈북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행사	정서적, 사회적

지역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자립유형
보령시	멘토링	신규정착자 멘토링	정서적, 사회적
	자조모임	각종체협 및 견학, 명절나눔행사, 봉사활동	정서적(사회통합)
	취업지원	8명 취업지원	경제적
	예방접종	생애주기별 필수접종	경제적
	긴급구호	의료비, 긴급생계지원	경제적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물품, 홍보부스대여	사회적
	남한문화체협·견학	하반기 1회 견학	사회적
부여군	의료지원서비스	국민건강 검진비 부분 지원	경제적(건강지원)
서산시	멘토링 사업	정착도우미 워크숍, 초기전입자 환영	-
	취업지원	일자리박람회 참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비용 지원	경제적
	긴급구호비 지원	긴급구호비 지원	경제적
	지역사회연계사업	하나센터 연계 체육대회 참여, 이북5도민회 연계 행사 참여	사회적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인식개선 사업	통일교육 실시, 북한음식 나누기	사회적
	명랑운동회	명랑운동회	정서적, 사회적
	행복봉사단 운영	행복봉사단 운영, 워크숍, 평가회 진행	정서적, 사회적
	범죄예방교육	범죄예방교실 운영	자립생활지원
	여성 북한이탈주민 쉼터 운영	쉼터 운영	위기지원

지역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자립유형
아산시	취업지원사업	취업교육, 취업자사례 공유, 취업자지격려방문	경제적
	멘토링사업	1:1멘토단운영(입주전청소, 지역안내, 취업면접동행 등) 역량강화 교육	정서적, 사회적
	실무자간담회	실무자 및 정착도우미, 멘토의 역량강화교육 및 소통으로 정확한 정보전달	-
	문화체험	국내탐방	사회적
	동아리지원	봉사단, 예술단, 탁구동아리 지원	사회적
	거점지역 찾아가는상담사업	정착예로사항, 생활고충 상담	정서적, 사회적
	건강관리교육 및 범죄예방교육	아산시 보건소, 아산경찰서 연계	자립생활지원
	긴급의료비지원	상황발생시 지원	경제적
	초기전입자 환영모임	신규전입 축하 및 격려	사회적
	잘살아보세	이탈주민과 정착도우미 대상 교육	자립생활지원
	정착지원 실무자 네트워크	정착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법 논의	자립생활지원
	동아리지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원	사회적
	방과후 특성화 교육	방과후 학습의 기회 마련	사회적
홍성군	드림하우스 주말사랑방 운영	주말동안 다양한 문화활동 체험	정서적, 사회적
	우리동네 ‘사랑방’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눈맞나는 세상	자조적 모임의 축하 및 격려 등 위크숍	사회적
	역사문화탐방	국내 문화유적지 탐방	정서적, 사회적
	우리마을김장축제	김장실시로 지역사회통합 계기부여	정서적, 사회적
	설맞이 북한이탈주민 위문행사	예로사항 청취, 위문품 전달 등	정서적, 사회적
	추석맞이 북한이탈주민 위문행사		정서적, 사회적

*자료: 충남도 내부자료, 2020.06 기준

3. 북한이탈여성 관련 인권 이슈

○ 북한이탈 여자 청소년의 젠더 이슈

- 심리학적 측면에서 북한이탈 여자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 정신건강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이 내현적 문제행동을 보임. 또한 여자 청소년은 자신의 어려움과 부적응을 부정하지만 불안과 긴장은 더 많이 경험함. 그리고 학교 밖 북한이탈 여자청소년의 경우, 20대 초반에 동거나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출산과 육아, 가정생활로 학업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안태운·신정아, 2017: 11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이탈 여자청소년의 경우, 건강권, 모성권, 육아권, 사회권, 학습권 등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됨.

○ 북한이탈여성의 폭력피해 심각성과 대처방법 미흡

-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도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부폭력(72.7%)과 성폭력(12.1%)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더욱 심각한 것은 빈곤으로 인해 성매매나 유흥업소로 유입되는 경향이 발생함(여성가족부, 2017: 12).
- 한편, 북한이탈여성의 폭력피해 경험은 가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성차별과 성희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또한 폭력에 대한 대처도 미흡함. 신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대처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김원홍 등, 2013; 여성가족부, 2017: 12).
- 따라서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폭력피해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임. 또한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폭력피해에 소극적이고 자원연계를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관심이 높아져야 함.

○ 북한이탈여성의 자녀교육의 어려움

- 북한이탈여성의 자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는 자녀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하는 자녀임. 인터뷰 결과,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받는 자녀의 경우, 한국국적은 생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원 등 보내기 어려워 공부시키는 것은 쉽지 않음. 또한 본인도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진로정보도 부족하여 공부로 대학교에 진학시키기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대학교 입학시 북한이탈여성의 자녀로서의 혜택(정원 외 추천)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중국에서 받은 교육과정에 대하여 남한에서 학력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북한에서 태어나서 대학에 입학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의 경우, 대학입학시 정원 외 추천 등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초등학교 생활에서 따돌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원도 보내기 어려우며, 영어, 수학 공부 따라가지 못함. 또한 초등자녀의 돌봄시간이 부족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함. 다문화가족 자녀처럼 사회보장적 혜택도 받지 못하여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교육권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자녀의 학교 재학 여부에서 21.4%가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준비 중’이 50%,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어서’가 12.5%로 조사됨. 그리고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 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집에 혼자 있다’가 63.6%로 가장 높음.
- 한편,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다니는 대안학교는 전국적으로 11개교가 있으며, 그 중 4군데는 졸업을 하면 학력이 인정되고, 나머지 7곳은 검정고시를 치러야 학력이 인정됨.
 - 남북하나재단은 미인가된 7곳의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있음.
 - 여명학교는 2020년 7월 현재 남학생 33명, 여학생 39명이 재학 중이며 중학교 과정은 미인가이고, 고등학교 과정은 인가과정임. 교원수는 33명임. 2010년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학력인가를 받음.
 - 한겨레중고등학교는 2020년 7월 현재 고등교원 19명, 중등교원 11명

등 30명의 교사가 있음. 전교생이 모든 교과목의 이동수업을 전제로 한 1교사 1교실제의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음.

- 도내 천안시에 위치한 드림학교는 2018년 고등학교 과정 인가를 받음. 학생수는 남 7명, 여 10명이며 교원수는 7명임. 교육과정은 한글반,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학력인정)을 운영하고 있음. 14~25세의 북한이탈청소년 및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지원할 수 있음.
- 하늘꿈중고등학교는 2020년 7월 현재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56명이 재학 중이며 교사는 19명임. 졸업생은 205명임. 14세~25세의 북한이탈 청소년 및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이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만 입학이 가능함.
- 남북사랑학교는 연령제한 없이 입학이 가능함.
- 우리들학교는 4명의 교직원이 있고 입학은 연령제한 없이 가능함.
- 장대현학교는 17명의 교직원이 있고, 2020년 3월 기준으로 45명이 자원봉사자가 있음.
- 한꿈학교는 7명의 교사가 있고, 14세~35세 이하의 북한이탈청소년 및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지원할 수 있음.
- 해솔직업사관학교는 기숙형 직업대안학교로 9명의 교직원과 11명의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표 2-2-10】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가 및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구분	학교	소재지	홈페이지	설립일
인가 (학력인정)	여명학교	서울시 중구	www.ymschool.org	2004년 개교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	www.han.hs.kr	2006년 개교
	드림학교	충남 천안시	drim.caesc.kr	2011년 설립, 2018년 인가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www.hdschool.org	2003년 개교
미인가 (학력미인정)	남북사랑학교	서울시 구로구	www.snlschool.com	2016년 개교
	다움학교	서울시 서초구	www.daumschool.org	2011년 설립
	반석학교	서울시 서초구	http://sarangbanseok.org	2006년 개교
	우리들학교	서울시 관악구	www.wooridulschool.org	2010년 설립
	장대현학교	부산시 강서구	http://jdhschool.org	2014년 개교
	한꿈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www.greatvision.or.kr	2004년 개교
	해솔직업사관학교	강원도 춘천시	http://haesolschool.org	2014년 개교

3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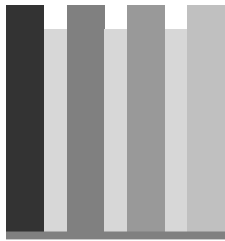
-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 인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하였으며, 향후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또한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지역으로 제외하고 충남 거주비율이 가장 높음. 이러한 결과로부터 향후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정책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정책집단인 북한이탈여성에게 대한 지역적 관심과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충청남도)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맞춤형 일자리, 생활안정, 자녀의 학습지원, 취업교육, 문화체험 등 크게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자립지원 특성이 있음. 다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드러나지 않음. 그러므로 충남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성이 있음. 더불어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이슈(북한이탈여자청소년, 폭력, 자녀교육 등)도 반영된 사업 확대가 요구됨.

제 ③ 장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실태조사 분석

제1절 분석자료의 특성

제2절 인권분야별 실태조사 결과



제1절 분석자료의 특징

1 응답자의 남한 거주 특성

-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인구를 참조하여 할당하였고, 200부를 배포함. 그 결과, 200부가 모두 회수되었음.
- 자료 수집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5개 지역의 상담사가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음. 자료 수집은 방문회수, 우편의 방법이 활용되었음.

【표 3-1-1】 조사지역과 자료수집방법

(단위: 부수)

지 역	배포 및 회수		자료수집방법
	배포	회수	
천안시	60	60	방문회수
아산시	60	60	우편
서산시	40	40	우편
당진시	20	20	방문회수
보령시	20	20	방문회수
합 계	200	200	

- 조사대상 북한이탈여성의 평균연령은 약 46세로 파악됨. 40세 이상 ~ 49세 이하(35.7%)에 해당하는 여성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세 이상 ~ 59세 이하(25.6%)에 해당하는 연령층이 높게 나타남.
- 거주 지역은 7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었음. 천안시와 아산시에 60%, 서산시에 19.5%, 보령시, 당진시, 청양군, 태안군 순으로 조사됨.
- 읍·면은 37.1%, 동은 62.9%로 조사됨. 조사대상자들은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었음.

【표 3-1-2】 응답자의 연령·거주지역·행정구역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평 균(표준편차)
연령	• 29세 이하	14	7.0	46.46세(11.675)
	• 30세 이상-39세 이하	40	20.1	
	• 40세 이상-49세 이하	71	35.7	
	• 50세 이상-59세 이하	51	25.6	
	• 60세 이상	23	11.6	
	합계	199	100.0	
거주지역	• 당진시	17	8.5	-
	• 보령시	20	10.0	
	• 서산시	39	19.5	
	• 아산시	60	30.0	
	• 천안시	60	30.0	
	• 청양군	3	1.5	
	• 태안군	1	0.5	
	합계	200	100.0	
행정구역	• 읍	22	11.2	-
	• 면	51	25.9	
	• 동	124	62.9	
	합계	19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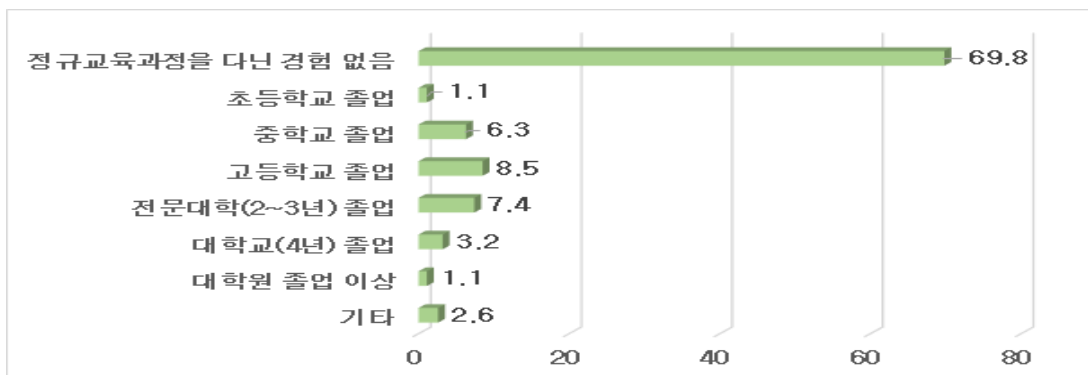
【그림 3-1-1】 응답자의 연령, 거주지역, 행정구역

- 조사대상자의 남한에서의 최종학력을 살펴봄. ‘정규교육과정을 다닌 경험 없음’이 69.8%로 가장 높음. 정규교육은 ‘고등학교 졸업’이 8.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전문대학(2~3년) 졸업’이 7.4%, ‘중학교 졸업’이 6.3%, ‘대학교(4년) 졸업’이 3.2%로 나타남. 요양보호사 교육, 학원, 대학교 재학 등도 2.6%로 파악됨.

【표 3-1-3】 응답자의 남한 최종학력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남한에서의 최종학력	• 정규교육과정을 다닌 경험 없음	132	69.8
	• 초등학교 졸업	2	1.1
	• 중학교 졸업	12	6.3
	• 고등학교 졸업	16	8.5
	• 전문대학(2~3년) 졸업	14	7.4
	• 대학교(4년) 졸업	6	3.2
	• 대학원 졸업 이상	2	1.1
	• 기타	5	2.6
	전문대, 대학교 재학 요양보호사 교육 학원 중퇴		
합계		189	100.0



【그림 3-1-2】 응답자의 남한 최종학력

- 직업을 살펴보면, 주부가 29%로 가장 높고, 무직이 20.8%임. 직군 중에서는 생산직이 14.5%, 서비스직이 13%로 파악됨. 그 외 자영업이 6.3%임. 기타(조리사, 조리보조, 도배사, 일용직, 청소직, 아르바이트 등)도 8%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 중 근로를 하지 않는 비율(무직+주부)는 49.8%이고, 50.2%는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살펴보면, 36.7%가 빈곤층이고, 63.3%는 비빈곤층으로 파악됨.
- 종교는 종교 없음이 63.1%이고, 36.9%가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신교가 25.3%임.

【표 3-1-4】 응답자의 직업·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종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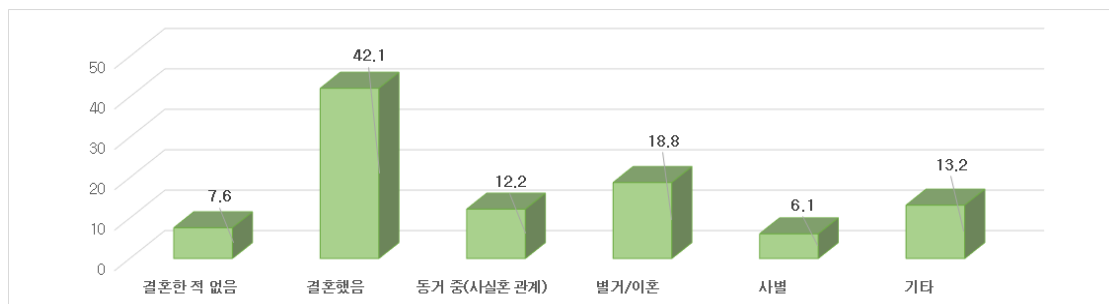
구 분		빈 도	비 율	
직업	• 주부	58	29.0	
	• 사무직	4	2.0	
	• 생산직	29	14.5	
	• 전문직	7	3.5	
	• 자영업	12	6.3	
	• 서비스직	26	13.0	
	• 학생	6	3.0	
	• 무직	41	20.8	
	• 기타 조리사, 조리보조 도배사, 일용직, 청소직 아르바이트, 안전관리직	17	8.0	
합계		200	100.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3	36.7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님	126	63.3	
합계		199	100.0	
종교	• 종교 없음	125	63.1	
	• 불교	18	9.1	36.9
	• 개신교	50	25.3	
	• 천주교	3	1.5	
	• 원불교	1	0.5	
	• 기타	1	0.5	
합계		198	100.0	

- 현재의 혼인상태를 살펴본 결과, 54.3%가 결혼(사실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남. 7.6%는 결혼한적 없고, 기타(중국내, 북한 체류시 등)은 13.2%로 파악됨.
- 현재, 남편의 국적 출신을 질문한 결과, 33.6%가 남한, 28.6%가 북한, 24.3%가 조선족 외 중국민족(한족)으로 조사됨.
- 가구 소득활동 형태는 외벌이가 40.9%, 맞벌이가 21.8%로 나타남. 전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37.3%로 조사됨.

【표 3-1-5】 응답자의 혼인상태·남편의 출신국가·가구 소득활동 형태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현재 혼인상태	• 결혼한 적 없음	15	7.6
	• 결혼했음	83	42.1
	• 동거 중(사실혼 관계)	24	12.2
	• 별거/이혼	37	18.8
	• 사별	12	6.1
	• 기타 북한 내 북한 내, 중국 체류시 (기입내용) 북한 내, 올해 결혼 계획임 중국 체류시	26	13.2
합계		197	100.0
현재 남편 출신	• 북한	40	28.6
	• 남한	47	33.6
	• 조선족	17	12.1
	•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4	24.3
	• 기타	2	1.4
합계		140	100.0
가구 소득활동 형태	• 맞벌이	42	21.8
	• 외벌이	79	40.9
	• 해당사항 없음	72	37.3
합계		193	100.0



【그림 3-1-3】 응답자의 현재의 혼인상태

○ 결혼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북한 내 44.3%, 중국 체류시 43.2%, 남한 정착 이후가 36.6%로 조사됨. 북한이탈여성은 북한에서 결혼, 중국 체류시 결혼을 많이 하며, 남한 정착 이후에도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6】 응답자의 결혼 경험(다중응답)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케이스 중 비율
결혼경험 (사실혼 포함)	• 북한 내	81	35.4	44.3
	• 중국 체류시	79	34.5	43.2
	• 중국 외 다른 나라	2	0.9	1.1
	• 남한 정착 이후	67	29.3	36.6
합계		229	100.0	125.1

* 유효케이스 :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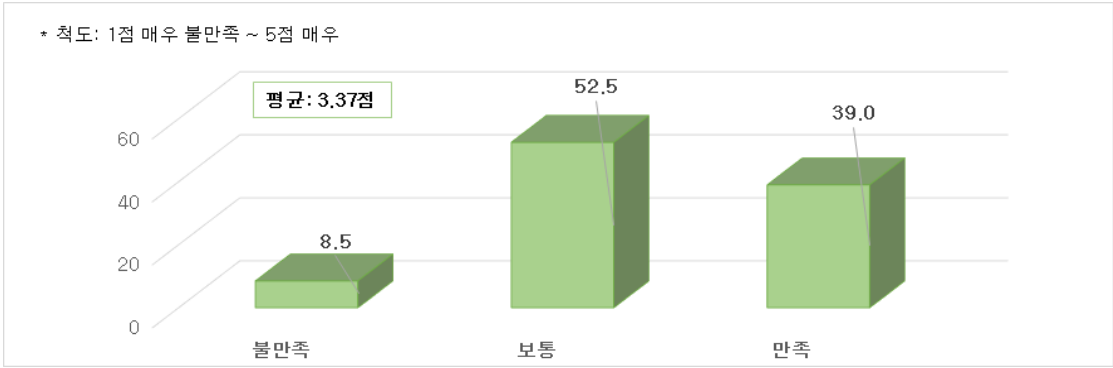
○ 현재 생활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불만족한 편이 8.5%임. 반면에 만족한 편은 39%임. 생활만족도 평균은 3.37점으로 “보통” 수준의 생활만족도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생활만족도는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1-7】 현재 생활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평 균	표준편차
1 매우 불만족	7	17	3.5	8.5	3.37	0.858
2 대체로 불만족	10		5.0			
3 보통	105	105	52.5			
4 대체로 만족	59	78	29.5	39.0		
5 매우 만족	19		9.5			
합 계			100.0			

* 척도: 1점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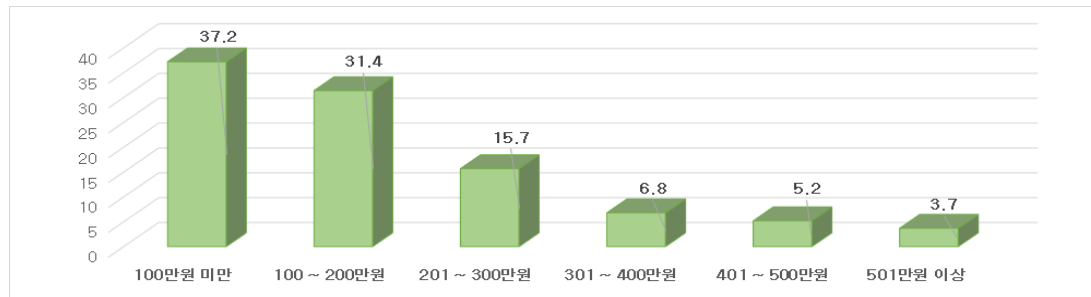
【그림 3-1-4】 현재 생활만족도

○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이 37.2%로 파악됨.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는 31.4%, 201만원 이상~300만원 이하는 15.7%임. 501만원 이상은 3.7%로 나타남.

【표 3-1-8】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평 균	표준편차
① 100만원 미만	71	37.2	2.23	1.348
② 100 ~ 200만원	60	31.4		
③ 201 ~ 300만원	30	15.7		
④ 301 ~ 400만원	13	6.8		
⑤ 401 ~ 500만원	10	5.2		
⑥ 501만원 이상	7	3.7		
합 계	191	100.0		



【그림 3-1-5】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다중응답분석으로 질문한 결과, 남편(남자친구)가 39.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녀 36.7%, 혼자가 36.2%로 나타남.

【표 3-1-9】 현재 동거 가족(다중응답)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케이스 중 비율
• 혼자	72	29.4	36.2
• 남편(남자친구)	79	32.2	39.7
• 친척	2	0.8	1.0
• 부모님(시부모·친정부모)	10	4.1	5.0
• 자녀	73	29.8	36.7
• 친구	1	0.4	0.5
• 기타 동거인	8	3.3	4.0
합계	245	100.0	123.1

* 유효케이스 : 199

○ 조사대상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수를 질문함. 자녀 수는 ‘귀하의 자녀는 몇 명인가요?’라고 질문함. 1명에서 6명까지 분포하며, 1명이 52.6%, 2명이 35.3%, 3명이 6.4%, 4명이 5.1%로 나타남. 여자 자녀는 1명이 69.2%, 남자 자녀는 1명이 78.5%로 조사됨.

【표 3-1-10】 자녀 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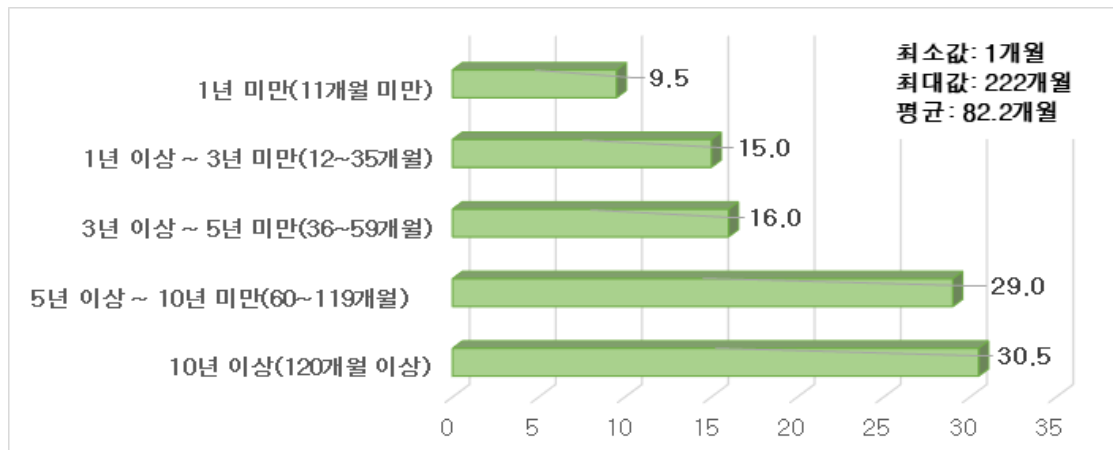
구 분	빈 도	비 율
여자 자녀	• 1명	72
	• 2명	26
	• 3명	5
	• 4명	1
합계	104	100.0
남자 자녀	• 1명	73
	• 2명	16
	• 3명	4
합계	93	100.0
자녀 합계	• 1명	82
	• 2명	55
	• 3명	10
	• 4명	8
	• 6명	1
합계	156	100.0

- 남한 거주기간은 1년 미만에서 10년 이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음. 10년 이상이 30.5%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29%로 나타남.

【표 3-1-11】 남한 거주 기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년 미만(11개월 미만)	19	9.5	1.00	222.0	82.2개월	53.661
1년 이상 ~ 3년 미만(12~35개월)	30	15.0				
3년 이상 ~ 5년 미만(36~59개월)	32	16.0				
5년 이상 ~ 10년 미만(60~119개월)	58	29.0				
10년 이상(120개월 이상)	61	30.5				
합 계	200	100.0				



【그림 3-1-6】 응답자의 남한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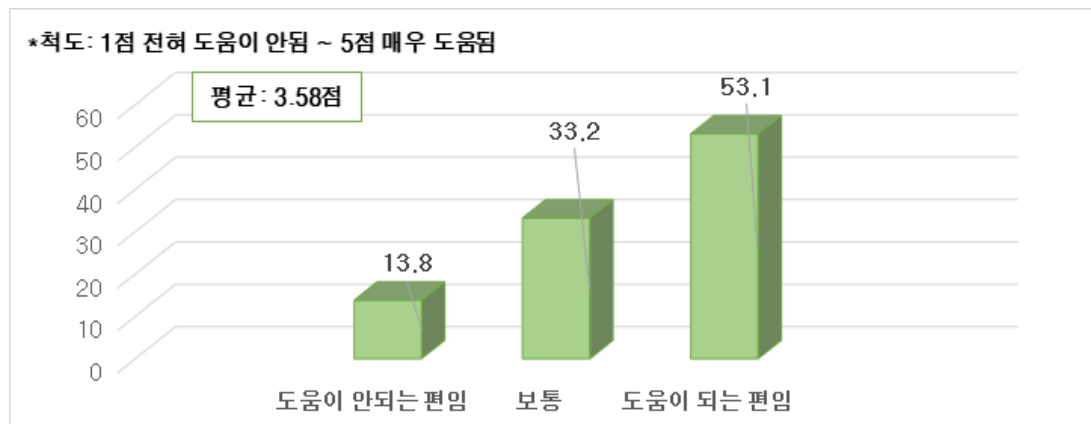
- 충청남도나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질문한 결과, 53.1%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반면에 13.8%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은 도 및 시·군 사업에 대하여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매우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표 3-1-12】 충남과 시·군 사업의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평균	표준편차
1 전혀 도움이 안됨	11	5.6	3.58	1.113
2 도움이 안됨	16	8.2		
3 보통	65	33.2		
4 약간 도움됨	56	28.6		
5 매우 도움됨	48	24.5		
합 계	196	100.0		

* 척도: 1점 전혀 도움이 안됨 ~ 5점 매우 도움됨



【그림 3-1-7】충남·시군 사업의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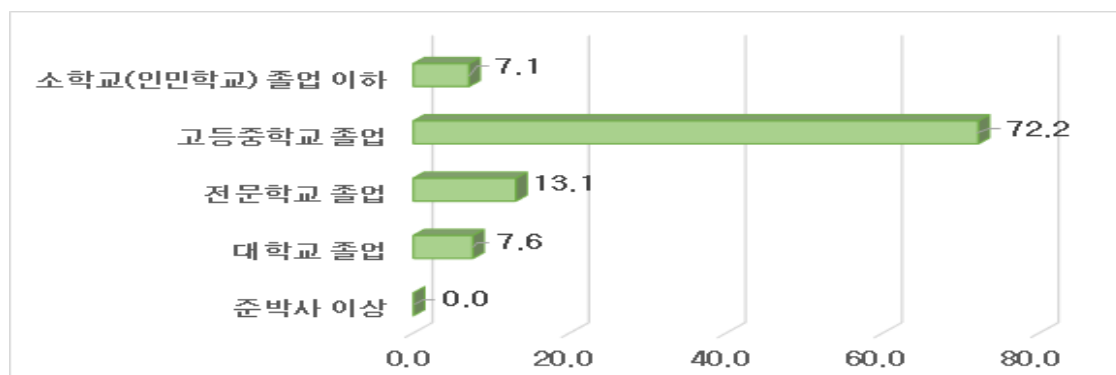
2 응답자의 북한 거주·입국 이전 특성

- 북한이탈여성의 북한에서의 최종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이 72.2%로 가장 높았음. 전문학교 졸업은 13.1%, 대학교 졸업은 7.6%를 차지함.

【표 3-1-13】응답자의 북한에서의 최종학력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북한에서의 최종학력	•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14	7.1
	• 고등중학교 졸업	143	72.2
	• 전문학교 졸업	26	13.1
	• 대학교 졸업	15	7.6
	• 준박사 이상	-	-
합계		198	100.0



【그림 3-1-8】응답자의 북한 최종학력

- 북한에서의 직업에 대하여 다중응답 조사결과, ‘노동자’가 49.5%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은 ‘가정부양’(19%), ‘장사’(16%), ‘농민’(15%)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14】북한에서의 직업(다중응답)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케이스 중 비율
• 노동자	99	38.8	49.5
• 농민	30	11.8	15.0
• 군인	11	4.3	5.5
• 사무원	15	5.9	7.5
• 가정부양	38	14.9	19.0
• 장사	32	12.5	16.0
• 기타 간호사, 전문직 교사, 학생, 체육 없음	30	11.8	15.0
합 계	255	100.0	127.5

* 유효케이스 : 200

- 북한 출신지역은 11개 지역으로 파악됨. 그 중에서 함경북도 출신이 5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량강도(24.1%)로 나타남. 중국과 가까운 함경북도, 량강도에서 남한으로 입국한 비율이 높음.

【표 3-1-15】북한 출신지역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함경북도	107	53.8
• 함경남도	14	7.0
• 량강도	48	24.1
• 자강도	1	0.5
• 평안북도	8	4.0
• 평안남도	3	1.5
• 황해북도	2	1.0
• 황해남도	1	0.5
• 강원도	4	2.0
• 평양시	8	4.0
• 개성시	3	1.5
합 계	199	100.0



* 자료: 위키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https://ko.wikipedia.org/>, 검색일 2020. 09.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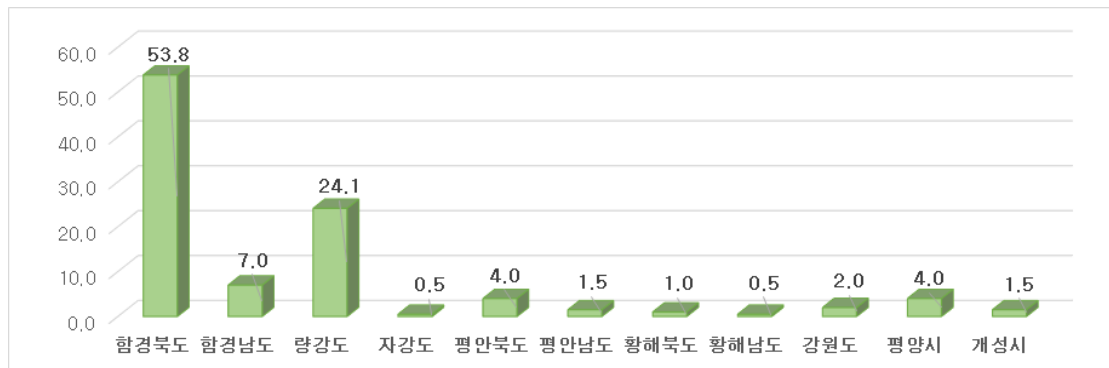
【그림 3-1-9】 북한지도(행정구역)

【표 3-1-16】북한에서 쓰고 있는 도·시·군(2009년)

직할시·도	시			군	
	도 소재	일반시	수		
평양직할시			0	강남, 강동, 상원, 중화	4
나선직할시			0		0
강원도	원산	문천	2	고산, 고성, 금강, 김화, 법동, 세포, 안변, 이천, 창도, 천내, 철원, 통천, 판교, 평강, 회양	15
양강도	혜산		1	갑산, 김정숙(신파), 김형권(풍산), 김형직(후창), 대홍단, 백암, 보천, 삼수, 삼지연, 운흥, 풍서	11
자강도	강계	만포, 희천	3	고풍, 낭림, 동신, 성간, 송원, 시중, 용림, 우시, 위원, 자성, 장강, 전천, 중강, 초산, 화평	15
평안남도	평성	개천, 남포, 덕천, 순천, 안주	6	강서, 대동, 대안, 대흥, 맹산, 문덕, 북창, 성천, 숙천, 신양, 양덕, 영원, 온천, 용강, 은산, 증산, 천리마, 평원, 회창	19
평안북도	신의주	구성, 정주	3	곽산, 구장, 대관, 동림, 동창, 박천, 벽동, 삭주, 선천, 신도, 염주, 영변, 용천, 운산, 운전, 의주, 창성, 천마, 철산, 태천, 피현, 향산	22
함경남도	함흥	단천, 신포	3	고원, 금야, 낙원(퇴조), 덕성, 부전, 북청, 신흥, 영광(오로), 요덕, 이원, 장진, 정평, 함주, 허천, 홍원	15
함경북도	청진	김책(성진), 회령	3	경성, 길주, 명천, 무산, 부령, 새별(경원), 어랑, 연사, 온성, 은덕(경흥), 화대, 화성(명간)	12
황해남도	해주		1	강령, 과일, 배천, 벽성, 봉천, 삼천, 송화, 신원, 신천, 안악, 연안, 웅진, 용연, 은율, 은천, 장연, 재령, 청단, 태탄	19
황해북도	사리원	개성, 송림	3	곡산, 금천, 봉산, 서흥, 수안, 신계, 신평, 연산, 연탄, 은파, 인산, 장풍, 토산, 평산, 황주	15
2직할시 9도	25시			147군	

* 자료 :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books/archive/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043&mode=view&cntId=19503&category=&pageIdx=), 검색일 2020. 09. 04



【그림 3-1-10】 응답자의 북한 출신지역

○ 남한 입국시 함께 온 가족 혹은 친척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혼자 60%, 자녀가 23.5%, 부모 9.5%로 나타난다.

【표 3-1-17】 남한 입국시 동반가족(다중응답)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케이스 중 비율
• 혼자	120	52.6	60.0
• 남편(배우자, 남자친구)	14	6.1	7.0
• 부모	19	8.3	9.5
• 자녀	47	20.6	23.5
• 친척	14	6.1	7.0
• 기타 형제, 자매 외손자 조카	14	6.1	7.0
합 계	228	100.0	114.0

* 유효케이스 : 200

○ 북한이탈경로를 남한으로 직접 입국한 직행인지, 제3국을 경유하여 남한으로 입국하였는지 살펴봄. 74.4%가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였고, 25.6%가 직행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됨.

【표 3-1-18】 북한 이탈경로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남한으로 직접 입국(직행)	51	25.6
•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	148	74.4
합 계	199	100.0

- 제3국을 경유한 경우, 경유한 국가에 대하여 다중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중국이 108.2%, 라오스 24.5%, 태국 20.4%, 몽골 18.4%로 응답됨.

【표 3-1-19】북한이탈시 경유국가(다중응답)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케이스 중 비율
• 라오스	12	13.8	24.5
• 몽골	9	10.3	18.4
• 베트남	2	2.3	4.1
• 중국	53	60.9	108.2
• 태국	10	11.4	20.4
• 기타	1	1.1	2.0
합 계	87	100.0	1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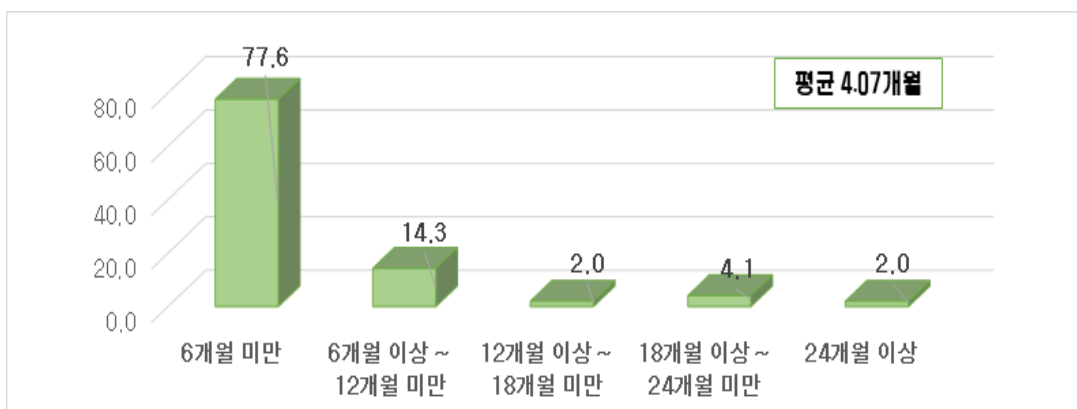
* 유효케이스 : 49

- 직행시 경유한 국가의 체류기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약 4개월이었으며,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이 71.5%로 가장 높고,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이 14.3%를 차지하였음. 직행의 경우, 91.9%가 1년 이내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됨.

【표 3-1-20】직행시 경유한 국가의 체류기간

(단위: 명, %, 개월)

구 분	빈 도	비 율	평균	표준편차
1개월 미만	3	6.1	4.07개월	4.923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5	71.5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7	14.3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1	2.0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	4.1		
24개월 이상	1	2.0		
합 계	49	100.0		



【그림 3-1-11】직행시 경유한 국가의 체류 기간

-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국가는 중국(97.9%)으로 파악됨. 그 외 라오스, 베트남, 태국이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남.

【표 3-1-21】 북한이탈시 가장 오래 체류한 국가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라오스	1	0.7
• 베트남	1	0.7
• 중국	143	97.9
• 태국	1	0.7
합 계	146	100.0

-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국가에서의 체류기간을 살펴본 결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0개월 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평균 약 109개월(약 9년 1개월) 정도이며, 표준편차가 65개월(5년 5개월) 매우 큼. 체류기간이 긴 이유는 북한이탈여성이 중국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입국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됨.

【표 3-1-22】 북한이탈시 가장 오래 체류한 국가에서의 체류기간

(단위: 명, %, 개월)

구 분	빈 도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가장 오래 머문 국가에서의 체류기간	149	1	240	108.99개월 (약 9년 1개월)	65.529

- 탈북 이후 남한에 입국하여 원치않는 결혼 경험이 있는지 파악한 결과, 95.6%가 없다고 응답함. 반면에 4.1%는 있다고 응답함.

【표 3-1-23】 남한에서 원치 않은 결혼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예	8	4.1
• 아니오	185	95.9
합 계	193	100.0

○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손해를 본 경험을 파악하였음. 21.3%는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사기의 종류는 다단계사기가 11.2%로 가장 높고, 기타(명의, 공공사기, 보이스피싱 등)이 5.9%, 브로커 사기 2.7%, 결혼사기 1.1%, 취업사기 0.5%로 파악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사기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3-1-24】 남한 정착 과정에서 사기당한 경험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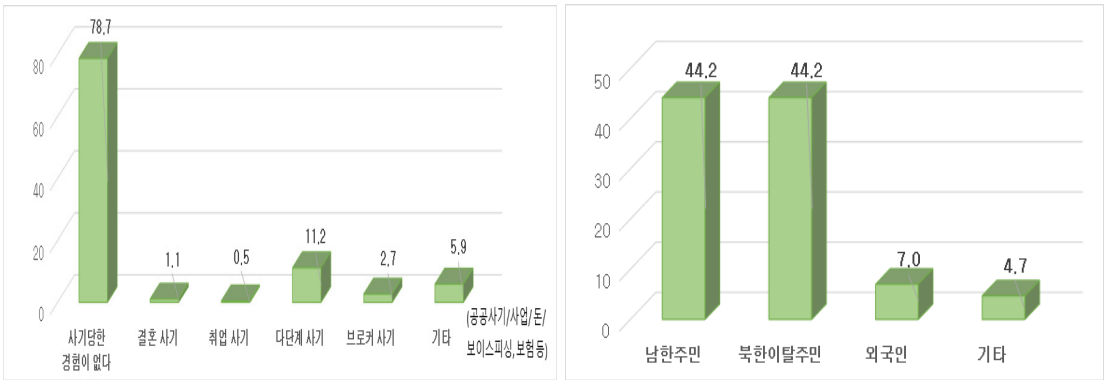
구 분	빈 도	비 율
• 사기당한 경험이 없다	148	78.7
• 결혼 사기	2	1.1
• 취업 사기	1	0.5
• 다단계 사기	21	11.2
• 브로커 사기	5	2.7
• 기타 공공사기, 사업 돈, 명의, 보험, 보이스피싱, 집주인	11	5.9
합 계	188	100.0

○ 누구로부터 사기 당했는지 살펴본 결과,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44.2%로 동일하게 높았음. 그 외 외국인 7%, 기타가 4.7%로 파악됨.

【표 3-1-25】 남한정착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사기 당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남한주민	19	44.2
• 북한이탈주민	19	44.2
• 외국인	3	7.0
• 기타	2	4.7
합 계	43	100.0



【그림 3-1-12】 사기당한 경험 및 누구로부터 사기 당했는지 여부

○ 남한에 와서 사는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있는지 질문함. 그 결과 15.3%는 후회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 반면에 84.7%는 후회를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표 3-1-26】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있다	30	15.3
• 없다	166	84.7
합 계	196	100.0

○ 후회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다중응답으로 살펴봄.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39.2%),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크다(31.4%), 건강이 좋지 않다(29.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회의 차별(13.7%)이 주요한 이유로 파악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경제적 자립지원, 심리정서지원서비스, 건강지원 서비스, 사회적 차별 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3-1-27】 남한 입국을 후회하는 이유(다중응답)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케이스 중 비율
•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	20	30.3	39.2
• 북한에서 생각했던 자유와 다르다	3	4.5	5.9
•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크다	16	24.2	31.4
• 남한 사람과 비교되는 삶에 자존감이 떨어진다	5	7.6	9.8
• 건강이 좋지 않다	15	22.7	29.4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회의 차별	7	10.6	13.7
합 계	66	100.0	129.4

* 유효케이스 :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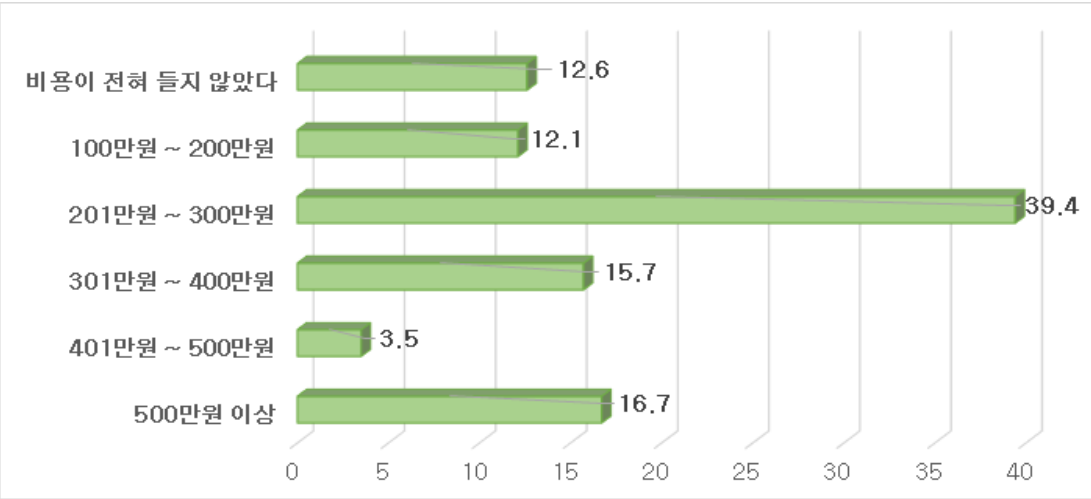
【그림 3-1-13】 남한 입국을 후회하는 이유(다중응답)

○ 남한 입국시 사용한 브로커 비용을 살펴본 결과, **87.4%는 비용을 사용**하였음. ‘201만원 ~ 300만원’ 이 39.4%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은 ‘500만원 이상’ 이 16.7%, ‘301만원 ~ 400만원’ 이 15.7%로 조사됨. 반면에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비율은 12.6%**로 파악됨. 비용이 들지 않은 이유에 기입한 사유는 교회 및 종교 연계, 100만원 미만, 후원금 지원, 가짜 신분을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28】 남한 입국시 사용한 브로커 비용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교회 및 종교 연계			
•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다	25	12.6	
100만원 미만			
후원금 지원, 가짜 신분			
• 100만원 ~ 200만원	24	12.1	87.4
• 201만원 ~ 300만원	78	39.4	
• 301만원 ~ 400만원	31	15.7	
• 401만원 ~ 500만원	7	3.5	
• 500만원 이상	33	16.7	
합 계	198	100.0	



【그림 3-1-14】 남한 입국시 사용한 브로커 비용

제2절 인권분야별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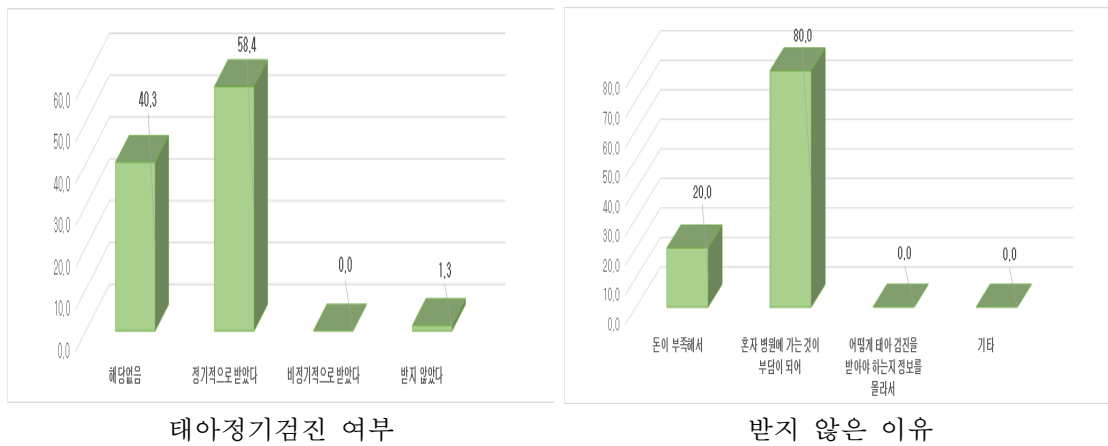
1 모성권

- ☐ 북한이탈여성이 임신하였을 경우, 태아 정기검진을 받았는지 살펴본 결과, 1명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 태아 정기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검진여부와 다르게 5명이 응답하였음. 주요 이유는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부담이 되어(80%)**, 돈이 부족해서(20%)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임신한 북한이탈여성의 태아정기검진을 위하여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3-2-1】충남도 정착시 태아정기검진 여부와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항 목	구 분	빈 도	비 율
태아정기검진 여부	• 해당없음	31	40.3
	• 정기적으로 받았다	45	58.4
	• 비정기적으로 받았다	-	-
	• 받지 않았다	1	1.3
	합 계	77	100.0
받지 않은 이유	• 돈이 부족해서	1	20.0
	•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부담이 되어	4	80.0
	• 어떻게 태아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정보를 몰라서	-	-
	• 기타	-	-
	합 계	5	100.0



【그림 3-2-1】 태아정기검진 여부와 받지 않은 이유

□ 출산 후 자녀의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여부를 조사한 결과, 96.1%가 받았으며, 3.9%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료지원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가 60%, ‘예방접종을 잘 몰라서’가 40%로 파악됨. 조사대상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무료지원정보 제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표 3-2-2】 출산 후 자녀의 필수 예방접종 여부와 받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항 목	구 분	빈 도	비 율
필수예방접종 여부	• 예	49	96.1
	• 아니오	2	3.9
	합 계	51	100.0
받지 못한 이유	• 무료지원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3	60.0
	•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	-
	• 시간을 낼 수 없어서	-	-
	• 예방접종을 잘 몰라서	2	40.0
	• 기타	-	-
	합 계	5	100.0

□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선택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62%는 하였고, 38%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선택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주요한 이유는 ‘선택예방접종을 잘 몰라서’가 38.1%, ‘돈이 부족하여’가 33.3%, ‘기타’로 9.5%는 ‘교통이 불편해서, 필수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라고 기입하였음. 현재는 신생아를 위한 정책 확대로 기존의 선택예방접종이 무료로 전환되어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 그러나 ‘정보를 몰라서’에 대해서는 보편적 정보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3-2-3】선택 예방접종 여부와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항 목	구 분	빈 도	비 율
선택예방접종 여부	• 예	31	62.0
	• 아니오	19	38.0
	합 계	50	100.0
받지 않은 이유	• 없음	4	19.0
	• 돈이 부족하여	7	33.3
	• 시간을 낼 수 없어서	-	-
	• 선택예방접종을 잘 몰라서	8	38.1
	• 기타 교통이 불편해서 필수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2	9.5
	합 계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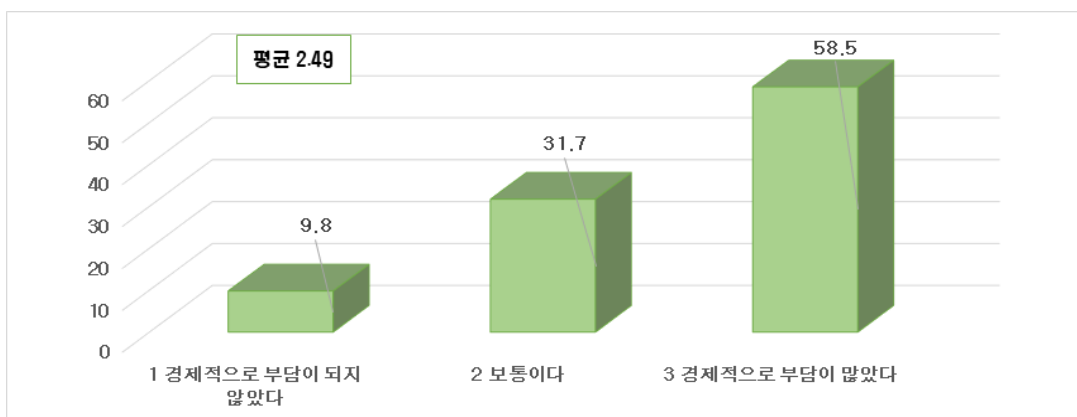
- ☐ 모유 수유 외에 분유를 먹을 경우, 분유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정도를 살펴본 결과, 58.5%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았다고 응답함. 반면에 9.8%만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의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3-2-4】분유 구입비용 부담정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평 균(표준편차)
1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다	4	9.8	2.49(.675)
2 보통이다	13	31.7	
3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았다	24	58.5	
합 계	41	100.0	

* 척도: 1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다 ~3점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았다



【그림 3-2-2】분유 구입비용 부담정도

- ☐ 북한이탈경로별 분유구입비용 부담의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직행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여성(2.71점)이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한 북한이탈여성(2.38점)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1)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2-5】북한이탈경로별 모성권_분유구입비용 부담 정도

(단위: 명, %)

문항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값
분유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정도	남한으로 직접 입국(직행)	14	2.71	.469	1.703 [#]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	26	2.38	.752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1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다 ~ 3점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았다

2 육아권

- ☐ 영유아 검진시기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살펴본 결과, 83.1%가 받았다고 응답함. 반면에 16.9%는 받지 않았다고 응답함. 받지 않은 주요한 이유는 ‘검진시기를 놓쳐서’가 36.4%, ‘검진 정보를 알지 못해서’와 ‘시간을 낼 수 없어서’가 27.3%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영유아가 있는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정보제공, 정보를 잘 받았는지 확인, 건강검진 동행 서비스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3-2-6】시기별 영유아 건강검진 여부와 받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항 목	구 분	빈 도	비 율
영유아 시기별 건강검진 여부	• 예	54	83.1
	• 아니오	11	16.9
	합 계	65	100.0
받지 못한 이유	• 검진 정보를 알지 못해서	3	27.3
	• 시간을 낼 수 없어서	3	27.3
	• 검진시기를 놓쳐서	4	36.4
	• 기타 중국에 있어서	1	9.1
	합 계	11	100.0

- ☐ 북한이탈여성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질문함. 그 결과, 75.9%는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함. 반면에 4.8%는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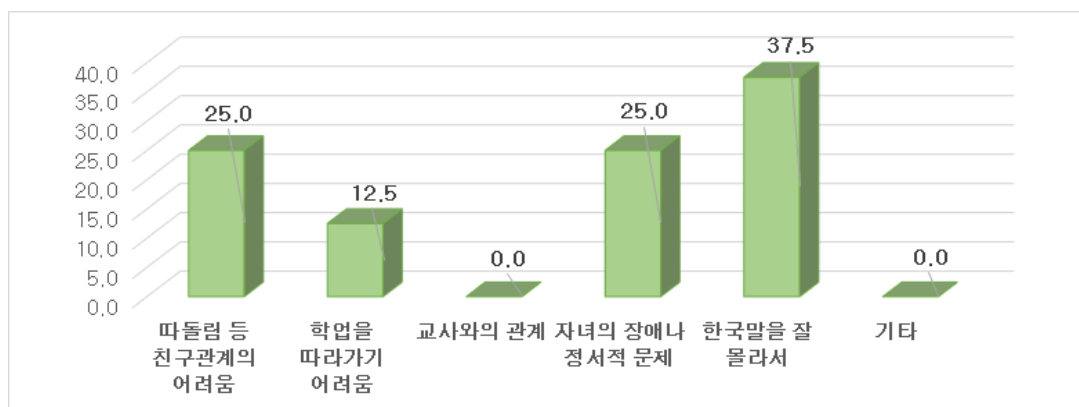
- 적응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한국말을 잘 몰라서’가 37.5%, ‘따돌림 등 친구관계의 어려움’과 ‘자녀의 장애나 정서적 문제’가 각각 25%임. 그 외에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움’은 12.5%임. 중국 출생 자녀의 경우, 한국말을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그 외에 친구관계, 정서적 문제, 학업문제 등으로 북한이탈여성이 육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을 위하여 언어학습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학업지원서비스, 또래관계형성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3-2-7】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적응도와 적응 못하는 이유

(단위: 명, %)

항 목	구 분	빈 도	비 율	평균(표준편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적응도	1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	-	3.38(1.768)
	2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4.8	
	3 보통이다	12	19.4	
	4 어느 정도 적응을 잘 하고 있다	12	19.4	
	5 매우 잘 적응을 잘 하고 있다	35	56.5	
	합 계	62	100.0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 따돌림 등 친구관계의 어려움	2	25.0	-
	•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움	1	12.5	
	• 교사와의 관계	-	-	
	• 자녀의 장애나 정서적 문제	2	25.0	
	• 한국말을 잘 몰라서	3	37.5	
	• 기타	-	-	
	합 계	8	100.0	

* 상담의 도움 정도 척도: 1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 5점: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그림 3-2-3】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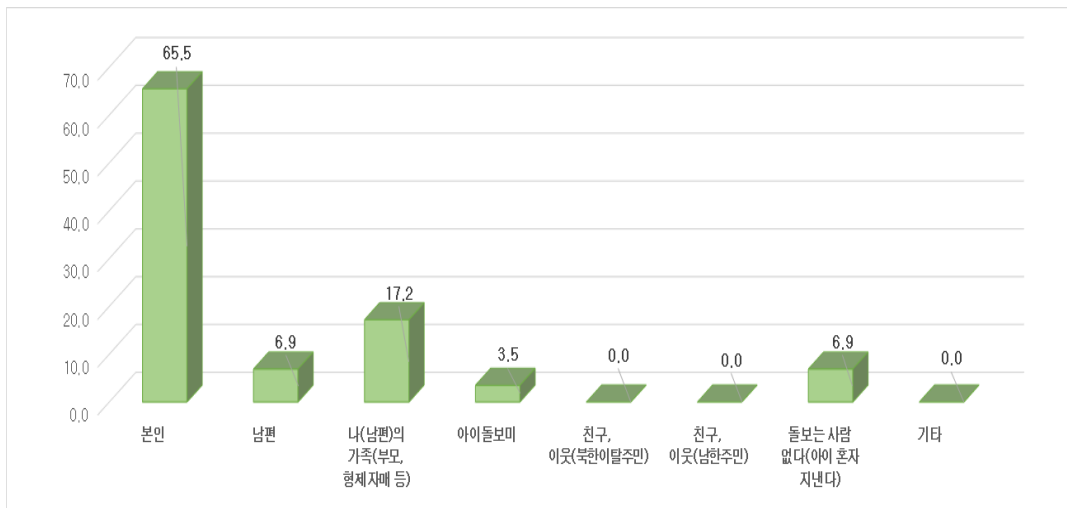
- 보육시설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71.4%가 이용하였고, 28.6%가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보육시설 이용시간 후(저녁, 주말 등) 주 돌봄을 하는 사람을 누구인지 살펴봄. 북한이탈여성이 돌본다는 응답이 65.5%, 가족은 17.2%, 남편은 6.9%임. 반면에 ‘돌보는 사람 없다(아

이 혼자 지낸다)’ 는 비율이 6.9%로 파악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아동 방임이 되지 않도록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함.

【표 3-2-8】 보육시설 이용 경험 여부와 보육시설 이용시간 후 주 돌봄자

(단위: 명, %)

항 목	구 분	빈 도	비 율
보육시설 이용 경험 여부	• 예	25	71.4
	• 아니오	10	28.6
	합 계	35	100.0
보육시설 이용시간 후(저녁, 주말 등) 주 돌봄자	• 본인	19	65.5
	• 남편	2	6.9
	• 나(남편)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	5	17.2
	• 아이돌보미	1	3.5
	• 친구, 이웃(북한이탈주민)	-	-
	• 친구, 이웃(남한주민)	-	-
	• 돌보는 사람 없다(아이 혼자 지낸다)	2	6.9
	• 기타	-	-
	합 계	29	100.0



【그림 3-2-4】 보육시설 이용 후 주 돌봄자

-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동안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본 결과, 본인이 90.1%, 남편이 3.3%라고 응답함. 남편의 공동 돌봄 부담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돌보는 사람 없다(아이 혼자 지낸다)’ 는 비율이 3.3%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 가족 대상으로 가사일, 돌봄 등 공동 부담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더불어 방임아동 비율이 3.3%이므로 이에 대한 돌봄지원대책이 요구됨.

【표 3-2-9】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자녀 돌봄자

(단위: 명, %)

항 목	구 분	빈 도	비 율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자녀를 돌보는 사람	• 본인	27	90.1
	• 남편	1	3.3
	• 나(남편)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	-	-
	• 아이돌보미	-	-
	• 친구, 이웃(북한이탈주민)	-	-
	• 친구, 이웃(남한주민)	-	-
	• 돌보는 사람 없다(아이 혼자 지낸다)	1	3.3
	• 기타	1	3.3
합 계		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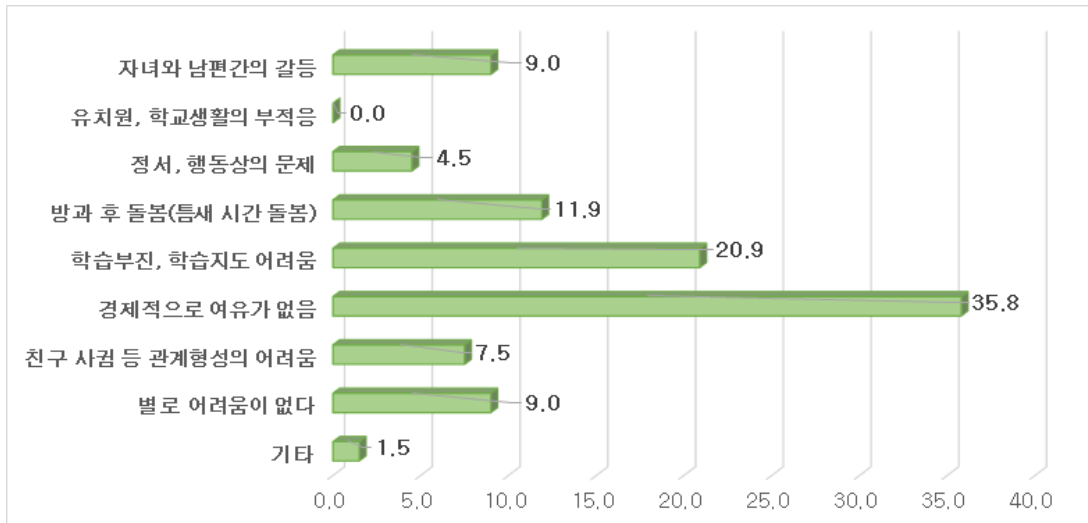
-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다중응답으로 질문함. 그 결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음’ (39.3%), ‘학습부진, 학습지도 어려움’ (23%), ‘방과 후 돌봄(틈새 시간 돌봄)’ (13.1%)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경제활동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연계, 자녀의 학업지원서비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함.

【표 3-2-10】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다중응답분석)

(단위: 명, %)

구 분	N	비 율	케이스 중 비율
• 자녀와 남편간의 갈등	6	9.0	9.8
• 유치원, 학교생활의 부적응	-	-	-
• 정서, 행동상의 문제	3	4.5	4.9
• 방과 후 돌봄(틈새 시간 돌봄)	8	11.9	13.1
• 학습부진, 학습지도 어려움	14	20.9	23.0
•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음	24	35.8	39.3
• 친구 사귀기 등 관계형성의 어려움	5	7.5	8.2
• 별로 어려움이 없다	6	9.0	9.8
• 기타	1	1.5	1.6
합 계	67	100.0	109.8

* 유효케이스 : 61



【그림 3-2-5】 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다중응답)

- 읍면·동별 육아권_초등입학 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읍면 지역의 경우, 92.3%가 이용하고 있음. 반면에 동지역은 59.1%가 이용하고, 40.9%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농촌지역 유아가 도시 지역 유아보다 보육시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p<.05) 분석됨.

【표 3-2-11】 읍면·동별 육아권_초등입학 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 경험 여부

(단위: 명, %)

읍면·동 구분	초등입학 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경험 여부		전 체
	예	아니오	
읍면	12/92.3	1/7.7	13/100.0
동	13/59.1	9/40.9	22/100.0
전 체	25/71.4	10/28.6	35/100.0
$\chi^2 = 4.418^{**}$			

*P<0.05

3 자녀의 교육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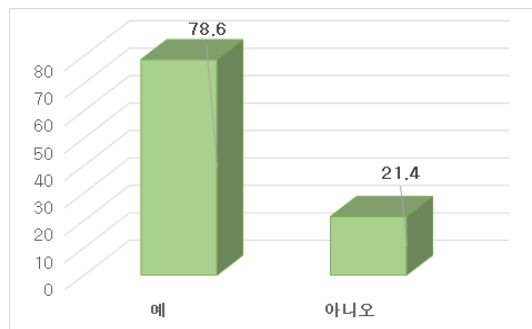
-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가 학교(대안학교 포함)에 다니고 있는지 살펴봄. 응답자의 78.6%가 재학하고, 21.4%가 다니지 않는다고 조사됨.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50%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응답함. 12.5%는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어서’로 응답함. 이러한 결과로부터 진로지도, 학업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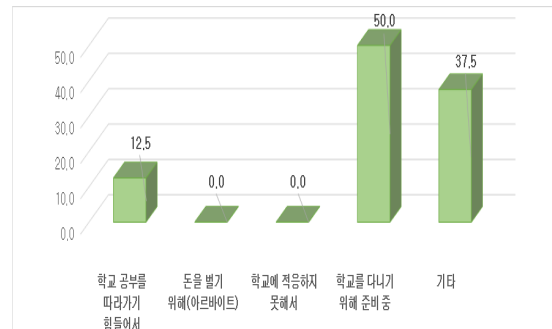
【표 3-2-12】 자녀의 재학 여부와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항 목	구 분	빈 도	비 율
자녀의 학교 재학 여부	• 예	44	78.6
	• 아니오	12	21.4
	합 계	56	100.0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어서	1	12.5
	• 돈을 벌기 위해(아르바이트)	-	-
	•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	-
	• 학교를 다니기 위해 준비 중	4	50.0
	• 기타	3	37.5
	합 계	8	100.0



자녀의 재학 여부



비재학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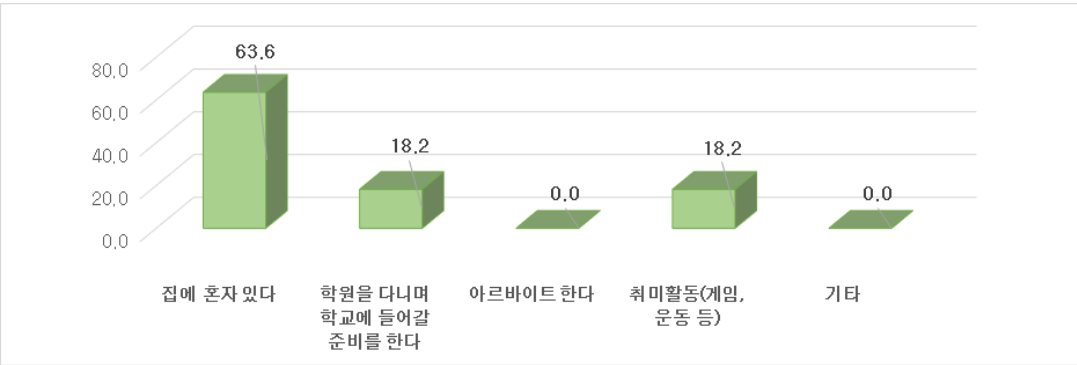
【그림 3-2-6】 자녀의 재학 여부와 다니지 않는 이유

-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 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집에 혼자 있다’가 63.6%로 조사됨. ‘학원을 다니며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와 ‘취미활동’은 18.2%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학교 밖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표 3-2-13】 비재학시 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

(단위: 명, %)

항 목	구 분	빈 도	비 율
비재학 자녀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	• 집에 혼자 있다	7	63.6
	• 학원을 다니며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2	18.2
	• 아르바이트 한다	-	-
	• 취미활동(게임, 운동 등)	2	18.2
	• 기타	-	-
	합 계	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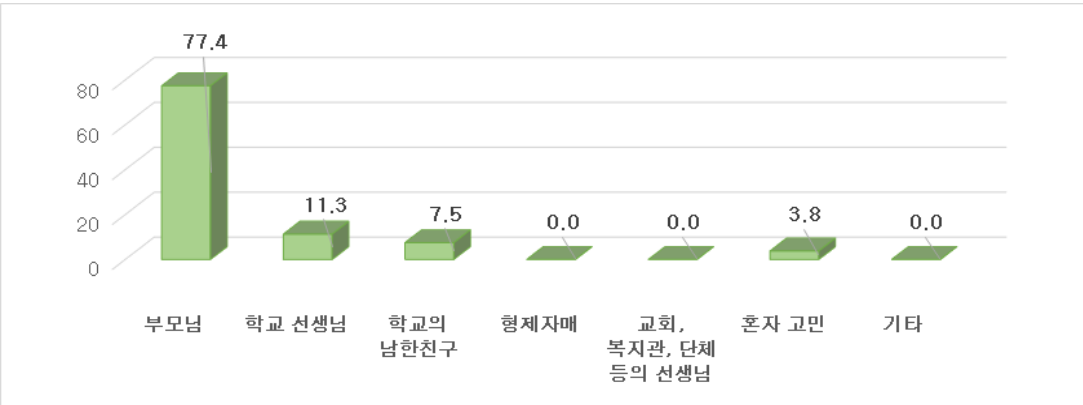
【그림 3-2-7】 비재학 자녀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

□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주로 이야기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함. 77.4%가 ‘부모님’ 이라고 응답함. 그 외에 11.3%는 학교 선생님, 학교의 남한친구는 7.5%임. 3.8%는 ‘혼자 고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조사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 자녀가 고민이 있을 경우, 전문 상담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필요성이 높음.

【표 3-2-14】 자녀의 고민 상담자

(단위: 명, %)

항 목	구 분	빈 도	비 율
자녀의 고민 상담자	• 부모님	41	77.4
	• 학교 선생님	6	11.3
	• 학교의 남한친구	4	7.5
	• 형제자매	-	-
	• 교회, 복지관, 단체 등의 선생님	-	-
	• 혼자 고민	2	3.8
	• 기타	-	-
	합 계	53	100.0



【그림 3-2-8】 자녀의 고민 상담자

- 학교에서 자녀가 차별, 배제, 따돌림, 소외 등의 경험이 있는지 질문함. 그 결과, 10.9%는 ‘그렇다’ 라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의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 배제,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대상 사회적 편견 해소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3-2-15】 학교에서 자녀의 차별, 배제, 따돌림, 소외 경험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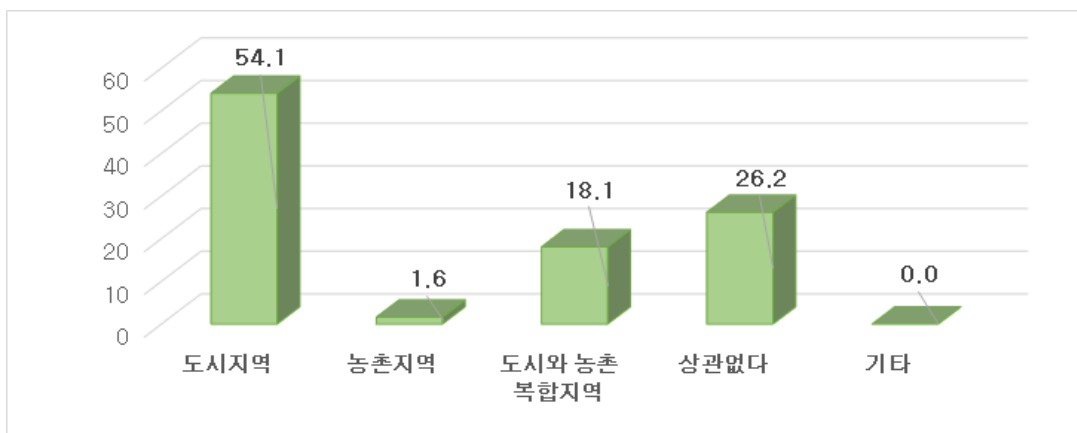
구 분	빈 도	비 율
• 예	6	10.9
• 아니오	49	89.1
합 계	55	100.0

- 자녀가 있는 경우, 어느 지역에 살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 이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농촌지역은 1.6%(1명)로 조사됨. 지역이 상관없다는 26.2%로 파악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도시지역 혹은 도농 복합지역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됨.

【표 3-2-16】 자녀가 있는 경우 살고 싶은 지역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도시지역	33	54.1
• 농촌지역	1	1.6
• 도시와 농촌 복합지역	11	18.1
• 상관없다	16	26.2
• 기타	-	-
합 계	6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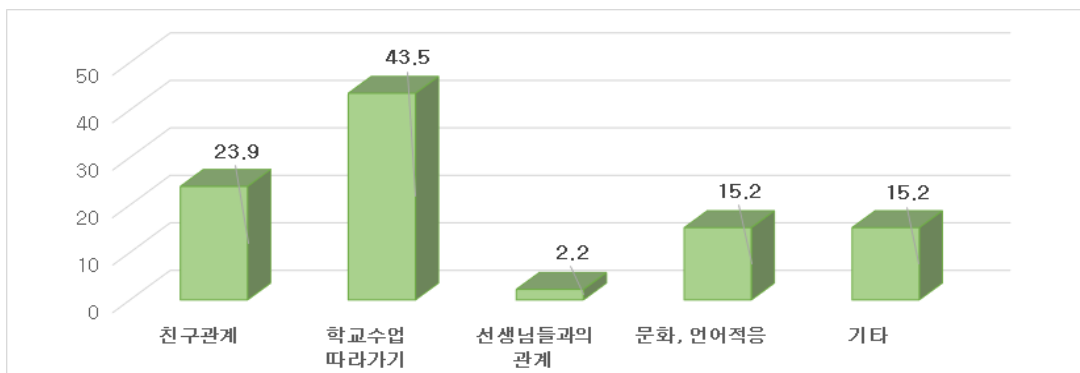
【그림 3-2-9】 자녀가 있는 경우 살고 싶은 지역

- 북한이탈여성의 자녀가 ‘학교 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을 질문한 결과, ‘학교수업 따라가기’가 43.5%로 가장 높게 응답됨. 그 다음은 ‘친구관계’가 23.9%로 나타남. 그 외에 ‘문화, 언어적응’이 15.2%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학업지원, 또래관계 맺기 전략 지원, 문화, 언어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17】 자녀의 학교 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친구관계	11	23.9
• 학교수업 따라가기	20	43.5
• 선생님들과의 관계	1	2.2
• 문화, 언어적응	7	15.2
• 기타 정신적 건강	7	15.2
합 계	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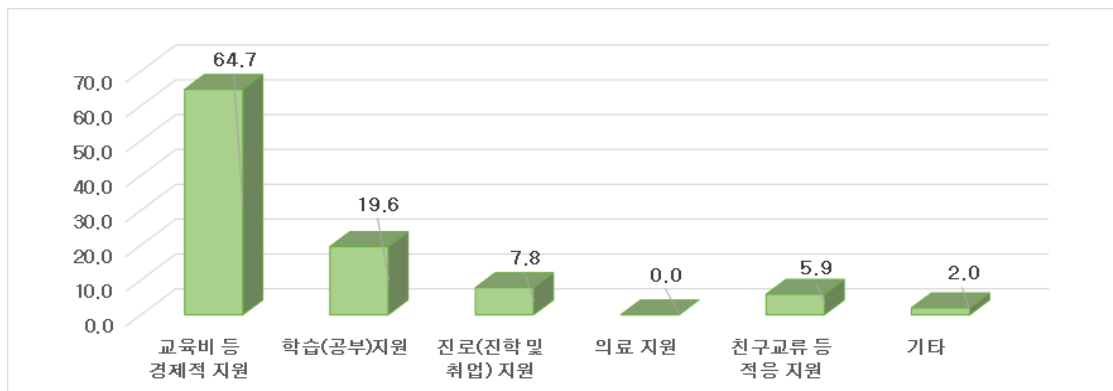
【그림 3-2-10】 학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이 64.7%로 가장 높게 응답함. 그 다음은 ‘학습(공부)지원’이 19.6%, ‘진로(진학 및 취업) 지원’이 7.8%, ‘친구교류 등 적응 지원’이 5.9%임.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며, 북한이탈여성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녀의 교육비 지원, 학습지원, 진로지원, 친구교류 등 적응지원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3-2-18】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33	64.7
• 학습(공부)지원	10	19.6
• 진로(진학 및 취업) 지원	4	7.8
• 의료 지원	-	-
• 친구교류 등 적응 지원	3	5.9
• 기타	1	2.0
합 계	51	100.0



【그림 3-2-11】 자녀의 학교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4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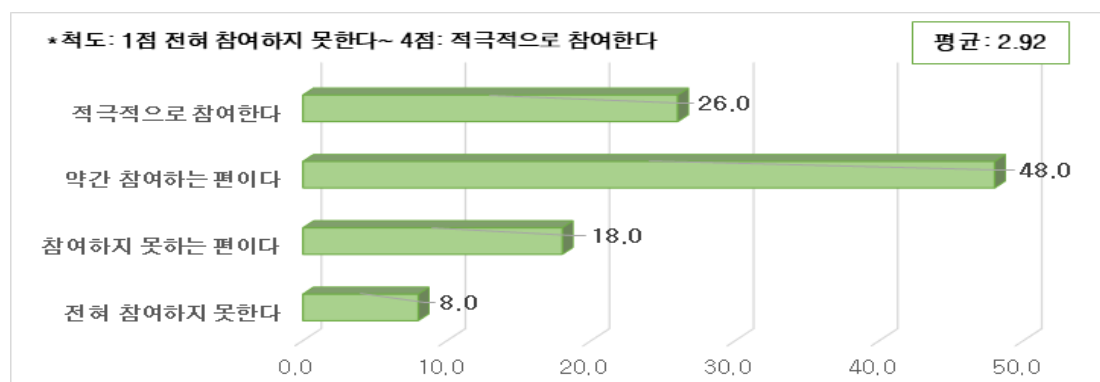
- 문화생활(영화감상, 등산, 운동 등) 참여수준을 4점 척도로 질문함. 그 결과, 평균 2.92점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편’으로 나타남. 문화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26%임. 국민여가활동조사(2019)에 따르면, 휴식활동을 제외한 지속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는 51.0%임. 여성은 49.9%, 남성은 52.2%로 나타남. 그러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여성의 문화생활 지원이 필요함.

【표 3-2-19】 문화생활(영화감상, 등산, 운동 등) 참여수준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평균	표준편차
1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16	8.0	2.92	.870
2 참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36	18.0		
3 약간 참여하는 편이다	96	48.0		
4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2	26.0		
합 계	200	100.0		

* 척도: 1점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 4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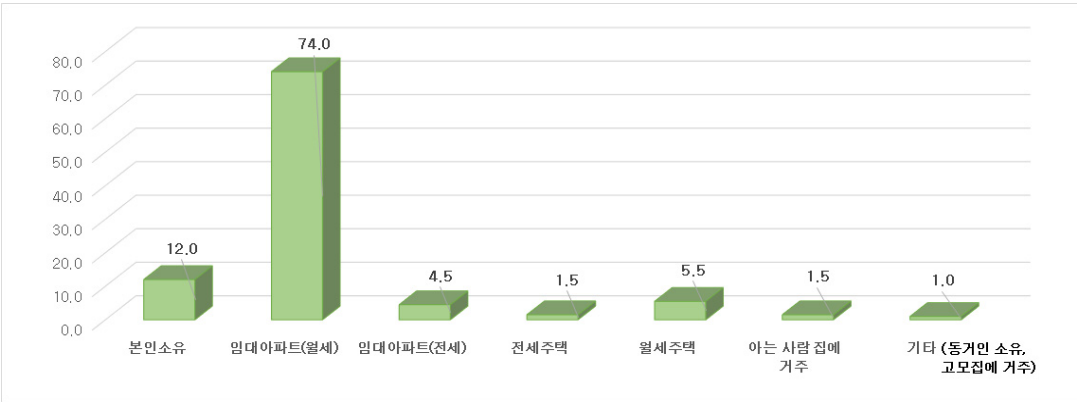
【그림 3-2-12】 문화생활 참여수준

□ 살고 있는 주거형태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12%는 본인 소유로 조사됨. 반면에 88%는 월세, 전세 등의 주거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임대아파트(월세)가 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임대아파트를 벗어나 전세 혹은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7%임.

【표 3-2-20】 주거 형태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본인소유	24	12.0
• 임대아파트(월세)	148	74.0
• 임대아파트(전세)	9	4.5
• 전세주택	3	1.5
• 월세주택	11	5.5
• 아는 사람 집에 거주	3	1.5
• 기타	2	1.0
동거인 소유 고모집에 거주		
	2	1.0
합 계	200	100.0



【그림 3-2-13】 주거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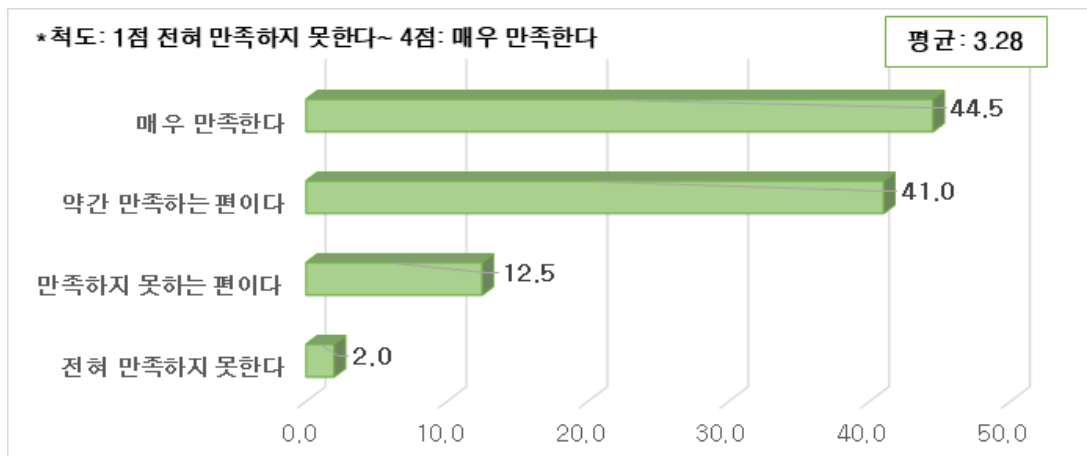
□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28점으로 만족하는 편으로 분석됨. ‘만족하지 않은 편’은 14.5%인 반면에 ‘만족하는 편’은 85.5%로 조사됨. 조사대상자들의 주거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으로 해석됨.

【표 3-2-21】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주거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평균	표준편차
1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4	2.0	3.28	.758
2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25	12.5		
3 약간 만족하는 편이다	82	41.0		
4 매우 만족한다	89	44.5		
합 계	200	100.0		

* 척도: 1점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4점 매우 만족한다



【그림 3-2-14】 주거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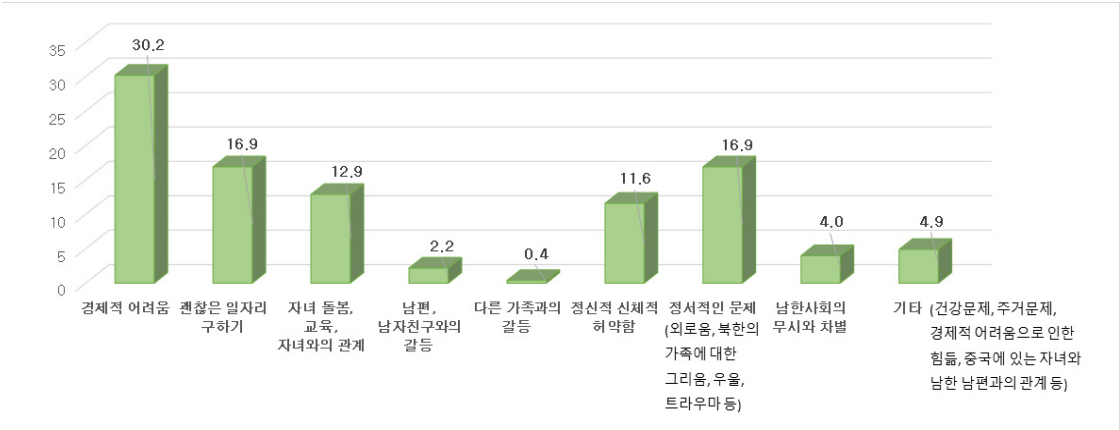
-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다중응답으로 질문함.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34.2%, ‘괜찮은 일자리 구하기’와 ‘정서적인 문제(외로움, 북한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우울, 트라우마 등)’가 19.1%, ‘자녀 돌봄, 교육, 자녀와의 관계’가 14.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자리 지원을 통한 경제적 문제해결, 심리정서지원을 통한 트라우마 및 외로움 해결, 자녀 돌봄 및 학업지원을 통한 자녀관계 회복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 이번 설문조사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은 ‘기타’에 체크하고, 서술형으로 기입을 많이 하였음. 남한생활에 힘든 점으로 건강문제, 주거문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힘들, 중국에 있는 자녀와 남한 남편과의 관계, 탈북민 친구와의 관계 갈등 등을 적었음.

【표 3-2-22】 남한 생활의 힘든 점(다중응답분석)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케이스 중 비율
• 경제적 어려움	68	30.2	34.2
• 괜찮은 일자리 구하기	38	16.9	19.1
• 자녀 돌봄, 교육, 자녀와의 관계	29	12.9	14.6
• 남편, 남자친구와의 갈등	5	2.2	2.5
• 다른 가족과의 갈등	1	0.4	0.5
• 정신적 신체적 허약함	26	11.6	13.1
• 정서적인 문제	38	16.9	19.1
(외로움, 북한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우울, 트라우마 등)			
• 남한사회의 무시와 차별	9	4.0	4.5
건강문제, 주거문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힘들			
• 기타	11	4.9	5.5
중국에 있는 자녀와 남한 남편과의 관계			
탈북민 친구와의 관계 갈등			
없음			
합 계	225	100.0	113.1

* 유효케이스 :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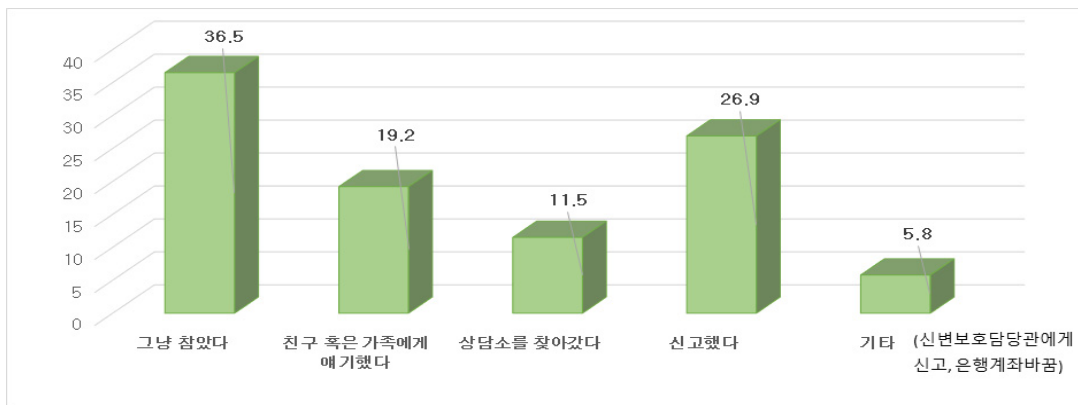
【그림 3-2-15】 남한 생활의 힘든 점(다중응답분석)

- ☐ 개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된 경험여부를 질문함. 그 결과, 91.2%는 없다고 응답함. 반면에 8.8%는 있다고 응답함.
- ☐ 사생활 침해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36.5%는 그냥 참았다고 응답함. 반면에 ‘상담소를 찾아갔다’, ‘신고했다’, ‘기타(은행계좌바꿈,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신고 등)’ 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한 비율은 44.2%로 파악됨.

【표 3-2-23】 사생활 노출이나 악용된 경험 여부와 대처 방법

(단위: 명, %)

항 목	구 분	빈 도	비 율
사생활이 타인에 노출되거나 악용된 경험	• 예	17	8.8
	• 아니오	177	91.2
	합계	194	100.0
사생활 침해시 대처	• 그냥 참았다	19	36.5
	• 친구 혹은 가족에게 얘기했다	10	19.2
	• 상담소를 찾아갔다	6	11.5
	• 신고했다	14	26.9
	• 기타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신고 은행계좌바꿈(카드바꿈)	3	5.8
	합계	52	100.0



【그림 3-2-16】 사생활 침해시 대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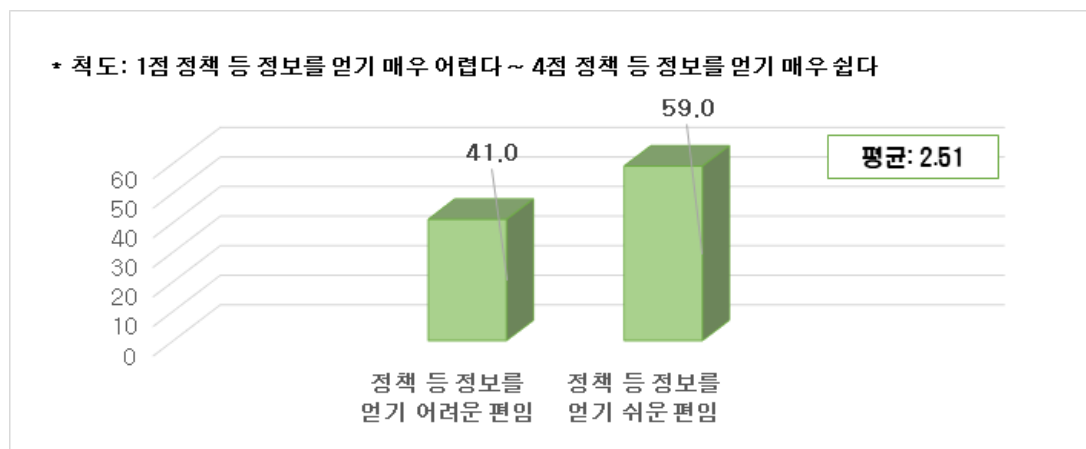
□ 보편적인 정보접근성이 보장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정책,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운가요?’ 라는 질문을 4점 척도로 함. 그 결과, **평균 2.51점으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비율(52.5%)이 정보를 얻기 쉽다는 비율(47.5%)보다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북한이탈여성이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편적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24】 보편적인 정보, 정책, 서비스 접근성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평균	표준편차
1 정책 등 정보를 얻기 매우 어렵다	16	8.1	52.5	2.51	.804
2 정책 등 정보를 얻기 어렵다	88	44.4			
3 정책 등 정보를 얻기 쉽다	71	35.9	47.5		
4 정책 등 정보를 얻기 매우 쉽다	23	11.6			
합 계	198	100.0			

* 척도: 1점 정책 등 정보를 얻기 매우 어렵다 ~ 4점 정책 등 정보를 얻기 매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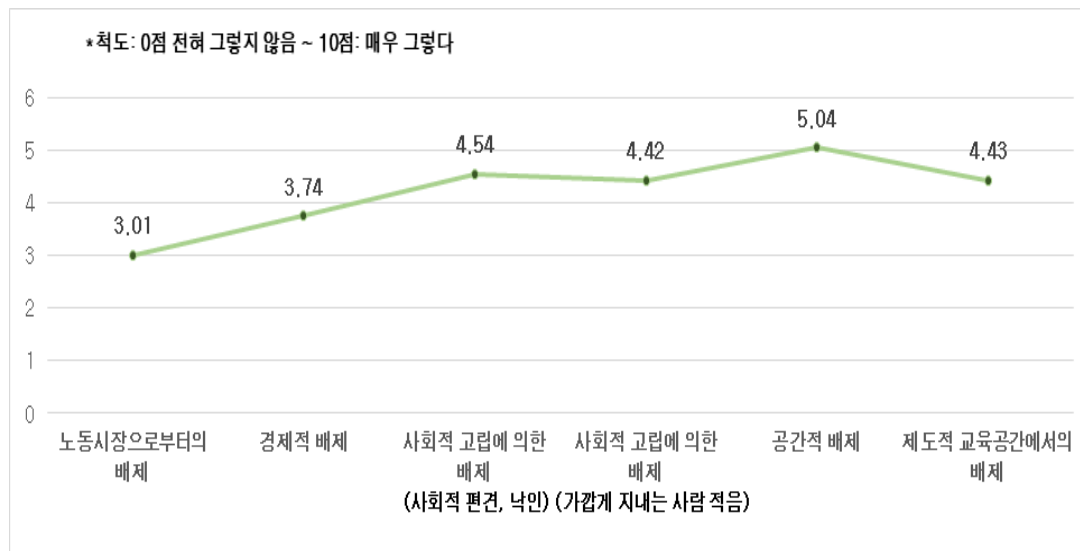
【그림 3-2-17】 보편적 정보, 정책, 서비스 접근성

- 5가지 형태의 사회적 배제(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는 2문항, 그 외는 1문항)에 대하여 11점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10점 매우 그렇다)로 질문함.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가 크다고 볼 수 있음. 5가지 형태의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배제가 전혀 없는 0점(최소값)에서 사회적 배제가 매우 많은 10점(최대값)까지 분포함. 모든 형태의 사회적 배제는 평균적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와 경제적 배제,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공간적 배제,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는 있다고 해석됨. 다만,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 경제적 배제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배제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반면에 공간적 배제는 다른 형태(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 경제적 배제,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배제가 더 높게 조사됨.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면, 사회적 배제가 가장 낮은 형태(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와 경제적 배제), 사회적 배제가 낮은 형태(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 사회적 배제가 보통 이상의 형태(공간적 배제)로 요약됨.

【표 3-2-25】 사회적 배제 형태별 사회적 배제 수준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 일터에서 내가 보유한 능력이나 재능이 무시된다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198	0	10	3.01	3.036
·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가난하다고 느낀다 (경제적 배제)	197	0	10	3.74	3.433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과장된 언론보도로 낙인 받는 것, 사회적 편견을 느낀다.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194	0	10	4.54	3.493
· 정부관계자, 다른 탈북자, 복지기관, 종교인 외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적다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197	0	10	4.42	3.474
· 나와 북한출신 친구들이 주거지원 혜택을 지속해서 받으려면 임대주택에 살아야한다 (공간적 배제)	198	0	10	5.04	3.808
· 주위의 북한이탈 아동과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또는 학교에 다녀도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한다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	189	0	10	4.43	3.441

* 척도: 0점 전혀 그렇지 않음 ~ 10점 매우 그렇다



【그림 3-2-18】 사회적 배제 형태별 사회적 배제 수준

- ☐ 지역별 문화생활참여도, 주거 만족도, 보편적 정보 접근정도의 평균 차이를 살펴봄. 지역별,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별 문화생활 참여도는 통계적으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반면에 지역별,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별 주거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읍면 지역(농촌)에 사는 북한이탈여성보다 동(도시) 지역의 북한이탈여성의 주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또한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북한이탈여성보다 국민기초수급자인 북한이탈여성의 주거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지역별,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별 보편적 정보 접근성은 통계적으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26】 읍면·동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문화생활참여도, 주거 만족도, 보편적 정보 접근성 차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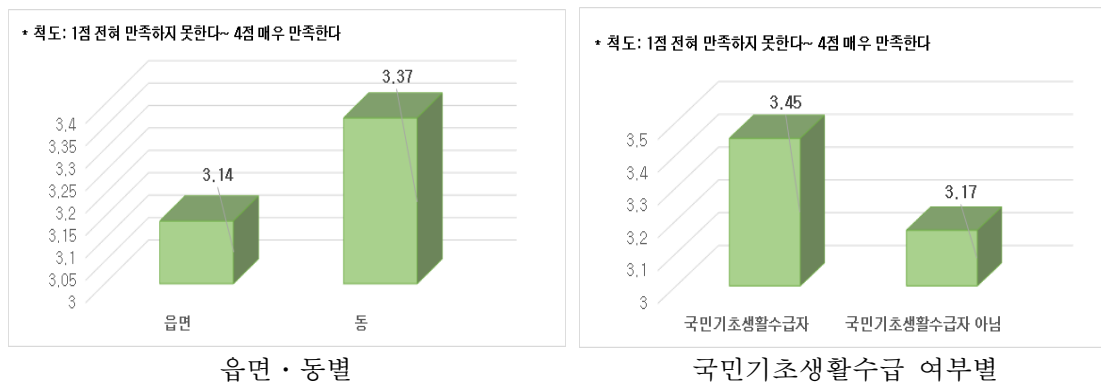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문화생활 참여도	읍면·동	읍면	73	2.97	.849	.599
		동	124	2.90	.891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3	2.86	.871	-.63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님	126	2.94	.870	
주거만족도	읍면·동	읍면	71	3.14	.822	-2.097*
		동	124	3.37	.715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3	3.45	.708	2.52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님	126	3.17	.770	
보편적 정보 접근성	읍면·동	읍면	73	2.48	.784	-.449
		동	122	2.53	.815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3	2.53	.835	.35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님	124	2.49	.791	

* #P<0.1 *P<0.05, **P<0.01, ***P<0.001

* 문화참여도 척도: 1점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 4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주거만족도 척도: 1점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 4점 매우 만족한다

보편적 정보 접근성 척도: 1점 정책 등 정보를 얻기 매우 어렵다 ~ 4점 정책 등 정보를 얻기 매우 쉽다



【그림 3-2-19】 읍면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주거만족도 차이

- ☐ 지역별 4가지 형태의 사회적 배제(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낙인, 사회적 편견),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적음), 제도적 교육 공간에서의 배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역 간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읍면 지역(농촌)에 사는 북한이탈여성이 동(도시) 지역의 북한이탈여성보다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낙인, 사회적 편견),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적음), 제도적 교육 공간에서의 배제)가 더 높게 나타남. 이는 농촌지역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차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촌지역의 사회적 배제 해소지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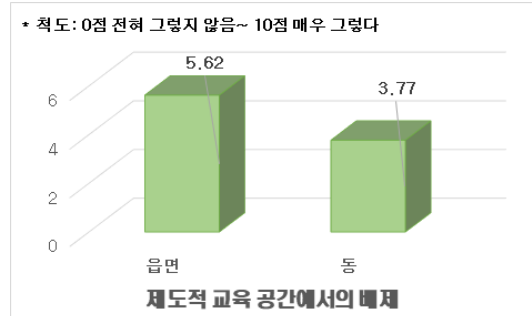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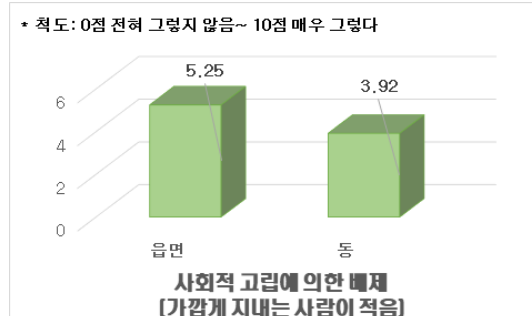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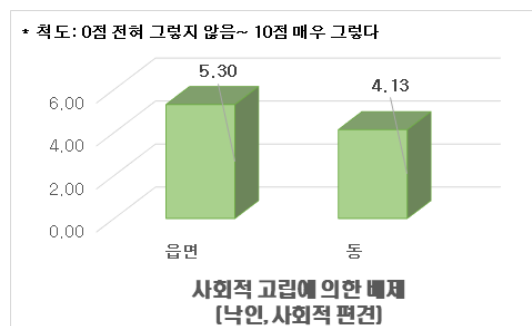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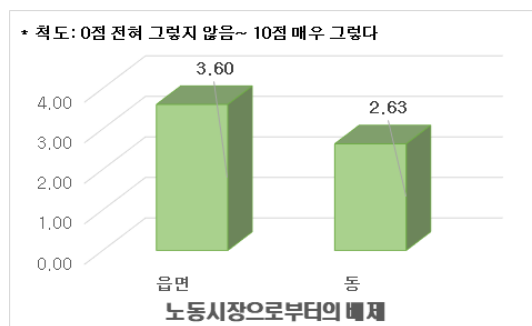
【표 3-2-27】 읍면·동별 사회적 배제의 차이

(단위: 명, %)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읍면	72	3.60	3.364	2.057*
	동	123	2.63	2.765	
경제적 배제	읍면	71	4.18	3.344	1.326
	동	123	3.50	3.489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낙인, 사회적 편견)	읍면	70	5.30	3.236	2.268*
	동	121	4.13	3.535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적음)	읍면	72	5.25	3.487	2.617*
	동	122	3.92	3.388	
공간적 배제	읍면	72	5.54	3.627	1.556
	동	123	4.67	3.881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	읍면	68	5.62	3.443	3.625***
	동	119	3.77	3.5925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0점 전혀 그렇지 않음 ~ 10점 매우 그렇다



【그림 3-2-20】 읍면동별 사회적 배제 차이

- ☐ 연령대별로 사회적 배제 형태별로 평균차이를 살펴봄. **연령대별로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낙인, 사회적 편견),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는 통계적으로 집단 간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낙인, 사회적 편견)**는 ‘29세 이하’ (5.43점/10점)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고, ‘60세 이상’ (2.65점/10점)이 가장 낮게 느끼고 있었음. ‘50세 이상 59세 이하’ 도 5.20점/10점으로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평균이 높게 나타남.
- ☐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는 ‘29세 이하’ (3.29점/10점)가 가장 낮게 느끼고 있었음. 반면에 ‘40세 이상 49세 이하’ 는 5.42점/10점으로 가장 높게 배제를 느끼고 있었음. 아마도 자녀가 청소년인 부모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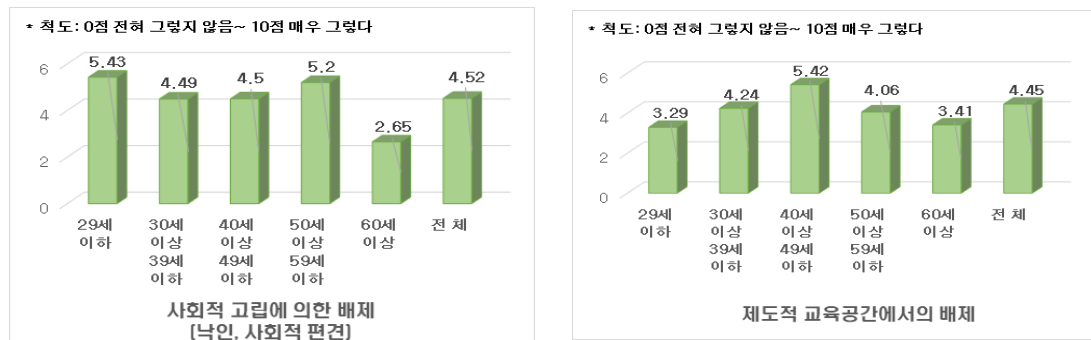
【표 3-2-28】연령대별 사회적 배제의 차이

(단위: 명, %)

문 항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값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29세 이하	14	3.29	2.234	1.248
	30세 이상 39세 이하	40	3.15	3.167	
	40세 이상 49세 이하	70	3.34	3.157	
	50세 이상 59세 이하	50	2.84	3.006	
	60세 이상	23	1.78	2.763	
	전 체	197	2.99	3.030	
경제적 배제	29세 이하	14	3.50	2.822	1.579
	30세 이상 39세 이하	40	4.18	3.500	
	40세 이상 49세 이하	69	4.20	3.368	
	50세 이상 59세 이하	50	3.28	3.435	
	60세 이상	23	2.43	3.488	
	전 체	196	3.70	3.413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낙인, 사회적 편견)	29세 이하	14	5.43	3.005	2.422*
	30세 이상 39세 이하	39	4.49	3.605	
	40세 이상 49세 이하	68	4.50	3.518	
	50세 이상 59세 이하	49	5.20	3.518	
	60세 이상	23	2.65	2.964	
	전 체	193	4.52	3.493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적음)	29세 이하	14	5.93	2.645	1.735
	30세 이상 39세 이하	40	4.55	3.441	
	40세 이상 49세 이하	70	4.79	3.591	
	50세 이상 59세 이하	50	3.66	3.438	
	60세 이상	22	3.68	3.483	
	전 체	196	4.41	3.478	
공간적 배제	29세 이하	14	5.50	2.682	.602
	30세 이상 39세 이하	40	5.28	3.658	
	40세 이상 49세 이하	69	5.16	3.909	
	50세 이상 59세 이하	51	4.31	3.896	
	60세 이상	23	5.35	4.174	
	전 체	197	5.01	3.801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	29세 이하	14	3.29	2.920	2.483*
	30세 이상 39세 이하	38	4.24	3.008	
	40세 이상 49세 이하	67	5.42	3.460	
	50세 이상 59세 이하	47	4.06	3.498	
	60세 이상	22	3.41	3.825	
	전 체	188	4.45	3.446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0점 전혀 그렇지 않음 ~ 10점 매우 그렇다



【그림 3-2-21】연령대별 사회적 배제 차이

- 남한 거주기간별로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낙인, 사회적 편견)가 통계적으로 집단 간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남한 거주기간이 ‘1년 미만(11개월 미만)’ 이 가장 낮게 (2.47점/10점) 느끼고 있었음. 반면에 ‘1년 이상 3년 미만(12-35개월)’ 이 5.40점/10점으로 가장 높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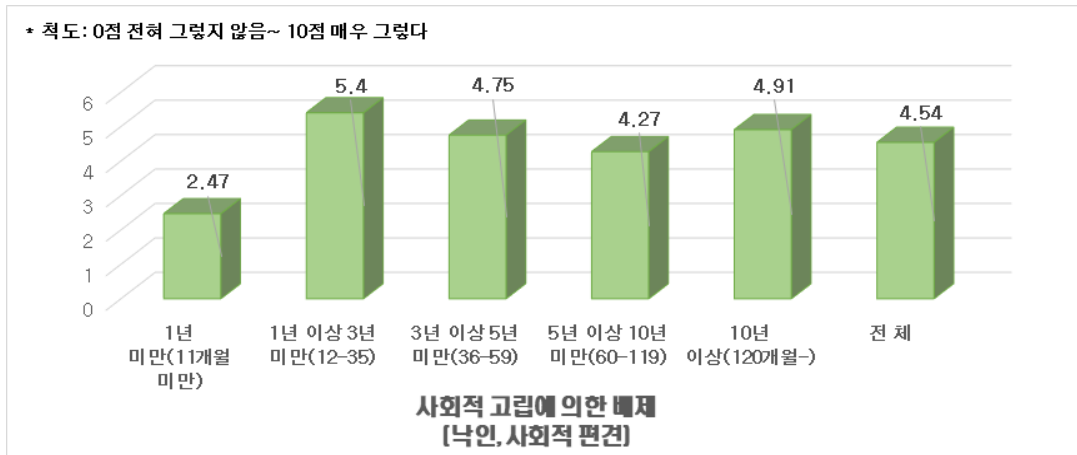
【표 3-2-29】남한 거주기간별 사회적 배제 차이

(단위: 명, %, 년)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1년 미만(11개월 미만)	19	1.95	2.368	1.556
	1년 이상 3년 미만(12-35)	30	3.00	3.017	
	3년 이상 5년 미만(36-59)	32	4.03	3.668	
	5년 이상 10년 미만(60-119)	57	2.98	2.931	
	10년 이상(120개월-)	60	2.83	2.900	
	전체	198	3.01	3.036	
경제적 배제	1년 미만(11개월 미만)	19	2.58	2.673	.975
	1년 이상 3년 미만(12-35)	29	3.24	3.377	
	3년 이상 5년 미만(36-59)	32	4.09	3.622	
	5년 이상 10년 미만(60-119)	57	4.14	3.583	
	10년 이상(120개월-)	60	3.77	3.422	
	전체	197	3.74	3.433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낙인, 사회적 편견)	1년 미만(11개월 미만)	19	2.47	2.547	2.466*
	1년 이상 3년 미만(12-35)	30	5.40	3.440	
	3년 이상 5년 미만(36-59)	32	4.75	4.008	
	5년 이상 10년 미만(60-119)	55	4.27	3.598	
	10년 이상(120개월-)	58	4.91	3.191	
	전체	194	4.54	3.493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적음)	1년 미만(11개월 미만)	19	5.00	3.300	1.116
	1년 이상 3년 미만(12-35)	30	5.30	3.544	
	3년 이상 5년 미만(36-59)	32	4.75	3.690	
	5년 이상 10년 미만(60-119)	57	3.91	3.466	
	10년 이상(120개월-)	59	4.10	3.367	
	전체	197	4.42	3.474	
공간적 배제	1년 미만(11개월 미만)	19	4.63	3.639	.847
	1년 이상 3년 미만(12-35)	30	5.63	4.123	
	3년 이상 5년 미만(36-59)	32	5.88	3.998	
	5년 이상 10년 미만(60-119)	58	4.62	3.731	
	10년 이상(120개월-)	59	4.81	3.683	
	전체	198	5.04	3.808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	1년 미만(11개월 미만)	19	3.11	2.942	1.116
	1년 이상 3년 미만(12-35)	28	4.93	3.388	
	3년 이상 5년 미만(36-59)	29	5.07	3.882	
	5년 이상 10년 미만(60-119)	55	4.42	3.494	
	10년 이상(120개월-)	58	4.33	3.316	
	전체	189	4.43	3.441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0점 전혀 그렇지 않음 ~ 10점 매우 그렇다



【그림 3-2-22】 남한 거주기간별 사회적 배제 차이

- 가구소득활동별로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가 통계적으로 집단 간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외벌이(4.57점)보다 맞벌이(5.08점)를 하는 북한이탈여성이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주위의 북한이탈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학교에 다녀도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한다)를 더 높게 느끼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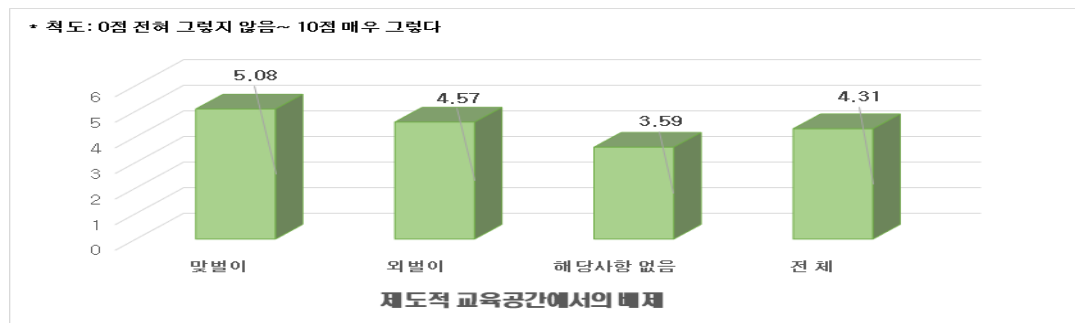
【표 3-2-30】 가구소득활동 형태별 사회적 배제 차이

(단위: 명, %)

문 항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값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1 맞벌이	42	2.83	3.036	.332
	2 외벌이	77	2.81	3.013	
	3 해당사항 없음	72	3.18	2.990	
	전 체	191	2.95	2.999	
경제적 배제	1 맞벌이	42	3.55	3.255	.276
	2 외벌이	77	3.99	3.596	
	3 해당사항 없음	71	3.66	3.376	
	전 체	190	3.77	3.429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낙인, 사회적 편견)	1 맞벌이	42	4.43	3.657	.076
	2 외벌이	75	4.69	3.605	
	3 해당사항 없음	70	4.59	3.390	
	전 체	187	4.59	3.520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적음)	1 맞벌이	42	4.02	3.309	.522
	2 외벌이	76	4.34	3.690	
	3 해당사항 없음	72	4.69	3.266	
	전 체	190	4.41	3.442	
공간적 배제	1 맞벌이	41	4.71	3.400	.434
	2 외벌이	78	4.95	3.947	
	3 해당사항 없음	72	5.36	3.872	
	전 체	191	5.05	3.797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	1 맞벌이	38	5.08	3.233	2.757 [#]
	2 외벌이	76	4.57	3.469	
	3 해당사항 없음	69	3.59	3.345	
	전 체	183	4.31	3.407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0점 전혀 그렇지 않음 ~ 10점 매우 그렇다



【그림 3-2-23】가구소득형태별 사회적 배제 차이

- 남한 최종학력별로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낙인, 사회적 편견),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가 통계적으로 집단 간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남한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한 북한이탈여성이 가장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낙인, 사회적 편견)가 2.86점으로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한 북한이탈여성(2.31점)이 가장 낮게 인식함.
-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는 전문대학 졸업이상이 6.60점으로 가장 높고, ‘남한 정규과정을 다니지 않은’ 북한이탈여성이 4.10점으로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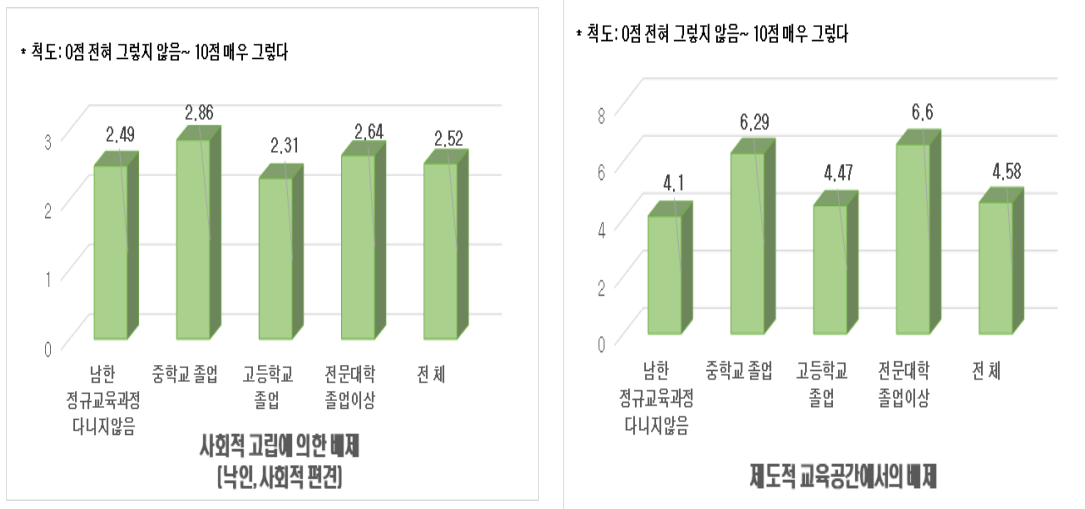
【표 3-2-31】남한 최종학력별 사회적 배제 차이

(단위: 명, %)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132	2.86	.914	1.578
	중학교 졸업	14	2.86	.770	
	고등학교 졸업	16	3.13	.885	
	전문대학 졸업이상	22	3.27	.631	
	전체	184	2.93	.878	
경제적 배제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132	3.28	.823	1.755
	중학교 졸업	14	3.50	.519	
	고등학교 졸업	16	3.06	.443	
	전문대학 졸업이상	22	3.14	.774	
	전체	184	3.26	.773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낙인, 사회적 편견)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132	2.49	.767	4.445**
	중학교 졸업	14	2.86	.949	
	고등학교 졸업	16	2.31	.793	
	전문대학 졸업이상	22	2.64	.902	
	전체	184	2.52	.803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적음)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131	2.89	3.097	.570
	중학교 졸업	14	2.64	2.977	
	고등학교 졸업	16	4.56	2.159	
	전문대학 졸업이상	22	3.09	2.877	
	전체	183	3.04	3.010	
공간적 배제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130	3.44	3.380	1.825
	중학교 졸업	14	3.86	2.797	
	고등학교 졸업	16	4.56	3.425	
	전문대학 졸업이상	22	5.05	3.684	
	전체	182	3.76	3.404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130	4.10	3.389	2.764*
	중학교 졸업	14	6.29	2.673	
	고등학교 졸업	15	4.47	3.523	
	전문대학 졸업이상	20	6.60	3.648	
	전체	179	4.58	3.478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0점 전혀 그렇지 않음 ~ 10점 매우 그렇다



【그림 3-2-24】 남한 최종학력별 사회적 배제 차이

- ☐ 혼인상태별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적음),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가 통계적으로 집단 간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결혼한 적 없는 북한이탈여성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를 가장 높게(3.33점/10점) 인식하고 있었음.
- ☐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적음)는 기타가 가장 높게(4.65점) 인식하고, 별거/이혼/사별이 가장 낮게(1.96점) 인식하고 있었음.
- ☐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는 결혼한적 없는 북한이탈여성이 가장 높게(5.13점), 별거/이혼/사별한 북한이탈여성이 가장 낮게(3.75점) 인식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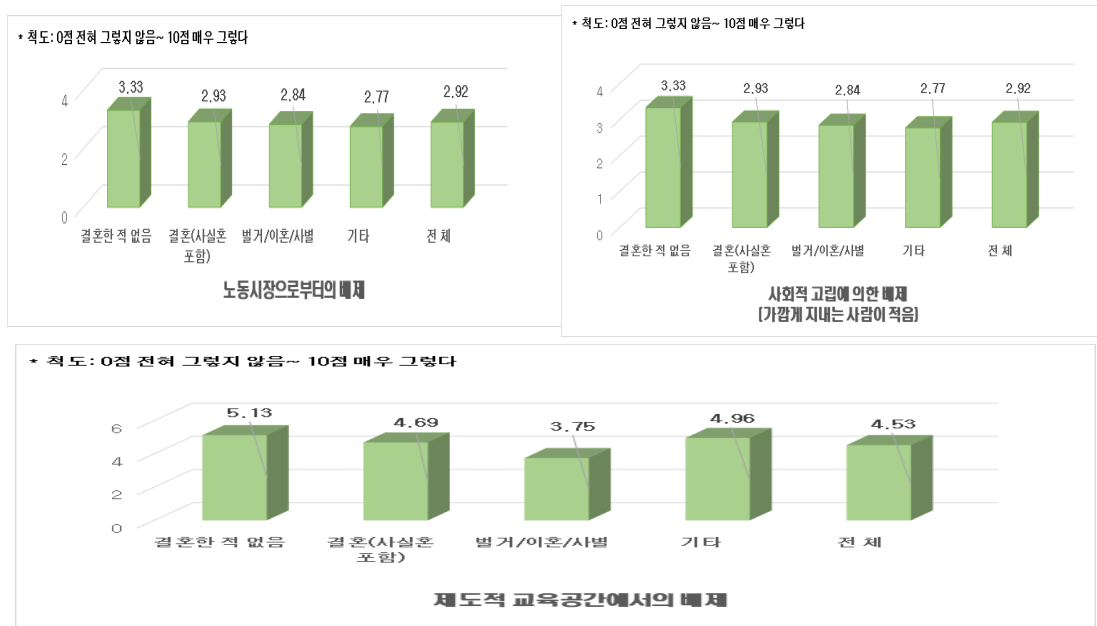
【표 3-2-32】 현재 혼인상태별 사회적 배제 차이

(단위: 명, %)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결혼한 적 없음	15	3.33	.617	4.874**
	결혼(사실혼 포함)	107	2.93	.872	
	별거/이혼/사별	49	2.84	.943	
	기타	26	2.77	.863	
	전체	197	2.92	.877	
경제적 배제	결혼한 적 없음	15	3.20	.676	.815
	결혼(사실혼 포함)	107	3.23	.772	
	별거/이혼/사별	49	3.41	.705	
	기타	26	3.19	.849	
	전체	197	3.27	.758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낙인, 사회적 편견)	결혼한 적 없음	15	2.40	.737	1.142
	결혼(사실혼 포함)	106	2.50	.796	
	별거/이혼/사별	48	2.63	.789	
	기타	26	2.38	.941	
	전체	195	2.51	.808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적음)	결혼한 적 없음	15	3.40	2.898	2.364#
	결혼(사실혼 포함)	106	3.09	3.047	
	별거/이혼/사별	49	1.96	2.449	
	기타	26	4.65	3.405	
	전체	196	3.04	3.036	
공간적 배제	결혼한 적 없음	15	3.20	3.189	1.893
	결혼(사실혼 포함)	106	3.96	3.383	
	별거/이혼/사별	49	3.27	3.598	
	기타	25	4.32	3.461	
	전체	195	3.77	3.430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	결혼한 적 없음	15	5.13	3.482	6.875***
	결혼(사실혼 포함)	104	4.69	3.419	
	별거/이혼/사별	48	3.75	3.670	
	기타	25	4.96	3.529	
	전체	192	4.53	3.506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0점 전혀 그렇지 않음 ~ 10점 매우 그렇다



【그림 3-2-25】 현재 혼인상태별 사회적 배제 차이

□ 북한최종학력별로 문화생활참여도, 주거 만족도, 보편적 정보 접근정도 차이를 살펴봄. 문화생활참여도는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가 3.36점으로 참여하는 편으로 나타남. 반면에 ‘고등중학교 졸업’은 참여하지 않는 편(2.83점)으로 나타남. ‘전문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은 참여하는 편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최종학력별로 주거 만족도, 보편적 정보 접근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표 3-2-33】 북한 최종학력별 문화생활참여도, 주거 만족도, 보편적 정보 접근정도 차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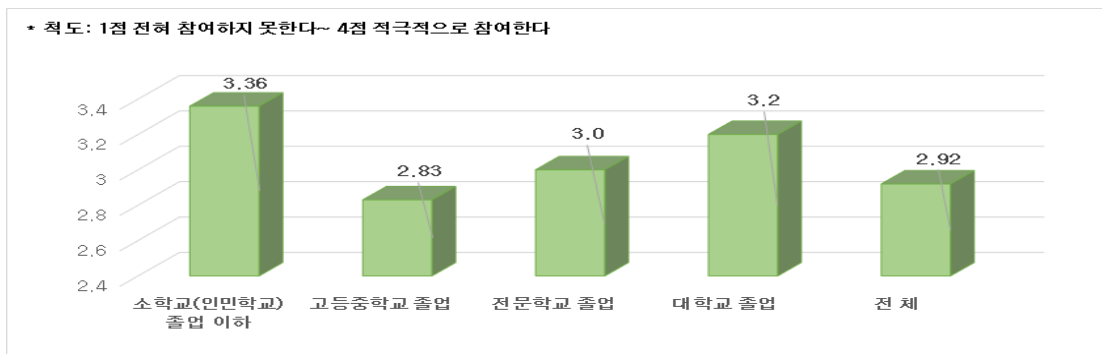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문화생활 참여도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14	3.36	.842	2.306 [#]
	고등중학교 졸업	143	2.83	.872	
	전문학교 졸업	26	3.00	.849	
	대학교 졸업	15	3.20	.775	
	전체	198	2.92	.869	
주거만족도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14	3.36	.929	.250
	고등중학교 졸업	143	3.30	.702	
	전문학교 졸업	26	3.19	.981	
	대학교 졸업	15	3.20	.775	
	전체	198	3.28	.761	
보편적 정보 접근성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14	2.64	.929	.236
	고등중학교 졸업	141	2.51	.816	
	전문학교 졸업	26	2.42	.857	
	대학교 졸업	15	2.47	.516	
	전체	196	2.51	.807	

* [#]P<0.1 ^{*}P<0.05, ^{**}P<0.01, ^{***}P<0.001

* 문화참여도 척도: 1점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 4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주거만족도 척도: 1점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 4점 매우 만족한다

보편적 정보 접근성 척도: 1점 정책 등 정보를 얻기 매우 어렵다 ~ 4점 정책 등 정보를 얻기 매우 쉽다



【그림 3-2-26】 북한 최종학력별 문화생활 참여도 차이

□ 남편의 출신국가별로 문화생활참여도, 주거 만족도, 보편적 정보 접근정도 차이를 살펴봄.
남편출신국가가 남한인 경우, 3.23점/4점으로 문화생활에 참여하는 편으로 나타남. 반면에 북한 출신 남편인 경우, 2.68점, 조선족(2.94점), 조선족 외 중국민족(2.82점)으로 참여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편의 출신국가별로 주거 만족도, 보편적 정보 접근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표 3-2-34】 남편의 출신국가별 문화생활참여도, 주거 만족도, 보편적 정보 접근성 차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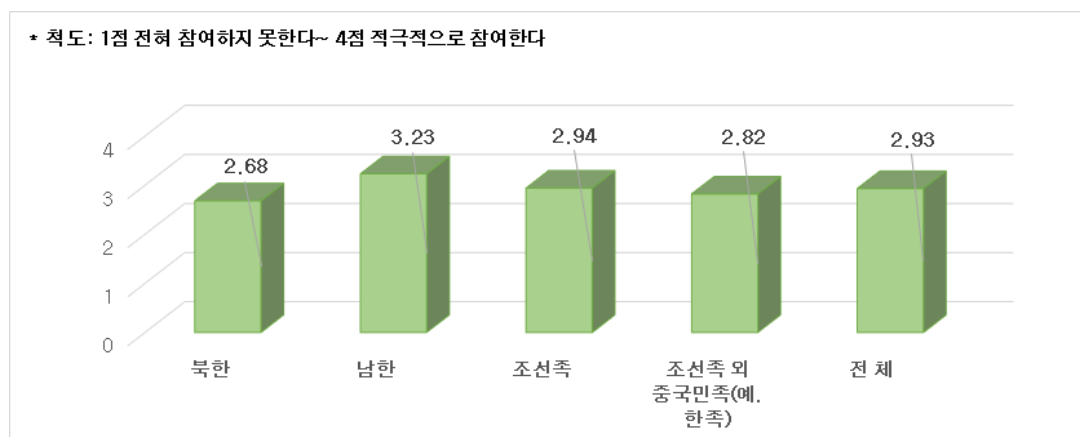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문화생활 참여도	북한	40	2.68	.944	3.239*
	남한	47	3.23	.865	
	조선족	17	2.94	.899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4	2.82	.758	
	전체	138	2.93	.890	
주거만족도	북한	40	3.20	.823	.179
	남한	47	3.23	.813	
	조선족	17	3.29	.588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4	3.32	.768	
	전체	138	3.25	.774	
보편적 정보 접근성	북한	40	2.50	.877	.125
	남한	46	2.61	.829	
	조선족	16	2.56	.814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4	2.56	.746	
	전체	136	2.56	.814	

* #P<0.1 *P<0.05, **P<0.01, ***P<0.001

* 문화참여도 척도: 1점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 4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주거만족도 척도: 1점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 4점 매우 만족한다

보편적 정보 접근성 척도: 1점 정책 등 정보를 얻기 매우 어렵다 ~ 4점 정책 등 정보를 얻기 매우 쉽다



【그림 3-2-27】 남편의 출신국가별 문화생활 참여도 차이

- 남편출신국가별로 경제적 배제가 통계적으로 집단 간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북한 이탈여성의 남편이 조선족 출신일 경우, 5.76점으로 가장 높게 경제적 배제를 인식하고 있었음. 남편의 출신국가가 조선족 외 중국민족인 경우, 가장 낮은 경제적 배제를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북한인 경우보다 남한출신인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배제를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남편출신국가별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낙인, 사회적 편견),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적음), 공간적 배제,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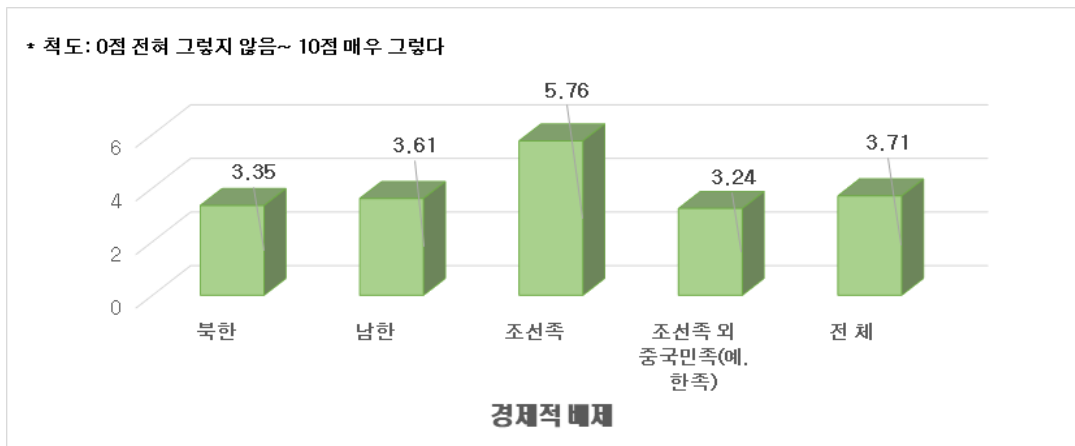
【표 3-2-35】 남편의 출신국가별 사회적 배제 차이

(단위: 명, %)

문 항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값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북한	40	2.78	3.008	.021
	남한	46	2.91	2.935	
	조선족	17	2.76	2.948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4	2.88	3.082	
	전 체	137	2.85	2.963	
경제적 배제	북한	40	3.35	3.490	2.464 [#]
	남한	46	3.61	3.343	
	조선족	17	5.76	3.717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3	3.24	3.123	
	전 체	136	3.71	3.438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낙인, 사회적 편견)	북한	40	4.18	3.622	.229
	남한	45	4.62	3.582	
	조선족	16	4.88	3.667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4	4.21	3.724	
	전 체	135	4.41	3.608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적음)	북한	40	4.30	3.743	.397
	남한	46	4.28	3.397	
	조선족	17	4.00	3.260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4	4.97	3.529	
	전 체	137	4.42	3.495	
공간적 배제	북한	40	4.33	3.996	1.503
	남한	45	4.22	3.476	
	조선족	17	5.71	3.965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4	5.68	3.780	
	전 체	136	4.80	3.792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	북한	38	3.76	3.389	.502
	남한	45	4.67	3.451	
	조선족	16	3.94	3.568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3	4.30	3.644	
	전 체	132	4.23	3.476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0점 전혀 그렇지 않음 ~ 10점 매우 그렇다



【그림 3-2-28】 남편의 출신국가별 사회적 배제

□ 북한이탈경로별로 문화생활참여도, 주거 만족도, 보편적 정보 접근정도 차이를 살펴봄. 주거 만족도는 직행으로 입국했을 경우보다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한 북한이탈여성의 주거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됨.

□ 북한이탈경로별로 문화생활참여도, 주거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는 없었음.

【표 3-2-36】 북한이탈경로별 문화생활 참여도, 주거 만족도, 보편적 정보 접근성 차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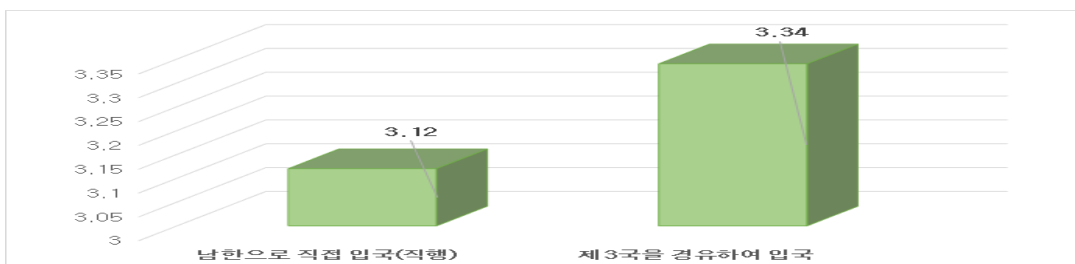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문화생활 참여도	남한으로 직접 입국(직행)	51	3.02	.836	.949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	148	2.89	.885	
주거만족도	남한으로 직접 입국(직행)	51	3.12	.791	-1.795#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	148	3.34	.743	
보편적 정보 접근성	남한으로 직접 입국(직행)	51	2.41	.726	-.987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	146	2.54	.832	

*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 문화참여도 척도: 1점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 4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주거만족도 척도: 1점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 4점 매우 만족한다

보편적 정보 접근성 척도: 1점 정책 등 정보를 얻기 매우 어렵다 ~ 4점 정책 등 정보를 얻기 매우 쉽다



【그림 3-2-29】 북한이탈경로별 주거만족도 차이

5 표현의 자유 및 정치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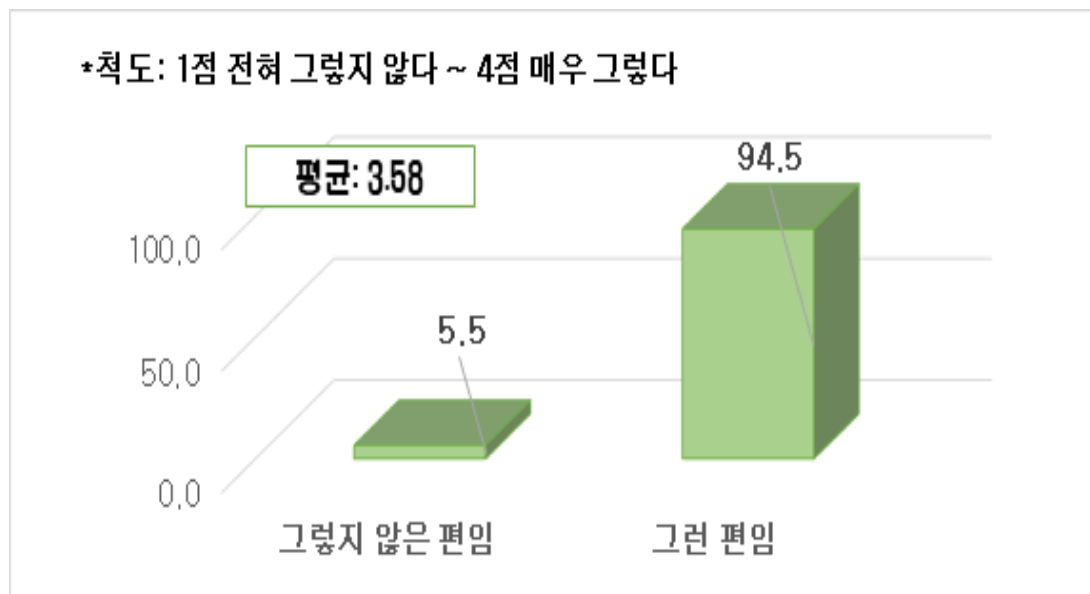
- 우리 사회(남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함. 평균 3.58점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응답함. 94.5%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5.5%는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편으로 인식함.

【표 3-2-37】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평 균	표준편차
1 전혀 그렇지 않다	2	1.0	3.58	.630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9	4.5		
3 약간 그렇다	60	30.2		
4 매우 그렇다	128	64.3		
합 계	199	100.0		

*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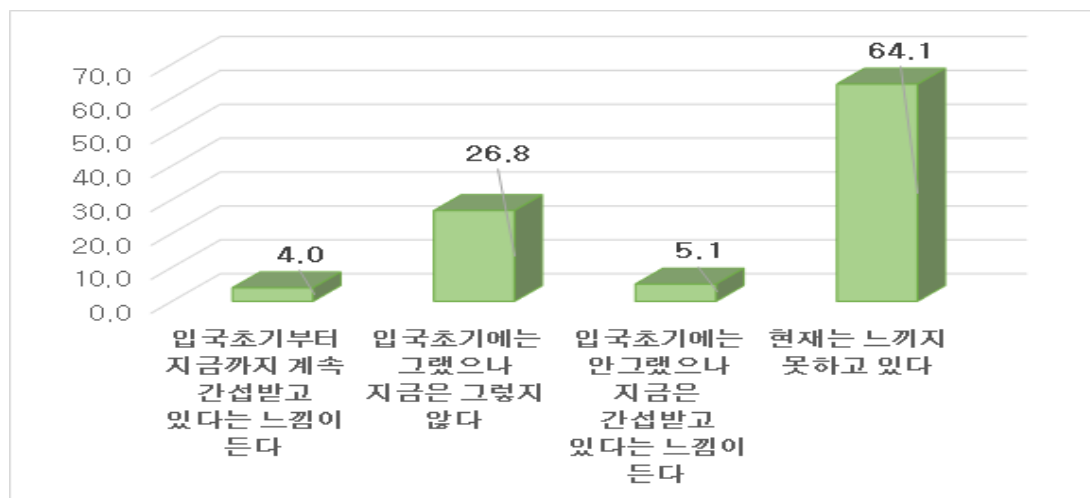
【그림 3-2-30】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

-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간섭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질문함. 그 결과, 9.1%는 간섭받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응답함. 반면에 현재 90.9%는 간섭받지 않는다고 응답함.

【표 3-2-38】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간섭받고 있다고 생각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입국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간섭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8	4.0
• 입국초기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53	26.8
• 입국초기에는 안 그랬으나 지금은 간섭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10	5.1
• 현재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127	64.1
합 계	198	100.0



【그림 3-2-31】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간섭받고 있다고 생각

- ☐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참여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81%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반면에 19%는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표 3-2-39】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참여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예	162	81.0
• 아니오	38	19.0
합 계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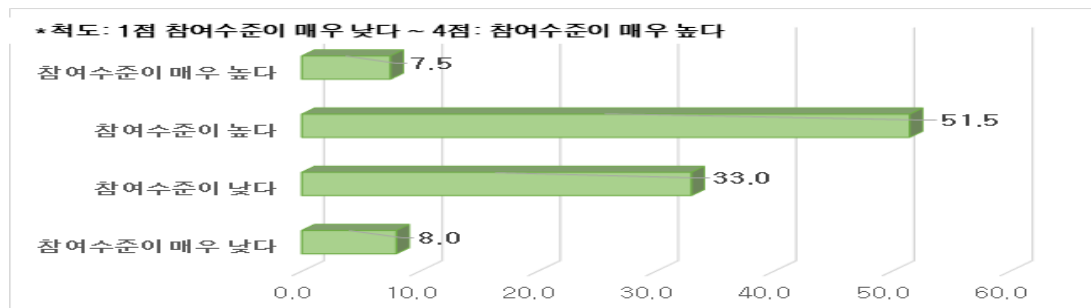
- 충청남도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수준에 참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함. 그 결과, 평균 2.59점으로 참여수준이 낮은 편으로 인식함. 구체적으로 참여수준이 낮다는 41%, 참여수준이 높은 편은 59%로 조사됨.

【표 3-2-40】 충청남도에서 실질적 의사결정(대표성)에 참여하는 수준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평균	표준편차
1 참여수준이 매우 낮다	16	8.0	2.59	.745
2 참여수준이 낮다	66	33.0		
3 참여수준이 높다	103	51.5		
4 참여수준이 매우 높다	15	7.5		
합 계	200	100.0		

* 척도: 1점 참여수준이 매우 낮다 ~ 4점 참여수준이 매우 높다



【그림 3-2-32】 충청남도에서 실질적 의사결정(대표성) 참여하는 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와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수준을 살펴봄.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수준을 살펴보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편이라고 인식함.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북한이탈여성(2.45점)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북한이탈여성(2.66점)의 참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집단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표 3-2-4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표현의 자유 및 정치참여 수준의 차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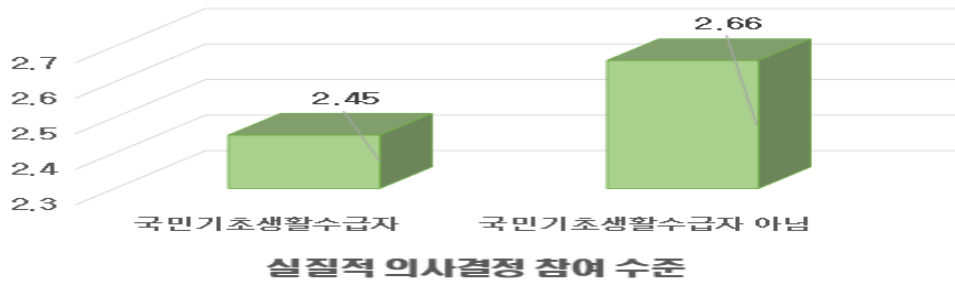
문 항	구 분	빈 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3	3.64	.537	1.23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님	125	3.54	.679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3	2.45	.765	-1.894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님	126	2.66	.728	

* [#]P<0.1 *P<0.05, **P<0.01, ***P<0.001

*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수준 척도: 1점 참여수준이 매우 낮다 ~ 4점 참여수준이 매우 높다

*척도: 1점 참여수준이 매우 낮다~ 4점 참여수준이 매우 높다



【그림 3-2-3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수준의 차이

□ 가구소득형태, 소득수준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와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수준을 살펴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가구소득형태는 평균적으로 3.59점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응답함. 다만, 맞벌이(3.40점)보다 외벌이(3.67점)가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인식함. 소득수준은 평균 3.56점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인식함. 사후검정결과, (2, 4), (4, 5)에서 차이가 있었음. 즉, 100만원 이하와 301만원~400만원, 301만원~400만원과 401만원 이상에서 인식차이가 있었음.

□ 가구소득형태, 소득수준별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표 3-2-42】 가구소득형태별 · 소득수준별 표현의 자유 및 정치참여 수준의 차이

(단위: 명, %)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	가구소득형태	맞벌이	42	3.40	.767
		외벌이	78	3.67	.754
		해당사항 없음	72	3.63	.542
		전체	192	3.59	.615
	소득수준	1. 100만원 미만	71	3.55	.580
		2. 100 ~ 200만원	59	3.66	.545
		3. 201 ~ 300만원	30	3.47	.776
		4. 301 ~ 400만원	13	3.08	.954
		5. 401만원 이상	17	3.82	.393
		전체	190	3.56	.637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수준	가구소득형태	맞벌이	42	2.60	.857
		외벌이	79	2.70	.686
		해당사항 없음	72	2.46	.749
		전체	193	2.59	.753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71	2.48	.714
		100 ~ 200만원	60	2.63	.736
		201 ~ 300만원	30	2.60	.675
		301 ~ 400만원	13	2.69	.947
		401만원 이상	17	2.82	.883
		전체	191	2.59	.747

* #P<0.1 *P<0.05, **P<0.01, ***P<0.001

*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수준 척도: 1점 참여수준이 매우 낮다 ~ 4점 참여수준이 매우 높다



【그림 3-2-34】 가구소득형태별 · 소득수준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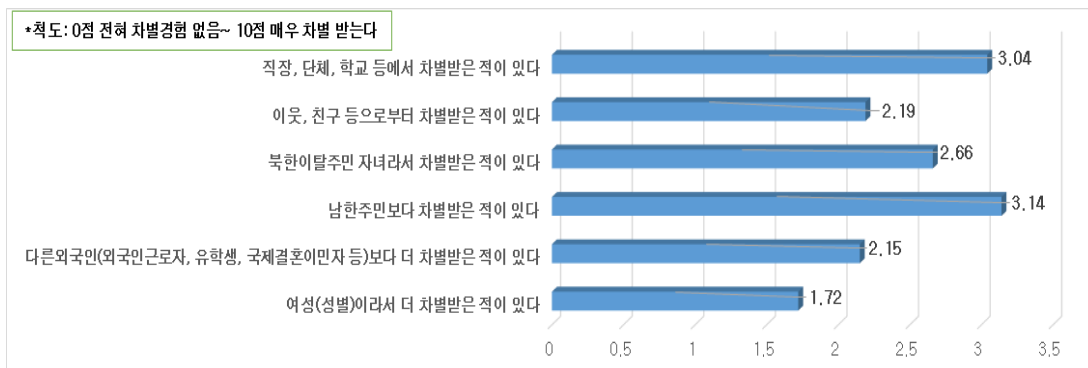
6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장 혹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부당한 대우 혹은 차별(따돌림, 소외, 사회적 편견) 받고 있는지 질문함. 6문항을 조사한 결과, 최소 0점(전혀 차별받지 않았음)에서 10점(매우 차별받았다)까지 분포 하고 있었음. 평균적으로 6문항 모두 차별을 받고 있다고 분석됨. 가장 낮게 나타난 부분은 ‘여성(성별)이라서 더 차별받은 적이 있다’가 1.72점을 가장 낮음.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성차별보다는 출신차별을 더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조사결과임. 반면에 ‘직장, 단체, 학교 등에서 차별받은 적이 있다’, ‘남한 주민보다 차별받은 적이 있다’는 3점대로 상대적으로 차별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표 3-2-43】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 직장, 단체, 학교 등에서 차별받은 적이 있다	198	0	10	3.04	3.374
• 이웃, 친구 등으로부터 차별받은 적이 있다	197	0	10	2.19	2.916
• 북한이탈주민 자녀라서 차별받은 적이 있다	187	0	10	2.66	3.368
• 남한주민보다 차별받은 적이 있다	197	0	10	3.14	3.608
• 다른외국인(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국제결혼이민자 등)보다 더 차별받은 적이 있다	197	0	10	2.15	3.117
• 여성(성별)이라서 더 차별받은 적이 있다	197	0	10	1.72	2.750

* 척도: 0점 전혀 차별경험 없음 ~ 10점 매우 차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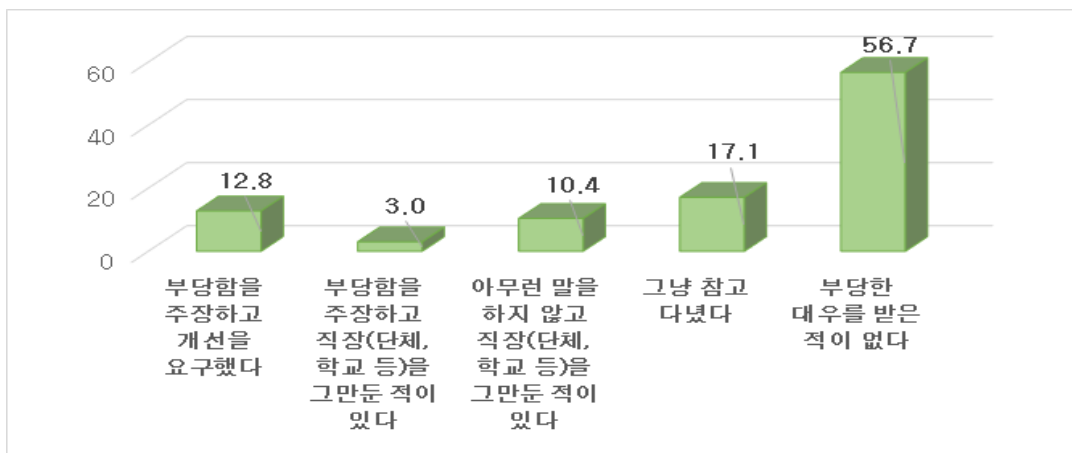
【그림 3-2-35】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

-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장(단체, 학교, 학원, 체육관, 사모임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을 질문함. 조사대상자의 43.3%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함. 30.5%는 그냥 참거나 아무말 없이 직장을 그만 두거나, 부당함을 얘기하고 직장을 그만둠. 반면에 12.8%는 부당함을 주장하고 개선을 요구함.

【표 3-2-44】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 율
• 부당함을 주장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21	12.8
• 부당함을 주장하고 직장(단체, 학교 등)을 그만둔 적이 있다	5	3.0
•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직장(단체, 학교 등)을 그만둔 적이 있다	17	10.4
• 그냥 참고 다녔다	28	17.1
•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	93	56.7
합 계	16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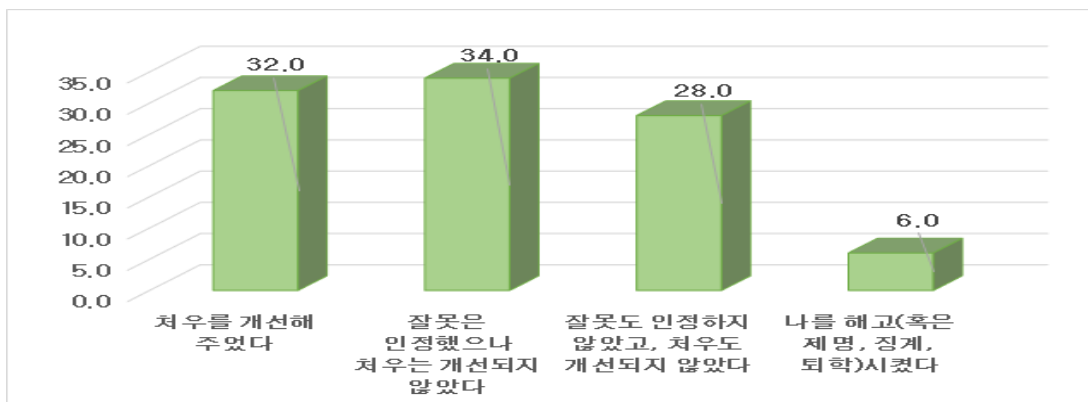
【그림 3-2-36】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

- 직장 내에서 차별(승진, 임금 등의 차별, 무시, 성희롱 등)을 주장했을 때 직장의 반응을 질문함. 그 결과, 32%만이 처우를 개선해 주었음. 68%는 직장 내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6%는 ‘해고 당했음’, 28%는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고, 처우도 개선되지 않았다’, 34%는 ‘잘못은 인정했으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로 응답함. 이 같은 직장의 반응을 경험을 한 북한이탈여성은 직장을 옮기거나 참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

【표 3-2-45】 차별을 주장했을 때 직장의 반응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처우를 개선해 주었다	16	32.0
• 잘못은 인정했으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17	34.0
•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고, 처우도 개선되지 않았다	14	28.0
• 나를 해고(혹은 제명, 징계, 퇴학)시켰다	3	6.0
합 계	50	100.0



【그림 3-2-37】 차별을 주장했을 때 직장의 반응

- 같은 일을 하는 남한출신보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은 임금을 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함. 95.7%가 잘못 되었다고 응답함. 4.3%는 별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함.

【표 3-2-46】 남한출신보다 적은 임금을 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평 균(표준편차)
1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160	85.5	1.2(.537)
2 약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19	10.2	
3 별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6	3.2	
4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2	1.1	
합 계	187	100.0	

* 척도: 1점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4점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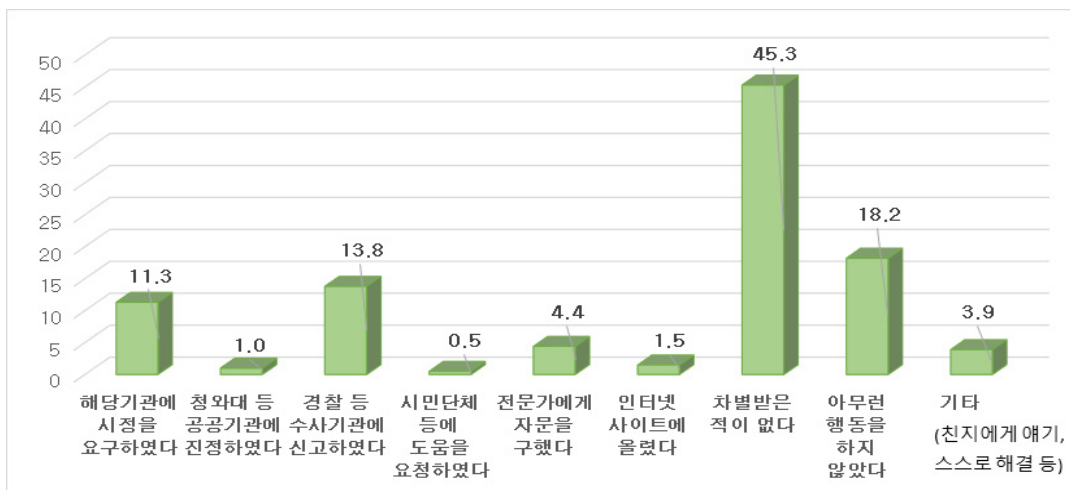
-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을 경우 대처해본 방법에 대하여 다중응답으로 질문함. 그 결과, ‘차별 받은 적이 없다’ 51.1%를 제외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가 20.6%,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가 15.6%,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가 12.8%로 나타남. 불이익, 차별에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참는 부분이 기타(4.4%)까지 포함하면, 25%(20.6%+4.4%) 정도임. 일부는 시정요구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만 그냥 참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3-2-47】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을 경우 대처(다중응답분석)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케이스 중 비율
•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23	11.3	12.8
•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진정하였다	2	1.0	1.1
•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28	13.8	15.6
•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	0.5	0.6
•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9	4.4	5.0
•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3	1.5	1.7
• 차별받은 적이 없다	92	45.3	51.1
•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37	18.2	20.6
친지에게 얘기			
스스로 해결			
• 기타	8	3.9	4.4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위함			
병원에서 남한 사람들과 차별 있음			
합 계	203	100.0	112.8

* 유효케이스 :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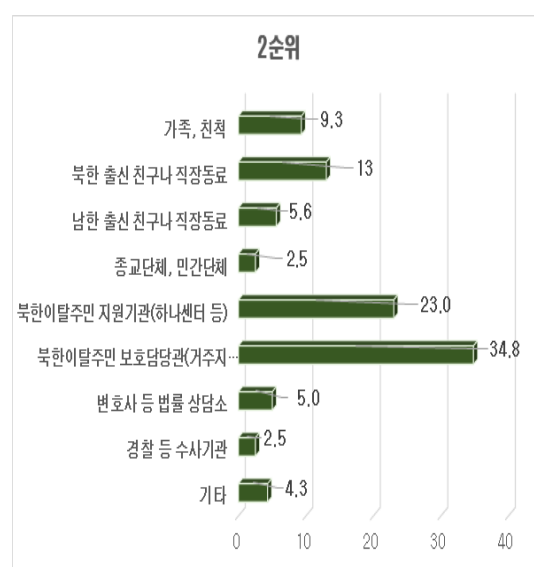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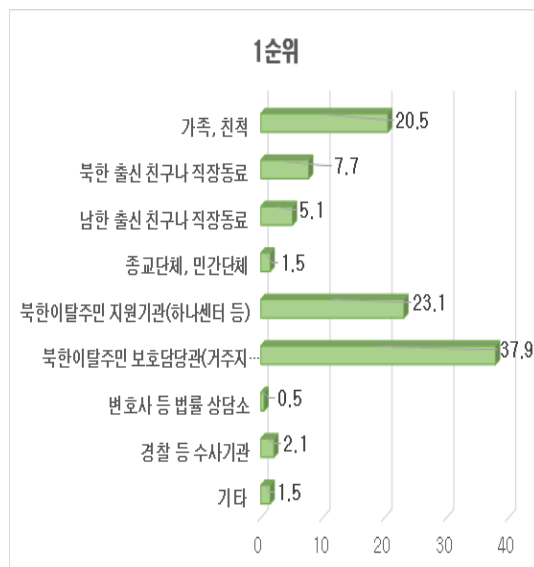
【그림 3-2-38】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을 경우 대처(다중응답분석)

-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지 살펴봄. 1순위와 2순위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거주지 보호담당관, 형사, 취업보호 담당관 등)’ 이라고 응답함. 그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하나센터 등)’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2-48】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단위: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 가족, 친척	40	20.5	15	9.3
• 북한 출신 친구나 직장동료	15	7.7	21	13.0
• 남한 출신 친구나 직장동료	10	5.1	9	5.6
• 종교단체, 민간단체	3	1.5	4	2.5
•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하나센터 등)	45	23.1	37	23.0
•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거주지 보호담당관, 형사, 취업보호 담당관 등)	74	37.9	56	34.8
• 변호사 등 법률 상담소	1	0.5	8	5.0
• 경찰 등 수사기관	4	2.1	4	2.5
• 기타 복지관 팀장 민주평통 노동부, 동료상담원 해당기관	3	1.5	7	4.3
합 계	195	100.0	161	100.0



【그림 3-2-39】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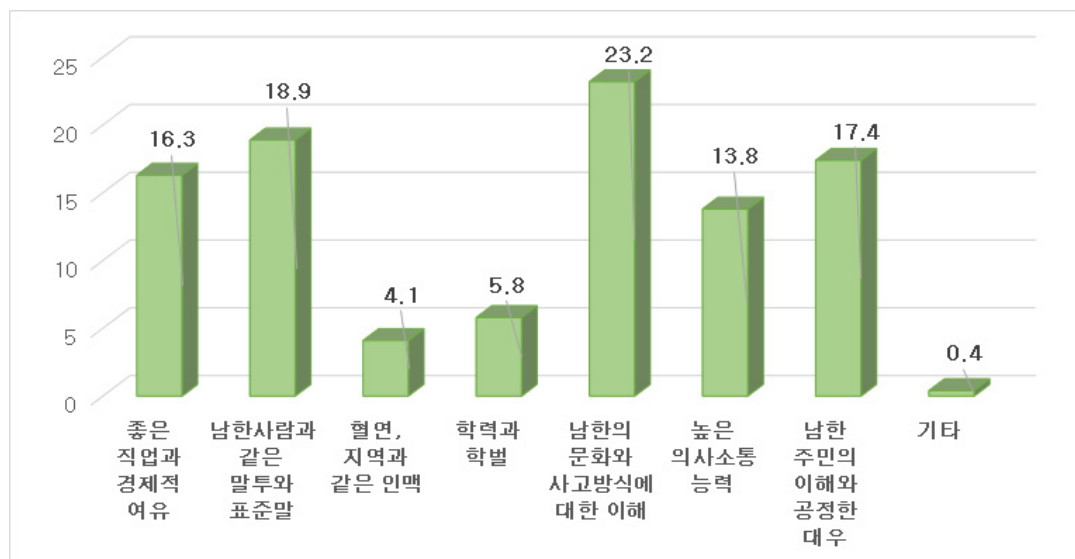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중응답으로 질문함. ‘남한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가 54.8%, ‘남한사람과 같은 말투와 표준말’이 44.7%, ‘남한 주민의 이해와 공정한 대우’가 41%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은 남한문화 및 사고방식, 말투가 변하고,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이해와 공정한 대우를 통해서 차별이 완화된다고 요약됨.

【표 3-2-49】 남한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다중응답분석)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케이스 중 비율
• 좋은 직업과 경제적 여유	76	16.3	38.6
• 남한사람과 같은 말투와 표준말	88	18.9	44.7
• 혈연, 지역과 같은 인맥	19	4.1	9.6
• 학력과 학벌	27	5.8	13.7
• 남한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	108	23.2	54.8
• 높은 의사소통 능력	64	13.8	32.5
• 남한 주민의 이해와 공정한 대우	81	17.4	41.1
• 기타	2	0.4	1.0
합 계	465	100.0	236.0

* 유효케이스 :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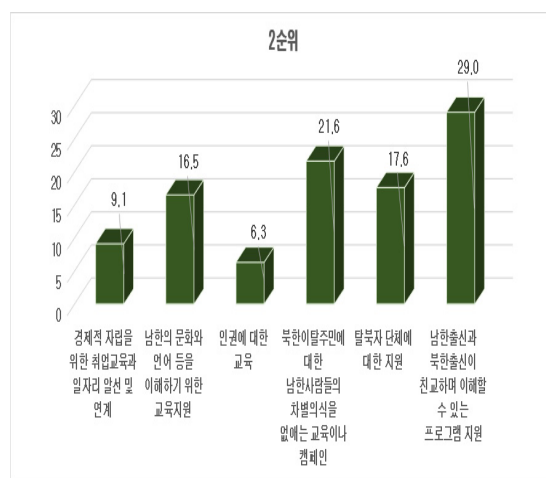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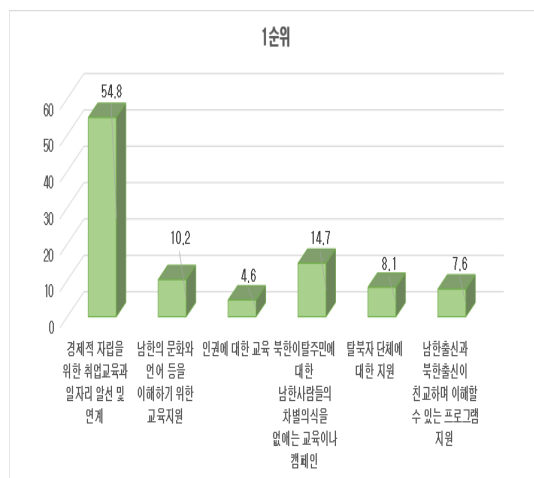
【그림 3-2-40】 남한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다중응답분석)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행복하게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인지 질문함. 1순위에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과 일자리 알선 및 연계’가 54.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차별의식을 없애는 교육이나 캠페인’이 14.7%, ‘남한의 문화와 언어 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지원’이 10.2%로 나타남. 2순위에서는 ‘남한출신과 북한출신이 친교하며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 2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차별의식을 없애는 교육이나 캠페인’이 21.6%,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이 17.6%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자리 알선 및 연계, 남한주민대상 차별의식 없애는 교육 및 캠페인, 남한의 문화 및 언어 이해교육 지원, 남한주민과 친교 프로그램 확대, 탈북자 단체 지원 등의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음.

【표 3-2-50】 남한에서 행복하게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단위: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과 일자리 알선 및 연계	108	54.8	16	9.1
• 남한의 문화와 언어 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지원	20	10.2	29	16.5
• 인권에 대한 교육	9	4.6	11	6.3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차별의식을 없애는 교육이나 캠페인	29	14.7	38	21.6
•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	16	8.1	31	17.6
• 남한출신과 북한출신이 친교하며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15	7.6	51	29.0
합 계	197	100.0	176	100.0



【그림 3-2-41】 남한에서 행복하게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 남한최종학력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의 평균차이를 살펴봄. 남한최종학력별로 ‘직장, 단체, 학교 차별’, ‘이웃, 친구로부터 차별’, ‘북한주민자녀라서 차별’, ‘다른 외국인보다 차별’, ‘여성이라서 더 차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 ‘직장, 단체, 학교 차별’은 고등학교 졸업을 한 북한이탈여성이 가장 차별인식(4.56점)이 높았음. ‘이웃, 친구로부터 차별’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북한이탈여성이 가장 차별인식(3.55점)이 높았음. ‘북한주민자녀라서 차별’은 중학교를 졸업한 북한이탈여성이 가장 차별인식(5.17점)이 높았음, ‘다른 외국인보다 차별’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북한이탈여성이 가장 차별인식(4.24점) 높음. 마지막으로 ‘여성이라서 더 차별’은 중학교를 졸업한 북한이탈여성이 가장 차별인식(3.00점)이 높게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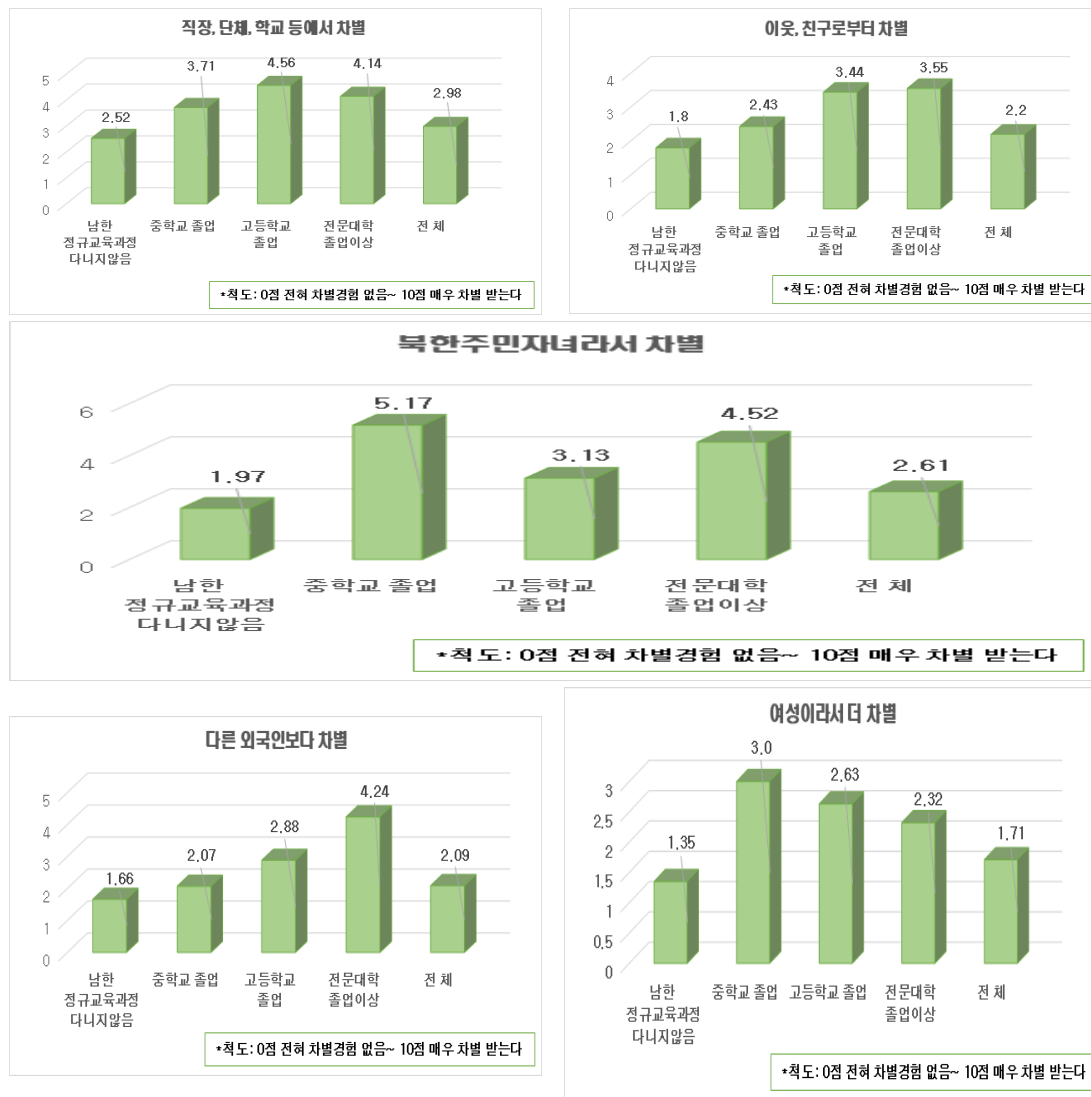
【표 3-2-51】 남한최종학력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의 평균 차이

(단위: 명, %)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직장, 단체, 학교 차별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131	2.52	3.139	3.272*
	중학교 졸업	14	3.71	3.173	
	고등학교 졸업	16	4.56	3.265	
	전문대학 졸업이상	22	4.14	4.027	
	전체	183	2.98	3.329	
이웃, 친구로부터 차별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130	1.80	2.610	3.578*
	중학교 졸업	14	2.43	2.681	
	고등학교 졸업	16	3.44	3.346	
	전문대학 졸업이상	22	3.55	3.674	
	전체	182	2.20	2.888	
북한주민자녀라서 차별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124	1.97	2.894	7.098***
	중학교 졸업	12	5.17	4.218	
	고등학교 졸업	16	3.13	2.802	
	전문대학 졸업이상	21	4.52	4.057	
	전체	173	2.61	3.309	
남한주민보다 차별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131	2.73	3.412	2.075
	중학교 졸업	13	4.54	3.992	
	고등학교 졸업	16	3.88	2.918	
	전문대학 졸업이상	22	4.14	4.291	
	전체	182	3.13	3.562	
다른 외국인보다 차별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131	1.66	2.756	4.934**
	중학교 졸업	14	2.07	2.895	
	고등학교 졸업	16	2.88	2.872	
	전문대학 졸업이상	21	4.24	4.242	
	전체	182	2.09	3.075	
여성이라서 더 차별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130	1.35	2.455	2.901*
	중학교 졸업	14	3.00	3.783	
	고등학교 졸업	16	2.63	2.473	
	전문대학 졸업이상	22	2.32	3.077	
	전체	182	1.71	2.696	

* #P<0.1 *P<0.05, **P<0.01, ***P<0.001

*척도: 0점 전혀 차별경험 없음 ~ 10점 매우 차별 받는다



【그림 3-2-42】 남한 최종학력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의 평균 차이

- ☐ 북한최종학력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의 평균차이를 살펴봄. 북한최종학력별로 ‘북한주민 자녀라서 차별’, ‘남한주민보다 차별’, ‘다른 외국인보다 차별’, ‘여성이라서 더 차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 ☐ 북한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을 한 북한이탈여성은 ‘북한주민자녀라서 차별’ (5.14점), ‘남한주민보다 차별’ (5.67점), ‘다른 외국인보다 차별’ (4.53점)에서 가장 높게 차별인식을 하고 있었음. 그리고 ‘여성이라서 더 차별’은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3점), 대학교 졸업 (2.93점)가 가장 높게 차별인식을 하고 있었음. 대체로 학력이 높은 북한이탈여성이 차별인식을 높게 한다고 해석됨.

【표 3-2-52】북한 최종학력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의 평균 차이

(단위: 명, %)

문 항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값
직장, 단체, 학교 차별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14	4.07	4.160	.934
	고등중학교 졸업	142	2.82	3.185	
	전문학교 졸업	25	3.08	3.829	
	대학교 졸업	15	3.87	3.482	
	전 체	196	3.03	3.366	
이웃, 친구로부터 차별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14	2.64	3.104	1.253
	고등중학교 졸업	142	1.96	2.735	
	전문학교 졸업	24	2.79	3.575	
	대학교 졸업	15	3.13	3.335	
	전 체	195	2.21	2.927	
북한주민자녀라서 차별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14	3.50	3.590	3.518*
	고등중학교 졸업	134	2.29	3.188	
	전문학교 졸업	23	2.91	3.753	
	대학교 졸업	14	5.14	3.483	
	전 체	185	2.68	3.380	
남한주민보다 차별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14	2.79	3.043	3.290*
	고등중학교 졸업	140	2.79	3.392	
	전문학교 졸업	26	3.73	4.304	
	대학교 졸업	15	5.67	3.958	
	전 체	195	3.13	3.609	
다른 외국인보다 차별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14	2.21	3.215	3.677*
	고등중학교 졸업	142	1.82	2.933	
	전문학교 졸업	24	2.50	3.284	
	대학교 졸업	15	4.53	3.720	
	전 체	195	2.14	3.123	
여성이라서 더 차별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14	3.00	3.783	2.353#
	고등중학교 졸업	141	1.50	2.596	
	전문학교 졸업	25	1.56	2.551	
	대학교 졸업	15	2.93	3.173	
	전 체	195	1.72	2.761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0점 전혀 차별경험 없음 ~ 10점 매우 차별 받는다



【그림 3-2-43】 북한 최종학력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의 평균 차이

- ☐ 남편출신국가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의 평균 차이를 살펴봄. 남편출신국가별로 ‘이웃, 친구로부터 차별’, ‘남한주민보다 차별’, ‘다른 외국인보다 차별’, ‘여성이라서 더 차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 ☐ ‘이웃, 친구로부터 차별’은 조선족 출신이 남편인 북한이탈여성이 가장 차별인식(3.53점)으로 높았음. 그 다음은 남한출신의 차별인식(2.89점)으로 나타남. ‘남한주민보다 차별’은 남한 출신이 남편인 북한이탈여성이 가장 차별인식(4.04점)이 높음. 그리고 ‘다른 외국인보다 차별’은 남한출신인 남편인 북한이탈여성이 가장 차별인식(3.26점)이 높음. 마지막으로 ‘여성이라서 더 차별’은 남한출신인 남편인 북한이탈여성이 가장 차별인식(2.43점)이 높게 분석됨.
- ☐ 결과적으로 남편출신국가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의 평균 차이(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남한출신이 남편인 경우, 다른 국가 출신보다 차별인식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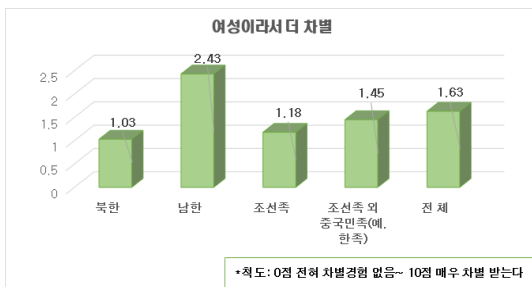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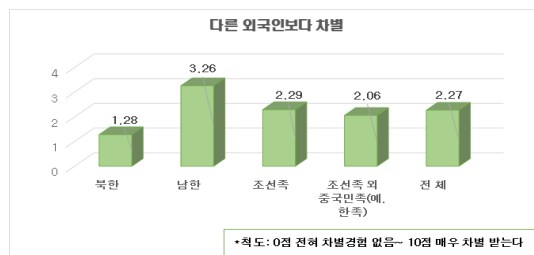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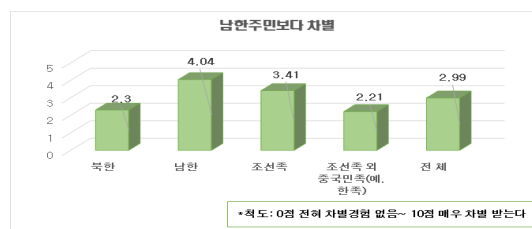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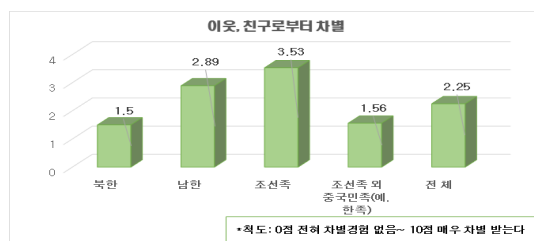
【표 3-2-53】 남편 출신국가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의 평균 차이

(단위: 명, %)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직장, 단체, 학교 차별	북한	40	2.48	2.891	1.052
	남한	47	3.66	3.637	
	조선족	17	3.76	3.800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3	2.55	2.762	
	전체	137	3.06	3.274	
이웃, 친구로부터 차별	북한	40	1.50	2.100	3.439*
	남한	47	2.89	3.434	
	조선족	17	3.53	3.502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2	1.56	2.382	
	전체	136	2.25	2.946	
북한주민자녀라서 차별	북한	39	2.18	3.034	1.699
	남한	46	3.61	3.935	
	조선족	15	2.53	3.563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2	2.16	2.795	
	전체	132	2.71	3.412	
남한주민보다 차별	북한	40	2.30	3.204	2.689*
	남한	45	4.04	3.649	
	조선족	17	3.41	4.063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4	2.21	2.869	
	전체	136	2.99	3.459	
다른 외국인보다 차별	북한	40	1.28	2.172	2.893*
	남한	47	3.26	3.813	
	조선족	17	2.29	3.653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3	2.06	2.861	
	전체	137	2.27	3.226	
여성이라서 더 차별	북한	40	1.03	2.082	2.473*
	남한	46	2.43	3.096	
	조선족	17	1.18	1.912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3	1.45	2.575	
	전체	136	1.63	2.610	

* #P<0.1 *P<0.05, **P<0.01, *** P<0.001

*척도: 0점 전혀 차별경험 없음 ~ 10점 매우 차별 받는다



【그림 3-2-44】 남편의 출신국가별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의 평균 차이

7 노동권

- ☐ 현재 소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함.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48.2%) 보다 일을 하지 않는 비율(51.8%)이 높게 나타남.

【표 3-2-54】 현재 소득활동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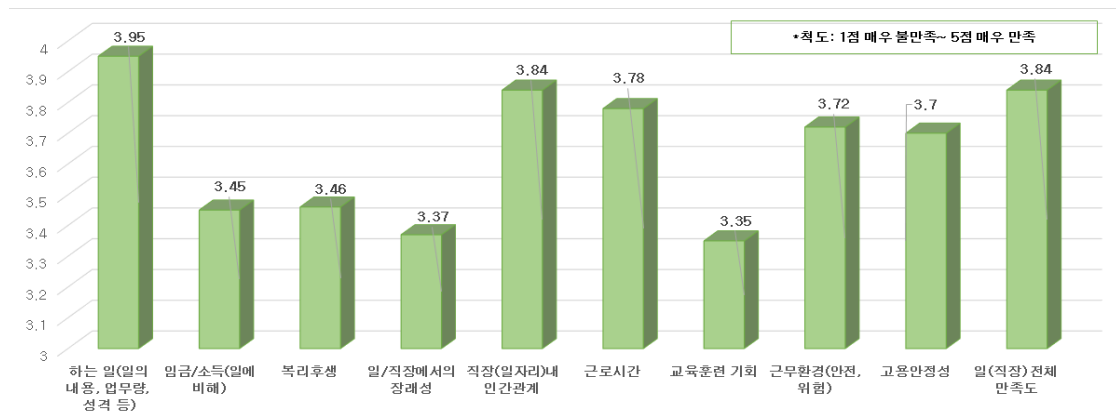
구 분	빈 도	비 율
• 예	95	48.2
• 아니오	102	51.8
합 계	197	100.0

- ☐ 현재 일을 하는 경우, 일(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함.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함(5점)까지 분포하고 있음. 10개 부문에 대하여 평균 ‘보통’ 정도의 만족도로 조사됨. ‘하는 일(일의 내용, 업무량, 성격 등)(3.95점)’, ‘직장(일자리)내 인간관계(3.84점)’, ‘일(직장) 전체 만족도(3.84점)’는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남. 반면에 ‘일/직장에서의 장래성(3.37점)’, ‘교육훈련 기회(3.35점)’는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교육훈련기회의 확대, 일/직장에서의 장래성을 높이도록 승진, 보수체계 등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음.

【표 3-2-55】 현재 일(직장) 만족도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 하는 일(일의 내용, 업무량, 성격 등)	97	1	5	3.95	.961
• 임금/소득(일에 비해)	98	1	5	3.45	1.141
• 복리후생	85	1	5	3.46	1.007
• 일/직장에서의 장래성	92	1	5	3.37	1.165
• 직장(일자리)내 인간관계	94	1	5	3.84	.965
• 근로시간	95	1	5	3.78	1.054
• 교육훈련 기회	86	1	5	3.35	1.114
• 근무환경(안전, 위험)	92	1	5	3.72	1.093
• 고용안정성	93	1	5	3.70	1.071
• 일(직장) 전체 만족도	97	1	5	3.84	.986

* 척도: 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



【그림 3-2-45】 현재 직장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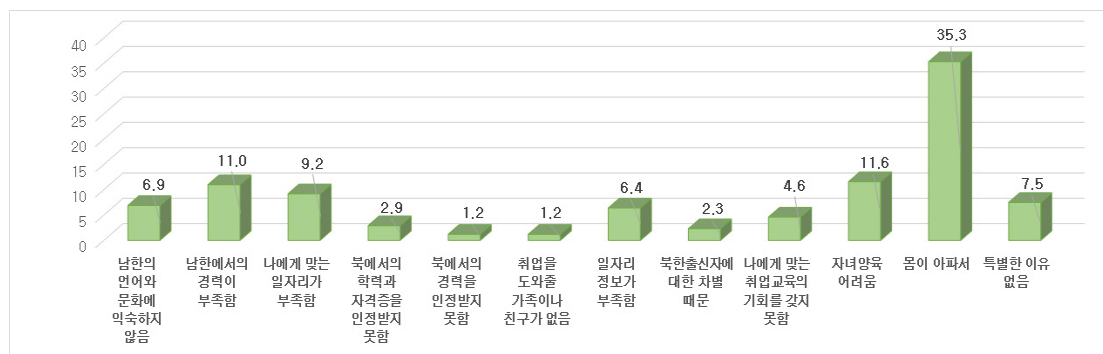
- 현재 일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몸이 아파서’ (35.3%), ‘자녀양육 어려움’ (11.6%), ‘남한에서의 경력이 부족함’ (11%)로 응답함. 이러한 결과로부터 건강지원, 자녀 돌봄 지원,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정책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3-2-56】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중응답분석)

(단위: 명, %)

구 분	N	비 율	케이스 중 비율
• 남한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음	12	6.9	11.1
• 남한에서의 경력이 부족함	19	11.0	17.6
•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부족함	16	9.2	14.8
• 북에서의 학력과 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함	5	2.9	4.6
• 북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함	2	1.2	1.9
• 취업을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음	2	1.2	1.9
• 일자리 정보가 부족함	11	6.4	10.2
• 북한출신자에 대한 차별 때문	4	2.3	3.7
• 나에게 맞는 취업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함	8	4.6	7.4
• 자녀양육 어려움	20	11.6	18.5
• 몸이 아파서	61	35.3	56.5
• 특별한 이유 없음	13	7.5	12.0
합 계	173	100.0	160.2

* 유효케이스 : 108



【그림 3-2-46】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다중응답분석)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로 현재 소득활동여부를 살펴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이 있는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88.7%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고, 11.3%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이 없는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69.6%가 일을 하고 있고, 30.4%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표 3-2-5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현재 소득활동 여부

(단위: 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현재 소득활동여부		전 체
	예	아니오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	8/11.3	63/88.7	71/10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여성	87/69.6	38/30.4	125/100.0
전 체	95/48.5	101/51.5	196/100.0
$\chi^2 = 61.688^{***}$			

***P<0.001

- ☐ 가구소득형태별로 현재 소득활동여부를 살펴봄. 맞벌이는 100%, 외벌이는 61%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음. 해당사항 없음으로 응답한 북한이탈여성은 5.6% 일을 하고, 94.4%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표 3-2-58】 가구소득형태별 현재 소득활동 여부

(단위: 명, %)

가구소득형태	현재 소득활동여부		전 체
	예	아니오	
맞벌이	42/100.0	-	42/100.0
외벌이	47/61.0	30/39.0	77/100.0
해당사항 없음	4/5.6	67/94.4	71/100.0
전 체	93/48.9	97/51.1	190/100.0
$\chi^2 = 101.615^{***}$			

***P<0.001

- ☐ 월평균소득별, 남한 최종학력별 현재 소득활동여부를 살펴봄.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 일 경우, 5.7%만 소득활동을 하고, 94.3%가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아마도 기초생활수급대상 여성일 가능성이 높음. 100만원 이상은 소득 활동하는 비율이 약 70% 이상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 남한 최종학력별 현재 소득활동여부를 살펴보면,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중학교 졸업한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소득활동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반면에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이상은 현재 소득 활동하는 비율이 높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표 3-2-59】 월평균 소득별, 남한 최종학력별 현재 소득활동 여부

(단위: 명, %)

월평균 소득 구분	현재 소득활동여부		전 체
	예	아니오	
100만원 미만	4/5.7	66/94.3	70/100.0
100 ~ 200만원	49/81.7	11/19.3	60/100.0
201 ~ 300만원	20/69.0	9/31.0	29/100.0
301 ~ 400만원	10/76.9	3/23.1	13/100.0
401만원 이상	12/70.6	5/29.4	17/100.0
전 체	95/50.3	94/49.7	189/100.0
$\chi^2 = 89.802^{***}$			
남한 최종학력 구분	현재 소득활동여부		전 체
	예	아니오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56/42.7	75/57.3	131/100.0
중학교 졸업	5/38.5	8/61.5	13/100.0
고등학교 졸업	10/62.5	6/37.5	16/100.0
전문대학 졸업이상	18/81.8	4/18.2	22/100.0
전 체	89/78.9	93/51.1	182/100.0
$\chi^2 = 13.276^{**}$			

P<0.01, *P<0.001

- ☐ 현재 혼인상태별 현재 소득활동 여부를 살펴봄. 결혼한 적 없는 북한이탈여성, 별거/이혼/사별, 기타의 경우,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반면에 결혼(사실혼 포함)을 한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현재 소득활동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표 3-2-60】 현재 혼인상태별 현재 소득활동 여부

(단위: 명, %)

월평균 소득 구분	현재 소득활동여부		전 체
	예	아니오	
결혼한 적 없음	6/42.9	8/57.1	14/100.0
결혼(사실혼 포함)	64/59.8	43/40.2	107/100.0
별거/이혼/사별	15/31.3	33/68.8	48/100.0
기타	9/36.0	16/64.0	25/100.0
전 체	94/48.5	100/51.5	194/100.0
$\chi^2 = 12.944^{a*}$			

*P<0.05

- ☐ 읍면·동별 일자리만족도 차이를 살펴봄. 읍면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북한이탈여성(3.63점)보다 도시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직장 내 인간관계 만족도(3.98점)가 더 높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표 3-2-61】 읍면·동별 일자리만족도(직장 내 인간관계) 차이

(단위: 명, %)

문 항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값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읍면(농촌지역)	32	3.63	1.040	-1.715 [#]
	동(도시지역)	59	3.98	.900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

- ☐ 남한거주기간별, 남한 최종학력별 일자리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남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12~35개월)’ 일 경우, 교육훈련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2.64점으로 약간 불만족한 것으로 분석됨. 반면에 ‘10년 이상(120개월~)’ 이 된 남한에 거주한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3.81점으로 보통 이상의 교육훈련기회에 대한 만족을 하고 있었음. 사후검정결과에서도 ‘1년 이상 3년 미만(12~35개월)’ 과 ‘10년 이상(120개월~)’ (2, 5)에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남한 최종학력별 일자리만족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4.33점으로 일 전체에 대하여 약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남한 최종학력별로 일 전체에 대해 보통 정도의 만족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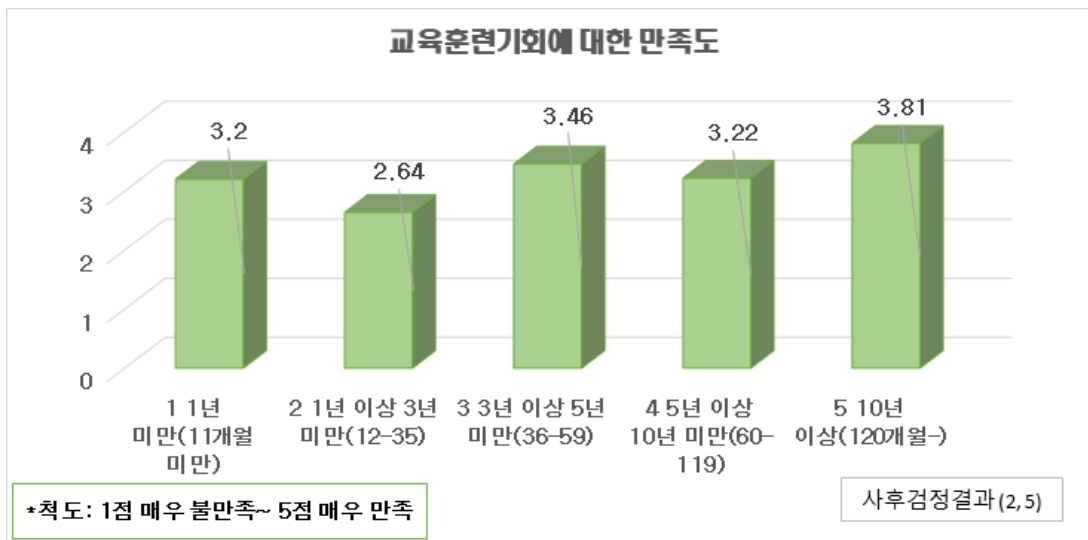
【표 3-2-62】 남한거주기간별, 남한 최종학력별 일자리만족도(교육훈련기회, 일전체) 차이

(단위: 명, %)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교육훈련기회에 대한 만족도	1. 1년 미만(11개월 미만)	5	3.20	.447	2.983* 사후검정 결과 (2, 5)
	2. 1년 이상 3년 미만(12-35)	14	2.64	1.499	
	3. 3년 이상 5년 미만(36-59)	13	3.46	1.127	
	4. 5년 이상 10년 미만(60-119)	27	3.22	.974	
	5. 10년 이상(120개월-)	27	3.81	.921	
	전체	86	3.35	1.114	
일전체에 대한 만족도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56	3.86	.883	2.213#
	중학교 졸업	5	3.00	1.581	
	고등학교 졸업	9	4.33	.866	
	전문대학 졸업이상	18	3.67	1.085	
	전체	88	3.82	.989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



【그림 3-2-47】 남한거주기간별 교육훈련기회에 대한 만족도 차이

- 북한 최종학력별 현재 소득활동여부를 살펴본 결과,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전문학교 졸업을 한 북한이탈여성은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반면에 고등중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한 북한이탈여성은 현재 소득활동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표 3-2-63】 북한 최종학력별 현재 소득활동 여부

(단위: 명, %)

북한 최종학력 구분	현재 소득활동여부		전 체
	예	아니오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2/14.3	12/85.7	14/100.0
고등중학교 졸업	72/51.4	68/48.6	140/100.0
전문학교 졸업	12/46.2	14/53.8	26/100.0
대학교 졸업	8/53.3	7/46.7	15/100.0
전 체	94/48.2	101/51.8	195/100.0
$\chi^2 = 7.236^{##}$			

#P<0.1

- ☐ 북한 최종학력별 일자리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 일 전체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교 졸업’ 이 4.50점,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가 4점으로 약간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남.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학교 졸업’ 이 3.09점으로 보통의 만족도로 가장 낮고, ‘대학교 졸업’ 한 북한이탈여성이 4.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일 전체에 대한 만족도는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가 4.50점으로 가장 높게 만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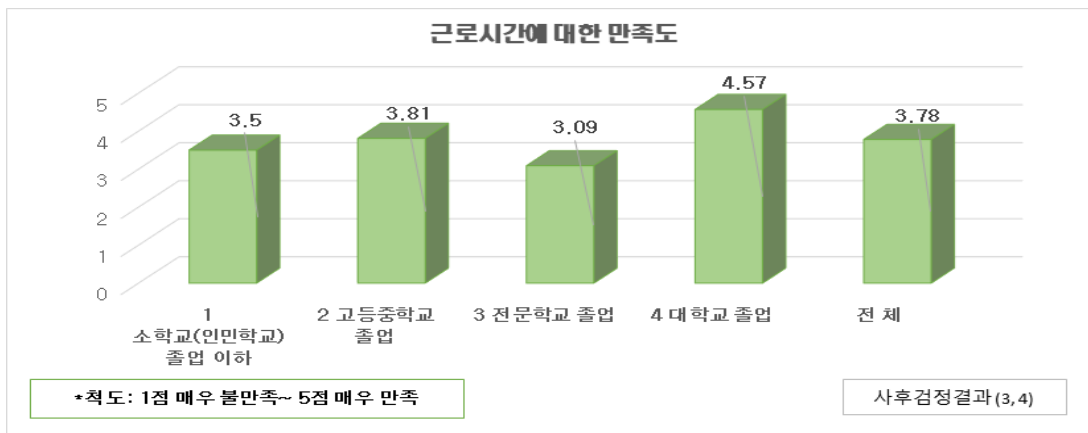
【표 3-2-64】 북한 최종학력별 일자리만족도(하는 일, 근로시간, 일 전체) 차이

(단위: 명, %)

문 항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값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2	4.00	1.414	2.220 [#]
	고등중학교 졸업	74	3.99	.944	
	전문학교 졸업	12	3.42	1.084	
	대학교 졸업	8	4.50	.535	
	전 체	96	3.96	.962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	1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2	3.50	.707	3.123 ^{**} 사후검정 결과 (3, 4)
	2 고등중학교 졸업	74	3.81	1.029	
	3 전문학교 졸업	11	3.09	1.136	
	4 대학교 졸업	7	4.57	.787	
	전 체	94	3.78	1.059	
일 전체에 대한 만족도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2	4.50	.707	2.196 [#]
	고등중학교 졸업	74	3.84	1.007	
	전문학교 졸업	12	3.33	.985	
	대학교 졸업	8	4.38	.518	
	전 체	96	3.83	.991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



【그림 3-2-48】 북한 최종학력별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 차이

- ☐ 북한 이탈경로별 일자리만족도(복리후생)를 살펴본 결과,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 한 북한이탈여성이(3.56점), ‘남한으로 직접 입국(직행)’ (3.19점)보다 복리후생에 대한 일자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표 3-2-65】 북한이탈경로별 일자리만족도(복리후생) 차이

(단위: 명, %)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남한으로 직접 입국(직행)	21	3.19	.602	-1.909 [#]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	63	3.56	1.104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1점 매우 불만족 ~ 5점 매우 만족

8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폭력유형별 경험여부

- ☐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학교, 직장, 사회 등의 폭력피해 경험 여부를 살펴봄. 조사대상자들은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그러나 낮은 비율이지만 폭력피해 경험이 조사됨. 폭력에 대한 문항은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 신체적 폭력의 폭력경험은 1%, 언어적 폭력의 폭력 경험은 7.7%, 성적인 괴롭힘은 1.1%, 직장 내 괴롭힘은 6.3%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함.

【표 3-2-66】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학교, 직장, 사회 등의 폭력피해 경험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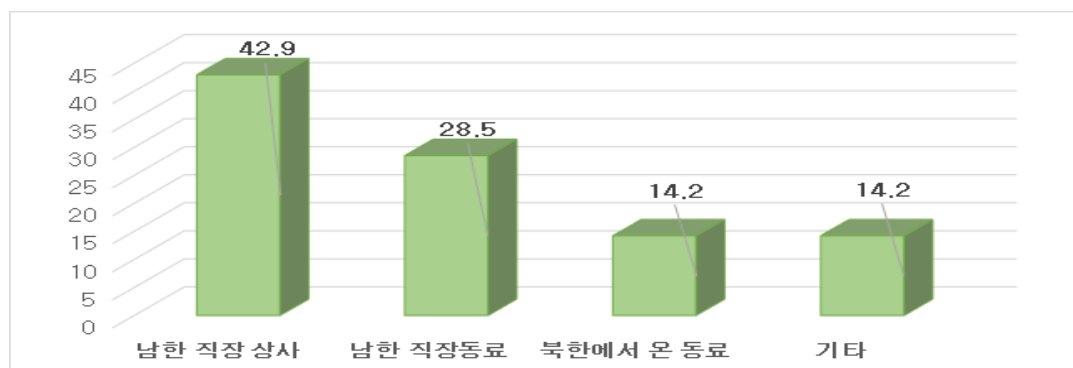
구 분		빈 도	비 율
• 학교, 직장, 사회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없음	189	99.0
	있음	2	1.0
합 계		191	100.0
• 학교, 직장, 사회에서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없음	179	92.3
	있음	15	7.7
합 계		194	100.0
• 학교, 직장, 사회에서 성적 괴롭힘을 경험하였다	없음	188	98.9
	있음	2	1.1
합 계		190	100.0
• 학교, 직장,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였다	없음	178	93.7
	있음	12	6.3
합 계		190	100.0

□ 직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가했던 대상자는 ‘남한 직장상사’가 4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남한 직장동료’가 28.5%로 나타난다.

【표 3-2-67】직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가했던 대상자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남한 직장 상사	3	42.9
• 남한 직장동료	2	28.5
• 북한에서 온 동료	1	14.2
• 기타 친구 동료	1	14.2
합 계	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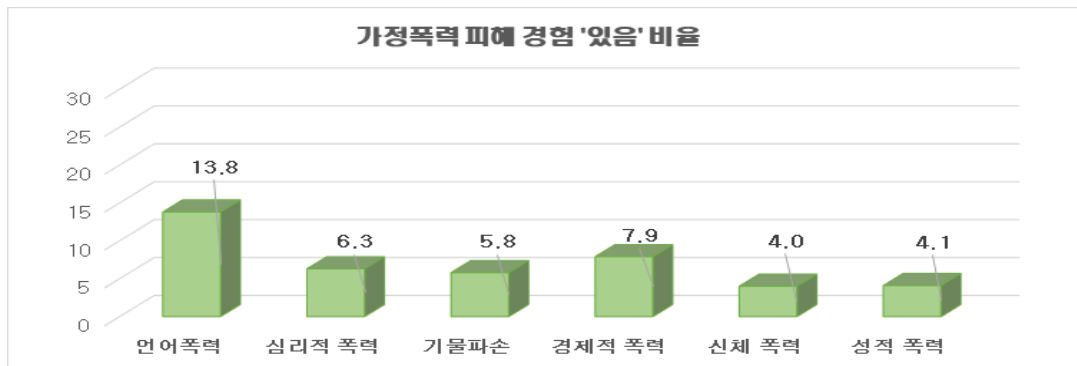
【그림 3-2-49】직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한 대상

2) 가정폭력

- ☐ 지난 1년간 남편 혹은 동거인이 폭력적 행동(언어폭력, 심리적 폭력, 기물파손, 경제적 폭력, 신체폭력, 성적 폭력)을 몇 번이나 했는지를 질문함. 그 결과, 가정 내 언어폭력은 13.8%, 심리적 폭력은 6.3%, 기물파손은 5.8%, 경제적 폭력은 7.9%, 신체폭력은 4%, 성적 폭력은 4.1%정도로 조사됨.

【표 3-2-68】가정 내 폭력유형별 폭력 비율

문항	구분	빈도	비율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했다 (언어폭력)	없음	150	86.2
	1회	10	5.7
	2회	1	0.6
	3-5회	3	1.7
	6-10회	6	3.4
	11-20회	1	0.6
	20회이상	3	1.7
	합계	174	100.0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심리적 폭력)	없음	163	93.7
	1회	2	1.1
	2회	-	-
	3-5회	6	3.4
	6-10회	1	0.6
	11-20회	1	0.6
	20회이상	1	0.6
	합계	174	100.0
물건을 파손하였다 (기물파손)	없음	162	94.2
	1회	4	2.3
	2회	4	2.3
	3-5회	1	0.6
	6-10회	-	-
	11-20회	-	-
	20회이상	1	0.6
	합계	172	100.0
생활비 등을 주지 않았다 (경제적 폭력)	없음	163	92.1
	1회	2	1.1
	2회	1	0.6
	3-5회	4	2.3
	6-10회	1	0.6
	11-20회	3	1.7
	20회이상	3	1.7
	합계	177	100.0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신체 폭력)	없음	166	96.0
	1회	3	1.7
	2회	1	0.6
	3-5회	-	-
	6-10회	1	0.6
	11-20회	1	0.6
	20회이상	1	0.6
	합계	173	100.0
내가 원치 않았으나 상대방이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성적 폭력)	없음	165	95.9
	1회	2	1.2
	2회	1	0.6
	3-5회	1	0.6
	6-10회	-	-
	11-20회	-	-
	20회이상	3	1.7
	합계	172	100.0



【그림 3-2-50】가정내 폭력유형별 ‘있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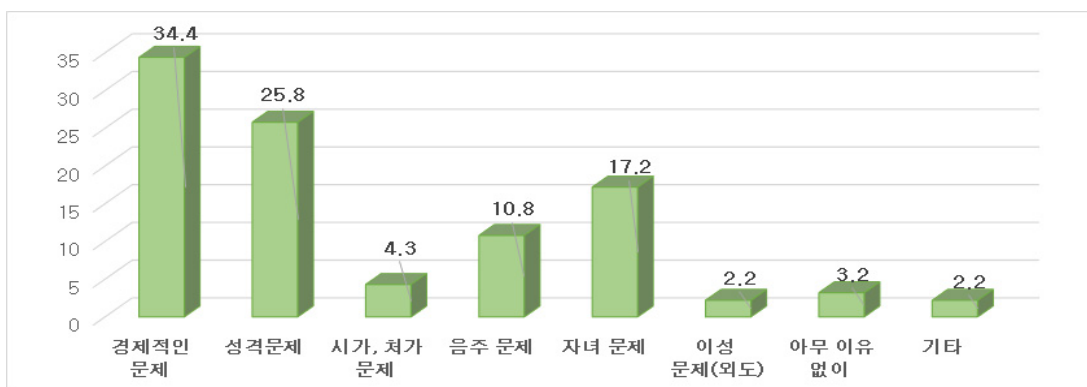
□ 북한이탈여성의 가정 내 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48.5%, 성격 문제가 36.4%, 음주문제가 24.2%로 나타남.

【표 3-2-69】가정폭력의 가장 큰 이유(다중응답분석)

(단위: 명, %)

구 분	N	비 율	케이스 중 비율
• 경제적인 문제	32	34.4	48.5
• 성격문제	24	25.8	36.4
• 시가, 처가 문제	4	4.3	6.1
• 음주 문제	10	10.8	15.2
• 자녀 문제	16	17.2	24.2
• 이성 문제(외도)	2	2.2	3.0
• 아무 이유 없이	3	3.2	4.5
• 기타	2	2.2	3.0
합 계	93	100.0	140.9

* 유효케이스 :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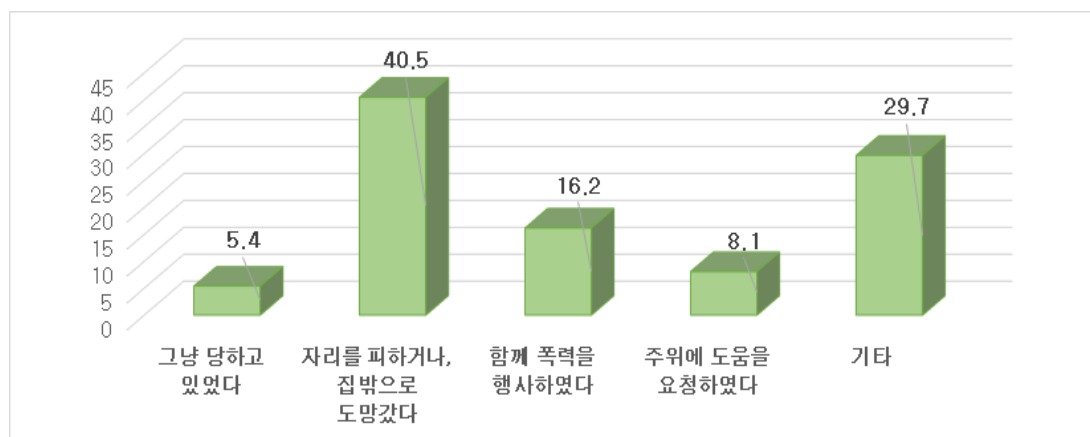
【그림 3-2-51】가정폭력의 가장 큰 이유(다중응답분석)

- 북한이탈여성이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방법은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갔다’가 40.5%로 가장 높았음.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16.2%로 나타남. 폭력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비율이 높음. 비교적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3-2-70】 가정폭력 발생시 대응방법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그냥 당하고 있었다	2	5.4
•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갔다	15	40.5
•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다	6	16.2
•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3	8.1
• 기타 112 신고 헤어짐	11	29.7
합 계	37	100.0



【그림 3-2-52】 가정폭력 발생시 대응방법

- 북한이탈여성이 배우자·동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경우, 폭력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함. 경찰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 쉼터 또는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하여 인식조사를 한 결과, 세 기관에 대하여 ‘알지만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옴.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그리고 ‘알고 있고 이용해 보았다’는 경찰신고가 21.3%, 여성긴급전화 1366은 1.8%, 쉼터 또는 가정폭력상담소는 4.5%정도로 매우 낮은 활용률로 나타남.

【표 3-2-71】가정폭력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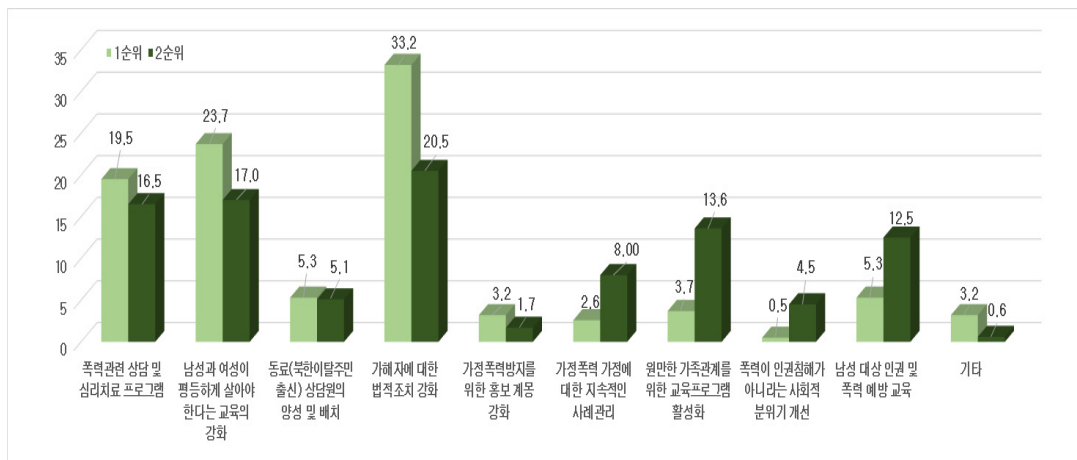
문항	구분	빈도	비율
경찰 신고	모른다	7	5.2
	알고 있고, 이용해봤다	29	21.3
	알지만, 이용하지 않았다	100	73.5
	합계	136	100.0
여성긴급전화 1366	모른다	44	39.3
	알고 있고, 이용해봤다	2	1.8
	알지만, 이용하지 않았다	66	58.9
	합계	112	100.0
쉼터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모른다	42	37.8
	알고 있고, 이용해봤다	5	4.5
	알지만, 이용하지 않았다	64	57.7
	합계	111	100.0

- ☐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함. 1순위와 2순위에서 공통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조치 강화’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됨. 그 다음 순위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육의 강화’가 공통적으로 조사됨.

【표 3-2-72】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 폭력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37	19.5	29	16.5
•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육의 강화	45	23.7	30	17.0
• 동료(북한이탈주민 출신) 상담원의 양성 및 배치	10	5.3	9	5.1
• 가해자에 대한 법적조치 강화	63	33.2	36	20.5
•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	6	3.2	3	1.7
• 가정폭력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5	2.6	14	8.0
• 원만한 가족관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7	3.7	24	13.6
• 폭력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	1	0.5	8	4.5
• 남성 대상 인권 및 폭력 예방 교육	10	5.3	22	12.5
임시피난처				
• 기타 북한남자들 성격과 말투 자녀를 대하는 말투 교육	6	3.2	1	0.6
합계	190	100.0	176	100.0



【그림 3-2-53】 가정폭력감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

- ☐ 현재 혼인상태별 언어적 폭력피해 경험 여부를 살펴봄. 결혼(사실혼 포함)하였을 경우, 95.1%, 별거/이혼/사별하였을 경우, 93.8%, 기타일 경우, 80.8%, 결혼한적 없음도 86.7%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73】 현재 혼인상태별 언어적 폭력피해 경험 여부

(단위: 명, %)

현재의 혼인상태	언어적 폭력피해 경험 여부		전 체
	있음	없음	
결혼한 적 없음	13/86.7	2/13.3	15/100.0
결혼(사실혼 포함)	98/95.1	5/4.9	103/100.0
별거/이혼/사별	45/93.8	3/6.3	48/100.0
기타	21/80.8	5/19.2	26/100.0
전 체	177/92.2	15/7.8	192/100.0
$\chi^2 = 6.756^{a\#}$			

*P<0.1

- ☐ 지역별(읍면·동)로 가정폭력 발생 횟수 차이를 살펴봄. 그 결과, 지역별로 심리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 ☐ 심리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은 읍면 지역보다 동지역의 발생횟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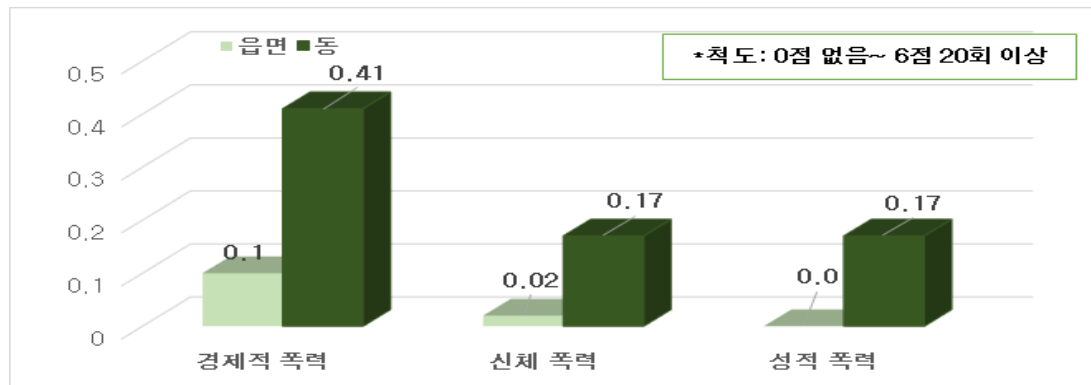
【표 3-2-74】 읍면·동별 가정폭력 발생 횟수 차이

(단위: 명, %)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값
언어적 폭력	읍면	59	.25	.921	-.904
	동	113	.42	1.201	
심리적 폭력	읍면	58	.07	.413	-1.665 [#]
	동	114	.25	.974	
기물파손	읍면	58	.07	.413	-.842
	동	112	.15	.687	
경제적 폭력	읍면	61	.10	.651	-2.110 [*]
	동	114	.41	1.316	
신체적 폭력	읍면	57	.02	.132	-1.849 [*]
	동	114	.17	.841	
성적 폭력	읍면	57	.00	.000	-2.066 [*]
	동	113	.17	.865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0점 없음 ~ 6점 20회 이상



【그림 3-2-54】 읍면·동별 가정폭력 발생횟수 차이

□ 가구소득활동별로 성적 폭력의 횟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맞벌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횟수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3-2-75】 가구소득활동 형태별 가정폭력(성적 폭력) 횟수 차이

(단위: 명, %)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값
성적 폭력	맞벌이	42	.45	1.565	2.109 [#]
	외벌이	71	.06	.374	
	해당사항 없음	56	.04	.267	
	전 체	169	.15	.843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0점 없음 ~ 6점 20회 이상

- ☐ 남한 최종학력별로 가정폭력 유형별로 가정폭력 횟수 차이를 살펴봄. 심리적 폭력은 ‘중학교 졸업’ 이 0.78회로 높은 비율임.
- ☐ 경제적 폭력은 ‘중학교 졸업’ 이 1.09회로 높은 비율임. 사후검정결과, ‘중학교 졸업’ 과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 않음’ 은 .23회, ‘중학교 졸업’ (1.09회)와 ‘전문대학 졸업이상’ (.05회)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성적 폭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 .86회로 나타남. 이는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 않음’ 0.04회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사후검정결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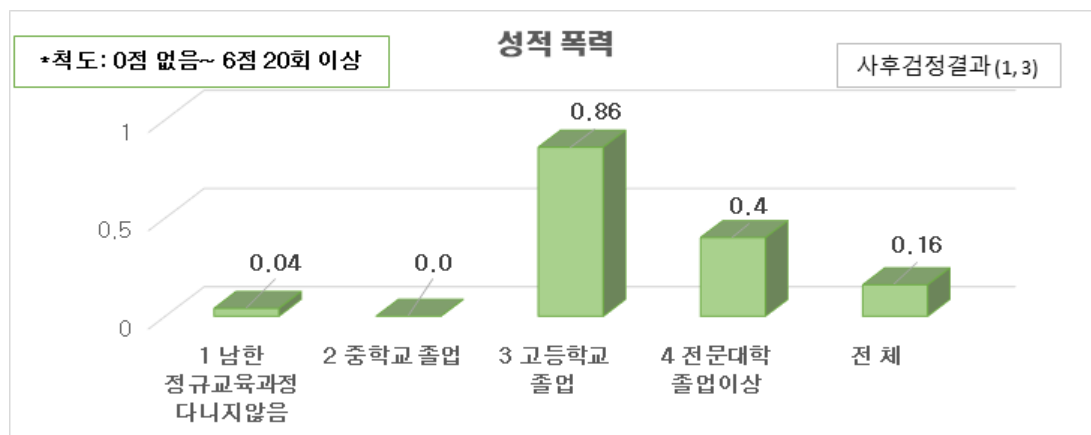
【표 3-2-76】 남한 최종학력별 가정폭력 횟수 차이

(단위: 명, %)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심리적 폭력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119	.13	.769	2.629 [#]
	중학교 졸업	9	.78	1.563	
	고등학교 졸업	15	.60	1.242	
	전문대학 졸업이상	20	.15	.671	
	전체	163	.21	.880	
경제적 폭력	1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121	.23	.990	2.624 [#] 사후검정결과 (1, 2), (2, 4)
	2 중학교 졸업	11	1.09	1.758	
	3 고등학교 졸업	14	.43	1.604	
	4 전문대학 졸업이상	20	.05	.224	
	전체	166	.28	1.078	
성적 폭력	1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119	.04	.329	4.699 ^{**} 사후검정결과 (1, 3)
	2 중학교 졸업	8	.00	.000	
	3 고등학교 졸업	14	.86	2.179	
	4 전문대학 졸업이상	20	.40	1.353	
	전체	161	.16	.863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0점 없음 ~ 6점 20회 이상



【그림 3-2-55】 남한 최종학력별 성적 폭력 횟수 차이

- 남한 최종학력별로 가정폭력 유형별로 가정폭력 횡수 차이를 살펴봄. 언어폭력, 심리적 폭력, 경제적 폭력 횡수는 남한으로 직접 입국(직행)한 북한이탈여성보다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한 북한이탈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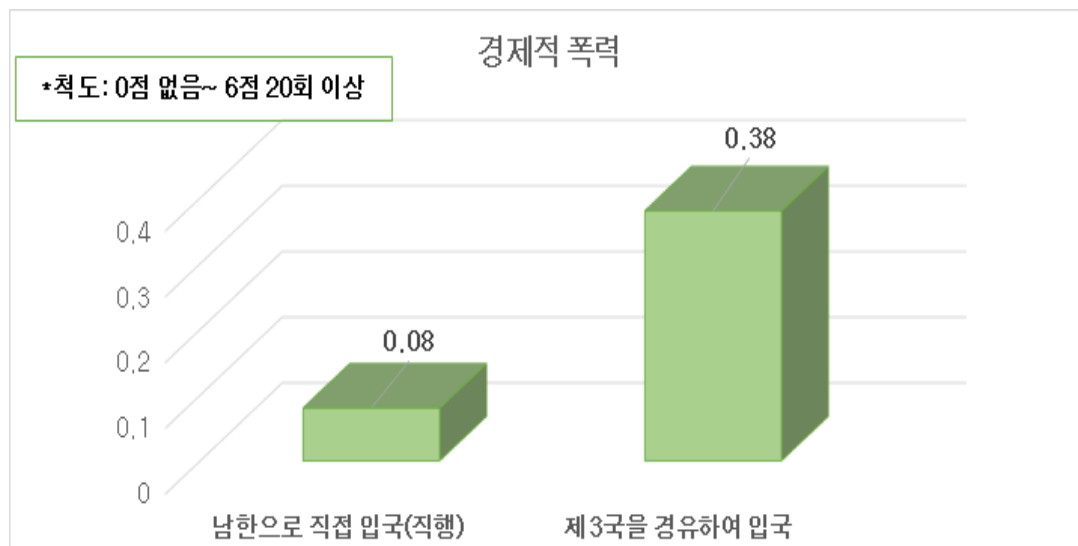
【표 3-2-77】 북한이탈경로별 가정폭력 횡수 차이

(단위: 명, %)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언어 폭력	남한으로 직접 입국(직행)	48	.17	.519	-1.961 [#]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	125	.43	1.259	
심리적 폭력	남한으로 직접 입국(직행)	49	.06	.429	-1.658 [#]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	124	.23	.938	
경제적 폭력	남한으로 직접 입국(직행)	48	.08	.577	-2.137 [*]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	128	.38	1.274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0점 없음 ~ 6점 20회 이상



【그림 3-2-56】 북한이탈경로별 경제적 폭력 횡수 차이

3) 성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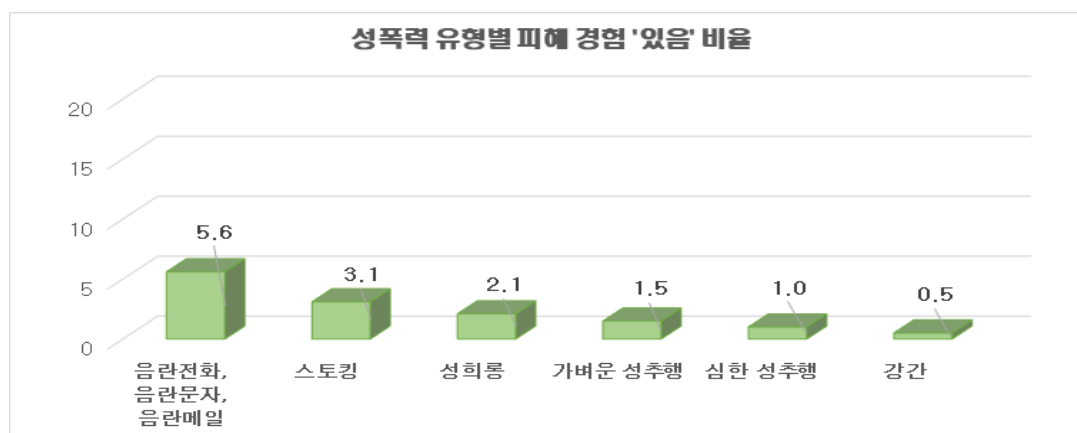
- 성폭력과 관련된 7문항에 대하여 피해경험 유무를 살펴봄. 피해경험 비율은 높지는 않지만 응답은 성폭력 유형별로 200명 중 190명~196명까지 응답을 하였음.
- ‘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 은 5.6%, ‘각과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 (스토킹)’ 은 3.1%,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

말이나 몸짓으로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행동 (성희롱)’은 2.1%, ‘고의로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 (가벼운 성추행)’은 1.5%, ‘생각을 무시하고 키스, 성기접촉, 애무 등 강제로 추행하는 행동 (심한 성추행)’은 1.0%, ‘생각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함 (강간)’은 0.5%로 나타남.

【표 3-2-78】성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	없음	185	94.4
	있음	11	5.6
합 계		196	100.0
• 생각과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 (스토킹)	없음	190	96.9
	있음	6	3.1
합 계		196	100.0
•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 말이나 몸짓으로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행동 (성희롱)	없음	191	97.9
	있음	4	2.1
합 계		195	100.0
• 고의로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 (가벼운 성추행)	없음	192	98.5
	있음	3	1.5
합 계		195	100.0
• 생각을 무시하고 키스, 성기접촉, 애무 등 강제로 추행하는 행동 (심한 성추행)	없음	193	99.0
	있음	2	1.0
합 계		195	100.0
• 생각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함 (강간)	없음	194	99.5
	있음	1	0.5
합 계		195	100.0
• 어쩔 수 없이 일정한 대가를 전제로 성행위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권유 받은 일	없음	195	100.0
	있음	-	-
합 계		195	100.0



【그림 3-2-57】성폭력 유형별 피해경험 ‘있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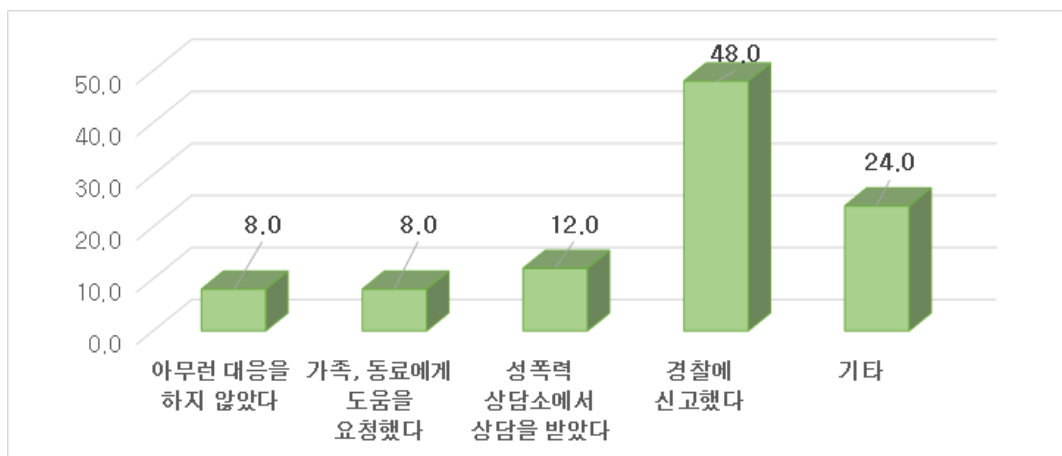
- 만약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다중응답으로 살펴봄. 200명 중 25명이 응답하여 조사대상자의 12.5%가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추론됨.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은 ‘경찰에 신고했다’가 54.5%, ‘기타’가 27.3%,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다’가 13.6%로 나타남.

【표 3-2-79】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다중응답분석)

(단위: 명, %)

구 분	N	비 율	케이스 중 비율
•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2	8.0	9.1
• 가족,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2	8.0	9.1
•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다	3	12.0	13.6
• 경찰에 신고했다	12	48.0	54.5
• 기타 저항 혼자만 알고 있다	6	24.0	27.3
합 계	25	100.0	113.6

* 유효케이스 : 22



【그림 3-2-58】 성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다중응답분석)

- 읍면·동별 성폭력_음란 전화, 문자, 메일 경험 여부를 살펴 봄. 읍면 지역은 1.4%, 동지역의 북한이탈여성은 7.4%가 음란 전화, 문자, 메일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표 3-2-80】 읍면·동별 성폭력_음란 전화, 문자, 메일 경험 여부

(단위: 명, %)

읍면·동 구분	성폭력_음란 전화, 문자, 메일 경험 여부		전 체
	없음	있음	
읍면	70/98.6	1/1.4	71/100.0
동	113/92.6	9/7.4	122/100.0
전 체	183/94.8	10/5.2	193/100.0
$\chi^2 = 3.254^{a\#}$			

* #P<0.1

【표 3-2-81】 남한 최종학력별 성폭력_음란 전화, 문자, 메일 경험 여부

(단위: 명, %)

남한 최종학력 구분	성폭력_음란 전화, 문자, 메일 경험 여부		전 체
	없음	있음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126/96.2	5/3.8	131/100.0
중학교 졸업	13/100.0	-	13/100.0
고등학교 졸업	12/80.0	3/20.0	15/100.0
전문대학 졸업이상	20/90.9	2/9.1	22/100.0
전 체	171/94.5	10/5.5	181/100.0
$\chi^2 = 8.050^{a*}$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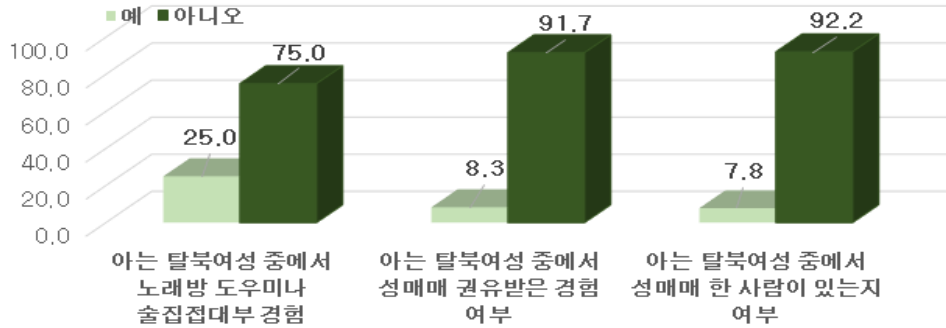
4) 성매매

- ☐ 이는 탈북여성 중에서 노래방 도우미나 술집 접대부(단순 서빙 제외) 등을 해본 경험, 성매매 권유, 성매매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함.
- ☐ 그 결과, ‘이는 탈북여성 중에서 노래방 도우미나 술집접대부 경험’에 25%, ‘이는 탈북여성 중에서 성매매 권유받은 경험’은 8.3%, ‘이는 탈북여성 중에서 성매매 한 사람이 있는지’는 7.8%가 ‘예’라고 응답함.

【표 3-2-82】 노래방 도우미를 하거나 성매매 권유받거나 성매매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이는 탈북여성 중에서 노래방 도우미나 술집접대부 경험	예	49	25.0
	아니오	147	75.0
합 계		196	100.0
• 이는 탈북여성 중에서 성매매 권유받은 경험 여부	예	16	8.3
	아니오	177	91.7
합 계		193	100.0
• 이는 탈북여성 중에서 성매매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예	15	7.8
	아니오	178	92.2
합 계		1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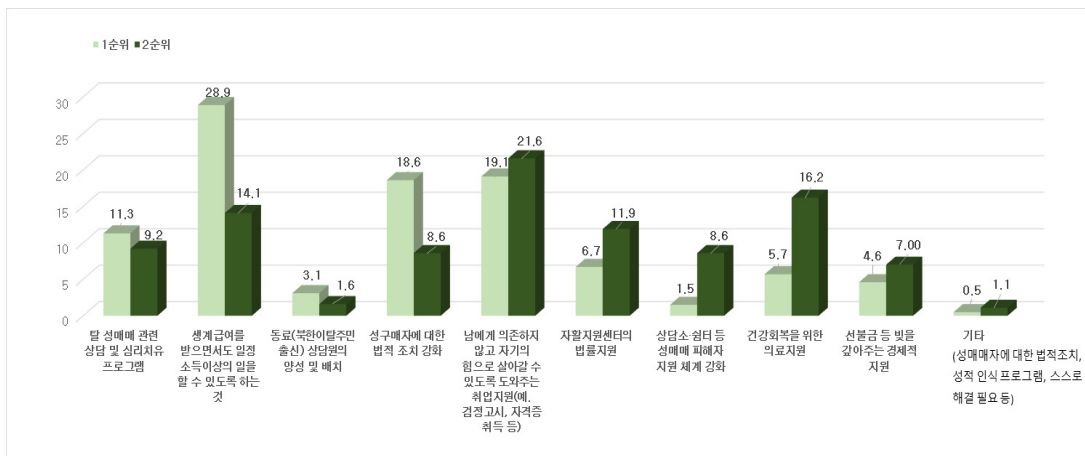
【그림 3-2-59】 노래방 도우미를 하거나 성매매 권유받거나 성매매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봄. 1순위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정 소득이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28.9%로 가장 높음. 그 다음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업지원(예.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 이 19.1%, ‘성구매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가 18.6%로 나타남.
- 2순위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업지원(예.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 이 21.6%,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이 16.2%,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정 소득이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14.1%로 나타남.

【표 3-2-83】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지원

(단위: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 탈 성매매 관련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22	11.3	17	9.2
•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정 소득이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56	28.9	26	14.1
• 동료(북한이탈주민 출신) 상담원의 양성 및 배치	6	3.1	3	1.6
• 성구매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36	18.6	16	8.6
•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업지원(예.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	37	19.1	40	21.6
• 자활지원센터의 법률지원	13	6.7	22	11.9
• 상담소·쉼터 등 성매매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3	1.5	16	8.6
•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11	5.7	30	16.2
• 선불금 등 빚을 갚아주는 경제적 지원	9	4.6	13	7.0
• 성매매자에 대한 법적 조치				
• 기타 성적 인식 프로그램	1	0.5	2	1.1
• 스스로 해결 필요				
합 계	194	100.0	185	100.0



【그림 3-2-60】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지원

□ 가구소득형태별 성매매_이는 탈북여성 중 성매매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봄. 맞벌이는 2.4%, 외벌이는 13.3%, 맞벌이 또는 외벌이에 해당되지 않는 북한이탈여성은 8%가 아는 탈북여성 중 성매매를 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표 3-2-84】 가구소득형태별 성매매_이는 탈북여성 중 성매매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가구소득형태	이는 탈북여성 중 노래방도우미나 술집접대부 경험 여부		전 체
	예	아니오	
맞벌이	1/2.4	40/97.6	41/100.0
외벌이	10/13.3	65/86.7	75/100.0
해당사항 없음	4/5.6	67/94.4	71/100.0
전 체	15/8.0	172/92.0	187/100.0
$\chi^2 = 5.149^{a\#}$			

* #P<0.1

□ 월평균 소득별 성매매_이는 탈북여성 중 노래방 도우미나 술집접대부 경험여부를 살펴 봄. 월평균 ‘100만원 미만’ 은 15.5%, ‘100 ~ 200만원’ 은 24.1%, ‘201 ~ 300만원’ 은 50%, ‘301 ~ 400만원’ 은 41.7%, ‘401만원 이상’ 은 11.8%가 탈북여성 중 노래방 도우미나 술집접대부 경험을 한다고 응답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표 3-2-85】 월평균 소득별 성매매_아는 탈북여성 중 노래방 도우미나 술집접대부 경험
(단위: 명, %)

월평균 소득 구분	아는 탈북여성 중 노래방도우미나 술집접대부 경험 여부		전 체
	예	아니오	
100만원 미만	11 / 15.5	60/84.5	71/100.0
100 ~ 200만원	14 / 24.1	44/75.9	58/100.0
201 ~ 300만원	15 / 50.0	15/50.0	30/100.0
301 ~ 400만원	5 / 41.7	7/58.3	12/100.0
401만원 이상	2 / 11.8	15/88.2	17/100.0
전 체	47 / 25.0	141/75.0	188/100.0
$\chi^2 = 16.812^{a*}$			

* $P < 0.05$

- ☐ 월평균 소득별 성매매_아는 탈북여성 중 성매매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봄. 월평균 ‘100만원 미만’ 은 2.9%, ‘100 ~ 200만원’ 은 12.3%, ‘201 ~ 300만원’ 은 16.7%, ‘301 ~ 400만원’ 은 9.1%, ‘401만원 이상’ 은 0%임.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표 3-2-86】 월평균 소득별 성매매_아는 탈북여성 중 성매매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월평균 소득 구분	아는 탈북여성 중 성매매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전 체
	예	아니오	
100만원 미만	2 / 2.9	68/97.1	70/100.0
100 ~ 200만원	7 / 12.3	50/87.7	57/100.0
201 ~ 300만원	5 / 16.7	25/83.3	30/100.0
301 ~ 400만원	1 / 9.1	10/90.9	11/100.0
401만원 이상	-	17/100.0	17/100.0
전 체	15 / 8.1	170/91.9	185/100.0
$\chi^2 = 8.386^{a\#}$			

* $\#P < 0.1$

- ☐ 북한이탈경로별 성매매_아는 탈북여성 중 성매매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봄. ‘남한으로 직접 입국(직행)한 경우’ 2.1%,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 은 9.7%가 아는 탈북여성 중 성매매를 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표 3-2-87】 북한이탈경로별 성매매_아는 탈북여성 중 성매매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북한이탈경로 구분	아는 탈북여성 중 성매매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전 체
	예	아니오	
남한으로 직접 입국(직행)	1 / 2.1	46/97.9	47/100.0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	14 / 9.7	131/90.3	145/100.0
전 체	15 / 7.8	177/92.2	192/100.0
$\chi^2 = 2.793^{a\#}$			

* #p<0.1

5) 폭력피해 상담 및 치유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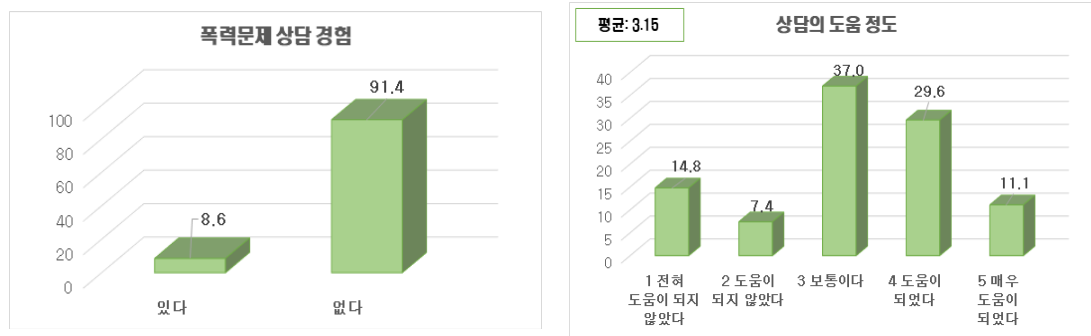
- ☐ 폭력문제(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8.6%가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 상담이 폭력 문제해결 도움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22.2%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반면에 40.7%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표 3-2-88】 폭력피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 인한 상담받은 경험 및 그 도움 정도

(단위: 명, %)

항 목	구 분	빈 도	비 율	평 균(표준편차)
폭력문제 상담받은 경험	• 있다	16	8.6	-
	• 없다	169	91.4	
	합 계	185	100.0	
상담의 문제해결 도움 정도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4	14.8	3.15(1.199)
	2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7.4	
	3 보통이다	10	37.0	
	4 도움이 되었다	8	29.6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3	11.1	
	합 계	27	100.0	

* 상담의 도움 정도 척도: 1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5점: 매우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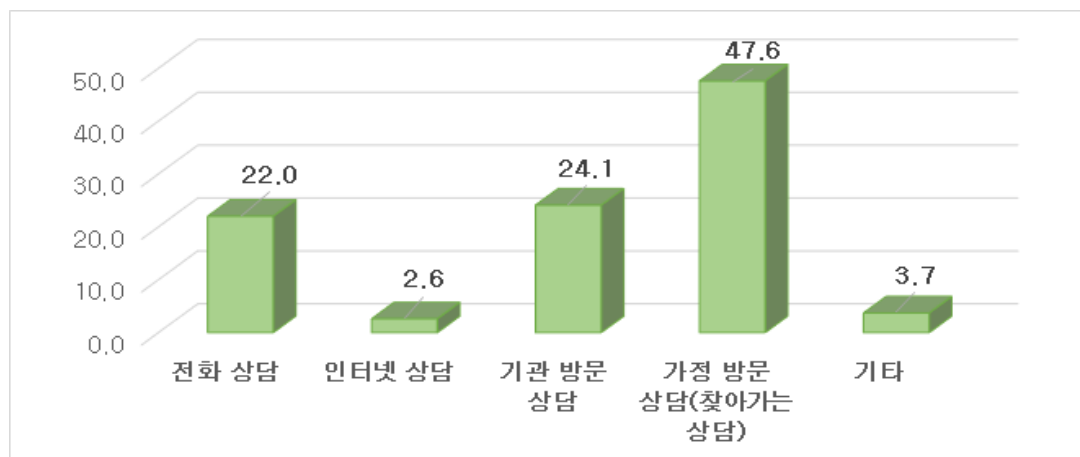
【그림 3-2-61】 폭력피해로 인한 상담 경험 및 그 도움 정도

□ 향후 폭력과 관련하여 향후 받고 싶은 상담 유형을 살펴본 결과, ‘가정 방문 상담(찾아가는 상담)’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은 ‘기관방문 상담’이 24.1%, ‘전화 상담’이 22%임. 이러한 결과로부터 시·군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더불어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폭력을 경험하는 북한이탈여성이 기관 방문, 전화 상담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표 3-2-89】 폭력과 관련하여 향후 받고 싶은 상담 유형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전화 상담	42	22.0
• 인터넷 상담	5	2.6
• 기관 방문 상담	46	24.1
• 가정 방문 상담(찾아가는 상담)	91	47.6
• 기타 없음, 잘 모르겠음	7	3.7
합 계	191	100.0



【그림 3-2-62】 폭력과 관련하여 향후 받고 싶은 상담 유형

- ☐ 북한이탈경로별 폭력피해 상담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봄. ‘남한으로 직접 입국(직행)한 경우’, 상담이 도움이 되었음(4점),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는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은 편(2.95점)으로 응답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표 3-2-90】 북한이탈경로별 폭력피해 상담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값
남한으로 직접 입국(직행)	5	4.00	1.000	1.797 [#]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	21	2.95	1.203	

* [#]P<0.1,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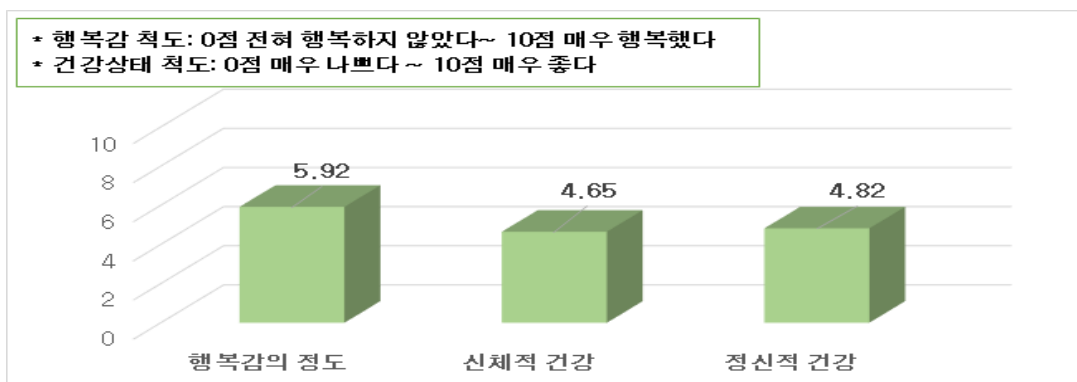
* 척도: 1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5점 매우 도움이 되었다

9 건강권

- ☐ 요즘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11점 척도로 질문함. 그 결과, 행복감은 5.92점으로 ‘보통수준’임. 신체적 건강(4.65점)과 정신적 건강(4.82점)은 4점대로 ‘건강하지 않은 편’으로 해석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삶의 질이 낮은 편으로 파악됨.

【표 3-2-91】 행복감·신체적 건강·정신적 건강 상태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 행복감의 정도	198	0	10	5.92	2.197
•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	188	0	10	4.65	2.937
정신적 건강	177	0	10	4.82	2.963

* 행복감 척도: 0점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10점 매우 행복했다
건강상태 척도: 0점 매우 나쁘다 ~ 10점 매우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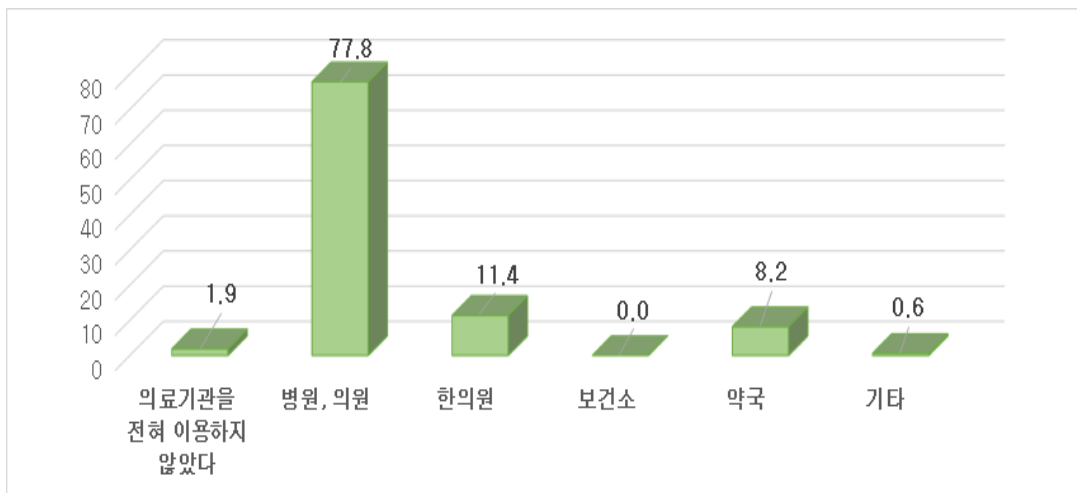
【그림 3-2-63】 행복감·신체적 건강·정신적 건강 상태

- 지난 1년간 아플 때 주로 이용한 곳은 어디인지 질문함. ‘병원, 의원’ 이 77.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한의원’ 이 11.4%임. ‘의료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도 1.9%로 파악됨.

【표 3-2-92】 지난 1년간 아플 때 주로 이용한 곳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의료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3	1.9
• 병원, 의원	123	77.8
• 한의원	18	11.4
• 보건소	-	-
• 약국	13	8.2
• 기타 대학병원, 요양병원	1	0.6
합 계	1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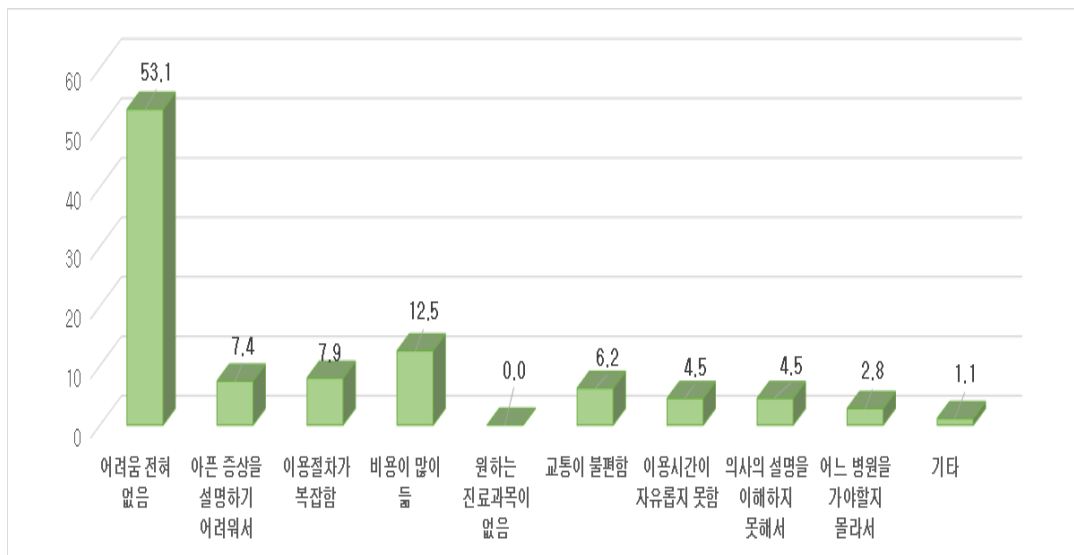
【그림 3-2-64】 지난 1년간 아플 때 주로 이용한 곳

-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살펴봄. 주요한 어려움으로 ‘비용이 많이 듦’ 이 12.5%, ‘이용절차가 복잡함’ 이 7.9%, ‘아픈 증상을 설명하기 어려워서’ 가 7.4%로 나타남. 그 외에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서’ 4.5%, ‘어느 병원을 가야할지 몰라서’ 가 2.8%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의료비(비급여) 지원, 언어소통문제, 의료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3-2-93】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어려움 전혀 없음	94	53.1
• 아픈 증상을 설명하기 어려워	13	7.4
• 이용절차가 복잡함	14	7.9
• 비용이 많이 듦	22	12.5
• 원하는 진료과목이 없음	-	-
• 교통이 불편함	11	6.2
• 이용시간이 자유롭지 못함	8	4.5
•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서	8	4.5
• 어느 병원을 가야할지 몰라서	5	2.8
• 기타 몸이 아픈데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 의사가 환자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2	1.1
합 계	177	100.0



【그림 3-2-65】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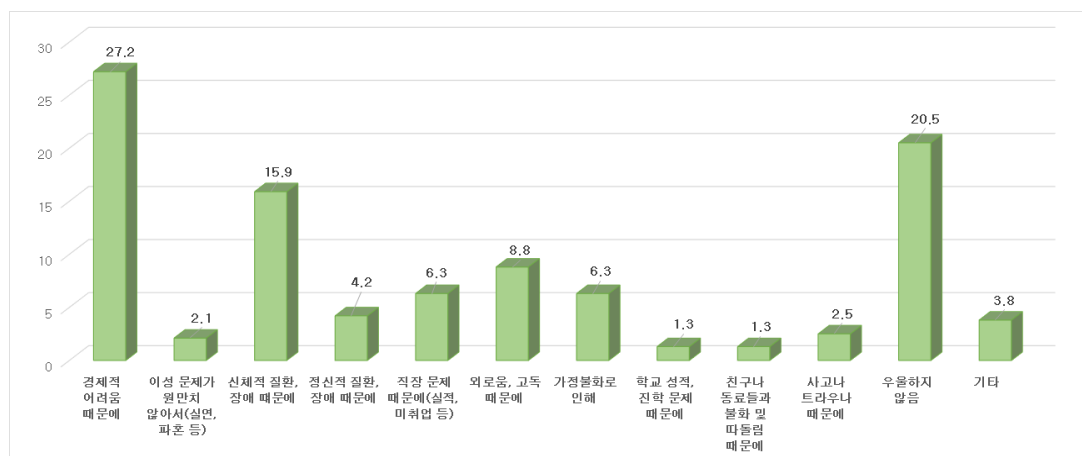
- 평소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다중응답으로 살펴봄.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가 32.7%임. 그 외에 ‘신체적 질환, 장애 때문에’가 19.1%, ‘외로움, 고독 때문에’가 10.6%임.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자리 지원, 건강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등의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됨.

【표 3-2-94】평소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다중응답분석)

(단위: 명, %)

구 분	N	비 율	케이스 중 비율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65	27.2	32.7
• 이성 문제가 원만치 않아서(실연, 파혼 등)	5	2.1	2.5
• 신체적 질환, 장애 때문에	38	15.9	19.1
• 정신적 질환, 장애 때문에	10	4.2	5.0
• 직장 문제 때문에(실직, 미취업 등)	15	6.3	7.5
• 외로움, 고독 때문에	21	8.8	10.6
• 가정불화로 인해	15	6.3	7.5
• 학교 성적, 진학 문제 때문에	3	1.3	1.5
• 친구나 동료들과 불화 및 따돌림 때문에	3	1.3	1.5
• 사고나 트라우마 때문에	6	2.5	3.0
• 우울하지 않음	49	20.5	24.6
• 기타 주거관련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녀를 두고 와서	9	3.8	4.5
합 계	239	100.0	120.1

* 유효케이스 : 199



【그림 3-2-66】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다중응답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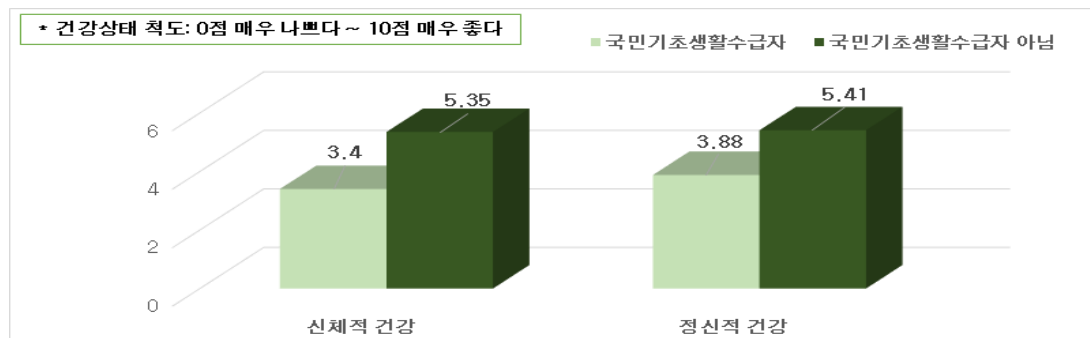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건강권이 보장되었는지 살펴 봄. 신체적 건강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이 있는 북한이탈여성’ (3.40점) 보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이 없는 북한이탈여성’ (5.35점)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함. 정신적 건강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이 있는 북한이탈여성’ (3.88점) 보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이 없는 북한이탈여성’ (5.41점)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응답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표 3-2-95】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건강권의 차이

(단위: 명, %)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값
행복감의 정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2	5.76	2.365	-0.77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님	125	6.02	2.106	
신체적 건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	3.40	2.760	-4.57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님	122	5.35	2.790	
정신적 건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4	3.88	2.820	-3.42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님	112	5.41	2.887	

* #P<0.1 *P<0.05, **P<0.01, ***P<0.001

* 행복감 척도: 0점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10점 매우 행복했다
건강상태 척도: 0점 매우 나쁘다 ~ 10점 매우 좋다

【그림 3-2-67】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건강상태 차이

- 연령대별 신체적 건강의 차이를 살펴 봄. ‘29세 이하’가 6.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신체적 건강이 좋은 편으로 해석됨. ‘40세 이상 49세 이하’가 5.08점으로 보통정도로 나타남. 50세 이상은 3점대로 신체적 건강이 나쁜 편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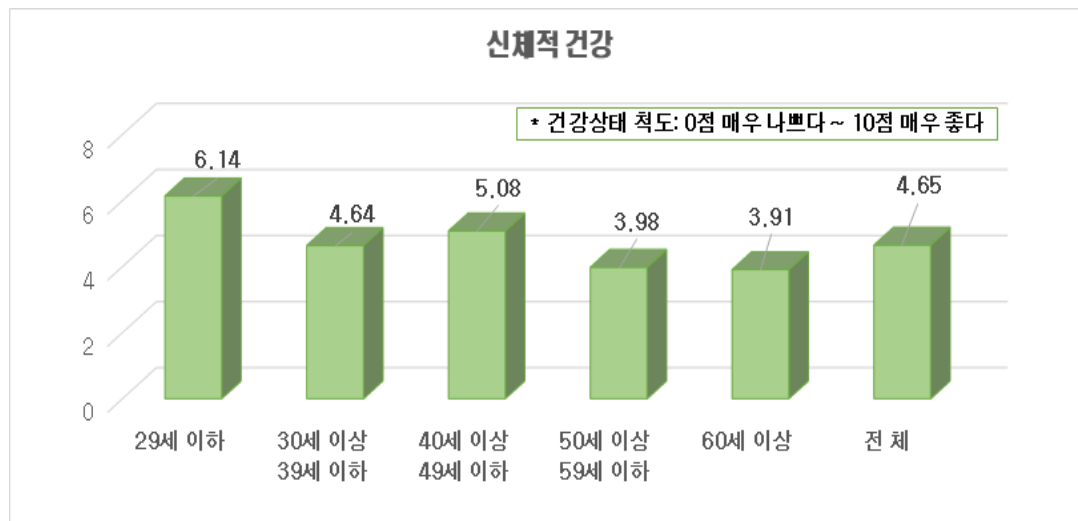
【표 3-2-96】연령대별 신체적 건강의 차이

(단위: 명, %)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값
신체적 건강	29세 이하	14	6.14	1.834	2.289*
	30세 이상 39세 이하	36	4.64	2.520	
	40세 이상 49세 이하	66	5.08	3.226	
	50세 이상 59세 이하	48	3.98	2.809	
	60세 이상	23	3.91	3.175	
	전 체	187	4.65	2.945	

* #P<0.1 *P<0.05, **P<0.01, ***P<0.001

* 건강상태 척도: 0점 매우 나쁘다 ~ 10점 매우 좋다



【그림 3-2-68】연령대별 신체적 건강의 차이

□ 남한거주기간별 건강권의 차이를 살펴 봄. 신체적 건강을 살펴보면, ‘1년 미만(11개월 미만)’은 6.39점으로 건강한 편으로 나타남. 반면에 ‘3년 이상 5년 미만(36-59)’은 3점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편으로 나타남. 사후 검정결과에서도 평균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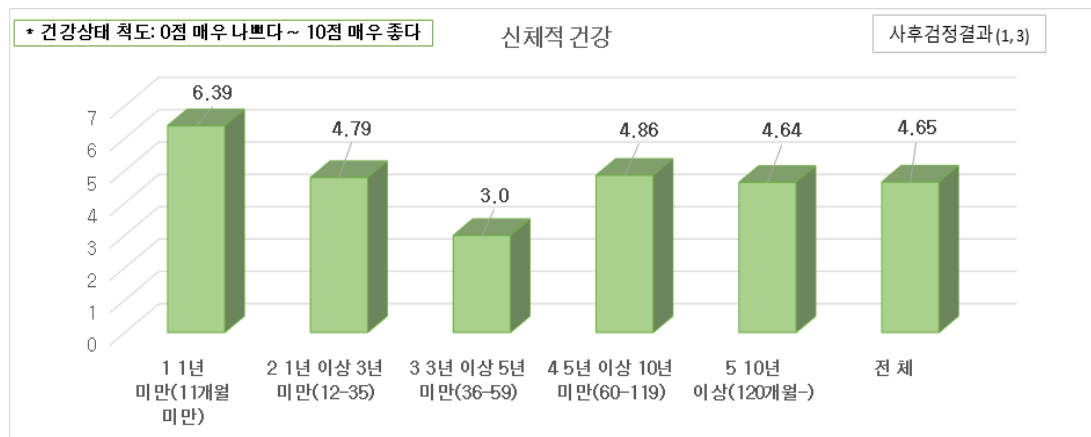
【표 3-2-97】남한거주기간별 건강권의 차이

(단위: 명, %)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값
행복감의 정도	1년 미만(11개월 미만)	19	6.53	2.525	1.139
	1년 이상 3년 미만(12-35)	29	5.69	2.451	
	3년 이상 5년 미만(36-59)	32	5.34	2.323	
	5년 이상 10년 미만(60-119)	57	6.14	2.142	
	10년 이상(120개월-)	61	5.93	1.922	
	전 체	198	5.92	2.197	
신체적 건강	1. 1년 미만(11개월 미만)	18	6.39	3.127	4.131** 사후검정결과 (1, 3)
	2. 1년 이상 3년 미만(12-35)	28	4.79	2.315	
	3. 3년 이상 5년 미만(36-59)	28	3.00	3.139	
	4. 5년 이상 10년 미만(60-119)	56	4.86	2.766	
	5. 10년 이상(120개월-)	58	4.64	2.906	
	전 체	188	4.65	2.937	
정신적 건강	1년 미만(11개월 미만)	16	5.81	3.351	1.688
	1년 이상 3년 미만(12-35)	28	4.68	2.583	
	3년 이상 5년 미만(36-59)	30	3.77	3.104	
	5년 이상 10년 미만(60-119)	54	5.22	3.057	
	10년 이상(120개월-)	49	4.80	2.754	
	전 체	177	4.82	2.963	

* #P<0.1 *P<0.05, **P<0.01, ***P<0.001

* 행복감 척도: 0점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10점 매우 행복했다
건강상태 척도: 0점 매우 나쁘다 ~ 10점 매우 좋다



【그림 3-2-69】남한 거주기간별 신체적 건강의 차이

- ☐ 가구소득활동 형태별 건강권의 차이를 살펴 봄. 행복감은 맞벌이는 6.59점으로 행복함 편이고 ‘해당사항 없음’은 5.54점으로 보통수준임. 사후 검정결과에서도 두 집단간 평균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 신체적 건강은 맞벌이(5.85점, 보통)와 해당사항 없음(3.42점, 나쁜 편)에서 차이를 보임. 또한 외벌이(5.29점, 보통)와 해당사항 없음(3.42점, 나쁜 편)에서 차이를 보임.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 ☐ 정신적 건강은 맞벌이(6.19점, 좋은편)와 해당사항 없음(3.79점, 나쁜 편)에서 차이를 보임. 또한 외벌이(5.25점, 보통)와 해당사항 없음(3.79점, 나쁜 편)에서 차이를 보임.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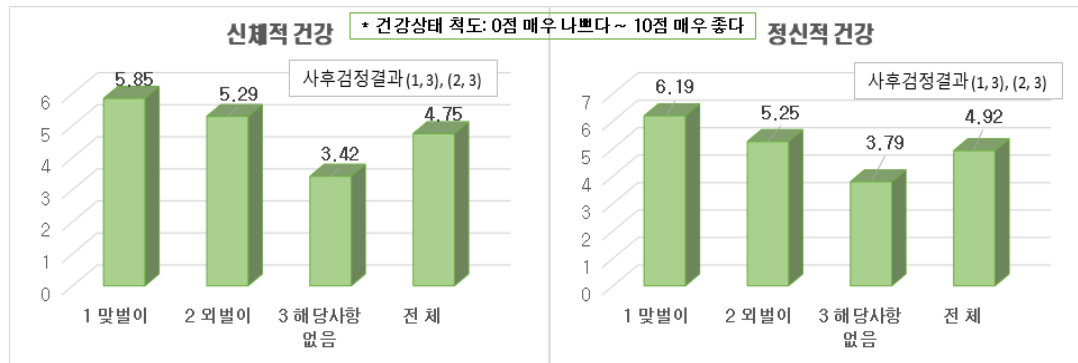
【표 3-2-98】가구소득활동 형태별 건강권의 차이

(단위: 명, %)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값
행복감의 정도	1. 맞벌이	41	6.59	2.061	3.184* 사후검정결과 (1, 3)
	2. 외벌이	79	5.90	2.054	
	3. 해당사항 없음	71	5.54	2.229	
	전 체	191	5.91	2.147	
신체적 건강	1. 맞벌이	41	5.85	2.689	12.681*** 사후검정결과 (1, 3), (2, 3)
	2. 외벌이	75	5.29	2.769	
	3. 해당사항 없음	65	3.42	2.686	
	전 체	181	4.75	2.893	
정신적 건강	1. 맞벌이	36	6.19	2.936	9.495*** 사후검정결과 (1, 3), (2, 3)
	2. 외벌이	73	5.25	2.773	
	3. 해당사항 없음	61	3.79	2.634	
	전 체	170	4.92	2.895	

* *P<0.1 **P<0.05, ***P<0.01, ****P<0.001

* 행복감 척도: 0점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10점 매우 행복했다
건강상태 척도: 0점 매우 나쁘다 ~ 10점 매우 좋다



【그림 3-2-70】가구소득형태별 건강권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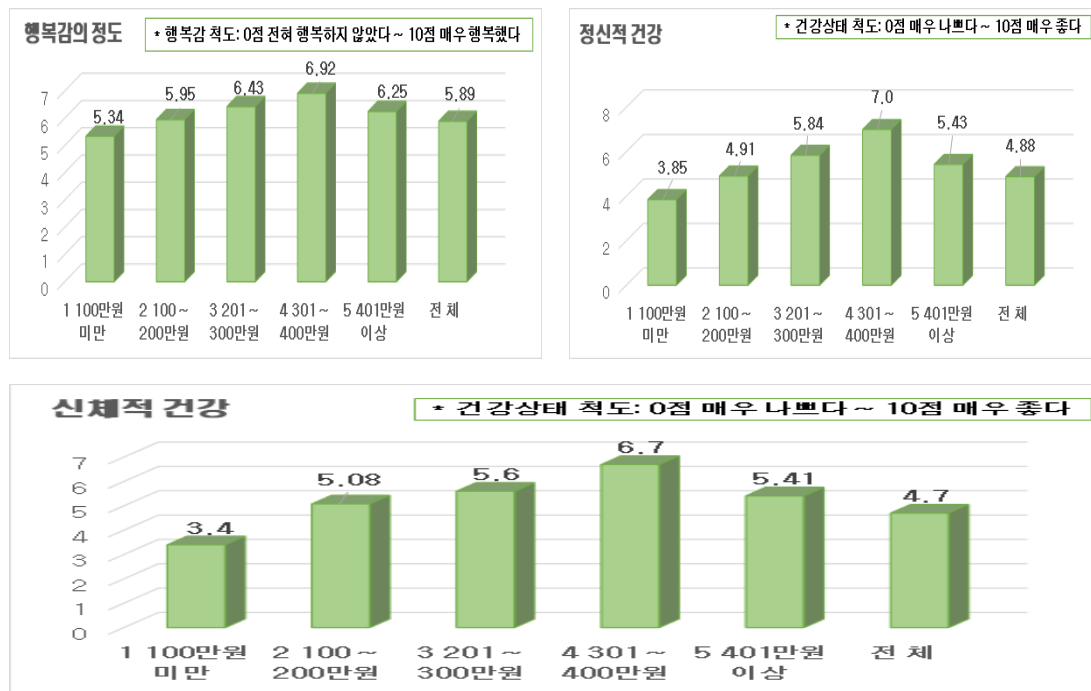
- 가구소득수준별 건강권의 차이를 살펴 봄. 행복감은 ‘200만원 이하’에서는 5점대로 보통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는 반면에 ‘201만원 이상’에서는 6점대로 행복한 편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됨.
-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100만원 미만’ 이하일 경우, 공통적으로 나쁜 편으로 나타남. 신체적 건강은 ‘301 ~ 400만원’, 정신적 건강은 ‘301 ~ 400만원’ 일 경우, 건강하다고 인식하였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소득수준과 건강수준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표 3-2-99】가구 소득 수준별 건강권의 차이

(단위: 명, %)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값
행복감의 정도	100만원 미만	70	5.34	2.395	2.387 [#]
	100 ~ 200만원	60	5.95	2.004	
	201 ~ 300만원	30	6.43	2.417	
	301 ~ 400만원	13	6.92	1.891	
	401만원 이상	16	6.25	1.653	
	전 체	189	5.89	2.226	
신체적 건강	1 100만원 미만	63	3.40	2.998	5.935 ^{***} 사후검정결과 (1, 2), (1, 3), (1, 4)
	2 100 ~ 200만원	60	5.08	2.788	
	3 201 ~ 300만원	30	5.60	2.884	
	4 301 ~ 400만원	10	6.70	1.767	
	5 401만원 이상	17	5.41	2.575	
	전 체	180	4.70	2.971	
정신적 건강	1 100만원 미만	60	3.85	2.833	4.601 ^{**} 사후검정결과 (1, 3), (1, 4)
	2 100 ~ 200만원	56	4.91	2.881	
	3 201 ~ 300만원	25	5.84	2.911	
	4 301 ~ 400만원	13	7.00	2.828	
	5 401만원 이상	14	5.43	2.681	
	전 체	168	4.88	2.969	

* [#]P<0.1 ^{*}P<0.05, ^{**}P<0.01, ^{***}P<0.001* 행복감 척도: 0점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10점 매우 행복했다
건강상태 척도: 0점 매우 나쁘다 ~ 10점 매우 좋다



【그림 3-2-71】 가구소득수준별 건강권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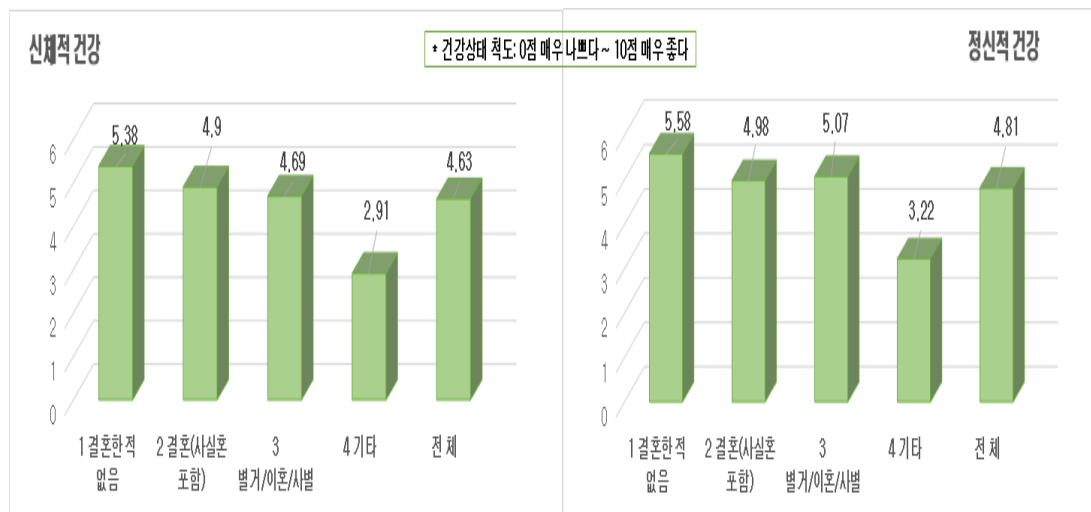
□ 현재 혼인상태별 건강권의 차이를 살펴 봄.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공통적으로 ‘결혼한 적 없음’은 북한이탈여성이 ‘보통 정도’ 건강하다고 응답함. 사후분석결과, 결혼한 북한이탈여성과 기타인 북한이탈여성의 건강수준에 차이가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됨.

【표 3-2-100】 현재 혼인상태별 건강권의 차이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값
행복감의 정도	결혼한 적 없음	15	5.67	.976	.607
	결혼(사실혼 포함)	106	5.92	2.174	
	별거/이혼/사별	49	6.20	2.516	
	기타	25	5.52	2.257	
	전 체	195	5.92	2.207	
신체적 건강	1 결혼한 적 없음	13	5.38	3.203	3.290** 사후검정결과 (2, 4)
	2 결혼(사실혼 포함)	101	4.90	2.644	
	3 별거/이혼/사별	48	4.69	3.170	
	4 기타	23	2.91	3.190	
	전 체	185	4.63	2.950	
정신적 건강	1 결혼한 적 없음	12	5.58	2.644	2.755** 사후검정결과 (2, 4)
	2 결혼(사실혼 포함)	94	4.98	2.767	
	3 별거/이혼/사별	45	5.07	2.965	
	4 기타	23	3.22	3.618	
	전 체	174	4.81	2.978	

* #P<0.1 *P<0.05, **P<0.01, ***P<0.001

* 행복감 척도: 0점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10점 매우 행복했다
건강상태 척도: 0점 매우 나쁘다 ~ 10점 매우 좋다



【그림 3-2-72】 현재 혼인상태별 건강상태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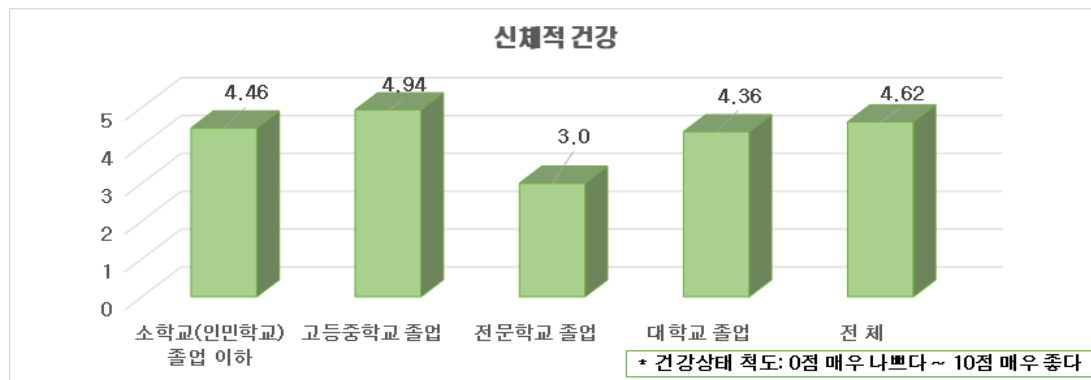
□ 북한 최종학력별 건강권의 차이를 살펴 봄. 신체적 건강은 전체적으로 나쁜 편으로 나타남. 사후분석결과, ‘고등중학교 졸업’ 과 ‘전문학교 졸업’ 한 북한이탈여성의 신체적 건강수준에 차이가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됨.

【표 3-2-101】 북한 최종학력별 건강권의 차이

		(단위: 명, %)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값
행복감의 정도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14	5.57	2.875	.685
	고등중학교 졸업	142	5.85	2.029	
	전문학교 졸업	25	6.40	2.291	
	대학교 졸업	15	6.27	2.987	
	전 체	196	5.93	2.206	
신체적 건강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13	4.46	2.989	3.025* 사후검정결과 (2, 3)
	고등중학교 졸업	136	4.94	2.893	
	전문학교 졸업	23	3.00	2.747	
	대학교 졸업	14	4.36	2.977	
	전 체	186	4.62	2.935	
정신적 건강	1 소학교(인민학교) 졸업 이하	12	4.75	3.108	1.363
	2 고등중학교 졸업	126	4.88	2.903	
	3 전문학교 졸업	23	3.91	2.937	
	4 대학교 졸업	15	5.87	3.378	
	전 체	176	4.83	2.971	

* #P<0.1 *P<0.05, **P<0.01, ***P<0.001

* 행복감 척도: 0점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10점 매우 행복했다
건강상태 척도: 0점 매우 나쁘다 ~ 10점 매우 좋다



【그림 3-2-73】 북한 최종학력별 신체적 건강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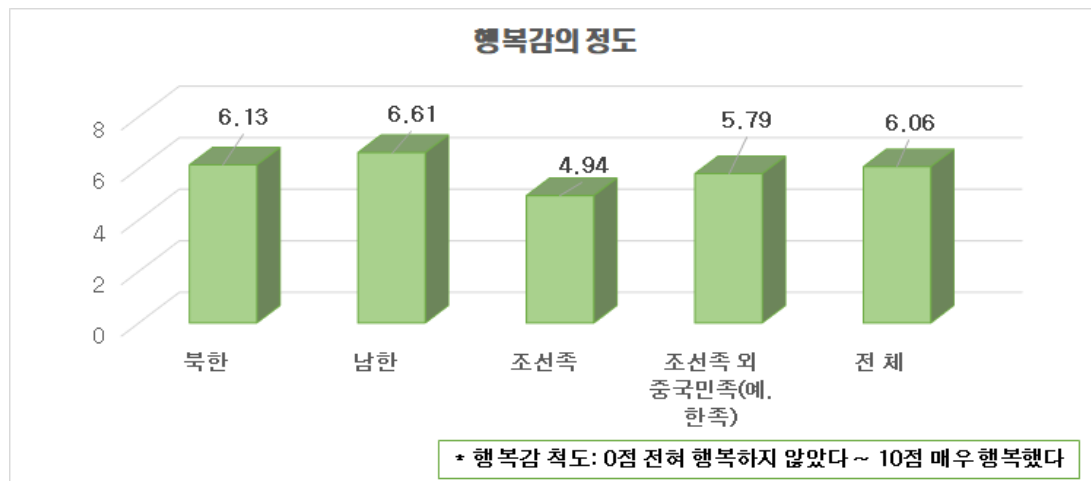
□ 남편의 출신국가별 건강권의 차이를 살펴 봄. 행복감은 조선족 출신 남편이 있는 북한이탈 여성이 가장 낮은 편(4.94점)임. 조선족 외 중국민족 출신 남편이 있는 여성은 보통 정도 (5.79점)의 행복감으로 나타남. 북한과 남한 출신의 남편이 있는 북한이탈여성은 6점대로 ‘행복한 편’ 으로 분석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됨.

【표 3-2-102】 남편의 출신국가별 건강권의 차이

(단위: 명, %)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값
행복감의 정도	북한	40	6.13	2.613	2.579 [#]
	남한	46	6.61	2.016	
	조선족	17	4.94	2.304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3	5.79	1.850	
	전 체	136	6.06	2.247	
신체적 건강	북한	37	4.51	3.079	.599
	남한	45	5.27	2.623	
	조선족	17	4.94	3.152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2	5.28	2.679	
	전 체	131	5.02	2.828	
정신적 건강	북한	33	4.52	3.346	1.764
	남한	41	5.76	2.681	
	조선족	17	4.18	2.877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2	5.22	2.574	
	전 체	123	5.07	2.902	

* [#]P<0.1 *P<0.05, **P<0.01, ***P<0.001* 행복감 척도: 0점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10점 매우 행복했다
건강상태 척도: 0점 매우 나쁘다 ~ 10점 매우 좋다



【그림 3-2-74】 남편의 출신국가별 행복감의 차이

10 성평등 및 인권의식

- 성평등·인권의식에 대한 인식 정도를 4점 척도로 살펴봄.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및 인권의식이 높음을 의미함. 8문항 중 6문항(①, ②, ④, ⑥, ⑦, ⑧)은 성평등 및 인권의식 수준이 높은 편으로 해석됨. 그러나 2문항(③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⑤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는 평등 및 인권의식 수준이 낮은 편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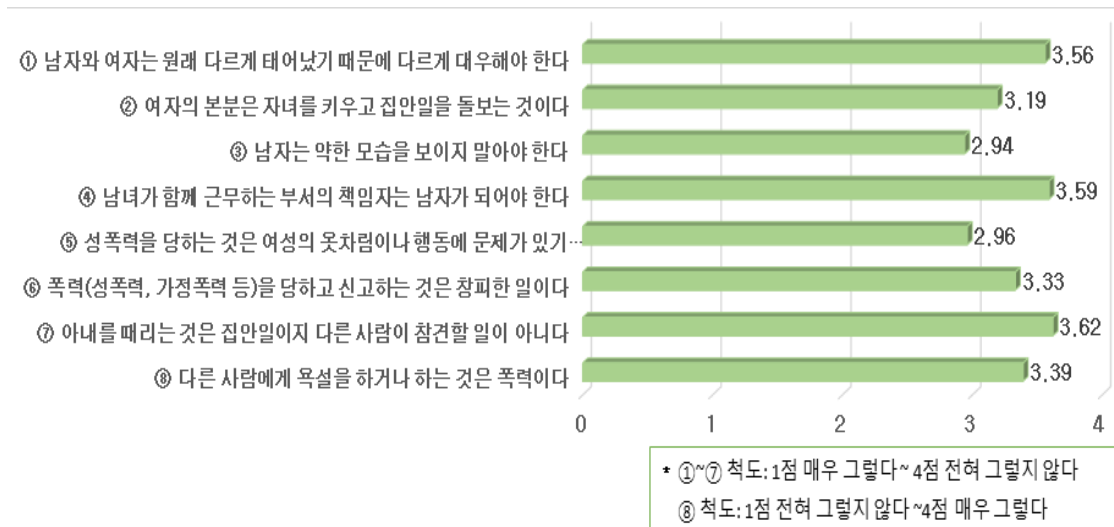
【표 3-2-103】 성평등 · 인권의식에 대한 인식도

문항	구분	빈도	비율	평균(표준편차)
①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	매우 그렇다	6	3.1	3.56(.765)
	조금 그렇다	15	7.7	
	별로 그렇지 않다	38	19.4	
	전혀 그렇지 않다	137	69.9	
	전체	196	100.0	
②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다	매우 그렇다	20	10.2	3.19(1.050)
	조금 그렇다	33	16.8	
	별로 그렇지 않다	34	17.3	
	전혀 그렇지 않다	110	55.8	
	전체	197	100.0	
③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매우 그렇다	28	14.3	2.94(1.084)
	조금 그렇다	37	18.9	
	별로 그렇지 않다	50	25.5	
	전혀 그렇지 않다	81	41.3	
	전체	196	100.0	
④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매우 그렇다	6	3.1	3.59(.717)
	조금 그렇다	8	4.1	
	별로 그렇지 않다	45	23.3	
	전혀 그렇지 않다	134	69.4	
	전체	193	100.0	

⑤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매우 그렇다	23	11.6	2.96(1.094)
	조금 그렇다	53	26.8	
	별로 그렇지 않다	31	15.7	
	전혀 그렇지 않다	91	46.0	
	전체	198	100.0	
⑥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당하고 신고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매우 그렇다	11	5.5	3.33(.974)
	조금 그렇다	39	19.6	
	별로 그렇지 않다	23	11.6	
	전혀 그렇지 않다	126	63.3	
	전체	199	100.0	
⑦ 아내를 때리는 것은 집안일이지 다른 사람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	매우 그렇다	3	1.5	3.62(.738)
	조금 그렇다	21	10.7	
	별로 그렇지 않다	24	12.2	
	전혀 그렇지 않다	148	75.5	
	전체	196	100.0	
⑧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하는 것은 폭력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21	10.7	3.39(.968)
	별로 그렇지 않다	5	2.6	
	조금 그렇다	46	23.5	
	매우 그렇다	124	63.3	
	전체	196	100.0	

* ①~⑦ 척도: 1점 매우 그렇다 ~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⑧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음



【그림 3-2-75】 성평등 및 인권의식에 대한 동의 정도

□ 충남에 정착하여 살면서 항목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질문함. 8문항 모두의 평균이 3점 이상으로 교육이 ‘필요한 편’으로 응답됨. 그러므로 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육, ② 가정폭력 예방교육, ③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④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률교육, “⑤ 인권교육(인권침해 및 차별금지 등), ⑥ 경제교육, ⑦ 사기를 당하지 않는 비법, ⑧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존감 향상 교육” 등의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 확대가 필요함. 이중에서 ⑤, ⑥, ⑦, ⑧번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교육 우선순위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3-2-104】충남 정착한 후 교육의 필요성

문항	구분	빈도	비율	평균(표준편차)
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육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	5.6	3.39(.835)
	별로 필요하지 않다	12	6.1	
	조금 필요하다	64	32.5	
	매우 필요하다	110	55.8	
	전체	197	100.0	
② 가정폭력 예방교육	전혀 필요하지 않다	7	3.6	3.56(.723)
	별로 필요하지 않다	6	3.0	
	조금 필요하다	53	26.9	
	매우 필요하다	131	66.5	
	전체	197	100.0	
③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전혀 필요하지 않다	7	3.6	3.56(.712)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2.1	
	조금 필요하다	56	28.9	
	매우 필요하다	127	65.5	
	전체	194	100.0	
④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률교육	전혀 필요하지 않다	7	3.6	3.58(.723)
	별로 필요하지 않다	6	3.1	
	조금 필요하다	48	24.6	
	매우 필요하다	134	68.7	
	전체	195	100.0	
⑤ 인권교육(인권침해 및 차별금지 등)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2.0	3.63(.631)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2.0	
	조금 필요하다	54	27.3	
	매우 필요하다	136	68.7	
	전체	198	100.0	
⑥ 경제교육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2.0	3.62(.650)
	별로 필요하지 않다	6	3.1	
	조금 필요하다	51	26.0	
	매우 필요하다	135	68.9	
	전체	196	100.0	
⑦ 사기를 당하지 않는 비법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2.6	3.68(.642)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2.0	
	조금 필요하다	39	19.9	
	매우 필요하다	148	75.5	
	전체	196	100.0	
⑧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존감 향상 교육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2.6	3.64(.666)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2.6	
	조금 필요하다	44	23.2	
	매우 필요하다	136	71.6	
	전체	190	100.0	

* ①~⑧ 척도: 1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 4점 매우 필요하다

- ☐ 지역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 차이를 살펴 봄. 성평등 문항 5번인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는 읍면 지역(2.78점/4점)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보다 동 지역(3.06점/4점)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성평등 및 인권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 ☐ 성평등 문항 1번인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해야한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여성(3.41점/4점)보다 국민기초생활 비수급 여성(3.65점/4점)이 성평등 및 인권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 ☐ 성평등 문항 3번인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여성(3.271점/4점)보다 국민기초생활 비수급 여성(3.08점/4점)이 성평등 및 인권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표 3-2-105】 읍면·동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 차이

(단위: 명, %)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 문항 5)	읍면	72	2.78	1.141	-1.719 [#]
	동	123	3.06	1.066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해야한다 (성평등 문항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14	3.41	.904	-1.929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아님	124	3.65	.665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성평등 문항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2	2.71	1.144	-2.34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아님	123	3.08	1.029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1점 매우 그렇다 ~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높음

- ☐ 남한거주기간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 차이를 살펴 봄. 성평등 문항 3번인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남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점대로 성평등 및 인권의식이 낮은 편으로 나타남. 반면에 3년 이상일 경우, 3점대로 성평등 및 인권의식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 ☐ 성평등 문항 7번인 ‘아내를 때리는 것은 집안일이지 다른 사람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는 남한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평균 3점대로 나타나 성평등 및 인권의식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다만, 거주기간이 5년 이상(3.70점)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표 3-2-106】 남한거주기간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 차이

(단위: 명, %)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값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성평등 문항 3)	1년 미만(11개월 미만)	19	2.32	1.204	2.063 [#]
	1년 이상 3년 미만(12-35)	29	2.83	1.136	
	3년 이상 5년 미만(36-59)	32	3.00	.984	
	5년 이상 10년 미만(60-119)	55	3.09	1.076	
	10년 이상(120개월-)	61	3.02	1.041	
	전 체	196	2.94	1.084	
아내를 때리는 것은 집안일이 다른 사람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성평등 문항 7)	1년 미만(11개월 미만)	19	3.16	.898	2.282 [#]
	1년 이상 3년 미만(12-35)	28	3.61	.685	
	3년 이상 5년 미만(36-59)	32	3.59	.837	
	5년 이상 10년 미만(60-119)	57	3.70	.680	
	10년 이상(120개월-)	60	3.70	.671	
	전 체	196	3.62	.738	

* [#]P<0.1

* 척도: 1점 매우 그렇다 ~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높음

- ☐ 가구 소득 수준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 차이를 살펴 봄. 성평등 문항 8번인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하는 것은 폭력이다’ 는 가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평균 3점대로 나타나 성평등 및 인권의식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다만, 가구소득이 ‘401만원 이상’ (3.53점)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표 3-2-107】 가구 소득 수준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 차이

(단위: 명, %)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값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하는 것은 폭력이다(성평등 8)	100만원 미만	71	3.14	.777	2.034 [#]
	100 ~ 200만원	602	3.32	.552	
	201 ~ 300만원	30	3.43	.483	
	301 ~ 400만원	13	3.21	.679	
	401만원 이상	17	3.53	.402	
	전 체	191	3.28	.643	

* [#]P<0.1

*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높음

- ☐ 남한 최종학력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 차이를 살펴 봄. 성평등 문항 1번인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해야한다’ 는 남한최종학력 수준과 관계없이 평균 3점대로 나타나 성평등 및 인권의식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다만, 남한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상’ (3.86점)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표 3-2-108】남한 최종학력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의 차이

(단위: 명, %)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 (성평등 문항 1)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130	3.52	.760	2.381 [#]
	중학교 졸업	14	3.86	.363	
	고등학교 졸업	16	3.75	.577	
	전문대학 졸업이상	22	3.23	1.110	
	전체	182	3.53	.784	

* [#]P<0.1

*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높음

☐ 읍면·동별 필요한 교육 필요성의 차이를 살펴봄. 남녀평등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 경제교육, 사기 당하지 않는 비법은 동(도시) 지역보다 읍면(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이 교육의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우선적 교육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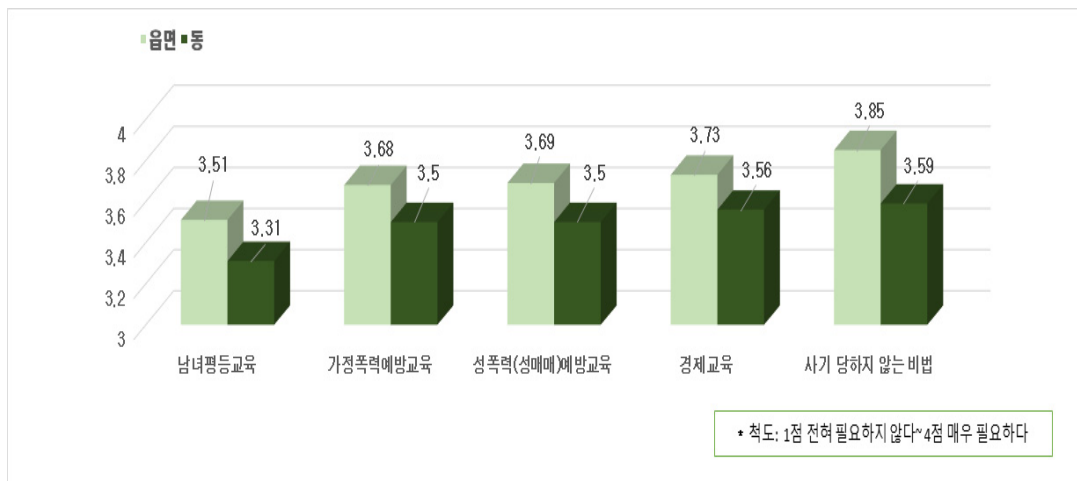
【표 3-2-109】읍면·동별 필요한 교육 필요성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남녀평등교육	읍면	72	3.51	.731	1.714 [#]
	동	122	3.31	.891	
가정폭력예방교육	읍면	72	3.68	.577	1.823 [#]
	동	122	3.50	.795	
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	읍면	71	3.69	.495	2.013 [*]
	동	120	3.50	.810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률교육	읍면	70	3.69	.526	1.578
	동	122	3.53	.815	
인권교육	읍면	73	3.70	.519	1.339
	동	122	3.58	.690	
경제교육	읍면	71	3.73	.446	2.052 [*]
	동	122	3.56	.739	
사기 당하지 않는 비법	읍면	71	3.85	.364	3.176 [*]
	동	122	3.59	.747	
자존감 향상교육	읍면	70	3.70	.521	1.097
	동	117	3.60	.743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1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 4점 매우 필요하다



【그림 3-2-76】 읍면·동별 필요한 교육의 차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필요한 교육의 차이를 살펴봄. 국민기초수급권이 있는 북한이탈여성보다 국민기초 비수급자인 북한이탈여성이 인권교육 및 자존감 향상교육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표 3-2-1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필요한 교육의 차이

(단위: 명, %)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인권교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3	3.51	.766	-1.84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님	124	3.69	.528	
자존감 향상교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8	3.51	.782	-1.726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님	121	3.70	.587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1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 4점 매우 필요하다

- 북한 최종학력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 차이를 살펴봄. 성평등 문항 1번인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해야한다’는 북한최종학력 수준과 관계없이 평균 3점대로 나타나 성평등 및 인권의식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다만, 북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3.64점)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표 3-2-111】북한 최종학력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의 차이

(단위: 명, %)

문항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해야한다 (성평등 1문항)	소학교(인민학교) 졸업이하	14	3.50	.519	2.254 [#]
	고등중학교 졸업	139	3.64	.712	
	전문학교 졸업	26	3.27	1.041	
	대학교 졸업	15	3.33	.816	
	전체	194	3.56	.768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1점 매우 그렇다 ~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높음

- ☐ 남편의 출신국가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 차이를 살펴 봄. 성평등 문항 1번인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해야한다’는 남편의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평균 3점대로 나타나 성평등 및 인권의식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다만, 남편의 출신국가가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74점)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 ☐ 성평등 문항 4번인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남편의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평균 3점대로 나타나 성평등 및 인권의식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다만, 남편의 출신국가가 ‘조선족’ (3.81점)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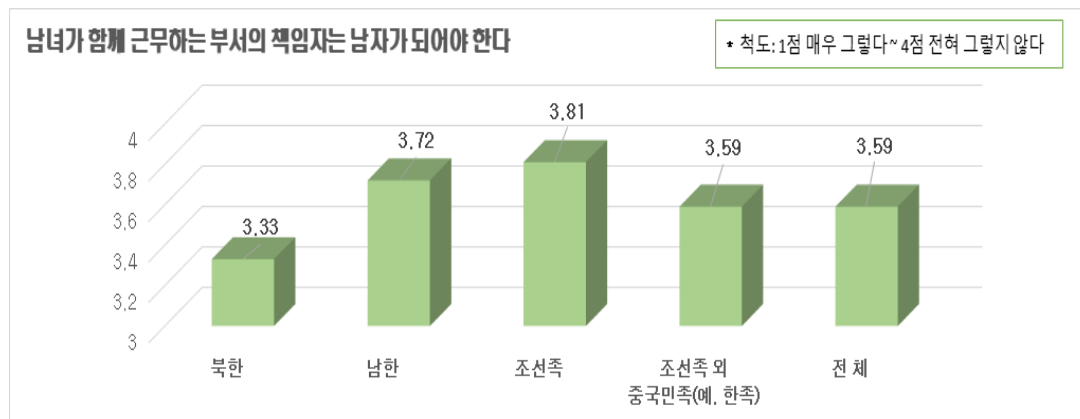
【표 3-2-112】남편의 출신국가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의 차이

(단위: 명, %)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해야한다 (성평등 1문항)	북한	40	3.45	.815	2.356 [#]
	남한	46	3.67	.701	
	조선족	16	3.19	1.167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4	3.74	.618	
	전체	136	3.57	.795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성평등 4문항)	북한	40	3.33	.917	2.753 [*]
	남한	47	3.72	.540	
	조선족	16	3.81	.544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32	3.59	.798	
	전체	135	3.59	.747	

* [#]P<0.1 *P<0.05, **P<0.01, ***P<0.001

* 척도: 1점 매우 그렇다 ~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높음



【그림 3-2-77】 남편의 출신국가별 성평등 및 인권의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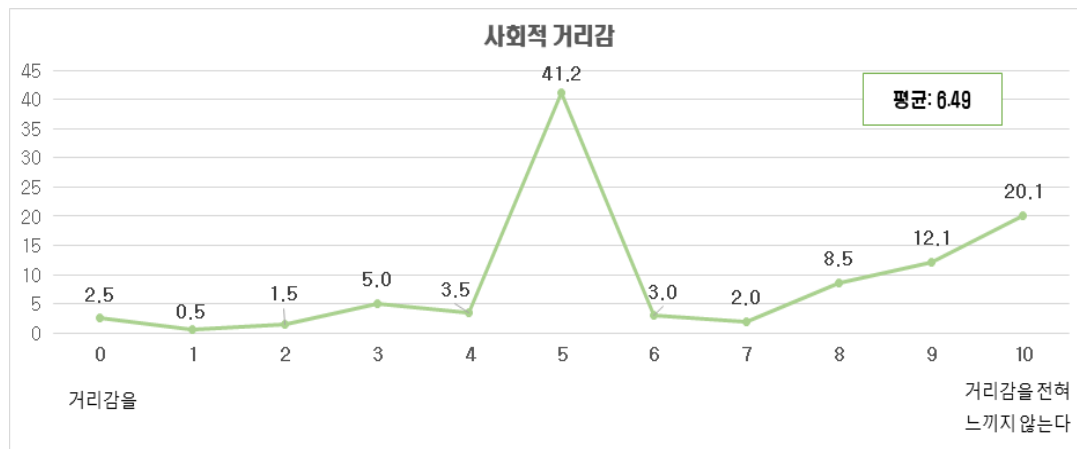
11 사회인식(사회적 거리감 · 인권존중도 · 사회적 관계망)

- 남한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지 11점 척도(0점~10점)로 질문함. 조사결과, 평균 6.49점으로 약간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거리감을 매우 느낀다’ (0점)에 응답한 비율은 2.5%, 보통(5점)에 응답한 비율은 41.5%, ‘전혀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 (10점)은 20.1%임. 조사에 응답한 북한이탈여성들이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서는 편차(2.6점)가 매우 크게 나타남.

【표 3-2-113】 사회적 거리감_남한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의 정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평 균(표준편차)
사회적 거리감	0 거리감을 매우 느낀다	5	2.5	6.49(2.595)
	1	1	0.5	
	2	2	1.5	
	3	10	5.0	
	4	7	3.5	
	5	82	41.2	
	6	6	3.0	
	7	4	2.0	
	8	17	8.5	
	9	24	12.1	
	10 거리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40	20.1	
합 계		199	100.0	



【그림 3-2-78】 사회적 거리감_남한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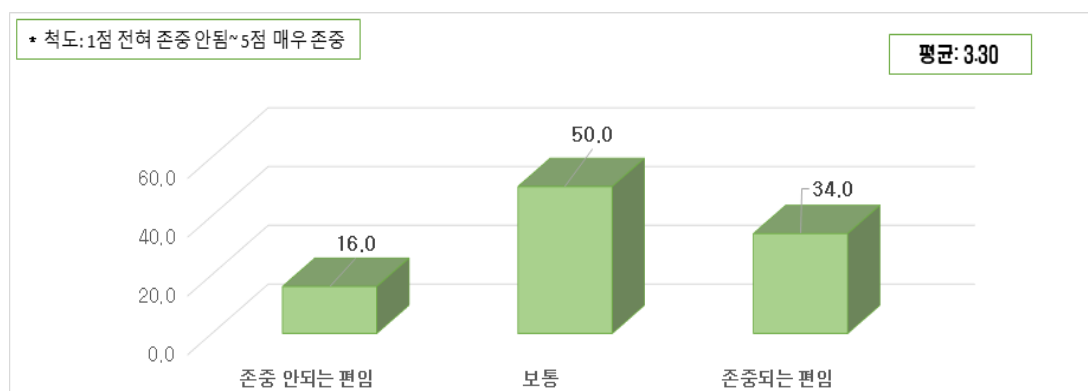
□ 거주하는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되고 있는지 5점 척도로 질문함. 조사결과, 평균 3.30점으로 ‘보통’ 정도의 인권존중을 느끼고 있었음.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비율은 16%인 반면에 존중된다는 비율은 34%로 나타남.

【표 3-2-114】 인권존중도_거주 지역에서 존중되고 있는 정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평 균(표준편차)
1 전혀 존중 안됨	6	3.0	3.30(.971)
2 약간 존중 안됨	26	13.0	
3 보통	100	50.0	
4 약간 존중	39	19.5	
5 매우 존중	29	14.5	
합 계	200	100.0	

* 척도: 1점 전혀 존중 안됨 ~ 5점 매우 존중



【그림 3-2-79】 인권존중도_거주 지역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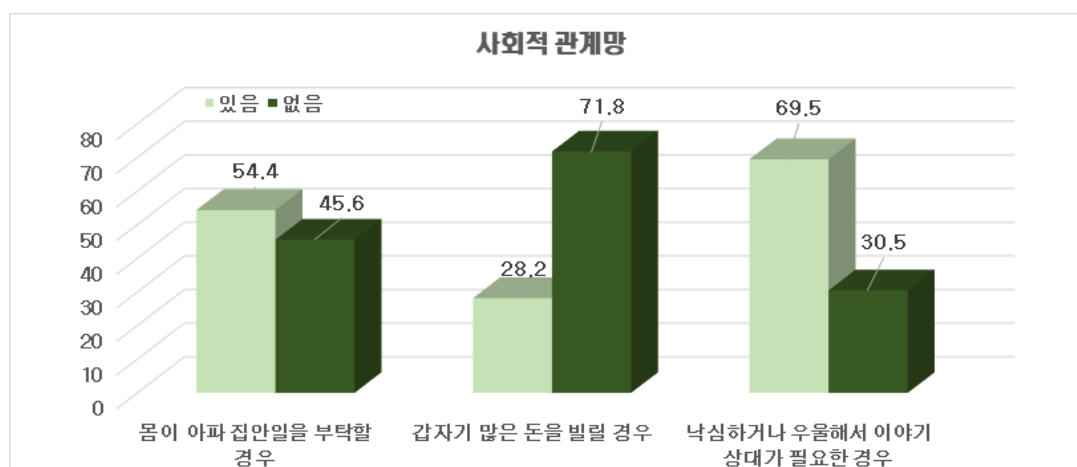
□ 위험한 상황 발생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봄.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에 54.4%(있음) vs 45.6%(없음)으로 나타남. 또한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경우’에 28.2%(있음) vs 71.8%(없음)으로 나타남. 그리고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69.5%(있음) vs 30.5%(없음)으로 나타남.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45.6%,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경우’에 71.8%,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30.5%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조사결과로부터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편’으로 해석됨.

【표 3-2-115】 사회적 관계망_위험한 상황 발생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사회적 관계망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있음	106	54.4
		없음	89	45.6
	합 계		195	100.0
	•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경우	있음	55	28.2
		없음	140	71.8
	합 계		195	100.0
	•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있음	137	69.5
		없음	60	30.5
	합 계		197	100.0



【그림 3-2-80】 사회적 관계망_위험한 상황 발생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 남한 주민이 포함된 사모임 참여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있다(50.3%)는 비율이 없다(49.7%)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표 3-2-116】 남한 주민이 포함된 사모임 참여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있음	93	50.3
• 없음	92	49.7
합 계	1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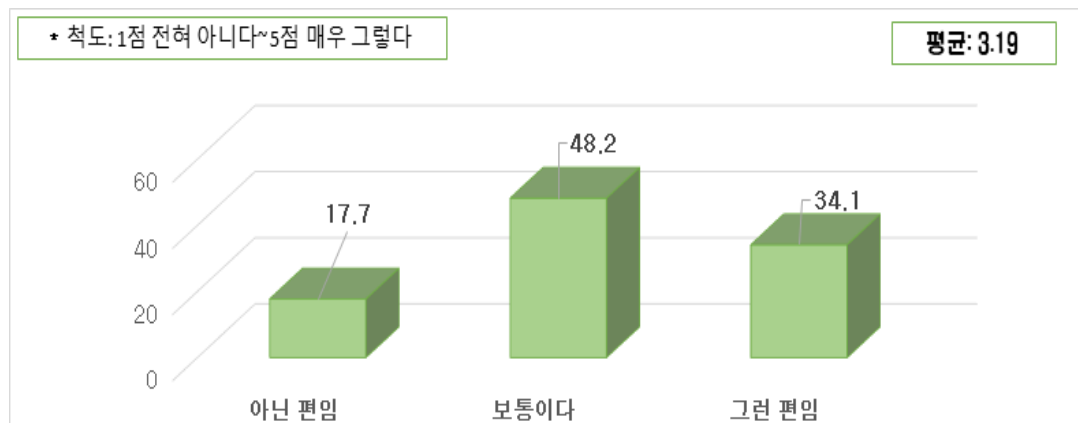
□ 남한주민들과의 사모임 참여시 먼저 다가가는 정도가 어떠한지 5점 척도로 질문함. 평균 3.19점으로 ‘보통’ 정도로 다가가는 것으로 나타남. 다가가는 편이 아닌 비율은 17.7%인 반면에 다가가는 편인 비율은 34.1%로 분석됨.

【표 3-2-117】 남한주민들과의 사모임 참여시 먼저 다가가는 편인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평 균(표준편차)
1 전혀 아니다	13	9.2	3.19(1.062)
2 아니다	12	8.5	
3 보통이다	68	48.2	
4 그런 편이다	31	22.0	
5 매우 그렇다	17	12.1	
합 계	141	100.0	

* 척도: 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



【그림 3-2-81】 사모임 참여시 먼저 다가가는 편인지 여부

□ 지역별 사회인식(사회적 거리감·인권 존중도)을 살펴봄. 인권존중도는 읍면지역(3.12점)보다 동 지역(3.40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표 3-2-118】 읍면·동별 사회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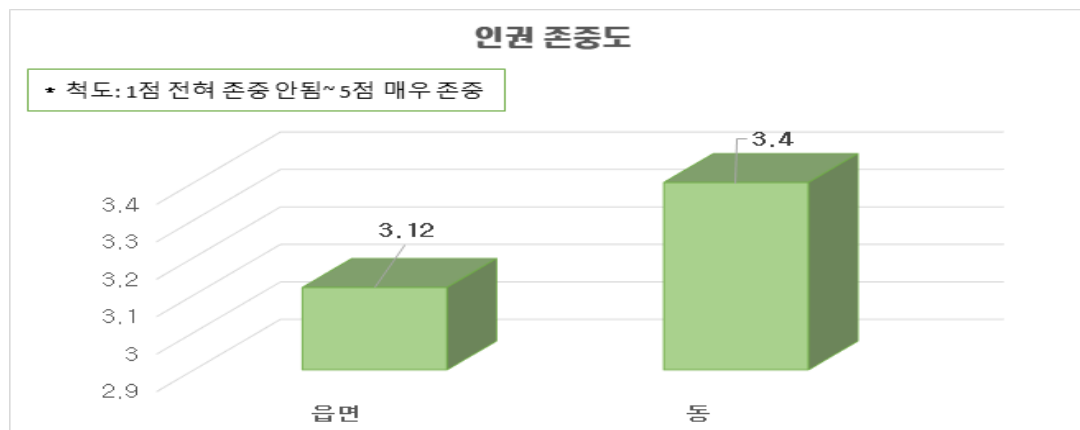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값
사회적 거리감	읍면	72	6.28	2.445	-.766
	동	124	6.57	2.681	
인권 존중도	읍면	73	3.12	.798	-2.124*
	동	124	3.40	1.035	

* P<0.05

* 사회적 거리감 척도: 0점 거리감을 매우 느낀다 ~ 10점 거리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인권 존중도 척도: 1점 전혀 존중 안됨 ~ 5점 매우 존중



【그림 3-2-82】 읍면·동별 인권존중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사회인식(사회적 거리감·인권 존중도)을 살펴봄. 사회적 거리감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북한이탈여성(6.80점)이 국민기초수급대상여성(5.96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에 인권존중도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북한이탈여성(3.20점)이 국민기초수급대상여성(3.47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표 3-2-11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사회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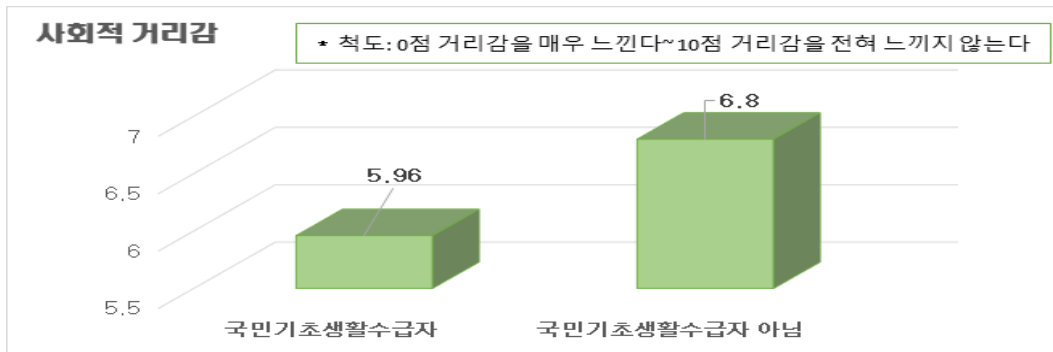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값
사회적 거리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2	5.96	2.298	-2.32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님	126	6.80	2.719	
인권 존중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3	3.47	.914	1.88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님	126	3.20	.996	

* #P<0.1 *P<0.05, **P<0.01, ***P<0.001

* 사회적 거리감 척도: 0점 거리감을 매우 느낀다 ~ 10점 거리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인권 존중도 척도: 1점 전혀 존중 안됨 ~ 5점 매우 존중



【그림 3-2-8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별 사회적 거리감

□ 가구소득활동 형태별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봄. 사회적 거리감은 맞벌이하는 북한이탈 여성(7.19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외벌이 여성이(6.61점),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한 여성이 5.99점으로 가장 낮음. 이러한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표 3-2-120】 가구소득활동 형태별 사회적 거리감

(단위: 명, %)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값
사회적 거리감	맞벌이	42	7.19	2.491	2.926 [#]
	외벌이	79	6.61	2.985	
	해당사항 없음	71	5.99	2.181	
	전 체	192	6.51	2.631	

* [#]P<0.1 *P<0.05, **P<0.01, ***P<0.001

* 사회적 거리감 척도: 0점 거리감을 매우 느낀다 ~ 10점 거리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 가구소득수준별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봄. 사회적 거리감은 '401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이 있는 여성(8점)이 가장 높고,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이 있는 여성이 5.8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이러한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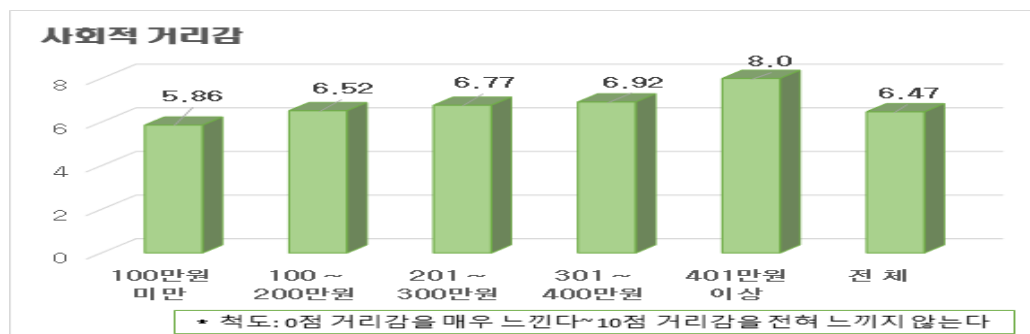
【표 3-2-121】 가구소득수준별 사회적 거리감

(단위: 명, %)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값
사회적 거리감	100만원 미만	70	5.86	2.087	2.743 [*]
	100 ~ 200만원	60	6.52	2.789	
	201 ~ 300만원	30	6.77	3.115	
	301 ~ 400만원	13	6.92	2.565	
	401만원 이상	17	8.00	2.318	
	전 체	190	6.47	2.600	

* [#]P<0.1 *P<0.05, **P<0.01, ***P<0.001

* 사회적 거리감 척도: 0점 거리감을 매우 느낀다 ~ 10점 거리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림 3-2-84】 가구소득수준별 사회적 거리감

- ☐ 남한 최종학력별 인권존중도를 살펴봄. 인권존중도는 ‘전문대학 졸업이상’ 이 2.77점으로 ‘인권존중 안된다’ 고 인식함. 반면에 그 외 남한 학력에서는 평균 3점으로 ‘보통’ 수준의 인권존중을 받는다고 인식함. 이러한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표 3-2-122】 남한 최종학력별 인권존중도

(단위: 명, %)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F값
인권 존중도	남한 정규교육과정 다니지않음	132	3.37	.960	2.347 [#]
	중학교 졸업	14	3.29	.994	
	고등학교 졸업	16	3.31	.873	
	전문대학 졸업이상	22	2.77	1.152	
	전 체	184	3.29	.991	

* [#]P<0.1 *P<0.05, **P<0.01, ***P<0.001

* 인권 존중도 척도: 1점 전혀 존중 안됨 ~ 5점 매우 존중

12 자립지원 정책

- ☐ 북한에서 온 여성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만든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봄. 28%가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함. 반면에 72%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표 3-2-123】 자조모임 참여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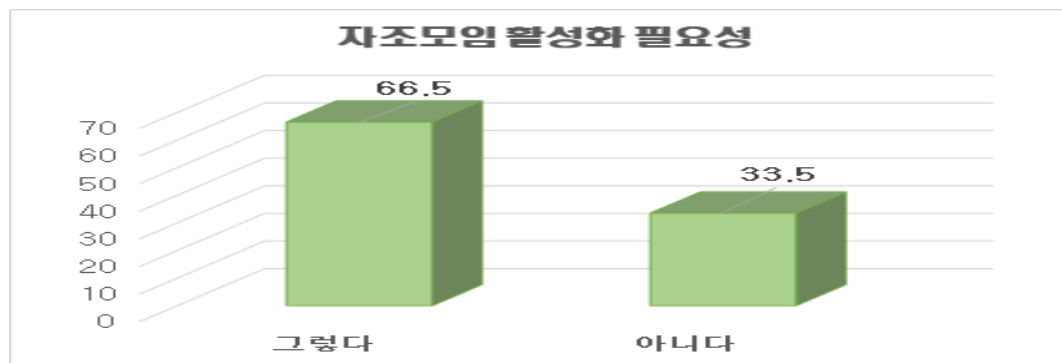
구 분	빈 도	비 율
• 참여하고 있음	56	28.0
• 참여하지 않음	144	72.0
합 계	200	100.0

- ☐ 북한에서 온 여성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만든 자조모임 활성화 필요성은 66.5%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3-2-124】 자조모임 활성화 필요성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 그렇다	133	66.5
• 아니다	67	33.5
합 계	200	100.0



【그림 3-2-85】 자조모임 참여 활성화 필요성

- ☐ 북한에서 온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충남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개방형 질문을 함.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의견이 수렴됨. 가장 많은 빈도는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10명)’ 임. 그 다음은 ‘경제교육 및 경제적 지원 (8명)’, ‘일자리 창출 (5명)’ 순임. 주로 안정적인 일자리, 경제지원 관련 정책을 제안함.
- ☐ 그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 자조모임 및 공간 확보, 남남북녀가족 상대방 이해하는 장 마련, 폭넓은 자녀지원 정책, 문화체험” 등을 기입함. 이러한 결과는 양적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으므로 욕구를 반영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음.

【표 3-2-125】 북한이탈여성의 자립을 위해 충남도가 해야 할 일

경제교육 및 경제적 지원 (8), 일자리 창출 (5), 자격증 취득시 학원비 지원 (2)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10), 자조모임 및 공간 확보 (3), 아이돌봄 (3),
 남남북녀가족 상대방 이해하는 장 마련 (1), 문화체험 (1), 폭넓은 자녀지원 정책 (1)

제 4 장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분야별 사례조사

제1절 연구참여자의 특성

제2절 인권분야별 사례조사 결과

제1절 연구참여자의 특성

- 인터뷰에 참여한 북한이탈여성 10명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와 같음. 인터뷰 대상자는 충남하나센터에서 추천한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참여한 지역은 5개(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청양군, 공주시) 지역임.
- 연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 참여함. 즉, 20대 1명, 40대 4명, 50대 5명이 참여함.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현재 남한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기혼)의 북한이탈여성은 5명임. 이혼 1명, 미혼 4명임.
- 제3국 체류기간은 1개월에서 18년까지, 남한 거주 기간은 4년에서 12년까지 분포함.
- 남편의 국적은 중국 3명, 북한 2명, 한국 1명으로 파악됨. 자녀는 미혼인 2명을 제외하고 8명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1】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일반적 특성

구분	지역	성별	만연령	혼인 상태	혼인 횟수	남편의 국적	자녀 유무	제3국 체류기간	남한거주 기간
a	홍성군	여성	54세	기혼	1회	중국	있음	18년	4년
b	홍성군	여성	51세	미혼	1회	중국	없음	9년	4년
c	천안시	여성	53세	기혼	2회	한국	있음	16년	4년 10개월
d	천안시	여성	46세	기혼	1회	북한	있음	1개월	4년
e	청양군	여성	46세	이혼	2회	-	있음	10년	10년 9개월
f	청양군	여성	26세	미혼	-	-	없음	1개월	10년
g	아산시	여성	55세	미혼	2회	-	있음	9년	5년 9개월
h	아산시	여성	57세	미혼	2회	-	있음	18년	5년
i	공주시	여성	41세	기혼	2회	북한	있음	14년	10년
j	공주시	여성	47세	기혼	2회	중국	있음	9년	12년

*혼인상태는 남한에서의 혼인상태를 말함

제2절 인권분야별 사례조사 결과

1 모성권

- 모성권 측면에서 임신, 출산, 신생아 건강관리 등과 관련하여 어려웠던 점에 대해 살펴봄. 모성권에 해당하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인터뷰 참여자는 1명(10살 여아)이었음.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i	병원가면 책을 줘서 어려운건 없었으나 아기 낳고 2주 신청한 산후도우미를 너무 맘에 안들어서 1주일만에 그만 오라 했어요

2 육아권

- 육아권 측면에서 자녀 양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 알아봄. “3학년부터는 돌봄이 안되서 제가 출근하고 나면 아이가 혼자 집에 있어요” 라고 응답한 결과로부터 생계를 위한 장시간 노동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드러남. 또한 자녀의 돌봄 지원, 학습(영어, 수학)지원, 학원비 지원, 예체능교육비 지원, 초등학교 생활에서 따돌림(놀림) 받지 않는 지원 등의 욕구가 파악됨.

e	아이가 학원에 다니지 않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이가 다니기 싫다고 해서 강요하지 않고 있어요
g	딸이 9살에 남한에 왔는데 아이가 놀림을 많이 받아서 그게 힘들었어요
i	경제적인게 가장 어렵죠. 사교육비가 비싸서 학원에 보내지 못하고 3학년부터는 돌봄이 안되서 제가 출근하고 나면 아이가 혼자 집에 있어요
j	딸이 9살 때 중국에서 왔는데 북한에서 제가 배운 거랑은 달라서 공부를 도와줄 수가 없어서 학습지원, 학원비 지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 교육권

- 교육권 측면에서 자녀의 학교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봄.
-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중국교육과정에 대한 학력인정이 되지 않음. 학력인정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도하지 않음. 검정고시 보고, 혼자 공부하고, 이주민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청소년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 등을 받고 있음.
 -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대학진학 지원
 - 진로지원정보 제공 : 어떻게 대학준비를 해야 할지 모름. 드림학교의 경우, 진로지도가 약함.
 - 대학기숙사 비용(기숙사 우선권 부여) 혹은 월세비 지원 (자녀의 대학 공부 주거의 어려움)
 - 학교별 생필품 지원(초등학생: 학원비 지원, 중학생: 교복비, 학용품비 지원,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의료비 지원

a	딸이 16살에 남한에 와서 이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중국에서 간호대학 다니던 애를 데려왔는데 학력인정을 받는데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서 초등과정부터 검정고시를 봤어요
c	제3국 출생아이들 대학가는 문제가 제일 불편해요. 드림학교 다니는데 고3과정이 올해 처음이라 선생님들 진로지도도 처음이라 아이들도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d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고 진로지원도 필요해요. 우리가 잘 몰라서 아이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f	대학교의 경우 학비는 장학재단, 남북하나재단에서 주는데 기숙사비 지원은 해주지 않아서 전 대학교 때 주거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g	학원 한군데 보내는데 30만원이 넘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원을 못보내서 학원비 지원 받으면 좋겠고 학습지원도 필요해요
i	학원비 지원, 방과후 학교 수업비 지원, 아이들이 해마다 크니까 의류비(신발 포함) 지원이 있으면 좋죠
j	고등학교에선 교복비 지원, 학용품비, 기초가 딸리니까 기초학습 지원 해주면 좋겠고 대학교는 기숙사 우선권을 주면 좋겠어요. 다치거나 아프면 건강지원도 필요하죠

4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측면에서 주거보장은 매우 중요하고,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줌. 그래서 살고 있는 집에 만족스럽지 않은 점(주거만족도)에 대해 들어봄. 만족하는 편과 만족하지 않은 편으로 구분됨.
- 만족하지 않은 경우는, 식구가 많을 경우, 면적이 좁은 편이고, 거주 지역에 원하는 평수가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면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집이 좁고, 임대아파트라 학교에 다닐 때 어디 사는지 부끄러워하고, 10년 동안 같은 곳에 살아서 자존심이 상함. 열심히 일해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나 쉽게 벗어나지 못함.
 - 북한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에서 사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음.
 - 만족한 경우는 북한에서 살아보지 못한 주거에서 살고 있는 경우임.
 - 임대아파트에서 나와서 집을 사서 살고 있음.

a	주거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b	불편한 점 없고 만족해요
c	처음에 15평을 받았는데 혼자 살기에 괜찮았는데 딸이 중국에서 오니까 좀 불편했어요
d	세식구가 살기에 지금 집은 17평으로 좀 작아요
e	처음에 배정받은 집은 괜찮았으나 북한이탈주민에게 사기를 당해서 임대아파트에서 나오게 됐어요
f	3평 정도 되는 방에 동생과 엄마와 살고 있어 불편한 건 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만족해요
g	북한에서 잘 살았다고 해도 이런 집에서 못살아봐서 만족해요
h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가방만 갖고 왔는데 배정받은 집에 가니 내집이란 생각에 좋았어요
i	주공아파트가 처음엔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어서 좋았는데 아이가 크니 집이 좁고 불편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는 중이에요
j	집을 사서 임대주택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측면에서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해 살펴봄.

- 직설적인 표현에 남한주민들이 오해하여 어려움.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다가 튼튼하고 굵은 다리를 보고, “다리가 굵어 걷는 것을 잘하겠다”고 건강하다는 의미로 말했는데 오해를 함. 또한 체격이 좋아서 “언니는 체격이 좋다”고 칭찬했는데, “그런 말 하는 것 아니다”고 기분 나쁘다고 함.
-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음. 자기 업무 외에 추가 업무를 하면, 동료들이 아니꼽게 생각하고 뒤에서 험담을 함. 책임감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 업신여기고 험담하여 마음이 힘들고, 이해가 안됨.
- 자녀 교육(경제적, 진로정보부족 등)이 어렵고, 대학입학문제가 큼. 중국출생 자녀는 한국에 오면 국적은 생기나, 대안학교에서 공부시키는 것이 쉽지 않고, 대학 보내는 것은 더 어려움. 중국출생아이가 북한 출생아이보다 공부를 잘하는데, 학업이 힘들어 대학입학은 특별전형 등 혜택이 없어서 더 어려움.
- 북한의 혈육생각(자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큼.
- 북한에 있는 엄마가 남한에 온 딸에게 돈 보내라고 하여 힘들.

a	남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일을 잘하거나 많이 하면 눈에 가시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b	문화와 언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일을 많이 하니 뒤에서 험담을 했어요
c	중국에서 온 아이가 대학가는 것에 배려가 없어요(자녀문제)
d	제 아들은 북에서 공부를 좀 하는 애인데 남한에 오니 실력이 딸려요. 진로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애가 어려워하고 있어요
e	서류 준비 하는게 힘들어요
f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언어’ 였고 일하나 처리하려고 서류 떼려면 하루종일 걸리고 돈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g	남한에 친척 없이 딸과 저 밖에 없으니 북에 두고 온 혈육,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커요
h	북한에 두고 온 자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커요
i	경제적 어려움이 커요
j	딸이 9살 때 중국에서 데려왔는데 또래관계도 어렵고 학업도 뒤쳐졌어요. 생활하다가 사고 났을 때 1년동안 치료 받았는데 법에 대해 모르고 지인도 없어서 합의금을 적게 받았어요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정책,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살펴봄.
-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을 6개월 혜택을 받다가 대부분 자격을 벗어나므로 일을 해야만 함.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만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음. 일 하느라 바빠서 다른 것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함.
 - 남북하나재단 정도는 알고 있고, 여성일하기센터는 ‘다문화여성’만 모집하고 새터민은 신청 불가능함.
 - 이주민을 위한 정부정책의 대상자에 새터민을 포함시켜 주기를 바람.

a	국정원이랑 하나원에서 「동포사랑」 책을 보내줘서 사회제도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재난지원금은 문자보고 알았어요
b	「동포사랑」 책을 보내줘서 사회제도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c	잘 몰라요.
d	그 단계를 다 거쳤으니까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e	잘 몰라요. 교차로를 보다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출장요리를 배울 수 있대서 연락했더니 다문화만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f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애들도 교육시키고 어디 데려가기도 하던데 새터민을 위한 건 없어요
g	제도나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아이 학교에서 온 가정통신문 보고 신청하라고 할 때 신청해요
h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i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정책을 검색해보고 아이학습지 지원, 의료보험 지원해주는 거 검색해요
j	잘 모르는데 필요할 땐 통일부 전화해서 알아볼 때가 있고 딸 장학금 준다고 전화오면 알게 됐어요

5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

- 표현의 자유 및 정치참여에 대해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경험이 있는지, 참여할 기회가 있어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살펴봄. 세 가지 형태로 응답함.
- 첫째, 정치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정치 참여할 생각하지 않음. 투표(대통령 선거 등)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주요 이유는

나서기 싫어하고 정보도 잘 모름. 남한 문화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함.

- 둘째, 누가 참여방법을 알려주면 참여하고 싶음.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기는 어려움. 이끌어 준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음. 정치 투표는 함.
- 셋째, 소수의 연구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참여의지가 높았음.
-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장을 하고 있었음. 원만한 인간관계로 추천으로 받아서 활동하고 있었음.
-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싶어함.

a	참여 경험이 없고 참여할 수 있다고 해도 평가르기 할 것 같아요
c	어느 정치인이 서민을 위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d	남한사회에서의 투표가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e	참여 많이 하고 있어요. 청양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국회 행사 가서도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f	새터민끼리 회비 걷어서 봉사를 했는데 취지는 좋았는데 호지부지 되었어요
g	문재인대통령 선거할 때 참여했고 그 외엔 참여하지 않았어요
h	주변에서 해보라고 해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i	공주시에 탈북자들이 모일 장소 제공 요청했는데 공주에 있던 하나센터가 충남 하나센터로 합쳐져서 공주시는 참여 기회가 없어요
j	회사 새터민들이 포함된 모임에 이사님이 애로사항 말해보라해서 의견을 얘기했고 기회가 있다면 참여해보고 싶어요

○ 표현의 자유 및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의사결정과정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와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봄.

- 연구참여자 대부분 학벌, 경력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소수는 참여기회를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할당을 주면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함.

a	투표는 했으나 남한에 오기 전에는 의사결정 과정 참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나서고 싶지 않아요
b	나서고 싶지 않아요
c	북한이탈주민같은 경우 대부분 참여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이 없으니 거의 불가능해요

d	대부분 없다고 봐야함. 정부, 공공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의사결정 사항 관련 참여기회를 준다면 참여의사 있어요
e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해요
f	전 젊은 농부들의 모임인 4H 회원이에요
g	정보를 알려주고 참여할만하면 참여할 생각도 있어요
h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선거위원장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i	북한이탈주민 입장을 표명할 단체(비영리법인)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힘있는 사람들이 후견인이어야 만들 수 있더라고요
j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 스스로 참여하긴 어렵지만 누군가 이끌어주면 참여하고 싶어요

6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측면에서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겪은 차별 경험 여부를 살펴봄.
- **북한지역 언어(사투리)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 남한도 지역마다 사투리 있는데 말투를 가지고 차별을 함.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 인격모독, 따돌림, 왕따 심함.** 대부분 직장에서 경험
 - (손 씻고 나오면서 관리과 직원이 이유없이 나(북한이탈여성)에게 손에 묻은 물을 뿌림 ==> 분하여 “손 털 데 없어서 얼굴에 뿌리느냐! 나잇살 처먹고 행동이 그 따위네” 말함 ==> 관리자 “손 털 데 없어서 털었다” 말함.
 - 사무실에서 남한출신 직원 편을 들고, 사과하지 않고 사과했다고 거짓말함. 사무실에서는 남한사람 말만 믿었음.
 - **사회적 편견이 심함,** 면접에서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하여 ‘북한출신’ 이라고 하니, 서류를 뒤흔더니 ‘어떻게 왔느냐’ 고 물음. / 일터에서 이상하게 봄.

a	처음엔 직장에서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따돌림은 없었어요
b	시설과 직원이 손씻고 나오다가 물을 내 얼굴에 뿌렸는데 인격모욕이라고 생각했었고 제가 북한이탈주민이고 혼자 사니까 업신여겨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c	상해에서 근무하던 회사가 남한에도 있어서 들어갔는데 탈북민인데다 낙하산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왕따 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서 처음 3개월은 힘들었어요

d	처음엔 내가 북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는구나 느꼈는데 나중에 후배들을 보니 그냥 공장 선배들의 텃새인 걸 알게 됐어요
e	적응을 잘해서 일반인들에게 무시당하진 않으나 족발집에서 사람을 구한대서 연락을 했는데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 북한 사람 안쓴다고 했어요
f	이 지역은 동네가 좁고 새터민이 몇 없는데 그 중 대다수가 노래방 아가씨나 다방에서 일해서 새터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g	식당에서 일했을 때 13시간 일했는데 북한사람이라고 10시간 일한 것 밖에 돈을 주지 않았어요
h	핸드폰 살 때 사기를 당했어요
i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경력을 쌓기 위해서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고 한번은 재가요양시설 면접 갔는데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 서류를 딱 덮었어요
j	회사 다닐 때 10년 일한 북한이탈주민 친구가 승진을 못하고 남한 직원이 승진을 했어요. 식당에서 서빙했는데 장사가 잘 안된다고 나이 많은 남한 직원이 아닌 나를 일주일만에 잘랐어요

○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측면에서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물어봄. 적극적 대처를 한 여성한 여성도 경험을 통하여 소극적인 대처를 하기로 생각함.

- 적극적 대처 : 문제 제기, 문제 개선 요구, 말 받아 치기(핸드폰 가게에서 직원과 실갱이 중 직원이 ‘북한으로 가라’고 하여,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함). 아이가 자라고 있어서 당당하게 살고 싶고 움츠려 들고 싶지 않음.
- 소극적 대처 : 그냥 참음. 웃으면 넘기기, 참지 않으면, 스스로 이겨내지 못함. 직장에서 강원도 출신이라고 속임.

a	그런 일 없었어요
b	그 직원에게 ‘나잇살 먹고 그렇게 밖에 행동 못하나, 물 털 데가 없어서 사람 얼굴에 터나’고 직접 따졌어요
c	싸워서 잘리면 내 손해니 일단은 참았어요
d	참으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거고 아니면 그만둬야해요
e	전 가끔 사람들이 북한 사람 홍보거나 하면 ‘북한에서 와서 죄송합니다’하고 웃어넘기는데 다른 친구는 3년간 13번 회사를 옮기더라고요
f	대학교 때 같은 과에 새터민 여자가 있었는데 북한이탈주민 아니라고 하고 왕따를 당했어요
g	사장이 10시간 분만 주길래 항의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그만뒀어요.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신고 간 새신발을 학생들이 화장실에 빠뜨렸어요. 앞가방을 새로 사서 보냈는데 그걸 가위로 잘랐고 놀림도 받았어요
h	핸드폰 가게에서 문제 생겼을 때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연락했고 2대 기계값 내던 걸 1대에 대해서만 내게 되었어요

i	어린이집 면접 보고 억울해서 2번이나 찾아갔고 00교 00교구에 얘기하고 인권위에도 전화했어요. 묻기 전엔 북한 사람인 걸 밝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j	전산 작업하는 방법을 조장에게 생산직 모두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되었어요

-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측면에서 사회적 차별 금지,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물어봄.
- 남한주민이 ‘다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으로 “존중” 해주었으면 함. 남한주민의 행동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소외, 차별이 보임. 상호이해, 상호존중이 필요함. 북한출신도 똑같은 사람이고, 외래어만 적게 사용함.
 -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필요함. 50대 이상의 여성은 직장 찾기 어려움. 쉽게 일할 수 있는 식당은 4대 보험 혜택, 취업 장려금 등을 받지 못함.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공간 필요함. 북한이탈주민회관이 있어서 문화교실, 미성교육 등 받길 원함. 또한 새터민 가족, 문화센터에서 남한출신 여성과 북한출신 여성이 교류하길 바람.
 - 비보험 병원비 지원 : 비보험 병원비, 약값은 본인부담금 큼.
 - 남한 초등학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필요
 - 지역사회 이주민 대상 공정한 정책이 중요함. 국공립유치원 추첨에 다문화 자녀 우선권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사회적 배제시킴.

a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사람을 대해주길 원해요
b	남한 사람이나 북한이탈주민이 다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차별이 없을 것 같아요
c	50대 중반만 되도 취직이 어려워서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자리 지원이 가장 중요해요
d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요
e	정책은 지금이 좋고 북한사람들이 문화 교류도 하고 뭐 배울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주면 좋겠어요
f	공간 제공해주면 문화교실이나 미성, 뜨개질 같은 강의를 하면 그걸 활용해서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	저학년 아이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h	병원비에 현금 지원, 비보험 약일 때 본인부담금 지원이 필요해요
i	북한이탈주민을 외국사람 취급하면서 다문화 우대는 해주지 않아요. 국공립유치원 우선 추첨에서 제외 되요
j	일자리 지원이 필요해요

7 노동권

○ 노동권 측면에서 일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살펴봄.

- 직장생활 중 사회적 편견과 의사소통(북한 말투, 언어장벽)의 어려움
- 직장 내 괴롭힘(연가내면 싫어하고 심리적 스트레스 줌)
- 일자리 찾는데 어려움
- 자녀 양육부담, 돌봄 어려움 (맞벌이)
- 직장 문화 적응 어려움

a	국비지원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고 나서 일을 해야겠다는 욕심에 무작정 병원에 찾아가서 면접을 봤어요
b	요양보호사 자격증 나오니까 큰 어려움 없이 바로 취업에 성공했어요
c	병원 가려고 연차를 냈더니 반장이 시비를 걸었는데 남한 직원이 건강검진 가고 치과 간다고 병가 내니 말없이 가라고 하더라고요
d	편견이랑 의사소통이 어려웠어요
e	연령이나 문화차이 같은 건 다 본인 몫이라고 생각해요
f	여자이고 키도 작으니까 할 수 있겠냐고 해서 나도 할 수 있다고 더 무거운 박스를 들어요. 전 대학 나오고 자격증 있으니 취업이 비교적 쉬운데 아닌 사람들은 같은 주방일이어도 막일을 해요
g	언어장벽, 나이가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일자리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자녀 양육도 부담이에요
h	능력도 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i	아이가 어릴 땐 친정이나 시댁이 없으니 자녀 양육부담이 커서 식당 알바나 서빙, 공공근로를 만나절만 일할 수 있었어요
j	나이가 많으니 정직원으로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 노동권 측면에서 충청남도로부터 바라는 경제활동 지원에 대해 살펴봄.

- 일자리(아르바이트) 알선 및 일자리 정보제공
- 아이 돌보면서 만나절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제공
- 고정적인 소득(월 200만원 이상)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북한 직업을 남한에서도 동일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 고용주 및 중간관리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 북한이탈주민이 일하는 직장에 단합회, 회식 지원
- 예술단 활동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 지원

a	기술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다른 일이 있는데 돈을 벌어야 하니 시도를 못하고 있어요
b	당장 돈을 벌어야 하니 다른 일을 해보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c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려는 기업의 중간관리자에 대한 ‘직원인식개선’을 해주면 좋겠고 단합회를 통해 화합할 수 있도록 회식지원이 필요해요
d	사람들의 편견을 없애고 일자리를 알선해주면 좋겠어요
e	-
f	‘실업자 카드’, ‘재직자 카드’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보 제공이 필요해요
g	몸이 안좋아서 하루 종일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면 좋겠어요
h	일자리센터에서 강의해주고 잘해주는데 제 몸이 안따라줘서 일자리를 소개받은 적은 없어요
i	공주시에 새터민이 아니더라도 아이엄마들을 위한 일자리가 없어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면 좋겠어요
j	최소 월 200만원 이상 벌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이 필요해요

8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측면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나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봄. 북한이탈여성은 폭력에 대하여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스트레스로 15일간 울음. 힘들어서 직장 옮김.
 - 일상생활 중 성추행당한 경험 있음.
 - 가정폭력(중국출신 남편)이 있어서 딸이 경찰에 신고하여 1주일 가출함.

b	관리자가 시키고 간 일을 야근하면서 혼자 했는데 선임이 다음날 간부에게 자기가 다했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기 싫어서 다른 이유를 대고 그 요양병원을 그만뒀어요

c	상사가 나에게만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어요. 성추행(밤 9시에 찾아와 뒤에서 가슴 만지며, 누나 좋아한다고 말하면서....)을 한번 당했는데 멈추지 않으면 소리지르겠다고 해서 모면했는데 그 이후에도 찾아와서 신변보호담당관에게 해결을 부탁했어요
d	한번은 조장이 휴가 앞뒤로 (남한 직원들은 빼고)나에게만 야근을 시켜서 조장에게 노동법 따져서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론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e	북한에서 살 때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탈북했어요
f	어렸을 때 엄마가 당하는 가정폭력을 봤고 그땐 어려서 도망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었어요
g	당해보지 않았어요
h	당해보지 않았어요
i	따돌림은 없었어요
j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고 그때 딸이 경찰에 신고 했고, 전 가출했어요

9 건강권

- 건강권 측면에서 충청남도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살펴봄. 심리지원서비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여행서비스 등의 정책이 필요함.
- 직장생활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받음. 남한주민을 이해하려고 하니 마음 편해짐.
 - 절약해도 경제적 어려움(공과금, 통신비 등)으로 스트레스, 불안감
 - 핸드폰 구입 등 하면서 어려워 스트레스
 - 북한에 두고 온 아이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니 스트레스
 - 집에 있으면 심리적 불안이 있고, 집 밖으로 나가면 스트레스 사라짐.
 - 일하고 싶어도 건강 좋지 않아서 일하지 못함. 잠이 오지 않고, 어지럼증 있음.

a	일 시작하고 처음 1년은 대소변치우고 가래 치우는 일 등이 힘들었어요
b	남한 사람들이 뒤에서 험담하고 깎아내리려고 없는 소리를 해서 힘들었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려움 없어요
c	언어(의사소통)이 제일 어려웠어요

d	의사소통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e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f	안먹고 안쓰면 돈이 안나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돈이 나가니 심리적으로 편하지가 않고 일 안하면 불안해요
g	중국에서는 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 소식을 전해들었는데 남한에 와서는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h	예전 살던 기억, 물건 살 때 뭘 모르니까 거기서도 스트레스가 와요
i	새터민이라고 하면 다르게 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면접 스트레스가 있어요
j	사고 당했을 때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해서 힘들었고 실업급여 타는 거 공부했는데 다 이해를 못해서 2일 알바하고 16만원 벌고 실업급여 180만원을 몽땅 토해냈어요

10 사회인식 및 차별

- 북한출신임을 알고 난 후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낀 적이 있는지 인터뷰함. 또한 대처 방법을 질문함.
- 세 가지 형태로 태도가 나타나며 반응이 다양함. 대처는 참는 경우가 많았고, 적극적 대처도 있음. 대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하게 표출됨.
 - 첫째는 앞에서 반가워함. 응원하는 사람이 있음. 나이 어린 남한주민은 신기해하기도 함.
 - 둘째는 “고생했어, 힘들게 왔어”, “왜 남한에 왔느냐” 라고 중간정도의 태도를 보임.
 - 세 번째는 1~2명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태도가 확 달라지고 안 좋게 봄.
 - 문자에 “빨갱이” 라고 쓴 것을 보고, 화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음.
 - 색안경을 쓰고 차별적인, 무시하는 시선으로 봄. 간첩을 보는 눈길로 쳐다봄.
 - 세금낭비라고 하고, 북한으로 도로 가라고 함.
 - 식당에서는 조선족보다 북한출신을 더 낮게 봄.
 - 면접장에서 북한출신 밝혔더니, 면접관이 갑자기 ‘서류를 덮었다’ => 인권위원회에 전화하는 것으로 대처함.
 - 00어린이집 원장이 면접에서 ‘인상이 무서워 어린이들이 놀랄 것 같다’고 말함. => “원장님은 애기들이 좋아하는 얼굴인가요?” 라고 대처함.

- 택시 탔는데, “이북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함. ==> “우리는 다 나쁜 사람 아니예요” 라고 대처함.
- 회사에서 승진할 때, 남한사람과 심한 차별을 주어 스트레스로 탈모현상이 생김. 승진하고 싶어 쉬는 날도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 탈락함.

a	북한출신임을 밝히면 남한사람들 표정이 굳어져요
b	간보는 느낌이 들어요
c	북한 사람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욕하는 성격이 있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일이 없고 직설적으로 말해요
d	직설적인 말투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e	북한 출신인 걸 말하면 반가워하는 느낌도 있는데 일하려고 전화해서 북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북한 사람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f	대학교 엠티 가서 친구들에게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 잘 왔다고 하더라고요
g	북한 사람보다 조선족을 우대하는 경향 때문에 북한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가 있어요
h	태도가 달라져요. 잘 왔다는 사람도 있고 도로 가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i	면접보러 가서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 서류를 뒀었어요
j	북한사람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편인데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11 남한사회 생활, 적응, 결혼

- 북한이탈남성보다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에 더 많이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함.
- 북한에서는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고, 남성은 장사 등 회피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 너무 큼. 이대로는 못살겠다 싶어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중국으로 나옴. 그 이후 중국보다 신분이 보장되는 남한으로 입국
- 가정 내에서 남성이 가장권을 가지고 여성을 지배하려고 하고 억압함. 그래서 여성이 경제적으로 남성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이며, 남성수입(남성은 국가에서 지정한 직장 외에 일하지 못함)만으로는 생활하기 곤란하여 일을 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큼.
- 가정폭력, 여성에 대한 무시 등이 심함.
-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이 중단되면서 여성들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으로 도강하며 장사하면서 한국 TV, 한국 문화 알기 시작하여 탈북함.

- 1998년~2000년 중국으로 북한여성들이 인신매매(중국에는 결혼 못한 남성이 많음)로 팔려 가서 강제 결혼하여 임신, 출산하여 생활함. 그러나 신분 불안(중국남자와 결혼해도 중국국적 취득불가능)하여 남한으로 입국함.
- 탈북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거쳐야 하는데, 남성은 거의 불가능함. 여성은 중국남성과의 강제결혼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남한으로 입국함.

a	북에서 살 때 여성들이 일도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써야 해서 살기가 힘들고 숨이 막혀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나오는 것 같아요
b	봉건적, 가부장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있어서 여자들이 부담이 크고 어깨가 무거워요
c	장사부터 시작해서 집안일까지 북한에서 여성은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커요
d	인신매매로 중국으로 팔려가는 여성들이 남한으로 와요
e	여자들은 중국으로 인신매매든 뭐든 팔려가면 발 붙일 수 있는데 남자들은 그게 더 어려워요
f	북한에서 남성 인권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봉건사상이 많아요
g	북한에서 여자가 벌어먹고 살아야해서 힘들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남자들은 넘어가도 버티기가 어려워요
h	중국에 결혼 못한 남자들이 북한 여자를 인신매매해서 살아요
i	배급이 끊기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여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일하기 시작하고 중국도 왔다 갔다하며 북한 밖은 사는게 다르다는 걸 알게되요
j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여자들이 중국으로 많이 팔려가고 그 사람들이 남한으로 오게 되요

○ 주위에 남한 친구나 이웃이 있는지 질문함.

-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주위에 직장동료, 남한 친구, 이웃, 사회단체, 대학교 친구 등이 있음.
- 일부 참여자는 친한 친구는 없고, 옆집에 인사하는 정도의 이웃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a	직장에서 사귀 친구
b	직장동료들
c	직장동료, 글로벌피스재단 활동하면서 만난 남한 사람과도 친하게 지내요
d	직장동료들, 직원단체 활동도 해요
e	봉사 등 사회활동하다 만난 남한 친구 많아요

f	대학교에서 만난 남한 친구, 사회생활 하면서 만난 남한 친구 많아요
g	옆집이랑 눈인사 하는 정도고 가끔 왕래해요
h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고 얘기만 나누는 정도예요
i	직장동료, 아이 유치원때 학부모들이랑 친구가 됐어요
j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친한 남한 친구 있어요

○ 북한이탈주민 행사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질문함.

- 충남 하나센터,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명절, 송년회, 체육대회 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기적인 행사에 참여함.
- 북한이탈주민을 만나서 편하고, 서로의 어려움(경제적, 건강, 구직, 직장생활 등)을 얘기함.
- 다른 한편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과 얘기함.
- 안전교육, 법 교육, 한국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임.

a	1년에 한번 충남하나센터에서 하는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여행을 가기도 해요. 지역 차원에서 추석, 설에 식사도 하고 선물을 줘요
b	군청에서 명절에 꼭 찾아주는데 그게 참 감사하고 뭉클해요
c	송년회 때 민주평통에서 새터민에게 선물을 줘요
d	탈북민들이 아는 사람이 탈북민이 대부분이라 다단계나 유흥업계에 서로를 끌어들이어요
e	충남하나센터 체육대회 때 대학 홍보하는 사람에게 속아서 대학에 들어갔고 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을 떠안았어요
f	행사를 도우러 가거나 참여하러 가기도 해요
g	남한에 형제·자매가 없으니 송년회하면 마음이 위로가 되요
h	다양한 행사가 있고 한국문화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좋아요
i	매년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고향 얘기도 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편해요
j	민주평화통일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앉아서 밥도 먹고 얘기를 나눠요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형태와 가족 내 갈등, 갈등해소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봄. 갈등이 없는 경우, 갈등이 있는 경우로 나타남. 갈등 해소 방법에 대한 의견은 거의 없으나 기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자녀문제로 갈등 있음.
- 남편의 직장이 불안정(일용직)하여 가정 내 트러블 있음.

a	남편과 저, 딸 세 식구가 살고 가족 간에 갈등은 없어요
b	혼자 살고 있어요
c	한국인 남편, 딸과 살고 있고 가끔 남편이 딸에게 소홀히 대하는 느낌에 섭섭해서 얼굴 붉힐 때가 있어요
d	아들이랑 북한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남편이 일용직으로 일하다보니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이 좀 있어요
e	아들, 딸과 살고 있어요
f	엄마, 동생과 살고 있고 동생이 중2 사춘기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g	딸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h	혼자 살고 있어요
i	10살 딸이랑 북한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안좋으니까 싸우게 되고 갈등 생겼는데 대화로 풀고 있고 아이에게 상처주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j	중국인 남편과 딸과 살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북한 사람들을 깐보는 경향이 있어서 남동생이나 제 가족을 그렇게 봐서 싸울 때가 있어요

○ 주위에서 남한 적응을 잘한 사례, 북한의 삶 경험이 남한사회 적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인터뷰 참여자보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인터뷰 참여자가 많았음.

- 적응이 도움이 안됨 : 남한 음식 맛은 습막히게 달아서 힘들. / 북한사람들은 대화시 직선적으로 말하는데, 남한사람들은 돌려서 말하고,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욕함(인격모독) / 북한에서는 단체(아침부터 저녁까지)로 일하는데, 남한에서는 개인적으로 일하여 적응 힘들.
- 적응에 도움이 됨 : 북한 생활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남한 생활에 도움 됨. 정신적으로 북한 생활보다 쉬워서 잘 이겨냄.
- 적응을 잘 한 사례 : 주위에 창업을 하여 성공한 사례, 석사과정을 이수하여 취업한 사례 등

a	책임감이나 생활력있는 게 남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c	창업한 사람, 석사과정 밟거나 사업하는 사람이 있죠. 술집 운영해서 돈 많이 번 사람도 있는데 돈은 벌어도 마음이 다치니 다른 일 해보라고 얘기했어요
d	북한에선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대가가 없었는데 남한에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게 되요
e	북한에서 어머니가 요리를 하셔서 12살 때부터 요리를 해서 전 북한에서 살던 영향

	이 많아요. 하기 싫어도 엄마 성화에 했는데 딸도 요리를 하니까 북한에서 삶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f	잘 적응한건 저라고 생각해요.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돈이 많지 않아도 그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친구들 많아요. 북한에서 나올 때 죽을 고비를 넘겨서 전 무슨 일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	남한 문화, 언어가 적응하기 힘들어요
i	미용실 열어서 돈벌고 식당해서 돈벌어 자기 집 산 사람들도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배치받은 공장에서 일하고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서 경험이 없는데 엄마가 하던 요리장사 도우면서 배운게 중국에서 살 때나 남한에서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j	집도 사고 차도 있고 딸도 대학다니고 현금도 많이 모은 친구 있어요. 북한에서 살던 경험에서 열심히 일하는 태도, 남한에선 일한만큼 돌아오니깐 좋아요. 나만 열심히 하면 통장에 돈이 쌓이는게 재미있어요

- 탈북 이후 원치 않는 결혼 경험이 있는지와 결혼(사실혼 포함) 경험 횟수를 조사함. 중국을 경유한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중국에서 원치 않는 결혼(브로커)을 대부분 하고 출산하고 몇 년간 생활함. 그 후, 남한으로 단독 혹은 단독 입국 후 자녀 입국, 혹은 중국인 남편 입국 후 여성 입국하는 형태로 입국함.
- 남한에서 정착하기 까지 ‘결혼(사실혼 포함)’ 중요한 매개로 작용함.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사기결혼(중국남성, 범죄인) 당한 여성도 있었음.

a	중국에서 조선족과 1회 결혼했어요
b	다른 지역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중매를 해서 중국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결혼 사기를 당해서 혼인관계를 무효화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c	중국에서 원치 않는 결혼 1회 했어요
d	없어요
e	중국에서 원치 않는 결혼 1회 했어요. 술주정뱅이인데다 의처증이 있어서 한국와서 1년반 만에 이혼했어요
f	미혼이에요
g	중국에서 원치 않는 결혼 1회 했어요
h	중국에서 원치 않는 결혼 1회 했어요
i	중국에서 원치 않는 결혼 1회 했어요

j	중국에서 1회 결혼했는데 아이한테 친아빠가 나올 것 같아서 중국인 남편과 지금도 살고 있어요

12 정책지원

- 정책지원 측면에서 충청남도 혹은 거주하는 지역(시·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도움 정도에 대해 들어봄. 인터뷰 대상자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1년에 한번 하는 송년회, 설, 추석 행사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됨.
 - 명절 때마다 선물을 주고, 사람을 만나서 도움이 됨.
 - 만족함. 거제도, 제주도 등 여행가고 싶음.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하여 탈락됨.

a	명절에 식사하면서 우릴 찾아주는게 마음에 위로가 되요
b	명절에 상품권을 주고 식사도 같이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마음도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어요
c	여행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는데 지원금(예산)이 끊겨서 현재는 하지 않고 있어요. 정착 도우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d	처음에 왔을 때 정착 도우미가 도움을 정말 많이 줬어요
e	청양은 조기정착이 없으니 정책이라 할 것이 없어요
f	청양은 조기정착이 없으니 정책이라 할 것이 없어요
g	혼자 있는 사람들 위해 여행 지원 필요하고 심리지원 서비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h	아산시에서 하는 사업은 다 만족해요
i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공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도움이 됐다면 한부모 신청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j	공주시는 별로 도움이 없어요

- 북한출신으로 구성된 자조모임 참여여부와 필요성, 자조모임이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들어봄. 북한사람들 행사시 서로 험담, 뒷말하여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한편, 자조모임을 통한 의사소통 욕구도 있음.
- 자조모임의 참여는 서로 잘 몰라서 자조모임은 거의 없음.

- 자조모임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
- 자조모임이 잘 안되는 이유는 서로 바쁘고, 생계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직업특성상(예 요양보호사는 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휴일이 고정적이지 않음).
- 북한사람들이 모이면 싸움나기도 함. 또한 서로 속 터놓고 얘기하는데 서로 짜증내고, 소문나고, 비꼬는 소리, 많이 부풀려 얘기를 하여 갈등이 많아서 자조모임 잘 안됨.
- 자조모임보다 남한주민과 어울리는 것(산악회 등)이 최선이라 생각함.
- 자조모임으로 봉사활동 하다가 예산 없어서 해체됨.
- 의사소통할 사람이 없음. 북한사람들 만나서 북한음식 만들어 먹고 싶다는 의견이 있음.

a	하나원에서 홍성으로 지원해서 왔는데 그게 처음이라고 하고 따로 모여본 적은 없어요. 군에서 그런 자리 마련해서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하나원 자기 기수만 알거든요
b	자조모임하면 선착자 경험도 듣고 좋을 것 같은데 일 때문에 타이밍을 못맞춰서 참여하지는 않고 있어요
c	자조모임은 실제로 많이 없고 모이면 갈등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하나원에서 될 수 있는 한 남한 사람들과 모이라고 조언을 해요
d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e	작년 10월까지의 봉사활동 하면서 만나고 모였는데 공간도 없고 지원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모임 일이 이제 없어요
f	가끔 신변보호 담당관이 물품(여형사가 생리대)도 만나서 전달하고 밥 먹고 차 마셔요
g	필요는 한데 모이면 뒷말들을 해서 뒤끝이 나빠요
h	생각 같아서는 모여서 북한음식도 만들어먹고 싶은데 살기 바빠서 모이기 힘들어요
i	자조모임이 있긴 하나 북한사람끼리 모이면 꼭 싸움이 일어나서 참석하지 않고 자조모임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도 싫어요
j	만나면 남이 잘되는 꼴을 못보고 말을 옮겨서 싸움이 일어나서 모임 안하고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살펴봄.
-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음. 전화문자를 통해서 알려주면, 정보를 쉽게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a	신변보호담당관이 메시지를 보내고 정보를 줘요
b	신변보호담당관이 메시지를 보내고 정보를 줘요
c	남한분들 중에 이탈주민에 대한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은행원이 ‘미래행복통장’에 대해 몰라요. 서류 떼러 다니기가 복잡해요
d	북한이탈주민도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e	지원제도 없어요
f	지원제도 없어요
g	문자를 받아도 잘 참가하지 않아요
h	정착지원센터에서 문자를 보내서 잘 알려줘요. 생필품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i	지원제도 없어요
j	잘 몰라요

제 5 장

결 론

제1절 조사결과와 인권영역별 합의 및 세부사업 선정 근거

제2절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증진을 위한 과제 도출

제1절 조사결과의 인권영역별 함의 및 세부사업 선정 근거

1 조사결과의 인권영역별 함의 및 정책지원 방향

• • • 1-1. 모성권

- ☐ 조사결과, 태아 정기검진을 받지 않은 주요 이유는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부담이 되어 (80%)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임신한 북한이탈여성의 태아정기검진을 위하여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가 필요함.
- ☐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료지원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가 60%, ‘예방접종을 잘 몰라서’가 40%로 파악됨. 조사대상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무료 지원정보 제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 선택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주요한 이유는 ‘선택예방접종을 잘 몰라서’가 38.1%로 나타남. 현재는 신생아를 위한 정책 확대로 기존의 선택예방접종이 무료로 전환되어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 그러나 ‘정보를 몰라서’에 대해서는 보편적 정보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 모유 수유 외에 분유를 먹을 경우, 분유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정도를 살펴본 결과, 58.5%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았다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의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이 필요함.
- ☐ 모성권 측면에서 임신, 출산, 신생아 건강관리 등과 관련하여 어려웠던 점에 대해 살펴봄. 모성권에 해당하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인터뷰 참여자는 1명(10살 여아)이었음.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 • 1-2. 육아권

- ☐ 영유아 검진시기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살펴본 결과, 16.9%는 받지 않았다고 응답함. 받지 않은 주요한 이유는 ‘검진시기를 놓쳐서’가 36.4%, ‘검진 정보를 알지 못해서’와 ‘시간을 낼 수 없어서’가 27.3%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영유아가 있는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정보제공, 정보를 잘 받았는지 확인, 건강검진 동행 서비스 등이 필요함.

- ☐ 북한이탈여성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한국말을 잘 몰라서’가 37.5%, ‘따돌림 등 친구관계의 어려움’과 ‘자녀의 장애나 정서적 문제’가 각각 25%임. 그 외에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움’은 12.5%임.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을 위하여 언어학습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학업지원서비스, 또래관계형성 지원 등이 필요함.
- ☐ 보육시설 이용시간 후(저녁, 주말 등) 주 돌봄을 하는 사람을 누구인지 살펴본 결과, ‘돌보는 사람 없다(아이 혼자 지낸다)’는 비율이 6.9%로 파악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아동 방임이 되지 않도록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확대가 필요함
- ☐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동안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본 결과, 본인이 90.1%, 남편이 3.3%라고 응답함. 남편의 공동 돌봄 분담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 가족 대상으로 가사일, 돌봄 등 공동 분담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다중응답으로 질문함. 그 결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음’ (39.3%), ‘학습부진, 학습지도 어려움’ (23%), ‘방과 후 돌봄(특새 시간 돌봄)’ (13.1%)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경제활동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연계, 자녀의 학업지원서비스,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
- ☐ 육아권 측면에서 자녀 양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 알아봄. 자녀의 돌봄 지원, 학습(영어, 수학)지원, 학원비 지원, 예체능교육비 지원, 초등학교 생활에서 따돌림(놀림) 받지 않는 지원 등의 욕구가 파악됨. 그러므로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 ● 1-3. 자녀의 교육권

- ☐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가 학교(대안학교 포함)에 다니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78.6%가 재학하고, 21.4%가 다니지 않는다고 조사됨.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50%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응답함. 12.5%는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어서’로 응답함. 이러한 결과로부터 진로지도, 학업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 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집에 혼자 있다’가 63.6%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학교 밖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주로 이야기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함. 77.4%가 ‘부모님’이라고 응답함. 3.8%는 혼자 고민한다고 나타남. 이러한 조사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 자녀가 고민이 있을 경우, 전문 상담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필요성이 높음.

- ☐ 학교에서 자녀가 차별, 배제, 따돌림, 소외 등의 경험이 있는지 질문함. 그 결과, 10.9%는 ‘그렇다’ 라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의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 배제,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대상 사회적 편견 해소 교육이 필요
- ☐ 자녀가 있는 경우, 어느 지역에 살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 이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여성의 거주지는 가능한 도시지역 혹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배정을 고려할 필요 있음.
- ☐ 북한이탈여성의 자녀가 ‘학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을 질문한 결과, ‘학교수업 따라가기’ 가 43.5%로 가장 높게 응답됨. 그 다음은 ‘친구관계’ 가 23.9%로 나타남. 그 외에 ‘문화, 언어적응’ 이 15.2%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학업지원, 또래관계맺기 전략 지원, 문화, 언어지원이 필요함.
- ☐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인지 질문한 결과,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이 64.7%로 가장 높게 응답함. 그 다음은 ‘학습(공부)지원’ 이 19.6%, ‘진로(진학 및 취업) 지원’ 이 7.8%, ‘친구교류 등 적응 지원’ 이 5.9%임. 북한이탈여성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녀의 교육비 지원, 학습지원, 진로지원, 친구교류 등 적응지원이 꼭 필요
- ☐ 교육권 측면에서 자녀의 학교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욕구가 파악됨.
 -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중국교육과정에 대한 학력인정이 되지 않음.
 -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대학진학 지원
 - 진로지원정보 제공
 - 대학기숙사 비용(기숙사 우선권 부여) 혹은 월세비 지원
 - 학교별 학업에 필요한 생필품 지원(초등학생: 학원비 지원, 중학생: 교복비, 학용품비 지원,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의료비 지원
- ☐ 그러므로 중도입국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업지원, 대학진학 지원, 진로정보 제공, 기숙사비 지원 및 우선권 부여, 자녀의 학업에 필요한 생필품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 ● 1-4.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 문화생활(영화감상, 등산, 운동 등) 참여수준을 4점 척도로 질문함. 그 결과, 평균 2.92점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편’ 으로 나타남. 또한 26%는 참여하지 못하는 편으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생활 지원이 필요함.
- ☐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 이 34.2%, ‘괜찮은 일자리

구하기’와 ‘정서적인 문제(외로움, 북한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우울, 트라우마 등)’가 19.1%, ‘자녀 돌봄, 교육, 자녀와의 관계’가 14.6%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자리 지원을 통한 경제적 문제해결, 심리정서지원을 통한 트라우마 및 외로움 해결, 자녀 돌봄 및 학업지원을 통한 자녀관계 회복 등의 정책이 필요

- ☐ 보편적인 정보접근성이 보장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정책,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운가요?’라는 4점 척도로 질문을 함. 그 결과, 평균 2.51점으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비율이 52.5%임.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북한이탈여성이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편적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가 필요
- ☐ 모든 형태의 사회적 배제는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 경제적 배제,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공간적 배제,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는 ‘있다’고 해석됨.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사회적 편견,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적음),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 공간적 배제가 높게 나타남. 이 같은 유형의 사회적 배제 극복방안이 필요함.
-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측면에서 주거보장은 매우 중요하고,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줌. 그래서 살고 있는 집에 만족스럽지 않은 점(주거만족도)에 대해 물어봄. 만족하는 편과 만족하지 않은 편으로 구분됨.
-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측면에서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해 살펴봄.
 - 직설적인 표현에 남한주민들이 오해하여 어려움.
 -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음.
 - 자녀 교육(경제적, 진로정보부족 등)이 어렵고, 대학입학문제가 큼.
 - 북한의 혈육생각(자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큼.
 - 북한에 있는 엄마가 남한에 온 딸에게 돈 보내라고 하여 힘들.
-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정책,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살펴봄. 그 결과,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음. 또한 이주민을 위한 정부정책의 대상자에 새터민을 포함시켜 주기를 바람.
- ☐ 그러므로 북한이탈여성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장 힘들다고 응답한 사항에 대한 지원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예컨대, 남한 문화교육 및 체험, 자녀를 위한 대학진로정보 제공 및 학업지원, 정서적 지원서비스, 복지사각지대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포용성 확대 등임.

● ● ● 1-5.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

- ☐ 우리 사회(남한)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94.5%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5.5%는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편으로 조사됨.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

도 간섭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질문함. 그 결과, 9.1%는 간섭받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응답함. 반면에 현재 90.9%는 간섭받지 않는다고 응답함. 이 같은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음.

- ☐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참여 경험여부를 질문한 결과, 81%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반면에 19%는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또한 충청남도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수준에 참여하는 수준은 평균 2.59점으로 참여수준이 낮은 편으로 인식함. 참여수준이 낮다는 비율도 41%임. 이 같은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의 정치참여는 “보통” 정도로 평가됨.
- ☐ 표현의 자유 및 정치참여에 대해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경험이 있는지, 참여할 기회가 있어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살펴봄. 세 가지 형태로 응답함. 즉, 정치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 누가 참여방법을 알려주면 참여하고 싶음, 소수의 연구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참여의 지가 높았음.
- ☐ 표현의 자유 및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의사결정과정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와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봄.
 - 연구참여자 대부분 학벌, 경력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소수는 참여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할당을 주면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함.
- ☐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정치참여에 무관심한 연구참여자도 있지만, 정치참여 방법을 알려 주거나 참여기회를 주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연구참여자도 확인됨.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관련된 정책 혹은 분야에 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함.

• • • 1-6.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 ☐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장 혹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부당한 대우 혹은 차별(따돌림, 소외, 사회적 편견) 받고 있는지 질문함. 평균적으로 6문항 모두 차별을 받고 있다고 분석됨. ‘직장, 단체, 학교 등에서 차별받은 적이 있다’, ‘남한주민보다 차별받은 적이 있다’ 는 3점대로 상대적으로 차별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이러한 결과로부터 직장 혹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부당한 대우 혹은 차별(따돌림, 소외, 사회적 편견)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을 경우 대처해본 방법에 대하여 다중응답으로 살펴본 결과,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가 20.6%,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가 15.6%,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가 12.8%로 나타남. 불이익, 차별에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참는 부분이 기타(4.4%)까지 포함하면, 25%(20.6%+4.4%)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임.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 및 대처방법 교육이 필요함.

-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중응답으로 살펴본 결과, ‘남한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가 54.8%, ‘남한사람과 같은 말투와 표준말’이 44.7%, ‘남한 주민의 이해와 공정한 대우’가 41%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남한사회 문화 교육, 남한주민 대상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수용성 교육 등이 필요함.

-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행복하게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인지 질문함. 1순위에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과 일자리 알선 및 연계’가 54.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차별의식을 없애는 교육이나 캠페인’이 14.7%, ‘남한의 문화와 언어 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지원’이 10.2%로 나타남. 2순위에서는 ‘남한출신과 북한출신이 친교하며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 2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차별의식을 없애는 교육이나 캠페인’이 21.6%,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이 17.6%로 나타남. 그러므로 일자리 알선 및 연계, 남한주민대상 차별의식 없애는 교육 및 캠페인, 남한의 문화 및 언어 이해교육 지원, 남한주민과 친교 프로그램 확대, 탈북자 단체 지원 등의 정책대안이 필요함.

- ☐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측면에서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겪은 차별 경험 여부를 살펴봄. 주요한 어려움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됨.

- 북한지역 언어(사투리)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 인격모독, 따돌림, 왕따 심함. 대부분 직장에서 경험.
- 사회적 편견이 심함.

- ☐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측면에서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물어봄. 적극적 대처를 한 여성한 여성도 경험을 통하여 소극적인 대처를 함.

- 적극적인 대처 : 문제 제기, 문제 개선 요구, 말 받아 치기(핸드폰 가게에서 직원과 실갱이 중 직원이 ‘북한으로 가라’고 하여,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함). 아이가 자라고 있어서 당당하게 살고 싶고 움츠려 들고 싶지 않음.
- 소극적인 대처 : 그냥 참음. 웃으면 넘기기, 참지 않으면, 스스로 이겨내지 못함. 직장에서도 강원도 출신이라고 속임.

- ☐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측면에서 사회적 차별 금지,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물어봄.

- 남한주민이 ‘다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으로 “존중” 해주었으면 함.
-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공간 필요함.
- 비보험 병원비 지원

- 남한 초등학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필요
- 지역사회에 이주민 대상 공정한 정책이 중요함. 국공립유치원 추첨에 다문화 자녀 우선권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사회적 배제시킴.
- ☐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간존중 의식 교육 및 캠페인,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건강보장(비보험 병원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류를 위한 공간 마련, 다문화가족과 동일한 정책적 혜택 부여 등이 필요할 것임.

● ● ● 1-7. 노동권

- ☐ 현재 일을 하는 경우, 일(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10개 부문에 대하여 평균 ‘보통’ 정도의 만족도로 조사됨. ‘하는 일(일의 내용, 업무량, 성격 등)(3.95점)’, ‘직장(일자리)내 인간관계(3.84점)’, ‘일(직장) 전체 만족도(3.84점)’는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남. 반면에 ‘일/직장에서의 장래성(3.37점)’, ‘교육훈련 기회(3.35점)’는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교육훈련기회의 확대, 일/직장에서의 장래성을 높이도록 승진, 보수체계 등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음.
- ☐ 현재 일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몸이 아파서’ (35.3%), ‘자녀양육 어려움’ (11.6%), ‘남한에서의 경력이 부족함’ (11%)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건강지원, 자녀 돌봄 지원,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정책 등이 필요함.
- ☐ 노동권 측면에서 일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살펴봄.
 - 직장생활 중 사회적 편견과 의사소통(북한 말투, 언어장벽)의 어려움
 - 직장 내 괴롭힘(연가내면 싫어하고 심리적 스트레스 줌)
 - 일자리 찾는데 어려움
 - 자녀 양육부담, 돌봄 어려움 (맞벌이)
 - 직장 문화 적응 어려움
- ☐ 노동권 측면에서 충청남도로부터 바라는 경제활동 지원에 대해 살펴봄.
 - 일자리(아르바이트) 알선 및 일자리 정보제공
 - 아이 돌보면서 만나질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제공
 - 고정적인 소득(200만원 이상)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북한 직업을 남한에서도 동일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 고용주 및 중간관리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 북한이탈주민이 일하는 직장에 단합회, 회식 지원
 - 예술단 활동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 지원
- ☐ 그러므로 북한이탈여성의 구직활동지원, 직장생활 및 직장문화 지원, 질 좋은 일자리 연

계, 고용주 및 중간관리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북한이탈주민이 일하는 직장 지원, 맞춤형 돌봄지원 등 필요함.

● ● ● 1-8.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 상담)

1) 폭력 경험

- ☐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학교, 직장, 사회 등의 폭력피해 경험 여부를 살펴봄. 신체적 폭력의 폭력경험은 1%, 언어적 폭력의 폭력 경험은 7.7%, 성적인 괴롭힘은 1.1%, 직장 내 괴롭힘은 5.3%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함. 또한 직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했던 대상자는 ‘남한 직장상사’가 42.9%, ‘남한 직장동료’가 28.5%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비율이 높지 않지만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2) 가정폭력

- ☐ 가정 내 언어폭력은 13.8%, 심리적 폭력은 6.3%, 기물파손은 5.8%, 경제적 폭력은 7.9%, 신체폭력은 4%, 성적 폭력은 4%정도로 조사됨.
- ☐ 가정폭력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은 1.8, 쉼터 또는 가정폭력상담소는 4.5%정도로 매우 낮은 활용률로 나타남. 따라서 가정폭력 발생시 서비스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와 긍정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함.
- ☐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1순위와 2순위에서 공통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조치 강화’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됨. 그 다음 순위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육의 강화’로 공통적으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성평등 및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됨.

3) 성폭력

- ☐ 성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은 5.6%, ‘생각과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스토킹)’은 3.1%,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 말이나 몸짓으로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행동(성희롱)’은 2.1%, ‘고의로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가벼운 성추행)’은 1.5%, ‘생각을 무시하고 키스, 성기접촉, 애무 등 강제로 추행하는 행동(심한 성추행)’은 1.0%, ‘생각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함(강간)’은 0.5%로 나타남.

4) 성매매

- ☐ ‘아는 탈북여성 중에서 노래방 도우미나 술집접대부 경험’에 25%, ‘아는 탈북여성

중에서 성매매 권유받은 경험' 은 8.3%, '아는 탈북여성 중에서 성매매 한 사람이 있음' 은 7.8%로 조사됨.

- ☐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조사함. 1순위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정 소득이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28.9%로 가장 높음. 그 다음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업지원(예.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 이 19.1%, '성구매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가 18.6%로 나타남. 2순위는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이 16.2%가 나타남. 그러므로 북한이탈여성에게 대한 소득보장, 일자리 지원, 건강회복 지원 등이 필요함이 도출됨.

5) 폭력피해 상담 및 치유 경험

- ☐ 상담이 폭력 문제해결 도움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22.2%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반면에 40.7%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로부터 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함.
- ☐ 향후 폭력과 관련하여 향후 받고 싶은 상담 유형을 살펴본 결과, '가정 방문 상담(찾아가는 상담)' 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은 '기관방문 상담' 이 24.1%, '전화 상담' 이 22%임. 이러한 결과로부터 시·군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의 확대' 가 필요함. 더불어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폭력을 경험하는 북한이탈여성이 기관 방문, 전화 상담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
-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측면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나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봄. 북한이탈여성은 폭력에 대하여 비교적 적극적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 스트레스로 15일간 울었고, 힘들어서 직장 옮김.
 - 일상생활 중 성추행 있음.
 - 가정폭력(중국출신 남편)이 있어서 딸이 경찰에 신고하여 1주일 가출함.

• • • 1-9. 건강권

- ☐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는 어떠한지 조사함. 행복감은 5.92점으로 '보통 수준' 임. 신체적 건강(4.65점)과 정신적 건강(4.82점)은 4점대로 '건강하지 않은 편' 으로 해석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삶의 질이 낮은 편이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살펴봄. 주요한 어려움으로 ‘비용이 많이 듦’ 이 12.5%, ‘이용절차가 복잡함’ 이 7.9%, ‘아픈 증상을 설명하기 어려워’ 가 7.4%로 나타남. 그 외에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서’ 4.5%, ‘어느 병원을 가야할지 몰라서’ 가 2.8%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의료비(비급여) 지원, 언어소통문제, 의료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
- ☐ 평소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 32.7%임. 그 외에 ‘신체적 질환, 장애 때문에’ 가 19.1%, ‘외로움, 고독 때문에’ 가 10.6%임.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자리 지원, 건강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등의 정책지원의 필요성 있음.
- ☐ 건강권 측면에서 충청남도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살펴봄.
 - 직장생활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받음. 남한주민을 이해하려고 하니 마음 편해짐.
 - 절약해도 경제적 어려움(공과금, 통신비 등)으로 스트레스, 불안감
 - 핸드폰 구입 등 하면서 어려워 스트레스
 - 북한에 두고 온 아이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니 스트레스
 - 집에 있으면 심리적 불안이 있고, 집 밖으로 나가면 스트레스 사라짐.
 - 일하고 싶어도 건강 좋지 않아, 일하지 못함. 잠이 오지 않고, 어지럼증 있음.
- ☐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 남한생활 실습 및 체험 확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여행서비스, 직장생활 의사소통교육 및 실습 등의 정책이 필요함.

●●● 1-10. 성평등 및 인권의식

- ☐ 성평등 · 인권의식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 2문항 (③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⑤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는 평등 및 인권의식 수준이 낮은 편으로 해석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성평등 및 인권의식 교육이 필요함.
- ☐ 충남에 정착하여 살면서 항목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질문함. 8문항 모두의 평균이 3점 이상으로 교육이 ‘필요한 편’ 으로 응답됨. 그러므로 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육, ② 가정폭력 예방교육, ③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④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률교육, “⑤ 인권교육(인권침해 및 차별금지 등), ⑥ 경제교육, ⑦ 사기를 당하지 않는 비법, ⑧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존감 향상 교육” 등의 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 확대가 필요함. 이중에서 ⑤, ⑥, ⑦, ⑧번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교육 우선순위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1-11. 사회인식(사회적 거리감 · 인권존중도 · 사회적 관계망)

- ☐ 남한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지 11점 척도(0점~10점)로 질문함. 조사결과, 평균 6.49점으로 약간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거주하는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지 살펴봄. 평균 3.30점으로 ‘보통’ 정도의 인권존중을 느끼고 있었음.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비율은 16%인 반면에 존중된다는 비율은 34%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남한주민들의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완화, 인권존중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 위험한 상황 발생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봄.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45.6%,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경우’ 에 71.8%,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30.5%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조사결과로부터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편’ 으로 해석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이 사회적 관계망을 넓힐 수 있도록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 ● 1-12. 자립지원 정책

- ☐ 북한에서 온 여성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만든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봄. 28%가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함. 반면에 72%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함. 그러나 자조모임 활성화 필요성은 66.5%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로부터 자조모임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 ☐ 북한에서 온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충남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개방형 질문조사결과,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10명)’, ‘경제교육 및 경제적 지원 (8명)’, ‘일자리 창출 (5명)’ 순임. 주로 안정적인 일자리, 경제지원 관련 정책이 제안됨. 그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 지원, 자조모임 및 공간 확보, 남남북녀가족 상대방 이해하는 장 마련, 폭넓은 자녀지원 정책, 문화체험” 등을 기입함. 이러한 결과는 양적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으므로 욕구를 반영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음.
- ☐ 정책지원 측면에서 충청남도 혹은 거주하는 지역(시·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도움 정도에 대해 들어봄. 인터뷰 대상자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북한출신으로 구성된 자조모임 참여여부와 필요성, 자조모임이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들어봄. 북한사람들 행사시 서로 험담, 뒷말하여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한편, 자조모임을 통한 의사소통 욕구도 있음.
- ☐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살펴봄.
 -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음. 전화문자를 통해서 알려주면, 정보를 쉽게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 및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행사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남한주민과 북한출신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 ● 1-13. 사회인식 및 차별

- ☐ 인터뷰에 참여한 북한이탈여성은 북한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어 중국으로 가서 원치 않는 결혼(수단으로 활용)을 한 후, 중국보다 좀더 신분이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소수임.
- ☐ 충남에서 생활하는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주위에 남한의 직장동료, 남한 친구, 이웃, 사회단체, 대학교 친구 등이 있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 북한이탈주민과는 북한이탈주민 행사를 통하여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서로의 어려움(경제적, 건강, 구직, 직장생활 등)을 얘기함. 또한 남한 생활이 문화, 필요한 교육 등을 받고 있었음.
- ☐ 남한주민의 사회인식 및 차별형태를 ‘북한출신임을 알고 난 후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낀 적이 있는지’로 인터뷰함. 그 결과, 세 가지 형태로 태도가 나타나며 반응이 다양함. 대처는 참는 경우가 많았고, 적극적 대처도 있음. 대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하게 표출됨.
 - 첫째는 앞에서 반가워함. 응원하는 사람이 있음.
 - 둘째는 “고생했어, 힘들게 왔어”, “왜 남한에 왔느냐” 라고 중간정도의 태도를 보임.
 - 세번째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태도가 확 달라짐. 이러한 사회인식과 차별은 일상생활, 직장면접, 식당, 직장생활 등 다양하게 표출됨.

- ☐ 그러므로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차별은 남한주민의 인식전환 및 인식개선이 필요함.

● ● ● 1-14. 남한사회 적응 및 결혼

-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형태와 가족 내 갈등, 갈등해소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봄. 갈등이 없는 경우, 갈등이 있는 경우로 나타남. 주로 자녀문제, 남편의 직장이 불안정(일용직)하여 가정 내 트러블 있었음. 갈등 해소 방법에 대한 의견은 거의 없으나 기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주위에서 남한 적응을 잘한 사례, 북한의 삶 경험이 남한사회 적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인터뷰 참여자보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인터뷰 참여자가 많았음.
- ☐ 탈북 이후 원치 않는 결혼 경험이 있는지와 결혼(사실혼 포함) 경험 횟수를 조사함. 중국을 경유한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중국에서 원치 않는 결혼(브로커)을 대부분 하고 출산하고 몇 년간 생활함. 그 후, 남한으로 단독 혹은 단독 입국 후 자녀 입국, 혹은 중국인 남편 입국 후 여성 입국하는 형태로 입국함.
- ☐ 이러한 결과로부터 남한에 정착하기 까지 ‘결혼(사실혼 포함)’ 중요한 매개로 작용함. 가족 내 갈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자녀학습지원, 의사소통방법 교육, 일자리정보 제공 등의 정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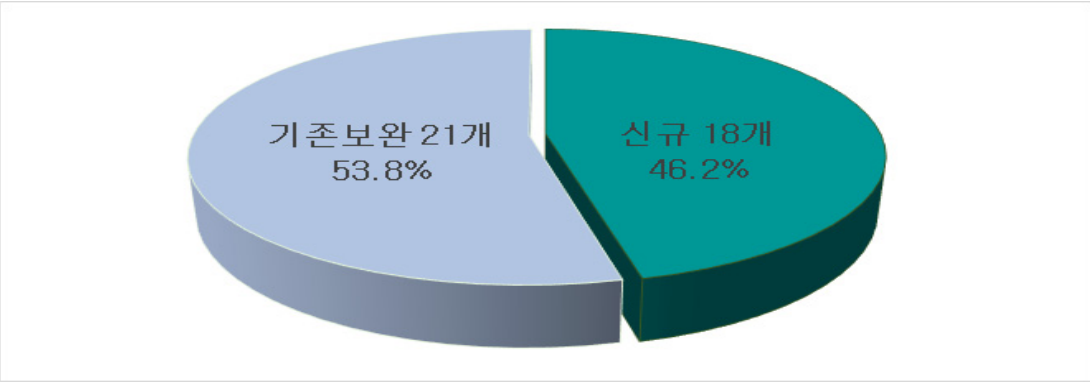
2 세부사업 선정 근거 및 우선 추진 영역

● ● ● 2-1. 세부사업 선정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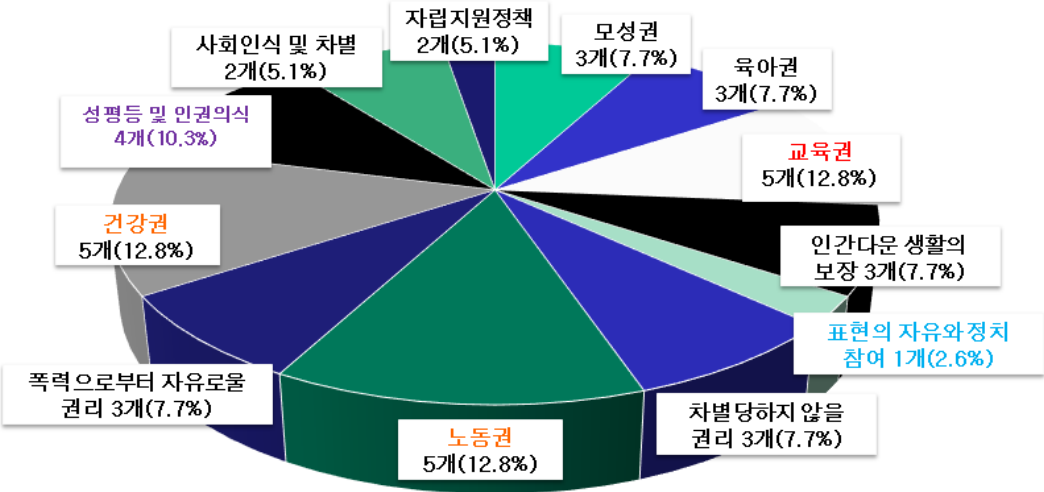
- ☐ 12개 인권영역별 추진 세부과제는 총 39개임. 그 중 신규는 18개(46.2%), 기존보완사업은 21개(53.8%)임.
- ☐ 세부사업은 충청남도 인권정책기본계획(김은희 외, 2019)과 충남 북한이탈주민지원종합계획(박현선 외, 2018)을 참조하고 조사결과를 근거로 제안함.

【표 5-1-1】 세부사업 총괄표

구 분	신 규	기존보완	합 계
모성권	0	3	3
육아권	1	2	3
교육권	2	3	5
인간다운생활의 보장	2	1	3
표현의 자유 및 정치참여	1	0	1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3	0	3
노동권	3	2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2	3
건강권	2	3	5
성평등 및 인권의식	2	2	4
사회인식	0	2	2
자립지원정책	1	1	2
합 계	18	21	39



【그림 5-1-1】 추진과제 사업 구분



【그림 5-1-2】 인권영역별 추진과제

【표 5-1-2】세부사업 선정 근거

번호	사업 구분	사업명	과	팀	세부사업 선정 이유			
					FGI	설문	공동연구진 제안	자문단 제안
모성권								
1-1	보완	태아 정기검진 병원 동행 서비스	시·군			○	○	
1-2	보완	필수 및 선택 예방접종 정보제공 문자서비스 및 모니터링	시·군			○	○	○
1-3	보완	영유아 분유값 지원서비스	시·군			○	○	
육아권								
2-1	신규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의 입소 1순위 자격 부여	출산보육 정책과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2-2	보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출산보육 정책과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	○
2-3	보완	아동 또래관계 및 가족 친교관계 형성 지원	출산보육 정책과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	
교육권								
3-1	신규	공립 각종학교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 (꿈나래)	충남교육청			○	○	○
3-2	보완	북한이탈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프로그램 지원	여성정책 가족관실	청소년팀		○	○	○
3-3	보완	동료상담원 양성 및 파견	여성정책 가족관실	권익보호팀		○	○	○
3-4	신규	대학생 자녀의 기숙사비용(기숙사 우선권 부여) 혹은 월세비 지원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	
3-5	보완	통합지도사 양성 및 파견	여성정책 가족관실	권익보호팀		○	○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4-1	신규	인권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인권센터	○		○	○
4-2	신규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충남형 사회적 포용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4-3	보완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지원 확대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								
5-1	신규	북한이탈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6-1	신규	남북주민 쌍방향 인간존중 캠페인 및 인식개선사업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공동체정책과	○	○	○	○
6-2	신규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대상 인식개선 교육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인권센터	○		○	○
6-3	신규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교류를 위한 공간 마련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

이어서 【표 5-1-2】 세부사업 선정 근거

번호	사업 구분	사업명	과	팀	세부사업 선정 이유			
					FGI	설문	공동연구진 제안	자문단 제안
노동권								
7-1	보완	협업강화를 통한 일자리 연계 확대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	○
7-2	신규	취업 북한이탈여성 유·아동 자녀 돌봄 지원 확대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	○
7-3	보완	사회적 경제 부문 일자리 참여 지원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7-4	신규	북한이탈여성 공공부문 취업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7-5	신규	노동 인권교육 강화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8-1	보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여성가족 정책관실	권익보호팀		○	○	
8-2	보완	부모역량 강화 및 자녀문제 해결 지원	자치행정과/ 여성가족 정책관실	남북교류팀/ 권익보호팀		○	○	
8-3	신규	북한이탈여성의 폭력피해 지원시설 접근성 강화	여성가족 정책관실	권익보호팀		○	○	
건강권								
9-1	보완	건강 및 의료기관 정보 접근성 강화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9-2	신규	북한이탈주민 건강실태조사 및 건강 증진정책 수립	자치행정과/ 보건정책과	남북교류팀		○	○	
9-3	보완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	자치행정과/ 보건정책과	남북교류팀		○	○	
9-4	보완	북한이탈여성 정신적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
9-5	신규	한부모 북한이탈여성 건강보장 (비급여 병원비) 지원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	○
성평등 및 인권의식								
10-1	신규	북한이탈여성 여성인권 감수성 향상교육	여성가족 정책관실	권익보호팀		○	○	
10-2	신규	북한이탈여성 지원기관 임직원 여성인권교육	여성가족 정책관실	권익보호팀		○	○	○
10-3	보완	사례중심 사기피해 예방 교육 강화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10-4	보완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참여 확대 지원	자치행정과 /여성가족 정책관실	남북교류팀		○	○	

이어서 【표 5-1-2】 세부사업 선정 근거

번호	사업 구분	사업명	과	팀	세부사업 선정 이유			
					FGI	설문	공동연구진 제안	자문단 제안
사회인식(사회적 거리감 · 인권존중도 · 사회적 관계망)								
11-1	보완	농어촌지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해소사업 실시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
11-2	보완	공식/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망 확대 지원	자치행정과 /여성가족 정책관실	남북교류팀 /권익보호팀		○	○	
자립지원 정책								
12-1	보완	북한이탈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자조모임 지원사업	자치행정과 /여성가족 정책관실	남북교류팀 /가족다문화팀	○	○	○	○
12-2	신규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사업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 ● ● 2-2. 인권분야의 세부사업 우선 추진 영역

□ 충남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의 결과로부터 12 인권영역별로 39개 세부과제를 도출함. 12 인권영역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영역이므로 특정한 인권영역을 우선순위로 제시하기는 어려움. 그래서 주요추진 부서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인 두 가지 차원으로 인권분야의 세부사업 우선 추진 영역과 세부과제를 제시함.

□ 첫째, 세부과제 주요 추진 부서인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에서 우선 추진하거나 2021년도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영역과 사업을 제시함. 주요 영역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노동권, 건강권이며 세부과제는 9개 과제로 요약됨.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4-1. 인권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 6-1. 남북주민 쌍방향 인간존중 캠페인 및 인식개선 사업
- 6-2.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대상 인식개선 교육

노동권

- 7-1. 협업강화를 통한 일자리 연계 확대
- 7-3. 사회적 경제 부문 일자리 참여 지원
- 7-4. 북한이탈여성 공공부문 취업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2020년 12월 조례개정에 반영함)

건강권

- 9-1. 건강 및 의료기관 정보 접근성 강화
- 9-3.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
- 9-4. 북한이탈여성 정신적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둘째, 전문가 자문단(북한이탈여성 당사자 포함)의 우선 추진영역과 세부과제를 제시함. 참고로 전문가 자문단은 착수보고부터 최종보고회까지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실태조사’의 전 과정을 공유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세부과제 도출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음. 전문가 자문단(당사자 포함)의 우선 추진 영역은 육아권, 교육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며, 세부추진 과제는 7개 과제임.

육아권

- 2-1.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의 입소 1순위 자격 부여
- 2-2.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 2-3. 아동 또래관계 및 가족 친교관계 형성 지원

교육권

- 3-2. 북한이탈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프로그램 지원
- 3-3. 동료상담원 양성 및 파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8-1.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 8-2. 부모역량 강화 및 자녀문제 해결 지원

제2절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 도출

1 모성권

1-1

태아 정기검진 병원 동행 서비스

1) 선정배경(필요성)

- ☐ 양적 조사결과, 태아 정기검진을 받지 않은 주요 이유는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부담이 되어(80%)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임신한 북한이탈여성의 태아정기검진을 위하여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가 필요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임신한 북한이탈여성의 태아정기검진 동행서비스를 통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보장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임신한 북한이탈여성
- ☐ 사업내용
 - 기존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시군 특화 지원사업”에서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태아 정기검진 병원 동행 서비스’ 추가하여 시행
- ☐ 사업부서
 - 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당진시, 부여·홍성·예산·청양군 등)
- ☐ 추진체계
 - 보건소, 시·군, 협력 병원 등

1-2	필수 및 선택 예방접종 정보제공 문자서비스 및 모니터링

1) 선정배경(필요성)

- ☐ 북한이탈여성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료지원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가 60%, ‘예방접종을 잘 몰라서’가 40%로 파악됨. 조사대상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무료지원정보 제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 또한 선택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주요한 이유는 ‘선택예방접종을 잘 몰라서’가 38.1%로 나타남. 따라서 신생아의 선택적 예방접종에 대한 보편적 정보 접근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2020년 4월 기준으로 9세미만 인구는 6명(0.4%)으로 파악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북한이탈여성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필수 및 선택예방접종 정보제공 문자서비스 및 모니터링을 통한 모성권 보장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여성
- ☐ 사업내용
 - 기존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시군 특화 지원사업”에서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영유아 필수 및 선택 예방접종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 추가하여 시행
- ☐ 사업부서
 - 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당진시, 부여·홍성·예산·청양군 등)
- ☐ 추진체계
 - 보건소, 시·군, 협력 병원 등

1-3

영·유아 분유값 지원서비스

1) 선정배경(필요성)

- ☐ 모유 수유 외에 분유를 먹을 경우, 분유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정도를 살펴본 결과, 58.5%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았다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의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이 필요함.

※ 2020년 4월 기준으로 9세미만 인구는 6명(0.4%)으로 파악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북한이탈여성의 영유아 분유값 지원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여성 가정의 영유아
- ☐ 사업내용
○ 기존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시군 특화 지원사업”에서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북한이탈여성의 영유아 분유값 지원’ 추가하여 시행
- ☐ 사업부서
○ 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당진시, 부여·홍성·예산·청양군 등)
- ☐ 추진체계
○ 읍면동, 북한이탈주민 유관기관 등

2 육아권

2-1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입소 1순위 자격 부여

1) 선정배경(필요성)

- ☐ 질적 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을 외국사람 취급하면서 다문화 우대는 해주지 않아요. 국공립유치원 우선 추첨에서 제외 되요” 라는 의견이 파악됨. 국공립 유치원 추첨에 다문화 자녀는 우선권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일반 가정으로 분류되어 사회적 배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의 이주민 대상 공정한 정책이 필요함.

※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에서 우선입소를 명시하고 있음 (www.law.go.kr).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법 제28조, 시행령 21조의 4, 시행규칙 29조에서 입소 우선 순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즉,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아동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 생활 수급자를 비롯해 한부모가족 지원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장애인 부모의 자녀,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등이 해당됨. 2순위는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임.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임.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돌봄 지원(친정, 친척, 시댁 등)이 어려운 북한이탈여성의 돌봄 취약성 해소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돌봄 아동이 있는 북한이탈여성
- ☐ 사업내용
-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의 입소 1순위 자격 부여
- ☐ 사업부서
- 출산보육정책과, 남북교류팀
- ☐ 추진체계
- 시·군,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등

2-2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1) 선정배경(필요성)

- ☐ 보육시설 이용시간 후(저녁, 주말 등) 주 돌봄을 하는 사람을 누구인지 살펴본 결과, ‘돌보는 사람 없다(아이 혼자 지낸다)’ 는 비율이 6.9%로 파악됨.
- ☐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방과 후 돌봄(틈새 시간 돌봄)’ (13.1%)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아동 방임이 되지 않도록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기회 확대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 ☐ 사업내용
 - 돌봄이 필요한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에게 긴급 돌봄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 사업부서
 - 출산보육정책과, 남북교류팀, 여성가족정책관실, 교육청
- ☐ 추진체계
 - 지역아동센터충남지원단, 시·군 지역아동센터, 시·군 방과후 아카데미, 시·군 다함께 돌봄,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시·군 교육청) 등

2-3

아동 또래관계 및 가족 친교관계 형성 지원

1) 선정배경(필요성)

- ☐ 북한이탈여성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따돌림 등 친구관계의 어려움’ 과 ‘자녀의 장애나 정서적 문제’ 가 각각 25%임.
-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행복하게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인지 질문함. 2순위에서는 ‘남한출신과 북한출신이 친교하며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이 29%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을 위하여 또래관계형성 지원과 도민들간의 친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남한출신 가족(아동)과 북한출신 가족(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남한출신 가족(아동)과 북한출신 가족(아동), 학부모와 자녀
- ☐ 사업내용
 - 학교 내 프로그램을 통한 자연스러운 또래관계 및 남한주민과 친교관계 형성 및 증진
- ☐ 사업부서
 - 출산보육정책과, 남북교류팀, 교육청
- ☐ 추진체계
 - 시·군, 초·중학교, 시군 드림스타트, 청소년 관련 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센터 등

3 교육권

3-1

공립 각종학교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 (꿈나래)

1) 선정배경(필요성)

- ☐ 양적조사에서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가 학교(대안학교 포함)에 다니고 있는지 살펴봄. 응답자의 78.6%가 재학하고, 21.4%가 다니지 않는다고 조사됨.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50%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 준비 중’ 이라고 응답함. 12.5%는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어서’ 로 응답함. 이러한 결과로부터 진로지도, 학업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학교 밖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북한출생자녀와 제3국출생자녀)들의 특기적성교육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는 대안교육 (초, 중학교 과정)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2021년 준비, 2022년 ~
- ☐ 사업대상:
- 북한출생자녀와 제3국 출생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
- ☐ 사업부서
- 충남 교육청, 남북교류팀
- ☐ 추진체계
- 충남 하나센터, 시·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등

3-2

북한이탈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프로그램 지원

1) 선정배경(필요성)

- ☐ 비재학 학생 비율이 21.4%로 조사됨.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50%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 준비 중’ 이라고 응답함.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 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집에 혼자 있다’ 가 63.6%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학교 밖 북한이탈청소년의 발굴 및 집중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비인가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가정 등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업지원, 직업교육 지원, 진로지원 등을 함.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준비, 2022년 ~
- ☐ 사업대상:
- 학교 밖에 있는 북한출생자녀와 제3국 출생자녀
- ☐ 사업내용
- 학교 밖에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발굴 및 집중프로그램 지원
 - 지역별 프로그램으로 운영 추진
- ☐ 사업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팀, 충남 교육청(정보제공 동의한 학업중단학생정보지원), 충남 학교밖지원센터(꿈드림), 남북교류팀
- ☐ 추진체계
- 충남 하나센터, 시·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15개 시·군 학교밖지원센터 등

3-3

동료상담원 양성 및 파견

1) 선정배경(필요성)

- ☐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주로 이야기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함. 77.4%가 ‘부모님’ 이라고 응답함. 3.8%는 혼자 고민한다고 나타남. 이러한 조사결과로부터 북한이탈 여성 자녀가 고민이 있을 경우, 전문 상담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필요성이 높음.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동료상담원(북한이탈여성) 양성을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전문성을 키워 지역 사회 정보 전달 및 종합적으로 정착을 돕고, 정서적 지지로 자존감 향상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여성 / 북한출생자녀와 제3국 출생자녀
- ☐ 사업내용
- ‘북한이탈여성 대상 동료상담원 양성 및 파견’ 프로그램 추가 및 추진
- ☐ 사업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권익보호팀, 충청남도 남북교류팀 등
- ☐ 추진체계
- 충남 하나센터, 시·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등

3-4

대학생 자녀의 기숙사 비용(기숙사 우선권 부여) 혹은 월세비 지원

1) 선정배경(필요성)

- ☐ 북한이탈여성 자녀의 학교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인터뷰한 결과, **대학기숙사 비용(기숙사 우선권 부여) 혹은 월세비 지원** 등이 파악됨. 또한 양적 조사결과,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인지 질문한 결과,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이 64.7%로 가장 높게 응답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대학생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주거에 대한 부담 완화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북한출생자녀와 제3국 출생자녀가 있는 가정
- ☐ 사업내용
○ **대학생 자녀의 기숙사 비용 혹은 월세비 지원 (50만원 지원)**
○ 서울의 충남학사, 대전의 충남학사 우선 입실 자격 부여
○ 지역장학재단 연계
- ☐ 사업부서
○ 충청남도 남북교류팀
- ☐ 추진체계
○ 충남 하나센터, 시·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등

3-5

통합지도사 양성 및 파견

1) 선정배경(필요성)

- ☐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주로 이야기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함. 77.4%가 ‘부모님’ 이라고 응답함. 3.8%는 혼자 고민한다고 나타남. 이러한 조사결과로부터 북한이탈 여성 자녀가 고민이 있을 경우, 전문 상담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필요성이 높음.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통합지도사(북한이탈여성) 양성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통합(진로진학, 상담 등) 지도사 파견을 통한 자녀 일대일 맞춤형 학습지도, 정서적 지지로 자존감 향상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여성 / 북한출생자녀와 제3국 출생자녀
- ☐ 사업내용
- 기존사업인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서비스” 에 ‘북한이탈여성 대상 동료상담원 양성 및 파견’ 프로그램 추가 및 추진
- ☐ 사업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충청남도 남북교류팀 등
- ☐ 추진체계
- 충남 하나센터, 시·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등

4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4-1

인권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 및 배포

1) 선정배경(필요성)

- ☐ 남한주민의 사회인식 및 차별형태를 ‘북한출신임을 알고 난 후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낀 적이 있는지’로 인터뷰함. 그 결과, 세 가지 형태로 태도가 나타나며 반응이 다양함. 대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하게 표출됨.
 - 첫째는 앞에서 반가워함. 응원하는 사람이 있음.
 - 둘째는 “고생했어, 힘들게 왔어”, “왜 남한에 왔느냐”라고 중간정도의 태도를 보임.
 - 세번째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태도가 확 달라짐. 이러한 사회인식과 차별은 일상생활, 직장면접, 식당, 직장생활 등 다양하게 표출됨.
- ☐ 그러므로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인권가이드라인과 남한주민의 사회적 인식과 차별 개선을 위한 인권가이드라인이 필요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의식 증진과 남한주민의 차별개선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2021년 ~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여성과 도민
- ☐ 사업내용
 - 북한이탈여성용 인권 가이드라인과 도민용 인권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부록으로 ‘민간, 공공서비스 기관리스트’ 첨부
- ☐ 사업부서
 - 인권센터, 남북교류팀
- ☐ 추진체계
 - 충남 하나센터, 시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등

4-2

북한이탈여성가족을 위한 충남형 사회적 포용정책

1) 선정배경(필요성)

-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정책,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살펴봄. 그 결과,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음. 또한 이주민을 위한 정부정책의 대상자에 새터민을 포함시켜 주기를 원하였음.
- ☐ 그러므로 북한이탈여성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장 힘들다고 응답한 사항에 대한 지원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예컨대, 남한 문화교육 및 체험, 자녀를 위한 대학진로정보 제공 및 학업지원, 정서적 지원서비스, 복지사각지대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포용성 확대 등임.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이주민 정책대상에 북한이탈주민 포함하여 북한이탈여성과 자녀의 상대적 박탈감 완화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2021년 ~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여성과 자녀
- ☐ 사업내용
 - 북한이탈여성과 자녀가 국제결혼이주여성과 동일한 정책적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
- ☐ 사업부서
 - 남북교류팀, 여성가족정책관실, 저출산보육정책과
- ☐ 추진체계
 - 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3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지원 확대

1) 선정배경(필요성)

- ☐ 문화생활(영화감상, 등산, 운동 등) 참여수준을 살펴본 결과, 26%는 참여하지 못하는 편으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생활 지원이 필요함.
- ☐ 인터뷰 결과, ‘혼자 있는 사람들 위해 여행 지원 필요하고 심리지원 서비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라는 욕구가 나타남. 그러므로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지원 확대가 필요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여성 및 자녀
- ☐ 사업내용
 - 기존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서비스”의 확대를 통하여 가족체험, 1박2일 가족 캠프, 1인 북한이탈여성 가구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 ☐ 사업부서
 - 남북교류팀
- ☐ 추진체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

5-1

북한이탈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1) 선정배경(필요성)

- ☐ 현실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봄. 북한이탈주민 관련 할당을 주면 참여기회가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함.
- ☐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정치참여 방법을 알려주거나 참여기회를 주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연구참여자도 확인됨.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관련된 정책 혹은 분야에 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의사결정과정에 북한이탈여성의 참여 확대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2022년~
- ☐ 사업대상: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조례
- ☐ 사업내용
 - 공공분야에서 북한이탈여성이 의사결정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조례 개정 (사회적 차별금지, 모성권, 당사자 참여하는 내용 추가) 등 법규 보완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협의회 구성에서 ‘북한이탈여성’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
 - 시·군 단위 위원회에 북한이탈여성의 참여 권고 추가
 - 조례명 ‘정착지원’ --> ‘자립지원’ 으로 변경 등
- ☐ 사업부서
 - 남북교류팀, 여성가족정책관실
- ☐ 추진체계: 시·군, 충남하나센터

6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6-1

남북주민 쌍방향 인간존중 캠페인 및 인식개선사업

1) 선정배경(필요성)

- ☐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측면에서 사회적 차별 금지,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인터뷰함.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견 중 하나는 “남한주민이 ‘다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으로 “존중” 해주길 원하였음”. 또한 남한 초등학교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필요하다는 의견이 파악됨.
- ☐ 남한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지 11점 척도(0점~10점)로 질문한 결과, **평균 6.49점으로 약간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행복하게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인지 질문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차별의식을 없애는 교육이나 캠페인’ 이 21.6%로 나타남.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이 필요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남북주민 쌍방향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간존중 캠페인 및 인식개선 사업
 - 남북 출신 도민의 사회적 거리감 축소를 위한 소통교류 사업 확대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
- ☐ 사업대상:
 - 도민, 도내 북한이탈여성
- ☐ 사업내용
 - 남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간존중 캠페인 및 인식개선사업(체육대회, 결연맺기, 상황극 등)
 - 남북 도민의 사회적 거리감 축소를 위한 소통교류 사업 확대
 -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공감대, 유대감 형성을 위한 소규모의 지속적 교류 지원
- ☐ 사업부서
 - 남북교류팀, 공동체정책과, 인권센터
- ☐ 추진체계
 - 충남평생교육원, 지역적응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읍면동 마을공동체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6-2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대상 인식개선 교육

1) 선정배경(필요성)

- ☐ 충청남도로부터 바라는 경제활동 지원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고용주 및 중간관리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이 파악됨.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대상으로 인식 개선교육 필요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편견해소 및 직장 내 괴롭힘 감소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2021년 ~
- ☐ 사업대상:
○ 도내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
-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 ☐ 사업부서
○ 남북교류팀, 경제실
- ☐ 추진체계
○ 충남하나센터, 시군 정착지원센터, 충남평생교육원 등

6-3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교류를 위한 공간 마련

1) 선정배경(필요성)

-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행복하게 잘살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여러 명의 북한이탈여성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내에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지역 내에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통하여 선주민(북한이탈주민), 후주민(북한이탈주민)과의 의견교환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2022년~
- ☐ 사업대상:
- 시·군 북한이탈주민
- ☐ 사업내용
- 지역 내 교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운영
- ☐ 사업부서
- 남북교류팀
- ☐ 추진체계
- 시군, 충남하나센터, 경찰서(보호관찰담당관)

7 노동권

7-1

협업강화를 통한 일자리 연계 확대

1) 선정배경(필요성)

- ☐ 현재 소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함.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 (48.2%) 보다 일을 하지 않는 비율(51.8%)이 높게 나타남.
- ☐ 현재 일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몸이 아파서’ (35.3%), ‘자녀양육 어려움’ (11.6%), ‘남한에서의 경력이 부족함’ (11%),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부족함’ (9.2%), ‘일자리 정보가 부족함’ (6.4%)로 응답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일자리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북한이탈여성 일자리 연계 확대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여성
- ☐ 사업내용
 - 일자리전문기관(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협업 강화
 - 여성, 가족유형, 학력 등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발굴, 정보제공, 일자리 연계 확대
- ☐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일자리노동정책과, 여성가족정책관실
- ☐ 추진체계
 - 지역적응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7-2

취업 북한이탈여성 유·아동 자녀 돌봄 지원 확대

1) 선정배경(필요성)

- ☐ 현재 일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몸이 아파서’ (35.3%), ‘자녀양육 어려움’ (11.6%), ‘남한에서의 경력이 부족함’ (11%)로 응답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북한이탈여성의 유아동 자녀 돌봄 부담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참여 확대 여건 조성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여성 자녀
-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및 초등자녀 돌봄 지원 확대
 - 현행 가족통합사업의 통합강사 파견사업 확대(교육/상담 이외 공백시간대 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소득 대비 높은 이용료 부담 경감)
- ☐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산보육정책과
- ☐ 추진체계
- 지역적응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돌봄 기관/단체

7-3

사회적 경제 부문 일자리 참여 지원

1) 선정배경(필요성)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이 없는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69.6%가 일을 하고 있고, 30.4%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비수급 북한이탈여성이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 부문 일자리 참여 지원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2022년~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여성
- ☐ 사업내용
- 북한이탈여성의 사회적경제 부문 일자리 참여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탈북주민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검토
- ☐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사회적경제과
- ☐ 추진체계
- 지역적응센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군 사회적경제 부문, 충남 일자리진흥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남북하나재단

7-4

북한이탈여성 공공부문 취업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1) 선정배경(필요성)

-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중응답으로 질문함. ‘남한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가 54.8%, ‘남한사람과 같은 말투와 표준말’이 44.7%, ‘남한 주민의 이해와 공정한 대우’가 41%, ‘좋은 직업과 경제적 여유’ 38.6%로 나타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전문직 북한이탈여성의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 확대를 통한 괜찮은 일자리 참여 확대
 - 당사자 수요 맞춤형 정착지원 활성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및 인식개선 도모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2022년~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여성
- ☐ 사업내용
- 북한이탈여성의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 지자체 전문계약직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 시 인센티브 부여
- ☐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 ☐ 추진체계
- 도, 시·군, 공공기관

7-5

노동 인권교육 강화

1) 선정배경(필요성)

- ☐ 항목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사기를 당하지 않는 비법 3.68점(4점 만점),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존감 향상 교육 3.64점(점(4점 만점), 인권교육(인권침해 및 차별금지 등) 3.63점(4점 만점) 순으로 필요성 인식이 높음.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북한이탈여성 노동관련 인권의식 향상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여성
- ☐ 사업내용
○ 북한이탈여성의 인권/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다양한 형식의 교육/워크숍 등) 추진
○ 노동관련 차별,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탈북여성 노동권 교육 확대
- ☐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일자리노동청년과
- ☐ 추진체계
○ 지역적응센터, 노동권익센터

8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8-1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1) 선정배경(필요성)

- ☐ 지난 1년간 남편 혹은 동거인이 폭력적 행동(언어폭력, 심리적 폭력, 기물파손, 경제적 폭력, 신체폭력, 성적 폭력)을 몇 번이나 했는지를 질문함. 그 결과, 가정 내 언어폭력은 13.8%, 심리적 폭력은 6.3%, 기물파손은 5.8%, 경제적 폭력은 7.9%, 신체폭력은 4%, 성적 폭력은 4%정도로 조사됨.
- ☐ 북한이탈여성의 가정 내 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48.5%, 성격문제가 36.4%, 자녀문제가 24.2%로 나타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축소를 위한 사업 강화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주민 가족
- ☐ 사업내용
 - 가정 내 폭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 다양한 폭력 유형에 관한 이해도 향상, 비폭력 소통능력 강화, 위기대응방법 등
 - 아동 자녀에 대한 학대, 폭력 예방교육 포함
 -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폭력 발생 예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 활용
- ☐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저출산보육정책과
- ☐ 추진체계
 - 지역적응센터, 4대폭력예방교육강사 파견기관, 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8-2

부모역량 강화 및 자녀문제 해결 지원

1) 선정배경(필요성)

- ☐ 북한이탈여성의 가정 내 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48.5%, 성격문제가 36.4%, 자녀문제가 24.2%로 나타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자녀문제로 인한 가정 내 갈등과 폭력 예방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주민 가족(부모/자녀)
- ☐ 사업내용
- 자녀양육/교육 관련 부모역량 강화, 가족, 청소년 분야 연계 협업 활성화
 - 자녀양육 관련 갈등요인 파악 및 (상담/사례관리 등) 문제해결 지원
- ☐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여성가족정책관실
- ☐ 추진체계
- 지역적응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3

북한이탈여성의 폭력피해 지원시설 접근성 강화

1) 선정배경(필요성)

- ☐ 북한이탈여성이 배우자·동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경우, 폭력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함. ‘모른다’는 응답이 여성긴급전화 1366의 경우 39.3%, 쉼터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37.8%로 나타남
- ☐ 향후 폭력과 관련하여 향후 받고 싶은 상담 유형을 살펴본 결과, ‘가정 방문 상담(찾아가는 상담)’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은 ‘기관방문 상담’이 24.1%, ‘전화 상담’이 22%임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북한이탈여성의 (1366, 상담소, 쉼터 등)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 접근성 강화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여성
- ☐ 사업내용
 - 1366, 쉼터, 가정/성폭력 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센터 등 지원시설 홍보 강화
 - 찾아가는 방문 등 이용자 배려를 통한 전문상담 이용기회 제공 확대
- ☐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여성가족정책관실
- ☐ 추진체계
 - 지역적응센터, 1366, 여성쉼터, 가폭/성폭 상담소, 충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센터

9 건강권

9-1

건강 및 의료기관 정보 접근성 강화

1) 선정배경(필요성)

- ☐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살펴봄. 주요한 어려움으로 ‘비용이 많이 듦’ 이 12.5%, ‘이용절차가 복잡함’ 이 7.9%, ‘아픈 증상을 설명하기 어려워서’ 가 7.4%로 나타남. 그 외에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서’ 4.5%, ‘어느 병원을 가야할지 몰라서’ 가 2.8%로 나타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북한이탈여성의 건강 및 의료 기관 정보 접근성 강화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주민 여성
- ☐ 사업내용
- 협약 의료기관 위치, 혜택, 연락처 등 홍보 및 이용절차 안내
 - 남한 건강/의료 관련 지원제도 및 이용절차 설명, 리플릿 제작·배포, SNS 홍보
- ☐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보건정책과
- ☐ 추진체계
- 지역적응센터, 보건소, 협약 병원

9-2

북한이탈주민 건강실태조사 및 건강증진정책 수립

1) 선정배경(필요성)

- ☐ ‘40세 이상 49세 이하’ 가 5.08점으로 보통정도로 나타남. 50세 이상은 (10점 만점) 3 점대로 신체적 건강이 나쁜 편으로 나타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북한이탈주민 건강실태조사 및 맞춤형 건강증진정책 수립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2022년~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주민(남/녀)
-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 특성(성별, 소득, 직업 등)을 고려한 건강 실태조사 실시
○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정책 수립 (2023년 시행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 검토)
- ☐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보건정책과
- ☐ 추진체계
○ 건강 전문기관

9-3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

1) 선정배경(필요성)

- ☐ 요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11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신체적 건강(4.65점)과 정신적 건강(4.82점)은 4점대로 ‘건강하지 않은 편’으로 해석됨.
- ☐ 남편의 출신국가별 건강권(10점 만점)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행복감, 신체/정신적 건강에 있어 중국동포(조선족) 출신이 남편인 경우 10점 만점에 5점 이하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행복감은 4.94점, 신체적 건강 4.94점, 정신적 건강 4.18점).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건강 사례관리 강화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여성
- ☐ 사업내용
 - 건강관리•증진사업 대상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진행
 - 성별, 가족유형, 이주배경 등을 고려한 체계적 지원(2023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
- ☐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보건정책과
- ☐ 추진체계
 - 지역적응센터, 보건소, 협약 병원

9-4

북한이탈여성 정신적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1) 선정배경(필요성)

- ☐ 북한이탈 여성은 직장 내 괴롭힘은 6.3%, 가정 내 언어폭력은 13.8%, ‘아는 탈북여성 중에서 노래방 도우미나 술집접대부 경험’에 25%로 조사되어 젠더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클 것으로 보이므로 상담 치료 필요
- ☐ 요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11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신체적 건강(4.65점)과 정신적 건강(4.82점)은 4점대로 ‘건강하지 않은 편’으로 해석됨.
- ☐ 남편의 출신국가별 건강권(10점 만점)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행복감, 신체/정신적 건강에 있어 중국동포(조선족) 출신이 남편인 경우 10점 만점에 5점 이하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
 - 행복감은 4.94점, 신체적 건강 4.94점, 정신적 건강 4.18점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북한이탈 여성의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 해소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계속
- ☐ 사업대상:
 - 북한이탈 여성 중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 사업내용
 - 북한이탈여성 정신적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도농복합도시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전화상담 지원
- ☐ 사업부서
 - 남북교류팀
- ☐ 추진체계
 - 정착지원, 자립지원, 단체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관리사업(도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9-5

한부모 북한이탈여성 건강보장(비급여 병원비) 지원

1) 선정배경(필요성)

- ☐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측면에서 사회적 차별 금지,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인터뷰함.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견 중 하나는 ‘비보험 병원비 지원’ 임.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경제적 부담이 큰 비보험 병원비 일부 지원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2022년~
- ☐ 사업대상:
- 경제적 어려움이 큰 한부모 북한이탈여성
-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비보험 병원비 일부 지원
- ☐ 사업부서
- 남북교류팀
- ☐ 추진체계
- 시·군, 건강보험공단, 협력병원

10 성평등 및 인권의식

10-1

북한이탈여성 여성인권 감수성 향상교육

1) 선정배경(필요성)

- ☐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이 존재하고 일부 성평등의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가정 내 언어폭력은 13.8%, 심리적 폭력은 6.3%, 기물파손은 5.8%, 경제적 폭력은 7.9%, 성폭력 유형중 ‘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은 5.6%, ‘아는 탈북여성 중에서 노래방 도우미나 술집접대부 경험’에 25%로 조사됨.
 - 성평등 · 인권의식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일부 문항에서는 (③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⑤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는 평등 및 인권의식 수준이 낮은 편으로 해석됨.
- ☐ 충남에 정착하여 살면서 필요한 교육을 물어본 결과 양성평등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률교육, 인권교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도내 북한이탈 여성의 여성인권의식 향상 및 지원 기관의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인권 감수성 함양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계속
- ☐ 사업대상:
 - 도내 북한이탈 여성, 북한이탈 여성 지원기관 및 단체 담당자
- ☐ 사업내용
 - 도내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양성평등 교육 실시
- ☐ 사업부서
 - 여성정책관 권익보호팀
- ☐ 추진체계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나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도내 북한이탈 여성 교육 실시

10-2

북한이탈여성 지원기관 임직원 여성인권교육

1) 선정배경(필요성)

- ☐ 북한이탈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보호관찰담당관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에 구제요청을 했다는 면접 사례가 있음.
- ☐ 사회적 관계망 조사에서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45.6%,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경우’에 71.8%,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30.5%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해 북한이탈여성의 사회적관계망이 약한 편으로 해석되므로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도내 북한이탈 여성 지원기관 임직원의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인권 감수성 함양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계속
- ☐ 사업대상:
 - 도내 북한이탈 여성 지원기관 및 단체 임직원
- ☐ 사업내용
 - 도내 북한이탈 여성 지원 기관 및 단체 임직원 대상 북한이탈 여성 인권 감수성 교육
- ☐ 사업부서
 - 여성정책관 권익보호팀
- ☐ 추진체계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도내 북한이탈 여성 지원기관 임직원 교육 실시

10-3

사례중심 사기 피해 예방 교육 강화

1) 선정배경(필요성)

- ☐ 항목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사기를 당하지 않는 비법 3.68(4점 만점),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존감 향상 교육 3.64(점(4점 만점), 인권교육(인권침해 및 차별금지 등) 3.63(4점 만점) 순으로 필요성 인식이 높음
- ☐ 사기 당하지 않는 비법은 동(도시) 지역보다 읍면(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이 교육의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북한이탈주민 사기 피해 예방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주민
- ☐ 사업내용
 - 북한이탈주민 주요 사기 피해 사례중심 교육 실시
 - (수가 적어도) 정보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교육 포함
- ☐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경찰청
- ☐ 추진체계
 - 지역적응센터, 경찰서, 경찰 치안정책연구소(아산)

10-4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참여 확대 지원

1) 선정배경(필요성)

- ☐ 항목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사기를 당하지 않는 비법 3.68(4점 만점),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존감 향상 교육 3.64(점(4점 만점), 인권교육(인권침해 및 차별금지 등) 3.63(4점 만점) 순으로 필요성 인식이 높음.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북한이탈여성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확대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
- ☐ 사업대상:
○ 도내 북한이탈 여성
- ☐ 사업내용
○ 북한이탈여성의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참여 지원 확대
○ 여성 및 이주여성 상담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효과 제고
- ☐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여성가족정책관실
- ☐ 추진체계
○ 지역적응센터, 가폭/성폭 상담소, 충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센터

11 사회인식(사회적 거리감 · 인권존중도 · 사회적 관계망)

11-1

농어촌지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해소사업 실시

1) 선정배경(필요성)

- ☐ 거주하는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되고 있는지 5점 척도로 질문함. 조사결과, 평균 3.30점으로 ‘보통’ 정도의 인권존중을 느끼고 있었음.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비율은 16%인 반면에 존중된다는 비율은 34%로 나타남.
- ☐ 인권존중도는 읍면지역(3.12점) 보다 동 지역(3.40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농어촌 도민의 이해 제고 및 사회적 편견 해소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농어촌 도민
- ☐ 사업내용
 - 농어촌 도민 대상 인권의식 향상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해소 사업 실시
 - 인권 및 문화다양성 의식 강화 사업 추진 시 북한이탈주민 이슈 반영
 - 읍·면·동 통리장 교육(연수)시 교육 내용 추가
- ☐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문화정책과
- ☐ 추진체계
 - 지역적응센터, 문화재단, 시·군 및 읍면·동 인권담당부서

11-2

공식/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망 확대 지원

1) 선정배경(필요성)

- ☐ 위험한 상황 발생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봄.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에 54.4%(있음) vs 45.6%(없음)로 나타남. 또한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경우’에 28.2%(있음) vs 71.8%(없음)로 나타남. 그리고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69.5%(있음) vs 30.5%(없음)로 나타남.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편’으로 해석됨.
- ☐ 남한 주민이 포함된 사모임 참여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없다는 비율이 49.7%로 나타남.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북한이탈여성의 사회적 관계, 지지망 확대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0) / 신규 사업 ()
- ☐ 사업기간: 2021년~
- ☐ 사업대상:
 - 북한이탈여성
- ☐ 사업내용
 - 북한이탈여성 소모임과 남한 여성 소모임 연결,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확대
 - (선후배) 북한이탈여성 간 연결, 북한이탈여성과 남한 선주민 연결사업 확대(멘토링)
- ☐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여성가족정책관실 권익보호팀
- ☐ 추진체계
 -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여성/시민단체

12 자립지원 정책

12-1

북한이탈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자조모임 지원사업

1) 선정배경(필요성)

- ☐ 북한에서 온 여성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만든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봄. 28%가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함. 반면에 72%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 북한에서 온 여성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만든 자조모임 활성화 필요성은 66.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자조모임이 북한이탈 여성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비슷한 삶을 경험한 북한이탈 여성들의 자존감 향상 및 역량강화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계속
- ☐ 사업대상:
 - 도내 북한이탈 여성
- ☐ 사업내용
 - 자녀양육, 경제, 심리/정서적 지지, 자원봉사 등 다양한 성격의 자조모임 활성화
 -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및 자립적 운영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 활동 확대 지원
- ☐ 사업부서
 - 남북교류팀, 여성가족정책관실
- ☐ 추진체계
 -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지역적응센터
 - 여성가족정책관실 가족다문화팀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2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사업

1) 선정배경(필요성)

- ☐ 북한의 삶 경험이 남한사회 적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한 결과, 적응이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즉, “북한사람들은 대화시 직선적으로 말하는데, 남한사람들은 돌려서 말하고,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욕함(인격모독). 또한 북한에서는 단체(아침부터 저녁까지)로 일하는데, 남한에서는 개인적으로 일하여 적응 힘들다” 는 의견이 있었음.
- ☐ 한편, 북한이탈주민 행사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질문에 “북한이탈주민을 만나서 편하고, 서로의 어려움(경제적, 건강, 구직, 직장생활 등)” 을 얘기함.
- ☐ 초기 정착하는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하나원의 3개월 교육 후, 지역하나센터에서 9일 초기집중교육을 받은 후, 6개월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개인생활을 한 뒤에는 독립적으로 생활해야만 함. 현재 하나원과 지역하나센터의 교육만으로 낮은 남한사회 노동시장에서 생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 충남에 거주한 후 약 1년 동안 1개월에 한 번씩 초기집중교육을 통하여 북한출신 주민도 만나고, 남한사회의 사회적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음.

2) 향후 추진과제

- ☐ 사업목적
 - 초기 정착한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초기집중교육(자조모임, 캠프 등) 프로그램 통하여 충남의 사회적응 지원
- ☐ 사업구분
 - 기존 사업 () / 기존보완 사업 () / 신규 사업 (0)
- ☐ 사업기간: 계속
- ☐ 사업대상:
 - 도내 초기 정착하는 북한이탈 여성
- ☐ 사업내용
 - 1년 동안 1개월에 한번씩 초기집중교육(자조모임, 캠프 등)을 통하여 충남지역의 사회적 적응 지원
- ☐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 추진체계
 -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지역적응센터

참고문헌

- 강신욱 · 김안나 · 박능후 · 김은희 · 유진영,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희 · 김수정, 김지윤, 신희정, 오선영, 이명희, 이용재, 최성윤, 2019,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관련부서 의견수렴”, 충청남도.
- 권금상, 송미영, 2013, “충남 북한이탈여성 지역사회 적응경험과 지원정책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현안과제.
- 김성천 · 강욱모 · 김혜성 · 박경숙 · 박능후 · 박수경 · 송미영 · 안치민 · 엄명용 · 윤혜미 · 이성기 · 최경구 · 최현숙 · 한동우, 2013, 『사회복지학의 원리와 실제』, 학지사.
- 박현선 · 전연숙 · 조재희, 2018,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연구』, 충청남도.
- 류지웅, 200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연구: 소수자의 관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송미영, 2019, “젠더관점에서의 민·관·학 거버넌스 협력방안 :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과제.
- 송미영, 2008,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한국노년학연구』, 17: 49-72, 한국노년학연구회.
- 송미영, 2011, 『충남 여성노인의 빈곤과 사회적 통합 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서병수, 2005. 4, “한국의 사회적 배제 측정에 관한 연구”,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 721 ~ 741,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수연, 2019,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40년과 한국사회의 성평등”, 『젠더리뷰』, 제52호(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태윤 · 황해동, 2012,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안태윤 · 신정아, 2017, 『젠더관점에서 본 탈북청소년의 탈북과정과 적응실태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안태윤 · 정요한, 2016, “경기도 북한이탈여성 정착실태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7,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정상우 · 서보혁 · 김윤나 · 최정호, 2016,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정해숙, 2012, 이슈페이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복희, 2005, “국제법상 여성의 지위와 인권: 차별금지과 여성폭력철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통권 제27호, 63~75, 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
- 충청남도, 2020, ‘북한이탈주민 통계’, 내부자료.
- 홍승아, 2012, 이슈페이퍼 “북한이탈여성의 부모역량강화(가족-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태운, 2016, 『경기도 북한이탈여성 정착실태연구』,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 최성일 · 이윤희, 2012,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관계부처합동, 2020,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 인터넷 자료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https://www.unikorea.go.kr>, 검색일 2020년 5월 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법”,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년 5월 9일.
- _____, “대한민국헌법”,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년 5월 9일.
- _____,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검색일 2020년 5월 9일.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http://www.elis.go.kr>, 검색일 2020년 5월 10일.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http://www.elis.go.kr>, 검색일 2020년 5월 10일.

하늘꿈중고등학교, 검색일 2020.07.09, <https://www.hdschool.org>
여명학교, 검색일 2020.07.09, <http://ymschool.org/>
드림학교, 검색일 2020.07.09, <http://drim.caesc.kr/>
한겨레중고등학교, 검색일 2020.07.09, <http://www.han.hs.kr/>
남북사랑학교, 검색일 2020.07.09, <http://www.snlschool.com/>
우리들학교, 검색일 2020.07.09, <http://www.wooridulschool.org>
장대현학교, 검색일 2020.07.09, <http://jdhschool.org/>
한꿈학교, 검색일 2020.07.09, <http://www.greatvision.or.kr/>
해솔직업사관학교, 검색일 2020.07.09, <http://haesolschool.org/>
북한에서 쓰고 있는 도·시·군, 검색일 2020. 09. 04,
[https://www.unikorea.go.kr/books/archive/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043&mode=view
&cntId=19503&category=&pageIdx](https://www.unikorea.go.kr/books/archive/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043&mode=view&cntId=19503&category=&pageIdx)
위키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 검색일 2020. 09.05, <https://ko.wikipedia.org/>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입소순위, 검색일 2020. 10.08, <http://www.childcare.go.kr/>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검색일 2020. 10.08, <http://www.law.go.kr/>

부록 1 양적 질문지

ID

충남 북한이탈여성 인권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도는 도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인권센터)는 매년 인권약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인권보장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응답 가능한 사람은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 이외에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숫자로 코딩되어 분석되므로 개인 정보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 6.

연구책임자 송 미 영

본 조사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042-820-0209, 042-820-0271

주 소 : 314-92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283(학봉리 191-5)

연구 참여 및 자료 활용 동의서 (○ 표시)

본인은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에 응하는데 동의하며, 응답내용을 추후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사원 성명	(서명)	조사 완료 일자	월 일



※ 표현의 자유 및 정치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 해 주십시오.

1. 우리 사회(남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간섭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세요?

- ① 입국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간섭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② 입국초기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③ 입국초기에는 안 그랬으나 지금은 간섭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④ 현재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3.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4. 충청남도(지방자치단체)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인 의사결정(대표성)에 참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① 참여수준이 매우 낮다 ② 참여수준이 낮다
 ③ 참여수준이 높다 ④ 참여수준이 매우 높다

※ 실질적인 의사결정(대표성) : 마을의 주민자치위원회, 시민사회, 학교, 단체, 공공기관, 정부위원회, 지방의회,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 해 주십시오.

1. 문화생활(영화감상, 등산, 운동, 책읽기 등)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①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② 참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③ 약간 참여하는 편이다
 ④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주거형태에 대해서 선택해 주세요.

- ① 본인 소유 ② 임대아파트(월세) ③ 임대아파트(전세로 전환) ④ 전세 주택
 ⑤ 월세주택 ⑥ 아는 사람 집에 거주 ⑦ 기타 ()

3.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세요?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③ 약간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4. 최근 1년 간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모두 무엇인가요?

- ① 경제적 어려움 ② 관찮은 일자리 구하기 ③ 자녀 돌봄, 교육, 자녀와의 관계
④ 남편, 남자친구와의 갈등 ⑤ 다른 가족과의 갈등 ⑥ 정신적, 신체적 허약함
⑦ 정서적인 문제(외로움, 복한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우울, 트라우마 등)
⑧ 남한사회의 무시와 차별 ⑨ 기타 ()

5.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었던 경험(사생활 침해)이 있나요?

- ① 예  5-1번으로 이동해주세요 ② 아니오

5-1. 개인 생활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였나요?

- ① 그냥 참았다 ② 친구 혹은 가족에게 얘기했다
③ 상담소를 찾아갔다 ④ 신고했다 ⑤ 기타 ()

6. 북한이탈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정책,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운가요?

- ① 정책 등 정보를 얻기 매우 어렵다 ② 정책 등 정보를 얻기 어렵다
③ 정책 등 정보를 얻기 쉽다 ④ 정책 등 정보를 얻기 매우 쉽다

7. 사회적 배제의 형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 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음 ---> 매우 그렇다
• 일터에서 내가 보유한 능력이나 재능이 무시된다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가난하다고 느낀다 (경제적 배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과장된 언론보도로 낙인 받는 것, 사회적 편견을 느낀다.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정부관계자, 다른 탈북자, 복지기관, 종교인 외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적다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나와 북한출신 친구들이 주거지원 혜택을 지속해서 받으려면 임대주택에 살아야한다 (공간적 배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주위의 북한이탈 아동과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또는 학교에 다녀도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한다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 해 주십시오.

1.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장 혹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부당한 대우 혹은 차별(따돌림, 소외, 사회적 편견 등)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구 분	전혀 차별경험 없음 --> 매우 차별 받는다									
· 직장, 단체, 학교 등 에서 차별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이웃, 친구 등으로부터 차별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차별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남한주민보다 차별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다른 외국인(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국제결혼이민자 등)보다 더 차별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여성 (성별)이어서 더 차별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장(단체, 학교, 학원, 체육관, 사모임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 ① 부당함을 주장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2-1번으로 이동해주세요
 ② 부당함을 주장하고 직장(단체, 학교 등)을 그만둔 적이 있다 ☞ 2-1번으로 이동해주세요
 ③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직장(단체, 학교 등)을 그만둔 적이 있다 ☞ 2-2번으로 이동해주세요
 ④ 그냥 참고 다녔다 ☞ 2-2번으로 이동해주세요
 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 ☞ 2-2번으로 이동해주세요

- 2-1. 차별(승진, 임금 등의 차별, 무시, 성희롱 등)을 주장했을 때 직장(단체, 학교 학원, 체육관, 사모임 등)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 ① 처우를 개선해 주었다
 ② 잘못은 인정했으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③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고, 처우도 개선되지 않았다
 ④ 나를 해고(혹은 제명, 징계, 퇴학) 시켰다

- 2-2. 회사나 조직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같은 일을 하는 남한출신 사람보다 적은 임금을 준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①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② 약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③ 별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④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3.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을 경우, 다음 선택 중에서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모두 골라주세요.

- ①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②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진정하였다
 ③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④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⑥ 언론기관에 제보하였다
 ⑦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⑧ 차별받은 적이 없다
 ⑨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⑩ 기타 ()

4. 사회생활에서 차별 받았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지 2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가족, 친척 ② 북한출신 친구나 직장 동료 ③ 남한 출신 친구나 직장동료
 ④ 종교단체, 민간단체 ⑤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하나센터 등)
 ⑥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관(거주지 보호담당관, 형사, 취업보호담당관 등)
 ⑦ 변호사 등 법률상담소 ⑧ 경찰 등 수사기관 ⑨ 기타 ()

5.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좋은 직업과 경제적 여유 ② 남한사람과 같은 말투와 표준말
 ③ 혈연, 지역과 같은 인맥 ④ 학력과 학벌 ⑤ 남한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
 ⑥ 높은 의사소통 능력 ⑦ 남한 주민의 이해와 공정한 대우 ⑧ 기타()

6.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필요한 2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과 일자리 알선 및 연계
 ② 남한의 문화와 언어 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지원
 ③ 인권에 대한 교육
 ④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차별의식을 없애는 교육이나 캠페인
 ⑤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
 ⑥ 남한출신과 북한출신이 친교하며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노동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 해 주십시오.

1. 현재 소득이 되는 일을 하고 있나요?

- ① 예 ☞ 2번으로 이동해주세요 ② 아니오 ☞ 3번으로 이동해주세요

2. (일하는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직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3. 지난 1년 간 아플 때, 주로 이용한 곳은 어디인가요?

- ① 의료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① 병원, 의원 ② 한의원 ③ 보건소 ④ 약국 ⑤ 기타 ()

3-1.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 ① 어려움 전혀 없음
 ① 아픈 증상을 설명하기 어려워서
 ② 이용 절차가 복잡함
 ③ 비용이 많이 듦
 ④ 원하는 진료과목이 없음
 ⑤ 교통이 불편함
 ⑥ 이용시간이 자유롭지 못함
 ⑦ 의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서
 ⑧ 어느 병원을 가야할지 몰라서
 ⑨ 기타 ()

4. 평소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두 무엇인가요?

- 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② 이성 문제가 원만치 않아서(실연, 파혼 등)
 ③ 신체적 질환, 장애 때문에 ④ 정신적 질환, 장애 때문에
 ⑤ 직장 문제 때문에(실적, 미취업 등) ⑥ 외로움, 고독 때문에
 ⑦ 가정불화로 인해 ⑧ 학교 성적, 진학 문제 때문에
 ⑨ 친구나 동료들과 불화 및 따돌림 때문에 ⑩ 사고나 트라우마 때문에
 ⑪ 우울하지 않음 ⑫ 기타()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 해 주십시오.

1.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학교, 직장, 사회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있으신가요?

문 항	피해경험	
	없음	있음
학교, 직장, 사회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0	1
학교, 직장, 사회에서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0	1
학교, 직장, 사회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경험하였다.	0	1
학교, 직장,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였다.	0	1

1-1. 직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성적 괴롭힘을 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해당하는 것에 체크해 주세요.

- ① 남한 직장 상사 ② 남한 직장 동료 ③ 북한에서 온 동료
 ④ 다른 나라에서 온 동료 ⑤ 기타 : ()

<가정폭력>

1. 지난 1년간 남편 혹은 동거인이 폭력적 행동을 평균적으로 몇 번이나 하였나요?

문항	지난 1년간 (2019.6.~ 2020.06)						
	없음	1회	2회	3-5회	6-10회	11-20회	20회이상
·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했다 (언어폭력)	0	1	2	3	4	5	6
·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심리적 폭력)	0	1	2	3	4	5	6
· 물건을 파손하였다 (기물파손)	0	1	2	3	4	5	6
· 생활비 등을 주지 않았다 (경제적 폭력)	0	1	2	3	4	5	6
·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신체 폭력)	0	1	2	3	4	5	6
· 내가 원치 않았으나 상대방이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성적 폭력)	0	1	2	3	4	5	6

1-1.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 표시해 주세요.

- ① 경제적인 문제 ② 성격 문제 ③ 시가, 처가 문제 ④ 음주문제
 ⑤ 자녀문제 ⑥ 이성문제(외도) ⑦ 아무 이유 없이 ⑧ 기타 : ()

2. (가장 심각했던 가정폭력피해 경험에 대해) 남편(애인)의 폭력행동이 있을 당시에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 ① 그냥 당하고 있었다 ②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갔다
 ③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다 ④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⑤ 기타 : ()

3. 배우자·동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구분	모른다	알고 있고, 이용해봤다.	알지만, 이용하지 않았다.
경찰 신고	1	2	3
여성긴급전화 1366	1	2	3
쉼터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1	2	3

4. 가정폭력 폭력 감소를 위해 다음 중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보기 중 중요한 2개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보 기 ＞	
① 폭력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②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육의 강화	
③ 동료(북한이탈주민 출신)상담원의 양성 및 배치	
④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⑤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홍보 계몽 강화	
⑥ 가정폭력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⑦ 원만한 가족관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⑧ 폭력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	
⑨ 남성 대상 인권 및 폭력 예방 교육	
⑩ 기타()	

＜성폭력＞

1. 다음은 성과 관련된 피해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신 내용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응답	
	없음	있음
· 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	0	1
· 생각과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 (스토킹)	0	1
·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 말이나 몸짓으로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행동 (성희롱)	0	1
· 고의로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 (가벼운 성추행)	0	1
· 생각을 무시하고 키스, 성기접촉, 애무 등 강제로 추행하는 행동 (심한 성추행)	0	1
· 생각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함 (강간)	0	1
· 어쩔 수 없이 일정한 대가를 전제로 성행위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권유 받은 일	0	1

2. 만약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 ② 가족,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③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다
- ④ 경찰에 신고했다
- ⑤ 기타 ()

<성매매>

※ 성매매란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아는 탈북여성 중에서 노래방 도우미나 술집 접대부(단순 서빙은 제외)등을 해 본 경험
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2. 아는 탈북여성 중에서 성매매를 권유받은 사람이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3. 아는 탈북여성 중 성매매를 한 사람이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4.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청
남도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보기 중 중요한 2개를 선택
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보 기 >

- ① 탈 성매매 관련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 ②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정 소득이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③ 동료(북한이탈주민 출신)상담원의 양성 및 배치
- ④ 성구매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 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업지원
(예.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
- ⑥ 자활지원센터(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의
법률 지원
- ⑦ 상담소·쉼터 등 성매매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 ⑧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 ⑨ 선불금 등 빚을 갚아주는 경제적 지원
- ⑩ 기타()

〈폭력피해 상담 및 치유 경험〉

1. 폭력문제(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모두 포함)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② 없다

1-1. 상담은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2. 향후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모두 포함)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 ① 전화상담 ② 인터넷 상담 ③ 기관 방문 상담
④ 가정 방문 상담 (찾아가는 상담)
⑤ 기타()

※ 성평등 및 인권의식 등 관련 교육에 관한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 해 주십시오.

1. (성평등/인권 의식)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선택해 주세요.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 해야한다	1	2	3	4
•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다.	1	2	3	4
•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한다	1	2	3	4
•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1	2	3	4
•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	2	3	4
•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당하고 신고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1	2	3	4
• 아내를 때리는 것은 집안일이지 다른 사람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	1	2	3	4
•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하는 것은 폭력이다	1	2	3	4

2. 충남 지역사회 정착한 후 아래의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항목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육	1	2	3	4
· 가정폭력 예방교육	1	2	3	4
· 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	1	2	3	4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률교육	1	2	3	4
· 인권교육(인권침해 및 차별금지 등)	1	2	3	4
· 경제교육	1	2	3	4
· 사기를 당하지 않는 비법	1	2	3	4
·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존감 향상 교육	1	2	3	4
*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				

※ 사회인식(사회적 거리감, 인권존중도, 신뢰,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 해 주십시오.

1. (사회적 거리감) 낯한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감을 느끼시나요?

거리감을 매우 느낀다		보통					거리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⑦

2. (인권존중도)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전혀 존중 안됨	약간 존중 안됨	보통	약간 존중	매우 존중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적 관계망) 아래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평가 요소	있음	없음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①	②
·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긴 경우	①	②
·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①	②

1-1. 자녀가 학교(대안학교 포함)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학교공부를 따라가기 힘들어서 ②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③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④ 학교를 다니기 위해 준비 중
 ⑤ 기타 ()

1-2. 학교(대안학교 포함)를 다니지 않을 때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 ① 집에 혼자 있다 ② 학원을 다니며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③ 아르바이트 한다 ④ 취미활동(게임, 운동 등) ⑤ 기타 ()

2.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① 부모님 ② 학교선생님 ③ 학교의 남한친구 ④ 형제자매
 ⑤ 교회, 복지관, 단체 등의 선생님 ⑥ 혼자 고민 ⑦ 기타 ()

3. 학교에서 자녀가 차별, 배제, 따돌림, 소외 등의 경험이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4. 자녀가 있는 경우, 어느 지역에 살고 싶으세요?

- ① 도시지역 ② 농촌지역 ③ 도시와 농촌 복합지역 ④ 상관없다 ⑤ 기타 ()

5.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① 친구관계 ② 학교수업 따라가기 ③ 선생님들과의 관계
 ④ 문화, 언어적응 ⑤ 기타 ()

6.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①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② 학습(공부)지원 ③ 진로(진학 및 취업) 지원
 ④ 의료지원 ⑤ 친구교류 등 적응 지원 ⑥ 기타 ()

※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 해 주십시오.

1. 연령을 적어주세요. 만 () 세

2. 남한에서의 최종학력을 선택하여 주세요(검정고시나 학점인정 교육 등 포함).
 - ① 남한에서는 학교나 정규교육과정을 다닌 경험이 없음 ② 초등학교 졸업
 -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학(2~3년) 졸업
 - ⑥ 대학교(4년) 졸업 ⑦ 대학원졸업이상(석사학위이상) ⑧ 기타 ()

3. 현재 충남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① 천안시 () ② 공주시 () ③ 보령시 () ④ 아산시 () ⑤ 서산시 ()
 - ⑥ 논산시 () ⑦ 계룡시 () ⑧ 당진시 () ⑨ 금산군 () ⑩ 부여군 ()
 - ⑪ 서천군 () ⑫ 청양군 () ⑬ 홍성군 () ⑭ 예산군 () ⑮ 태안군 ()

4. 충남의 거주지역(행정구역)을 읍·면·동 중에서 선택하여 주세요.
 - ① 읍 () ② 면 () ③ 동 ()

5. 현재의 혼인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결혼한 적이 없음 ② 결혼했음 ③ 동거 중 (사실혼 관계) ④ 별거 / 이혼
 - ⑤ 사별 ⑥ 기타 ()

6. 결혼하신 경우, 현재의 남편은 어디 출신인가요?
 - ① 북한 ② 남한 ③ 조선족 ④ 조선족 외 중국민족(예. 한족) ⑤ 기타 ()

7. 결혼경험(사실혼 포함)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 ① 북한 내 ② 중국 체류시 ③ 중국 외 다른 나라 ④ 남한 정착 이후

8.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님 ③ 기타 ()

9. 직업은 무엇인가요?
 - ① 주부 ② 사무직 ③ 생산직 ④ 전문직
 - ⑤ 자영업 ⑥ 서비스직 ⑦ 학생 ⑧ 무직
 - ⑨ 기타 직업 ()

10. 현재 생활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11. 종교는 무엇인가요?

- ① 종교 없음 ② 불교 ③ 개신교
④ 천주교 ⑤ 원불교 ⑥ 기타 _____

12. 가구 소득활동 형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 ① 맞벌이 ② 외벌이 ③ 해당사항 없음

13.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 인가요?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③ 201~300만원
④ 301~400만원 ⑤ 401만원~500만원 ⑥ 501만원 이상

14.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혼자 ② 남편(남자친구) ③ 친척 ④ 부모님(시부모·친정부모)
⑤ 자녀 ⑥ 친구 ⑦ 기타 동거인 ()

15. 귀하의 자녀는 몇 명인가요 ?

여 () 명, 남 () 명

16. 남한에서 생활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적어주세요.

()년 ()개월

17. 충청남도나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① 전혀 도움이 안됨 ② 도움이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18. 북한 최종학력은 선택해주세요.

- ① 소학교(인민학교)졸업이하 ② 고등중학교 졸업 ③ 전문학교 졸업
④ 대학교졸업 ⑤ 준박사 이상

19. 북한에서의 직업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노동자 ② 농민 ③ 군인 ④ 사무원 ⑤ 가정부양 ⑥ 장사 ⑦ 기타 ()

20. 북한 출신지역은 어디인가요?

- ① 함경북도 ② 함경남도 ③ 량강도 ④ 자강도 ⑤ 평안북도
⑥ 평안남도 ⑦ 황해북도 ⑧ 황해남도 ⑨ 강원도 ⑩ 평양시
⑪ 개성시

21. 입국시 함께 온 가족 혹은 친척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혼자 ② 남편(배우자, 남자친구) ③ 부모 ④ 자녀 ⑤ 친척 ⑥ 기타 ()

22. 북한이탈 경로를 선택하여 주세요.

- ① 남한으로 직접 입국 (직행) ☞ 22-1으로 이동해주세요
 ②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 ☞ 22-2으로 이동해주세요

22-1. 경유한 국가와 체류기간을 적어주세요 (, / 약 년 개월)

22-2.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국가와 체류기간을 적어주세요 (/ 약 년 개월)

23. 탈북이후 남한에 입국하여 원치 않은 결혼 경험이 있으신가요?

- ① 예 ② 아니오

24.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손해를 본 경험을 선택해주세요.

- ① 사기당한 경험이 없다 ② 결혼사기 ☞ 24-1번으로 이동해주세요
 ③ 취업사기 ☞ 24-1번으로 이동해주세요 ④ 다단계 사기 ☞ 24-1번으로 이동해주세요
 ⑤ 브로커 사기 ☞ 24-1번으로 이동해주세요 ⑥ 기타 ()

24-1. 누구로부터 사기를 당했나요?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남한주민 ② 북한이탈주민 ③ 외국인 ④ 기타 ()

25. 남한에 와서 사는 것을 후회를 해본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25-1. 후회를 한다면 가장 큰 이유가 모두 무엇인가요?

- ①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 ② 북한에서 생각했던 자유와 다르다
 ③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크다
 ④ 남한 사람과 비교되는 삶에 자존감이 떨어진다 ⑤ 건강이 좋지 않다
 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차별

26. 남한 들어올 때 사용한 브로커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들었나요?

- ①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다(이유:)
 ② 100만원~200만원 ③ 201만원~300만원 ④ 301만원~400만원 ⑤ 401만원~499만원
 ⑥ 500만원 이상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부록 2 질적 질문지

충남 북한이탈여성 인권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는 도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인권센터)는 매년 인권약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인권보장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것입니다.

인터뷰 응답 가능한 사람은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 이외에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숫자로 코딩되어 분석되므로 개인 정보는 철저한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 6.

연구책임자 송 미 영

본 조사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 042-820-0209, 042-820-0271

주 소 : 314-92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283(학봉리 191-5)

연구 참여 및 자료 활용 동의서 (○ 표시)

본인은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에 응하는데 동의하며, 응답내용을 추후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사원 성명	(서명)	조사 완료 일자	월	일

※ 실질적인 의사결정(대표성) : 마을의 주민자치위원회, 시민사회, 학교, 단체, 공공기관, 정부위원회, 지방의회,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3.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4.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10대 때부터 현재까지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5.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북한이탈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도움(정보, 정책, 서비스 등)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나요?
6.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장이나 일상생활(가정, 구직활동, 배우자 선택 등)에서 겪은 차별 경험(소외, 따돌림, 성적희롱, 무시, 추행, 편견 등)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7.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직장 내 차별,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등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8.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사회적 차별 금지, 정착 지원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9. (노동권) 일(직장생활, 취업활동)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예. 일자리 찾는데 사회적 관계망 부족, 연령, 문화적 차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의사소통의 어려움(언어장벽), 능력부족, 자녀육아부담 등
10. (노동권) 충청남도로부터 일자리 알선 등 소득활동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11. (건강권) 충청남도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나요?
* 예. 심리적 스트레스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직장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망 부족으로 인한 외로움 등

12.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가정폭력,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경험이나 대처방법을 얘기해주세요.
13. (정책지원) 충청남도 혹은 거주하는 지역(시·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14. (정책지원) 북한이탈주민의 가족형태는 주로 어떠한가요? 가족 내 갈등 또는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15. (정책지원) 북한출신으로 구성된 자조모임에 참여하세요? 자조모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조모임(새터민 단체 등)이 잘 안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15-1. 주위에서 남한 적응을 잘한 사례가 있나요? 북한의 삶 경험이 남한사회의 적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나요?
16. (정책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제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17. (모성권) 임신, 출산, 신생아 건강관리 등 관련하여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18. (육아권)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어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가요?
19. (교육권)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20. 탈북 이후 한국에 입국하여 원치 않은 결혼 경험이 있으신가요? 결혼경험 횟수(사실혼 포함)는 몇 번인가요?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부록 3 인터뷰 매트릭스

〈부표 1〉 북한이탈여성 인터뷰 (10명)

범주	a	b	c	d	e	f	g	h	i	j
일반적 특성	만 54세, 1혼, 중 국, 자녀 있음, 18 년, 4년	만 51세, 미혼, 자 녀 없음, 9년, 4년	만 53세, 기혼, 2 혼, 한국, 자녀 있 음, 16년 2개월, 4 년 10개월	만 46세, 기혼, 1 혼, 북한, 자녀 있 음, 1개월, 4년	만 46세, 이혼, 2 혼, 자녀 있음, 10 년, 10년 9개월	만 26세, 미혼, 0 혼, 자녀 없음, 1 개월, 10년	만 55세, 미혼, 2 혼, 북한, 자녀 있 음, 9년 6개월, 5 년 9개월	만 57세, 미혼, 2 혼, 자녀 있음, 18 년 5년	만 41세, 기혼, 2 혼, 북한, 자녀 있 음, 14년, 10년	만 47세, 기혼, 2 혼, 중국, 자녀 있 음, 9년, 12년
1. 북한이탈여성 보다 북한이탈 여성이 남 한에 더 많이 살고 있는 이 유는 무엇인 가요?	- 북한에서는 남성 들이 같이 협력 해서 하려고 하 지 않아 여성들 의 부담이 많음	- 여자가 남자에 게 잘해야 한다 봉진재, 가부 장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있음	- 장사부터 시작해 서 집안일까지 북한에서 여성은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큼	- 인신매매로 팔 려가는 여성들 이 중국에서 남 한으로 올	- 스무살에 결혼해 서 9년 동안 못 고 살다 나왔음	- 북한에서 남자는 하루이고 여자는 평이라는 풍신사 상이 많고 여자 들이 빨리 결정 하고 나옴	- 북한에서 여자 가 벌어먹고 살 아야 하니 살기 힘들어서 중국 으로 넘어간 여 자는 중국에 팔 려가는 어쩔든 사 보호해주는 사 람이 있는 반면 남자들은 넘어 가기가 어려움	- 중국에 결혼 못 한 남자들이 북 한여자를 북 매함	- 배급이 끊기면 서 먹고 살기 힘들어져 여자 들이 밖으로 나 와서 일하기 시 작하고 그러다 가 중국을 왔다 갔다하며 사는 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됨	- 고난의 행군 시 기부터 북한 여 자들이 중국으 로 많이 팔려가 고 중국에 체류 하다가 남한으 로 오게 됨
1-1. 주위에 친한 남한주민 친 구나 이웃이 있나요?	- 직장 친구 - 반만에 좋지 않 게 생각하는 사 람들도 있음	- 직장동료들	- 직장동료 - 글로벌프스재단 활동하면서 남 한사람들도 친 하게 지냄	- 직장동료들, 직원 단체 활동도 함	- 봉사 등 사회활 동 하다 만난 남한 친구 많음	- 대학교에서 만 난 남한 친구, 사회에서 만난 남한 친구 많음	- 옆집이랑 눈인 사 하고 뒤 생 기면 나뉘는 정도임	- 직장동료, 아이 유치원 학부모들 이랑 친구가 됨	-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친한 남한 친구 있음	-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친한 남한 친구 있음
1-2. 북한이탈주 민 행사에 참여한 경 험이 있는 경우, 경험 에 대해 예 기해주세요	- 1년에 한번 중 남하나 센터에 서 하는 체육 대회, 여행을 가기도 함 - 지역 자원에서 추석, 설에 식 물도 줌	- 군청에서 명절 에 꼭 찾아주는 데 그게 참 감 사하고 몸들함	- 송년회 때 민주 평통에서 센터 민에게 선물을 줌.	- 아는 사람이 탈 북민 밖에 없으 니까 다단계나 유혹집게에 서 로를 끌어들이	- *어울림 한마 당*, 충남하나 센터 체육대회 때 대한 홍보하 는 사람에 속 아서 대회에 들 어갔고 강호재 단에서 대출반 은 등록금을 떠 안음	- 행사를 도우려 가거나 참여하 려 가기도 함	- 남한에 형제 자 매가 없으니까 송년회 하면 마 음이 좋음	- 다양한 행사가 있음. 한국문화 를 알 수 있는 게기가 되니까 좋음	- 체육대회에 참 여하고 있음. 아무래도 고향 얘기도 하고 하 니까 마음이 통 하고 편함	- 민주평화통일 행사에 참가하 고 있음. 같은 새터민이어도 성격차가 있고 마음 통하는 사 람끼리 모여 앉 아서 밥도 먹고 얘기를 나눔
1-3. 내가 북한을 알고 난 후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낀 적이 있 나요?	- 북한 출신임을 밝히면 남한사 람들 표정이 굳어짐 - 시간이 지나 직장동료들도 나 에게 적응을 함	- 낯보는 느낌이 들 - 낯보는 느낌이 들	- 북한 사람들이 얼은 성격이 있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일이 없음. 직접적으 로 말함	- 직접적인 말투 때 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음	- 북한 출신인 걸 말하면 반기워 하는 느낌임	- 대학교 엘리 가 서 친구들에게 북한에서 왔다고 했다니 친구들이 잘 왔다고 함	- 북한 사람보다 조선족을 우대 하는 경향 때문 에 북한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가 있음	- 태도가 달라짐. 잘 왔다는 사람 도 있고 도로 가라는 사람도 있음	- 면접보러 가서 북한에서 왔다 고 하니 서류를 달렸음	- 북한사람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판임.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아 닌 사람도 있으 나 개러지 않음

범주	a	b	c	d	e	f	g	h	i	j
2. (표현의 자유 및 정치참여) 실천적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경험이나 참여할 기회가 있더라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참여 경험 없음. - 있다고 해도 편 가르기 할 것 같음		- 어느 정치인이 좋은 사람인지 잘 몰라서 신거전에 투표할 안 했음 -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 같음	-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투표를 한번 했음 - 북한에선 신거지명이 무조건 김일생만 찍으면 되는 거였는데 남한은 선거 여러개고 했음	- 참여 많이 하고 있음 - 중앙에서 하는 프로그램 국회 현이탈주민 관련 사항은 하고 싶은 말을 함	- 새터민끼리 회비 걷어서 요양센터 가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취지는 좋았는데 결국 호지부지 되었음	- 문제인데통령 선거할 때 참견하고 그 외엔 참여하지 않음 - 아이 학교 교통 정리하는데 참여한 적은 있으나 다른 건 참여 안함	- 주변에서 해보라고 해서 아파트 선거위원장 하고 있음	- 몇 년 전부터 공주시에 탈북자들이 포일 장소 하나 제공해달라고 했으나 공주에 하나센터 있다가 천안으로 합쳐져서 공주시는 좀 소홀함	- 회사에서 새터민들이 포일한 모임에 이사님 해보라해서 의견을 말함 - 기회가 없지만 기회가 있다면 참여해보고 싶음
2-1. (표현의 자유 및 정치참여) 북한이탈주민도 충청남도 (지자체)에서 다른 도민과 동일한 정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신가요? 그리고 지역 및 정책 결정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대표성)과정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투표는 했음. 남한에 오기 전에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음 - 나서고 싶지 않음	- 나서고 싶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간은 경우 대부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이 없으니 거의 불가능함	- 대부분 없다고 봐야함 - 정부, 공공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의사결정 사항에 참여하면 참여하고 싶음	- 예전에 지도교수님이 양승조 도시장을 위한 스마트 위원회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함 - 남북화합지역봉사센터라고 이탈주민들로 봉사단체를 구성하고 회비를 2만원씩 걷어서 자넉까지 봉사할 했으나 회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작년 10월부터 그 만들 - 참여할 기회를 줘야함	- 청양 젊은 농부들이 하는 4H 회원임 -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하고 사업비가 남았는데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회사랑 연계해서 어르신들 물품 사고 조 나눠서 집집마다 나눠 드리는 아이디어를 냈음	- 정보를 알려주고 참여할 만한 면 참여할 생각도 있음	-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선거위원회에서 선거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힘들	- 북한이탈주민 입장을 표현할 단체(비영리법인)를 만들려고 제안함 - 힘있는 사람들이 후원인으로 있어야 비영리 법인을 만들 수 있음	-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 스스로 참여하기 어려움 - 행사에 참여하면서 배우는 것이 많아서 행사에 참여하려고 함 - 누군가 이끌어 주면 참여하고 싶음
3. (의견다툼생각 있는 집) 살고 있는 집이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주거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함. - 딸이 있어서 방이 1개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좋음	- 불편한 점 없고 - 처음 원룸으로 배정받았는데 당침신청 후 바뀌어 방1개 짜리로 이사해서 만족함	- 처음에 15명을 받았는데 혼자 살기에 편찮았으나 딸이 중국에서 오니까 좀 불편했음	- 세식구가 살기에 지금 집은 17평으로 좀 작음	- 처음에 배정받은 집은 편찮았으나 북한이탈주민한테 사기를 당해서 임대 아파트에서 나오게 됨	- 3평 정도되는 방에 동생과 딸마와 살고 있어 지금 불편한 건 많지만 불편하면 끝이 없음 - 지금은 익숙해져서 만족함	- 북한에서 갈 살았다고 해도 이된 집에서 못살아봤음 - 만족함	-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가만만 갖고 있는데 배가 아파서 내 집이구나. 생각하니 좋았음	- 주공아파트가 처음엔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어서 좋았으나 아이가 크니 집이 좁고 불편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중임	- 집을 사서 임대주택에서 나왔음 - 집이 21평 아파트인데 주택에서 살고 싶고 내 집이라서 이민하면 만족함

번호	a	b	c	d	e	f	g	h	i	j
4.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10대 때부터 현재까지 남편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 남편사람들이 자기보다 일을 잘하거나 하면 눈에 가시로 여겨는 경향이 있음	- 문화와 언어에 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스트레스를 받음 - 내가 일을 많이 하니 뒤에서 험담을 함	- 자녀문제 - 중국에서 온 아이에 대해 배려가 없음 - 실제로 북에서 온 아이들보다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데 비해 대할 때 북한에서 온 아이들을 하고 차별이 있음	- 북에서도 의무교육인데 생활 곤란으로 학교를 못가는 경우가 많아서 학력 이 좀 떨어져짐 - 아들도 북에서는 공부를 좀 하는 애인데 남한에 와서 학교를 가니 실력이 떨어졌음 - 진로에 대한 정보도 없고 어려워서 하고 있음	- 서류 준비하는 게 힘들	- 처음에 제일 힘들어. 인 - 일하나 처리하러고 서류 준비하면 하루 종일 걸림 - 돈 없으면 살기 힘들	- 올해 10월이면 남한에 온지 6년인데 남한에 친척도 없이 딸과 저 밖에 없으니 북에 두고 온 혈육, 가족이 큼	- 북한에 두고 온 자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큼	- 남편이 요리사인데 장사 안되면 다른 곳을 찾아 산에서 배어생기니까 저축이 안됨 - 경제적 어려움이 큼	- 딸이 9살 때 중국에서 데려왔는데 또래관계도 어렵고 학업도 뒤처짐 - 생활하다가 사고났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산에서 내려오던 트럭에 치여서 이가 10대가 넘게 나갔음 - 1년에 걸쳐서 치료 받았는데 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어서 합의금을 작게 받음
5.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북한이탈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도움(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등)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 국경원이랑 하포사당 「동포사랑」 책을 보내줌. 사회제도에 관한 내용이 써있음 - 재난지원금은 문자보고 알았음	- 국경원이랑 하포사당 「동포사랑」 책을 보내줌. 사회제도에 관한 내용이 써있음 - 재난지원금은 문자보고 알았음	- 잘 모름 - 공짜 돈을 별로 신경 안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음	- 그 단체를 지지했었으나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음	- 잘 모름 - 교차로를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게 있어 출장요리 배우려고 연락했더니 다문화만 무료라고 함	-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애들도 교육시키고 어디 데려가기도 하던데 새터민을 위한 건 없음	- 재도나 해태에 대해서는 잘 모름 - 아이 학교에서 온 가정통신문 보고 신경하라고 할 때 신경함	- 지원해주는 거 있음	-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정책을 검색해보고 있음 - 하나계단에서 아이학습지원, 의료보험 검색했음	- 잘 모름 - 필요할 때 통일부 진화해서 알 아볼 때가 있음 - 말 장학금 준다 - 고 친화하면 알게 됨
6.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장이나 일상생활(가정, 구직활동, 배우자선택 등)에서 겪은 차별경험(소외, 따돌림, 성희롱, 편견 등)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 처음엔 직장에 들어갈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으나 따돌림은 없었음	- 시설과 직원이 손씻고 나오다가 물을 내일 끝에 뿌렸는데 인격모욕이라고 생각함 - 내가 북한이탈주민이고 혼자 사니까 임신여부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함	- 평안도 살던 사람이 양강도에서 살면 텃새가 있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음 - 상해에서 근무하던 회사가 남한에도 있어서 갖는데 탈북민인데다 나를 낙하산으로 생각하고 왕따 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서 처음 3개월은 힘들었음	- 처음에 내가 북한사람이어서 그에게 하는구나 느꼈는데 나중에 후배들을 보니 다 그런 경우를 당하는 걸 보니 그냥 공장 선배들의 텃새인 걸 알게 됨	- 직장을 갈해서 일반인들한테 무시당하고 하진 않음 - 축발집에서 사리를 구한데서 연락해서 북한에서 왔다고 했더니 북한 사람인다고 했음	- 동네가 좁고 새터민이 얼마 없는데 그 중 노래방 아가씨들이나 다방에서 일해서 새터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음	- 식당에서 일할 때 13시간 일했는데 북한사람이라고 10시간 일한 것 밖에 돈을 안줬음	- 핸드폰 할 때 당함	- 사회복지사 따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다 떨어짐 - 재가요양시설 면접을 갔는데 북한에서 왔다 - 하니 서류를 딱 덮음	- 회사 다닐 때 10년 일한 북한이탈주민 친구가 승진을 못하고 남한 직원이 승진을 함 - 회사에서 남한사람들끼리 문쳐서 어렵고 힘든 일들 새터민에게 시키려고 함 - 식당 서빙했는데 장사가 잘 안된다고 나이 많은 남한 직원 이 아닌 나를 일주일에 잘 앉음

범주	a	b	c	d	e	f	g	h	i	j
7. (차별당하지 않 을 권리) 직장 내 차별, 일상 생활에서의 차 별 등에 대하 여 어떻게 대 처했습니까?	- 그런 일 없었음	- 그 직원에게 '나잇살먹고 그 랑게밖에 행동못 하나, 물 털 데 가 없어서 사람 얼굴에 타나'고 직접 따집	- 싸워서 질리면 내 손에 일단 은 참았음	- 참으면 회사 계 속 다니는 거고 아니면 그만둬 야함	- 가끔 사람들이 북한 사람 흉보 거나 하면 '북 한에서 와서 죄 송합니다.' 하고 웃어 넘김 - 한 친구는 3년 간 13번 회사를 옮김	- 대학교 때 같은 과에 새터민 여 자에게 있었는 데 북한이탈주 민 아니라고 하 고 왕따를 당함	- 시간이 10시간 시급만 주길래 항의 했으나 반 아들여지지 않아 서 그냥 그만둬 -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신고 한 새신발을 학 생들이 화장을 에 때뜨렸음 - 왕따를 세토 사 서 보았는데 그 걸 가위로 잘랐 고 놀람도 받음	- 핸드폰 기계 문 제 생겼을 때 새 휴대폰을 관 에게 부탁했고 2대 기계값 정 구되던 걸 1대 값만 내게 됨	- 어린이집 면접 보고 나서 억울 해서 2번이나 찾아감 - 친주고 대전고 구에 얘기했고 인권위에도 전 화함 - 북한 사람인 걸 묻기 전에 말하지 않기로 결심함	- 부당하다 생각 하면 뭉쳐서 의 견을 말함 - 전산 작업하는 방법을 조장에 게 생산적 모두 에게 알려달라 고 요청했고 그 렇게 됨 - 택시기사에게 북한이탈주민이 아냐냐 사람이 아 니라고 말함
8. (차별당하지 않 을 권리) 사회 적 차별 금지, 정착지원을 위 하여 어떠한 정 책이 필요한지 고 생각하세요?	- '북한이탈주 민'이라는 새 안경을 벗고 사람을 대해주 길 원함	- 남한사람이나 이 다 같은 '사람'이라 는 인식을 가 지면 차별이 없을 것 같음	- 50대 중반만 되 도 취직이 어려 워서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음 - 일자리 지원이 가장 중요함	- 안정적인 일자 리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이 필 요함	- 정책이 지금이 좋음 - 북한사람들이 문화교류도 하 고 뭐 배울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주면 좋 겠음	- 문화교실이 나 미성, 각의를 같은 그림 활 용해서 취약계 층에게 나눠주 는 방식을 할 수 있음	- 자학한 아이들 에게도 '남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을 했으 면 좋겠음	- 병원비에 현금 지원, 비보험 악일 때 본인부 담금 지원이 필 요함	- 북한이탈주민을 외국사람 취급하 면서 다문화 우대 는 해주지 않음 - 국공립 유치원 우선 추천에서 제외됨 - 다문화 수급자는 배려해주는데 북 한이탈주민은 배 제되니 억울함 때가 있음	- 일자리 지원이 필요함
9. (노동권) 일(직 장생활, 취업활 동)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가 장 큰 어려움 은 무엇인가요?	- 국비지원으로 요양보호사 자 격을 따고 나서 일을 해 아겠다는 욕심 에 무작정 병 원에 찾아가서 면접 봄	- 요양보호사 자 격을 나오니까 큰 어려움 없이 바로 취업에 성 공함	- 하나원에서 c형 간염 진단 받았 는데 메르스 때 라 다 치료를 받지 못함 - 병원 가려고 연 차를 냈더니 반 장이 시비를 질 었는데 남한 직 원이 건강검진 가고 치과간다 고 병가내니 말 없이 가라고 함	- 편견이랑 의사소 통이 어려웠음	- 연명이나 문화 차이 같은 건 다 본인 뿐이라 고 생각함	- 여자가 키도 작으니까 할 수 있겠냐고 해서 나도 할 수 있 다고 더 무거운 바스들 - 대학 나오고 자격 증 있으면 취업이 비교적 쉬우나 아 닌 사람은 같은 주방일이라도 막 일을 함	- 언어장벽, 나이 가 가장 큰 어 려움임 - 민사무소 통해서 쉬운 입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걸 또 나이가 아라서 하기가 부담스러움 - 일자리 찾는 데 어 려움이 있고 자녀 양육도 부담임	- 능력도 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있음	- 아이가 어릴 때 찬성이나 시력이 없으니 자녀 양 육 부담이 컸음 - 식당 일이나 서 빙, 공공근로 일 등, 만나려면 일 할 수 있었음	- 나이가 많으니 정직원으로 취직 하기가 어려움
10. (노동권) 충청 남도로부터 일자리 알선 등 소득활동 을 위한 경제 활동 지원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 기술에 대한 지 원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음 - 해보고 싶은 다 른 일이 있는데 돈을 벌어야 하 니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돈을 벌어야 하 니 다른 일을 해보려는 시도 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려는 기 업에서 중간관 리자에게 '직 원인식개선'을 해주면 좋겠음 - 단합회를 통해 화합할 수 있도 록 복지지원도 해주면 좋겠음	- 사람들의 편견 을 없애고 일자 리를 알선해주 면 좋겠음	- 연명이나 문화 차이 같은 건 다 본인 뿐이라 고 생각함	- '실업자 카드', '제직자 카드',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 이 꽤 많음' - 정보 제공이 필 요함	- 몸이 안좋아서 하루 종일 일을 할 수가 없음 -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면 좋 겠음	- 일자리센터에서 강의해주고 잘 해줌 - 몸이 안파라적 서 일자리센터 에서 소개 받은 적이 없음	- 공주시에 새터 민도 아니더라도 일자리가 없음 - 다른 시도는 일 자리 창출을 많 이 시도함 - 아이를 돌보며 서 일할 수 있 는 공간 제공	- 최소 월 2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이 필요함

범주	a	b	c	d	e	f	g	h	i	j
11. (진정권) 충청남도에서 정확하여 생활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	- 일 시작하고 처음 1년은 다소 번거롭고 가래 치우는 일 등이 힘들었음	- 남한 사람들이 뒤에서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있는 소리를 해서 힘들었음 - 처음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려움 없음	- 언어의사소통이 제일 어려웠음	- 의사소통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음	-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가정 소득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 안먹고 안쓰면 돈이 안나갈 줄 알았는데 그래 돈이 나다니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음 - 일 안하면 불안함	- 중국에서는 북한에 있는 자녀들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남한에 와서는 소식을 듣지 못하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 예전 살던 기억, 물건 살 때 될 모르니까 거시기도 스트레스가 있음	- 새터민이라고 하면 다르게 보는 사람들을 때론에 면접 스트레스가 있음	- 사고 당했을 때 사회적 관계만 부족해서 힘들었음 - 실업급여 타는거 공부했는데 다 이해를 못해서 2일 일에서 16만원 받고 실업급여 180만원을 분당 도해났음
12.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가정폭력,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경험이나 대처방법을 얘기해주세요.	-	- 한번은 관리자가 침대를 옮기고 해서 야근하고 옮기자고 선임에게 얘기했으니 선임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혼자 침대를 옮겼. 그러니 다음날 선임이 간부에게 자기 일을 다 했다고 말을 했음. - '누구' 때문 '에' 라는 말을 하기 싫어서 다른 이유를 대고 그 요양병원을 그만둠	- 상사가 나에게만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시비 걸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음 - 성추행은 멈추고 나가지 않으면 소리지르겠다고 해서 내보냈고 그 이후로도 찾아와서 보고 호관찰담당관에 게 연락해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음	- 한번은 조장이 휴가 앞뉘로 나에게만 야근을 시키고 남한사람에게는 야근을 시키지 않음 - 조장에게 노동법 따져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로 합부로 대하지 않았음	- 북한에선 가정폭력이 많았음 - 탈북했음	- 가정폭력은 어렸을 때 엄마가 당했고 그때 어려서 도망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음	- 당해보지 않았음	- 당해보지 않았음	- 파동림은 없었음	-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고 딸이 신고했고 저는 가출했음
13. (정책지원) 충청남도 혹은 거주하는 지역(시·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 마음에 위료가 됨	- 명절에 상품권을 주고 식사도 같이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마음도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	- 여행 프로그램 운영하면 힐링도 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데 지원금(예산)이 없어서 안되고 있음 - 그런 프로그램도 다시 운영했으면 좋겠음 - 처음에 왔을 때 정착도우미가 도움을 정말 많이 줬음	- 처음에 왔을 때 정착도우미가 도움을 정말 많이 줬음	- 청양은 조기정착이 없으니 정착이랑 할 것이 없음	- 청양은 조기정착이 없으니 정착이랑 할 것이 없음	- 혼자 있는 사람들 위해 여행 지원 필요하고 심리지원 서비스 여가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아산사에서 하는 사업은 만족함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 공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도움 이 됐다면 한두 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임	- 공주시는 별로 도움이 없음

번주	a	b	c	d	e	f	g	h	i	j
14. (정책지원)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형태는 주로 어떤가요? 가족 내 갈등 또는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 남편과 나, 딸 세식구임 - 가족간 갈등은 없음	- 혼자 살고 있음	- 한국인 남편, 딸과 살고 있음 - 가끔 딸에게 소홀해서 섭섭해서 일주일 때가 있음	- 아들이랑 북한 남편이랑 살고 있음 - 남편이 일용직 이다보니 경제적 문제로움이 좀 있음	- 아들, 딸과 살고 있음	- 엄마, 동생과 살고 있음 - 동생이 중2 사춘기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함	- 딸이랑 둘이 살고 있음	- 혼자 살고 있음	- 10살 딸이랑 북한 남편이랑 살고 있음 -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싸우게 되고 갈등 생겼으나 대화로 풀고 있음 -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음	- 중국인 남편과 딸고 살고 있음 - 중국 사람들이 못하는 나라에서 왔다고 북한 사람들을 간보는 경향이 있어 남편이 남동생을 그렇게 봐서 싸울 때가 있음
15. (정책지원) 북한 출신으로 구성된 자조모임에 참여하세요? 자조모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조모임(세터민 단체 등)이 잘 안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따로 모여본 적 없음. 하나원에 가서 홍성으로 지원해서 왔는데 그게 처음이라 고 함 - 모이면 좋을 것 같음. 군에서 그런 자리 마련 해주면 좋을 것 같음 - 보통 하나원 자기 기수만 함	- 참여하지 않음 - 자조모임하면 신작자 경험도 듣고 좋을 것 같음 - 근무표를 짜서 근무를 하니까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움	- 북한이탈주민 자조모임은 실제로 많이 없을 것 같음 - 북한이탈주민끼리 모이면 갈등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없을 것 같음 - 하나원에서 볼 수 있는 한 남한 사람들과 모이라고 조언함	- 시간적 여유가 없음	- 작년 10월까지인 봉사활동 하면서 만나고 모였는데 공간이 없어서 모임일이 없어짐 - 지원도 없고 경제적으론 어렵기도 해서 자조모임이 잘 안됨	- 가끔 신변보호 담당관이 물품도 전달하고 여행사가 생리대 전달하고 만나서 밥 먹고 차도 마심	- 한테 있으면 뒷말을 해서 나쁜 것 같음	- 생각 같아서는 모여서 북한음식도 만들어 먹고 싶었는데 살기 바빠서 포기하기 힘들	- 자조모임은 있지만 하나원 담당관이나 북한이탈주민이 나서 참석하지 않음 - 자조모임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게 싫음	- 만나면 남이 잘되는 꼴을 못보고 딸을 옮겨서 싸움이 일어나서 모임 안함
15-1. 주위에서 북한 적응을 잘한 사례가 있나요? 북한 한의 삶 경험이나 한 사회의 적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나요?	- 책임감이나 생활력있는 게 남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음		- 창엽한 사람. 석사과정 밟거나 사업하는 사람이 있음 - 술집 운영해서 돈 많이 번 사람도 있으나 돈은 벌어도 마음은 벌어도 다른 일 해보려고 돈을 함	- 북한에선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대가가 없었는데 남한에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게 됨	- 북한에서 살던 게 양향이 너무 나빠서 12살 때부터 요리를 했음 - 북한에선 하기 싫어도 엄마 성화에 했는데 딸도 요리를 하니까 북한에서 살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함	- 잘 적응한 건 저라고 생각함 -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평범하게 살고 돈이 많지 않아도 그 삶에 만족하면 거기 사는 친구들 많음 - 북한에서 나올 때 죽을 고비를 넘겨서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음	- 남한 문화, 언어가 적응하기 힘들	- 미용실 열어서 돈벌고 식당에서 돈벌어 자기 집도 산 사람들도 있음 -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배치 받은 공장에서도 일하고 마포 중구으로 넘어가서 경험이었음 - 엄마가 하던 요리장이자 도우면서 배운게 중국에서 살 때나 남한에서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음	- 집도 사고 차도 있고 딸도 대학 다니고 현금도 많이 모은 친구 있음 - 북한에서 살던 경험에서 열심히 일하는 태도가 영향을 줌 - 남한에선 일한 만큼 돌아오니 까 좋음 - 나만 열심히 하면 동장에 돈이 쌓이는데 재미있음	
16. (정책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	- 신분보호담당관이 폐지될 보내고 정보를 줌	- 신분보호담당관이 폐지될 보내고 정보를 줌	- 남한분들 중에 이탈주민에 대한 제도를 모르	- 북한이탈주민도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	- 지원제도 없음	- 지원제도 없음	- 문자를 받아도 잘 참여하지 않음	- 정착지원센터에서 문자를 보내서 잘 알려줌	- 지원제도 없음	- 잘 모름

범주	a	b	c	d	e	f	g	h	i	j
민에 대한 지원제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 세요?			는 분들이 많은 - 은행원이 '미 대행복통장'을 모름 때려 다닐 - 서류 때려 다닐 때 복잡함					- 생활품 지원해 주면 좋겠음		
17. (모성권) 임신, 출산, 신생아 건강관리 등 관련하여 어려 웠던 점이 있 나요?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병원가면 책을 줘서 어려운 건 없었음 - 아기 낳고 산후 도우미를 2주 신 청해서 왔는데 미음에 안들어서 1주일만 받음	- 해당사항 없음
18. (육아권)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 인가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어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가요?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학원에 다니지 않음 -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이가 다나기 싫다고 해서 강요하지 않고 있음	- 해당사항 없음	- 딸이 9살에 남 한에 왔는데 아 이가 놀림 받는 게 힘들었음	- 해당사항 없음	- 경제적인게 가 장 어려움 - 사교육비가 비 싸니 학원에 못 보냄 - 3학년부터는 돌봄 이 안되서 아이 혼자 집에 있음	- 딸이 9살 때 왔 는데 복원이랑 은 달라서 공부 를 도와줄 수가 없었음 - 학습지원, 학원 비 지원 해주면 좋을 것 같음
19. (교육권)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필 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세요?	- 딸이 16살에 남 한에 왔음. 이 주민센터, 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에서 한국어를 배웠음. 중국에 서 간혹대학 다 니던 애를 데려 왔는데 학력인 정받는데 시간 도 돈도 많이 들어서 초등과 장부터 검정고 시를 봄	- 해당사항 없음	- 제3국 출생아들 대학가는 문제가 제일 불편함 - 드림학교 다니 는데 3학년 진 로지도가 처음 이라 아이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음	-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고 진로 지원도 필요함 - 우리가 몰라서 아이를 도와줄 수가 없음	-	- 대학교는 학비 는 장학재단, 남북하나재단에 서 주는데 지속 가능 지원은 해 사비 지원은 해 주지 않음 - 대학교 때 주거 가 가장 큰 고 민이었음	- 학원 한군데 보 내는데 30만원이 넘으니 경제적인으 로 어려워서 학 원을 못보냄 - 학원비 지원 받 으면 좋겠고 학 습지원도 필요함	- 해당사항 없음	- 학원비 지원, 방과후 학교 수 업비 지원, 아 이들이 해마다 크니까 의류비 (신발 포함) 지 원 필요함	- 고등학교에선 교육비지원, 학 용품비, 기초가 필리니까 기초 학습 지원 해 주면 좋겠음 - 대학교는 기숙 사 우선권을 주 면 좋겠음 - 다치거나 아프 면 건강지원도 필요함
20. 탈북 이후 한 국에 입국하여 원치 않은 결혼 경험이 있으신 가요? 결혼 경 험 회귀사실은 포함는 몇 번 인가요?	- 중국에서 조선족 과 1회 결혼함	- 다른 지역에 사 는 부인이탈주민 이 중매를 해서 중국사람과 혼인 신고를 했는데 결혼사기를 당한 것 같음 - 지금은 혼인관 제무효 시키려 고 하고 있음	- 중국에서 원치않 는 1회 결혼함	- 없음	- 중국에서 원치 않는 결혼 1회 했음 - 술주정뱅이인데 다 의처증이 있 아서 한국에서 1년만 만에 이 혼했음	- 미혼임	- 중국에서 원치 않는 결혼 1회 했음	- 중국에서 원치 않는 결혼 1회 했음	- 중국에서 1회 원치 않는 결 혼 했음	- 중국에서 1회 했음 - 아이한테 친아 빠가 나를 것 같아서 중국 남 편과 살고 있음

부록 4. 주요 회의록



충청남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 착수보고회

회의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0.05.18.(목) 14:00~16:00
- 장 소 : 충청남도청 중회의실(510호)
- 참석자 : 도 인권위원, 자문단(당사자, 도의원, 인권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 관련 연구자, 공무원 등), 연구진

■ 회의결과

- 의견 - 조사과정
 - 조사원들에 대한 인권감수성 교육 필요
 - 조사대상자 오염의 문제 보정되어야 함
 - (대면조사) 신뢰구축이 관건
 - 북한이탈 여성의 경우 중첩된 모순을 지니고 있어 속 얘기를 끌어낼 수 없어 인터뷰 어려움
 - 표본 추출시 지역별 거주비율, 연령(시군별), 정착기간을 고려
 - 조사원의 책임성 필요함
- 의견 - 조사문항 (반영예정임)
 - 사회적 배제 관점 반영한 조사문항과 정책도출관점(충남도 권익보호팀, 인권팀, 남북교류팀)의 문항 구성
 - 실생활에서의 차별(일터에서의 배제, 배우자 선택에서의 배제, 가정생활의 배제, 구직 활동으로부터 배제 등) 인터뷰 후 조사문항 구성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서 대처방법 문항
 - 설문항목 중 ‘사회권’을 ‘고용·노동권’으로 변경 건의
 - 생애주기별 욕구파악
 - 일반적 특성에 입국당시 가족동반(자녀, 배우자), 혼자 여부 문항, 강제결혼, 결혼경험횟수 등 추가 의견
 - 일반적 특성에 북한에서의 학력, 남한에서의 학력에 대한 설문 추가 의견 (착수자료에 포함됨)

- 고용·노동권(일터에서의 차별-남한사람 보다 임금 적게 받는지 여부), 참정권도 포함
- 이웃주민으로부터 차별(북한이탈 주민임을 드러내고 있는지 여부)
- 정착과정에서 결혼 사기, 취업 사기, 다단계 사기를 당한 경험 여부
- 제3국 경유국가 여부(중국 경유시 중국에서 결혼하고 남편을 데려오는 경우 많음), 제3국 경유기간과 직행 기간
- 거주지역이 농촌, 도시인지 여부(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을 위해 도시지역 거주를 원함)
- 자립 등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문항
- ※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립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나’, ‘당장 필요한 게 어떤 사업인가’
- 가정폭력, 성폭력의 대처방법
- 가족의 유형(3~4유형임), 가족 내 갈등, 갈등 해소대책
- 유흥업소에서의 유입 이유
- 인권의식 (차별, 배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 정책연도별로 차별에 노출된 경험, 직장내 차별, 정착지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문항
- 직장이나 이웃에서 겪는 차별에 초점을 둔 조사
- 당사자에게 지자체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제도적 배제)
- 지자체 사업이 자립에 도움이 되는가?
- 자조모임 중요함. 자조모임 필요성 질문
- 남한 적응을 잘한 사례, 북한의 삶 경험이 남한사회의 적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질문 (인터뷰)
- 한국에서 전문교육(학력) 질문

○ 의견 - 기 타 (반영예정임)

- 젠더관점, 사회적 배제 관점은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을 다차원적 접근가능 하므로 방법론적으로 적정함
- 조사결과 분석시 지역, 연령별, 가족유형별, 거주 기간(5년, 10년, 10년이상), 북한에서의 거주 지역, 제3국 경유기간 등 에 대한 교차 분석
- 15개 시·군 연령표 삽입(착수보고자료에 포함)을 통한 충남특성에 맞는 정책제언
- 북한이탈여성의 욕구파악(드러나지 않는 차별)을 위해 알기 쉬운 용어로 문항 구성
- 조사샘플 선정시 연령, 지역, 결혼 유무 등을 고려해서 샘플링
- 정책 제언시 자녀포함가족은 ‘도심에서 가까운 쪽으로 주거시설 배정’ 필요
- 정착지원을 1년이든 연장해서라도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교육 필요
- 정책적 관점의 경우 관련 부서(권익보호팀, 인권팀, 남북교류팀)에 정책 제안, 지원정책은 “자립”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정책제언시 ‘가족단위 정책 지원’ 필요
- 15개 시·군의 정책사업 검토를 통하여 자립의 방향과 맞는지 검토 필요
- 정책제언시 인권관점에서 명칭 사용
- 북한이탈주민 상담자료(문헌자료)도 검토하여 보고서에 보충

다. 관련사진



충청남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 2차 연구진 회의

회의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0.05.22.(금) 13:50~15:15
- 장 소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동 회의실
- 참석자 : 연구진

■ 회의안건

- 착수보고회 결과 공유
- 조사범주, 조사문항
- 향후 일정 및 역할분담

■ 회의결과

- 조사 대상의 연령은 만 19세 이상으로 하기로 함
- ‘모성권’은 충남에서의 임신·출산 경험여부를 묻기로 논의
- ‘육아권’에서 신생아 양육매뉴얼 지원 삭제, 유치원 적응도 삭제, 자녀의 돌봄 관련하여 혼자 지내는 정도 문항 제시
- ‘표현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로 변경하고, 참정권에 대한 문항 추가
- ‘자녀의 교육권’은 당사자 본인의 재학여부 문항 추가, 인터뷰에서 주거시설 배정 추가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에서 주거형태 삭제, 주거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인터뷰에 추가
-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성별, 거주기간별 내용은 일반적 특성에서 드러나므로 조사 후 분석시 반영 예정
-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크게 가정, 직장, 일상생활에서의 차별로 구분
- ‘고용노동권’ 은 ‘노동권’ 으로 변경
- ‘고용노동권’ 현재 취업여부, 현재 종사상 지위(정규직/비정규직), 임금수준 외에 삭제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기피해 경험여부 문항 추가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터뷰에 유흥업소 유입이유 추가
- ‘건강권’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인터뷰에 추가
- ‘인권의식’ 정보습득경로 삭제
- ‘정책욕구’ 자조모임의 필요성 문항 추가



충청남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 3차 연구진 회의

회의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0.05.29.(금) 10:25~13:30
- 장 소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동 회의실
- 참석자 : 공동연구진 4명

■ 회의안건

- 인권분야별 양적 조사문항 검토 및 토의
- 향후 일정 및 역할분담

■ 회의결과

- ‘모성권’ 은 충남에서의 문항 내 선택지를 추가
- ‘육아권’ 에서 #3 어린이집, 유치원 보기 삭제
-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 #4 문장을 쉽게 풀어쓰기로 함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에서 주거형태 삭제, 주거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인터뷰에 추가
-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1 차별의 내용을 문장으로 변경

-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2-1 부당함을 ‘승진, 임금 등 차별, 무시, 성희롱 등과 같은 부당한 대우’로 수정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폭력의 유형 제시를 통해 인권의 내용을 알려줌



충청남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 당사자 자문

회의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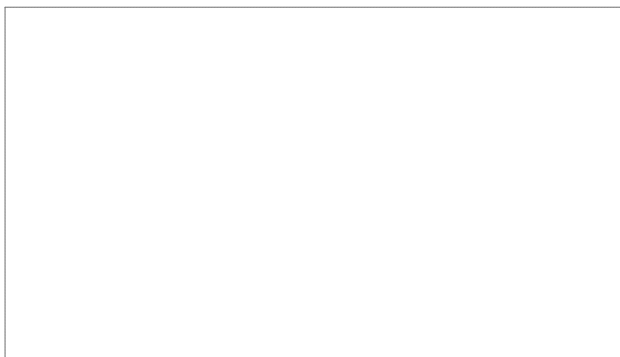
■ 회의개요

- 일 시 : 2020.06.03.(수) 10:30~12:00
- 장 소 : 충청남도청 소회의실(407호)
- 참석자 : 공동연구진 3인, 당사자 1인

■ 회의결과

- 해당자만 응답할 수 있는 모성권, 육아권, 교육권의 설문지 배치 조정의 필요성
- 일반적 특성 배치는 설문지 앞쪽보다 뒷부분으로 배치
- p10 북한 관련 문항은 늘리지 않도록 추천
- p8 ‘사생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개념 추가나 조사원의 설명이 필요함
- p8 #7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에 대한 설명 추가
- p9 #5 ‘동등한 대우’를 ‘차별받지 않고’로 변경 필요
- p13 #2-2 ‘지위’를 ‘어떤 형태의 노동자였습니까’로 변경
- p20 #2 경제교육, 범죄예방 교육, 민주시민교육 추가
- p21 남한 주민이 포함된 모임 참여 여부 문항 추가

■ 관련사진





충청남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 현장전문가 자문

회의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0.06.04.(목) 13:00~15:20
- 장 소 : 충남하나센터 회의실
- 참석자 : 공동연구진 3인, 충남하나센터 4인

■ 회의결과

- 표본할당을 위한 논의
- 충남내 북한이탈여성의 수가 많은 천안시(60), 아산시(60), 서산시(40), 당진시(20), 보령시(20)에서 양적조사를 실시
- 질적조사는 북한이탈여성의 인구가 가장 많은 천안시, 아산시에서 2명씩, 양적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 중 북한이탈여성의 수가 많은 공주시, 부여군, 홍성군에서 2명씩을 추천받아 실시하기로 논의함
- 설문지 연구전문가 자문, 자문단 자문을 거쳐 확정된 후 조사원 교육을 실시
- 양적 조사시 조사원 역할을 할 상담사 중 남성상담사는 배제해야한다는 의견
- p5 #2-1 선택지에 ‘한국말을 잘 몰라서’ 추가
- p7 #4 ‘어느 지역에 살고 싶으신가요?’ 로 수정
- p8 #7 ‘영구임대주택’ 을 ‘임대주택’ 으로 수정
- p10 #5 보기에 ‘장사’ 추가
- p10 #7 보기를 쉽게 쓰고 모두 선택하도록 변경
- p10 #8 ①선택시 바로 직행기간 적도록 수정
- p11 #8-3 ‘가장 오래 살았던 제3국 체류기간’ 으로 수정
- p11 #16 ③ ‘다른 제3국 체류시’ 를 ‘(중국 외) 다른 나라 체류시로 수정
- p12 #18 직업에서 공무원 삭제
- p12~13 노동권 문항을 줄이자는 의견
- p17 #5, p19 #4의 보기를 쉽게 풀어야한다는 의견
- 양적조사에서 개방형 질문은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의견

■ 관련 사진



충청남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 조사원교육

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06.25.(목) 13:00~15:00
- 장 소 : 충남하나센터 회의실
- 참석자 : 공동연구진 2인, 충남하나센터 2인, 조사원 5인

■ 회의 결과

- 충남 내 북한이탈여성의 수가 많은 천안시(60), 아산시(60), 서산시(40), 당진시(20), 보령시(20)에서 양적조사를 실시
- 다섯개 지역에서 양적조사 실시 후 8월 첫째주까지 설문지를 받기로 함.
- 확정 후 인쇄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

■ 관련 사진





충청남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 4차 연구진 회의

회 의 결 과 보 고

■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09.09.(수) 13:00~1:30
- 장 소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동 회의실
- 참석자 : 공동연구진 4명

■ 회 의 결 과

- 양적조사, 질적조사 결과 검토결과 그래프 2가지 추가 의견 있었음
- 1차 중간보고회 이후 인권영역별로 3개 이상의 사업을 제안하기로 함
- 설문지 작성 당시 나뉘던 것과 같이 모성권~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는 송미영 책임연구원이, 노동권~정책지원은 우복남 공동연구원이, 전체에 대하여 김혜영 공동연구원이 사업과제를 제안하기로 함
- 2차 중간보고회 이후 담당부서 협의 및 자문단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로 함



충청남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 1차 중간보고회

회의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0.09.17.(목) 14:00~16:15
- 장 소 : 충청남도청 중회의실(510호)
- 참석자 : 도 인권위원, 자문단(당사자, 도의원, 인권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 관련 연구자, 공무원 등), 연구진 등 17명

■ 회의결과

- 인권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자조모임 공간 부족, 동료 상담원(진로진학 상담사) 양성 필요성
- 당사자끼리 멘토링하는 사업이 필요함, 학교 밖 북한이탈여성 자녀에 대한 정책 필요
- 1차 중간보고서를 통해 북한이탈여성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에 대해 처음 알게됨
- 가족통합서비스나 동료상담원을 15개 시·군에 파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임. 경제적 자립지원, 심리지원의 필요성 또한 있음
- 좀 더 장기적인 정착지원의 필요성 있음
- 일방적인 지원보다 북한이탈여성들이 참여하는 방향의 프로그램 필요

■ 관련사진





충청남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 5차 연구진 회의

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10.16.(금) 14:00~18:05
- 장 소 : 충남 인권센터
- 참석자 : 공동연구진 4명

■ 회의 안건

- 인권분야별 세부사업 검토
- 인권영역 통합 등 검토
- 사업 양식 검토
- 향후 일정 논의

■ 회의 결과

- 인권영역별로 세부사업을 제안하되 세부예산은 제외하기로 함
- 추진체계에서 주관부서 제외하고 나머지 민관기관, 단체 작성
- 사업명은 구체적으로 작성



충청남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 2차 중간보고회

회의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0.10.27.(화) 09:30~10:30
- 장 소 : 충청남도청 중회의실(510호)
- 참석자 : 도 인권위원, 자문단(당사자, 인권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 공무원 등), 연구진 등 14명

■ 회의결과

- 인권영역별 세부과제 중 교육권 3-1, 3-2 추진과제 주요사업부서 수정의견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지역별로 추진했을 때 실효성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음
- 충남도 인권기본조례 2차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검토 필요성
- 폭력예방교육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한다면 큰 무리는 없음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중 세부과제 8-2에서 가정 내 폭력 발생 원인 2순위가 ‘성격문제’ 이므로 부부상담 관련 보완이 필요
- 동료상담원(통합지도사) 양성 및 파견 사업의 중요성이 있음
- 11-1과 6-1 과제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북한이탈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칭 ‘공공서비스북’ 을 만들어 인권매뉴얼 제작·배포 시 함께 배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정보제공 자체가 자원 연계이므로 사례 관리의 중요성이 있음
- 단발적 사업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 사진





충청남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 6차 연구진 회의

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11.10.(화) 13:05~15:45
- 장 소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동 회의실
- 참석자 : 공동연구진 4명, 남북교류팀 2명

■ 회의 안건

- 인권분야별 세부사업 타당성 검토
- 사업 우선순위 토의
- 최종보고서 검토 및 2차 중간보고회 결과 논의

■ 회의 결과

- 육아권 중 2-3 세부사업 추진체계 추가
- 교육권 3-2 세부사업은 북한이탈여성 상담원의 전문성을 키워서 종합적으로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 정보를 전달하도록 동료상담원 양성 및 파견으로 변경
- 교육권 중 3-3 세부사업인 대학생 자녀 월세비 지원보다 현실적인 서울 충남학사나 대전 충남학사 우선권 부여로 변경하고, 지역장학재단 연결 등 보완
- 교육권 중 2차 중간보고서의 ‘공립 각종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 사업은 보고서에 포함
- 노동권 중 7-3에 추진체계 추가
- 건강권 중 9-5 사업에 이견은 있으나 타 지자체에서 1년 정도 취약계층에게 지원한 예가 있음
- 2차 중간보고회 서면자문 결과 성평등 및 인권의식 영역의 10-1 사업명에 “젠더인권감수성” 변경 의견이 있었으나 어감과 이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여성인권감수성”으로 유지
- 사회인식 영역 11-1 사업의 추진체계 추가 의견 있음
- 인권 영역별 정책 우선순위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노동권, 건강권으로 의견을 모음
- 자립지원정책 영역 사업에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사업” 추가 의견



충청남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 최종보고회

회의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0.11.17.(화) 13:30~15:00
- 장 소 : 충청남도청 중회의실(510호)
- 참석자 : 도 인권위원, 자문단(당사자, 인권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 공무원 등), 연구진, 관련 공무원 등 16명

■ 회의결과

- ‘실태조사’ 자체에도 의의가 있고 ‘정책 반영’도 의의가 있음
-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얻었으니 다양한 의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p212 ‘우선’ 추진영역이라는 용어가 많은 사업과제 중 4가지 인권영역만 추진하겠다는 의미인지 모호하므로 용어 변경이나 설명 추가 필요
- 우선 추진 영역에 육아권, 교육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추가 의견
- 3-3 동료상담원 양성 및 파견 사업 구분 변경 의견
- ‘11-1 농어촌지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해소사업 실시’ 사업추진방식 추가 의견
- 인권영역별 세부과제 재배치 의견

■ 관련사진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실태조사

책임연구원 송 미 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우 복 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혜 영 (충남인권센터장)
위촉연구원 윤 이 나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석사 수료)

발 행 인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발 행 일 2020년 11월

발 행 처 충청남도청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 화 041-120

인 쇄 향기획 (041) 855-1630

I S B N 978-89-97247-25-7
